

2006년 겨울 反성매매 세미나 커리큘럼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학생회

2006 겨울 **反성매매** 세미나 커리큘럼

♀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 연미애
 <세수영리와의 이야기> 1장, 한국 성매매 상담소

♀ 성매매에 대해 말할 자격 / 하이퍼문, 연미애

♀ 세수영리와의 매춘화 / 개울천 배미

1장 세수영리와의 매춘화

2장 성적 권력

4장 성의 산업화

7장 인간과 천지구착한 여성주의 행동

♀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정희진

<한국여성인권운동사> 5장, 한국여성인권화연합

♀ 동맹국의 섹스 / 개울천 H.O. 문

1장 매매국의 파트너들

2장 국가기권 관계와 여성

♀ 용감한 여성들, 낙대를 하고 달리는 / 박달배수의 집

낙대를 하고 달리는 여성들과 함께/ 연미애

"갈보" 혹은 "성노동자"의 인권론/ 앞날미

어떤 역사: 성매매지역 여성들의 자치조직, 개울천 배미 / 앞날미

♀ 매춘여성운동사/ 민경자

<한국여성인권운동사> 4장, 한국여성인권화연합

♀ 성매매특별법 특집 "살얼음판을 걷는 여자들" / 연미애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을 돌아보다/ 하이퍼문, 성지

보상을 건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 / 시라

성매매 방지법, 여성들간의 차이와 여성주의 정치학 / 배두서

ACTION NOW! 살얼음판에 얼음을 띄우자 / 고동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1.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존재하다가 한 번의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전부하의 만능 놀 '문제'가 되고 있다. 존재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찌겠냐"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를.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¹⁾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

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마젤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포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물이 커진 사창가뿐 아니라 이빨소여온, 목욕탕, 술집, 산, 고속도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무명을 열면 가지온 골목마다 펼쳐진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빗과 착취의 눈, 인신 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죄수를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산중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현재점을 짚은 듯 새로운 자극과 쾌乐的 방식을 찾기시키는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매책에서도 성을 끼워 한다.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보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을 집합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이 온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태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문성에 등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춘'이 아닌 '바위 기르기'의 범주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세속적이고 규율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avage, 1989, 100-101쪽).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적합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들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결론들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빈약한 성과학자나 범죄심리학자는 그 답을 매춘부들의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특성에서 찾았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매춘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야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

1) 용어 읽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猥入), 음락(淫樂),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買買春), 매매음(買買淫)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룬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²⁾ 따라서 우리가 기존

2) 예를 들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가는 역사적 의미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폭동, 광주 시위 등으로 불렸던 사대에 그 의미에 대

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음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파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음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비난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음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음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알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음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파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깨닫지 못할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음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퍼(L. Shapiro, 198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

한 개념이 무엇이 중요했고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 목표로 나타났듯이, '성매매'의 용어 또한 현재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買買春)'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때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굳이 '춘(春)'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春'자는 춘락(春樂), 피춘(皮春)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불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을 봄에 비유하게 되었을까? 춘정(春情),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보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박을 퍼주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품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생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생산업 중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하고 싶다.³⁾ 앞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자체로 기존의 인식을 깨는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환상 벗기

가. 성매매는 성욕해를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욕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발기된 성욕을 해소하는 장치(裝置)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적 행위의 한 측면으로만 파악되고, 남성의 성충동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상의 문제는 성매매를 단지 생물학적인 결정 요인만으로 설명하고 성매매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를 무시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다른 사악한 욕구들(예를 들어 살인, 지배, 폭력의 욕구 등)을 욕구 자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성매매에 대한 욕구 역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그 역기능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식욕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필연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

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산업 종사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차이로 '매춘 여성·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앞서 말한 정치적 의미를 다화시키지만, '생산업 종사자'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란 말을 사용하면 의미는 잘 전달되나 시골적이고 너무 많이 지칭어로 쓰이기 싫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어가 고쳐지길 바라는 어느 정도 모순적이지는 해도 매춘 여성 또는 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매춘 여성에 대비되는 말로 성을 사는 '매춘 남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공간에서 손님과 종사자 간의 관계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를 함께 고민해 보자.

에 대해 페이트만(C. Peleman, 1988, 197-199쪽)은 음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세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편견을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성매매가 성욕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욕의 발생 비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통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욕의 비율은 성매매가 적은 국가에 비해 당연히 낮게 나타나야 할 터니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그 반대이다. 범죄적인 측면이 아니라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욕의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성매매가 성욕을 예방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성매매와 성욕의 발생하는 원인을 모른 채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욕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된 여성의 몸매 쉽게 접근하는 경향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향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욕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성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S. Wymer, 1992, 269쪽).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안드레아 드리히, 1989)이라면,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 게임'이 되는 셈이다.

것이며 이는 곧 막대한 국가 인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성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여성 노동력의 유출, 인력 수급의 불균형, 재사회화 비용, 생명 및 에이즈, 가치관의 혼돈 등——을 사회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성산업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산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에서 '잃어버린 폭'의 역할을 한다.

최근 성산업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각국에서는 '성산업 없이도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다.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성매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하며 고개를 돌려 버린다. 도대체 왜 성매매에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창가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한 경찰관은 이런 말도 한다. "스스로 자기를 상품화해 가지고……, 어느 문호에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한다. 그런 말을 제가 언제 믿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엔 그런 욕구를 생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⁴⁾

4) 한편, 사람들은 성매매를 해결 없이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세스 프로세스(Sex Act)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상호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물질적인 공간 관계를 매개로 상대를 일탈적으로 지배/피지배하는 구조를 갖는 일탈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남성의 만족을 위해 여성의 몸이 일탈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며, 여기서 매춘부의 쾌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와 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5) 사회 제언을 위하여, 1992, 56-57쪽. 서울 30 지역의 사창가 주변에 있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경찰의 말이다. 그는 범죄적 사창가가 얼마나 한국의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장모'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특히 일본인에게 관광 정보가 담긴 것

나,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관광, 태국의 매춘 관광, 어떤이 매춘 등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개발 국가의 경우, 그 사회가 지르는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태국의 경우 세스 관광으로 국내 성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남성들은 매사로 사창가를 찾는 문화가 만연되었다. 또한 국내 성산업의 발전은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 여성의 유입을 증가시켰다.

특히 에이즈는 전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성산업 중심의 관광 산업 발전으로 사창가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디에서나 에이즈가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아무 학교 학생에게나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나고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태국은 성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성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죽음과 관계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성산업, 성매매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할라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령층이 20대 또는 10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여성들은 기술이나 다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 또는 비슷한 업종에 어부지름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매매가 할라 산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산업 종사자들은 할라 산업을 통해 알코올, 마약, 약물, 노름 따위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들을 건장한 사회인으로 치료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사회 비용 또한 엄청나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된 폐인이거나 병자로 남게 되는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매춘 여성들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쾌락을 얻는 존재가 되고 만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므로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는 또한 그 자체로 선택되어 버린 것이 된다.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사람은 인격도 최소한의 시민권도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매춘 여성은 강도나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도 "한 번 당하나 여러 번 당하나 상관없을 텐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고까지 하느냐"고 경찰로부터 모욕을 받는다.⁵⁾

매춘 여성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는가? 매춘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성매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매춘 여성들에게로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착취 등의 인권 문제도, 모두 다 매춘 여성의 피착취인 위임으로 인해 '선택'된 것이라는 논리다. 성매매에서 여성의 자발성 논의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매춘 여성의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구성하는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춘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성들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 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매춘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만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특정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사회 조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결정을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한데,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여성의 실제, 성매매

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6) 사회 제언을 위하여, 1997, 76쪽.

의 실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부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는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이나 그로 인한 가난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 특히 가난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깊은 늪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성매매에는 팔릴 수 있는 여성의 몸이 있다는 사실과 설명에 따른 부(富)의 불균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가 축적되면 성산업이 팽창하고 성매매가 증가한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직업보다 수입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불황일 때 매춘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릴 때 성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가 위축되고 IMF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이 늘어났다. 여성들은 일차적인 감원 대상이 되어 노동 시장에서 퇴장당했다. 신문에는 '경제형 매춘'의 증가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전국 시장가의 보건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관리자는 "현재 시장가는 성을 사는 사람보다 팔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경제 위기의 실태를 설명했다. 전성중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듯 경제가 호황일 때 온갖 종류의 성산업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성산업으로서 여성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혜택의 첫 번째 대상이 남성이며, 피해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부와 여성의 부가 갖는 상관성은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 부의 정도와 성매매 발생의 상관성이 적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매춘 여성이 개인적으로는 가정 폭력, 가난, 공간 등으로 몰려갈 가족이 없거나 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유입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매춘 여성은 대안이 있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성매매의 구조이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가동 서판, 포주, 압선자들에 의해 사회적 존제나 빚, 폭력으로 얽매어 있는데 특히 포주에 의해 통제되어 오랜 시간 성적으로 이용되는 매춘 여성은 자포자기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여성이 매춘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폭력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성산업의 구조 속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닌가의 논리는 성매매 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노예 노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가 스스로 노예 되기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예제는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위반이다. 특히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노예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억압적 이해충돌기를 내면화했을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의 자발성으로 노예 제도가 옹호될 수 없듯이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가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일'이라고 여기는지 간에,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과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생산 중심의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면 성매매는 여성과 다른 노동과 차별성을 갖기보다는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개념에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 '직업'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등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목적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노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예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처럼 매춘 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일금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살펴보자.

1) 몸매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최대 지불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최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제위, 콘돐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선택권의 조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매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춘 여성은 콘돐 사용을 거부하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임으로써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력하게 노출되고 있다. 매춘 여성이 콘돐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돐 기피로 인해 매춘 여성 가운데 14%만 콘돐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3, 54쪽). 그러나 남성 손님이 성매매에서 콘돐을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콘돐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남성 손님이 결정하고 매춘 여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춘 여성이 단순히 제한된 '성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매 대한 보호권을 전적으로 남성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콘돐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은 최대 지불을 빚으로 굴욕적인 성취나 폭력 따위를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주나 포주가 매춘 여성의 최대를 직접 분배하는 경우 업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최대를 못 받을 때는 매춘 여성 자신이 포주나 벨프에게 분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를 받기 위해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흔히 매춘 여성에게 '매춘(賣春)'은 단지 신체와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 여성이 자신과 상품화된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손님'으로, 성행위를 돈을 받는 '일'로 취급하려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제한과 굴기(屈起)를 들어 키스 거부, 굴욕적인 제위 거부 등을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경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 여성은 최대를 받지 못한 '강간' 때문에 이러한 굴기를 지킬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덜'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한·금기의 장치가 파괴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훼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때론 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제한이나 금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많은 화대로 또는 위협적인 목적으로 금기나 제한을 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때론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화대로 보상이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조차 그것이 대가가 '지불된 것'이면 '성매매'의 성적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화대로나 그 사용은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매매의 문제는 매월이나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임의로 일정 기간 사용(폭행을 하거나 사용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등)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도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케페스(Dr. Kepes)는 신체가 인간 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이는 알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신체에 자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뺏고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성매매 행위는 때론 여성이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 단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기본권에 의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임의대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간의 특성과 같은 것인데, 때론 여성에게 강간이나 폭력은 '화대 지불'의 유무에서 차이가 날 뿐 성매매 행위

의 연속선상에 있다.

때론 여성들은 성폭력을 강제적인 성행위 후 '돈을 못 받는 경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매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인데, 성매매와 강간은 '행위'가 아닌 화대 지불의 유무로 구별될 뿐, 남성이 사는 성은 비인간화된 육체인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강간의 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⁸⁾

한편 성매매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용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 '성기'라는 점에서 훨씬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만약 성매매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때론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현재와 같은 무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기 접촉을 비롯한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 놓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필요로 하는 성행위는 생물학적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성기 접촉'에 있지 않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와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때론 여성의 연령과 수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⁹⁾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 사용만이 요구되는 행위라면 때론 여성의 나이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산업에서 업주나 남성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이를 사용하는 성적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왜 과학적 심리를 포함하게 되는지를 살펴

7) '화대 지불'이 매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때론 여성적 기술사를 보면 이들은 강간을 단지 '남성이 성행위 하려 화대 지불을 거부하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Barry, 1993, 36-38쪽).
8)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때론 여성이 열어줄지는 수입은 다른 지출과는 달리 변별이 있을수록, 성매매 산업에 오래 있을수록 현재의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호, 1994, 43쪽). 때론 여성의 수입은 성매매의 유형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매춘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남성의 성적 서비스 '대당'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대가 넘으면 흔히 '퇴짜'라고 불리면서 상품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7) Suzanne Kepes(1991), 'The Representat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es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61, Barry, 1993, 27쪽 제1단.

보자.

때론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놀이의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모든 과학적 행위는 '화대 지불'로 무아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술자리를 중시하는 직업 문화, 군대 문화가 일반화된 남성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여기서 성매매는 남성이 남성성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성교'가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때론 여성은 남성의 유용과 권위를 돋우기 위한 오락물로 전락하고 남성은 자신의 권력(위압, 돈 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지배를 즐긴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이며 여성의 몸, 몸짓이다. 따라서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때론 여성에게 요구하는 비합리적 행위들은 의도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매매는 이러한 남성의 과학적 심리가 내재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고 때론 여성은 화대 지불을 대가로 자아를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일정 시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 비하에 있는 한, 때론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가해지는 남성 손님의 폭력은 소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는 권력 관계에서 때론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¹⁰⁾이 전제되어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권력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성적과 때론 여성과 삶의 유형을 구성한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이유는 익명의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는 음성의 상태로 존존·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립화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매력을 자극하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현상은 때론 여성의 잦은 이동을 유발한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동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끊임없이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때론 여성은 현재 일차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성과 때론 여성의 잦은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산업의 업주가 남성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때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익명의 공간에서 남성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성매매와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그들이 유지해 온 정체성에서의 분리는 성매매 세계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 때론 여성 개인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낙인을 의식하고 자신이 익명으로 성산업의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때론 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거주지나 업소 등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흔히 처녀 보호령이나 자신의 신분은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기피하고, 익명적 공간인 성매매의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한다.

그들은 업주나 알선자들이 만들어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건증을 사용하고 가면을 사용하여 요구에 따라 유용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의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 공간에는 성적 대상으로서 가장된 여성의 경제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여부가 된다. 매춘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¹⁰⁾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매춘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족과 손질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¹¹⁾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앞선자들과 쉽게 친밀감을 가지는 여부가 되고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에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매춘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 하는 전략을 취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매춘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 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포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익명적 공간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자신의 경제성을 잃게 되고 과거와 경제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과 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산업의 역사사슬 : 성매매와 성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알선 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춘 여성이 남성 손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은 포주로부터 통솔을,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남성 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소나 보도 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매춘 여성이 생활하는 형태는 나이와 경력, 미모, 강제성 등에 따라 갈급 형식에서, 숙식하는 여성, 출퇴근하는 여성,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하다. 여성이 이들 업소에서 인신 매매나 갈급에 의해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통제와 착취는 극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매춘 여성 개인에게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성산업은 여성을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묶어내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매춘 여성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춘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매춘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파대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나 업소에서 부과하는 벌금,¹²⁾

12) 예를 들어 몇몇 다방의 경우, 여성과 다방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이

10) 매춘 여성 대부분에게(94%) 가족 생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매춘여성, 1994, 44쪽), 이러한 경험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활동가 74%가 조사에 따르면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집안을 경험한 매춘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친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고용개선연습회 조사에 따르면, 매춘 여성의 가족 동거 중 39%가 돈을 벌기 위해 서었고, 남가 원주로부터 손질 상납이나 근친 강간 또는 강간이 34%에 이르렀으며, 가정 폭력은 30%로 나타났다(김기원, 1994, 104쪽). 이와 같이 가족한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을 착취하는 성산업의 착취 구조 가운데 하나인 '속지 계급'은 여전히 중요한 여부가 되고 있다.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비가시적인 착취 형식을 갖는다. 또한 업주와 알선 업자가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훨씬 쉽게 하는 것은 빚과 그에 따르는 이자이다. 매춘 여성들이 빚을 지는 첫번째 이유는 가족 등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빚은 이통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포주나 업주 등이 이들에게 쉽게 빚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춘 여성들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커다란 구속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돈을 단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은 탈매춘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을 빚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빚이란 매춘 여성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업주가 매춘 여성을 효율적으로 묶어 놓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¹³⁾

(그 동안 돈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아? 몸값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겠? 거긴 돈 못 모아, 모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빚을 지게 되거든. 집 나 온 새들이 뭐가 있어. 빈 몸뿐이지. 방세, 가구, 옷…… 다 빚이지. 매달 이자 들어야지. 빚에 묶여 있어 완전히 매인 몸이니 주인이 매달 따라다니는 거지. 그걸 나 누가 주인한테 따져 따지긴, 빚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¹⁴⁾

거긴 동안 여성이 하루 평균할 경우 13~20만 원을 벌어나가 한다. 업주와 계약한 월급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던, 성실한 사람이라도 15시간으로 4~5호 11인의 노동을 30일 동안 하기는 힘들다. 특히 아르바이트 이용설, 폭력상을 가가 하는 등 개인적인 사건을 내리면 대가를 저가하고,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이 3~4일은 대가를 지르고 쓴다(김기원, 1997, 45쪽).

13) 한 현장 활동가(34세)에서 7년 동안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해 온 30대 중반의 여성 '다'에 따르면,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매춘 여성과 서로 '연대 보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빚이 많아서 도망을 치게 되면 연대 보증을 한 여성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업주는 돈을 벌 때 큰 비용으로 보통 하루당 10만 원 이상의 빚을 부과한다고 한다.

14)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에서 마부살이를 하다

빚은 여성을 자발적으로 성산업 공간에 묶어 두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장치일 뿐 아니라, 갈급이나 업주간의 인신 매매 같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소개업자의 말을 들어 보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별명이 '말라'라는 아가씨였는데, 노름에 빠진 거야. 노름에 빠지니깐 파곤해서 다방에도 잘 못 나가고, 일을 못 나가니까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지. 노름빚에, 다방 주인에게 말라 쓴 돈 있지, 일 한 나가서 소개소에도 빚이 있지……. 해서 7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야. 그런데 도망을 간 거야. 매들을 몰아서 찾게 했지. 한 달 만에 찾았어. 찾아 놓고 보니 안됐더라. 근데 어떡해? 빚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강제로 00에 갖다 주었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의 경우는 거의 갈급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곳은 아가씨들이 많이 팔려거든……. 그렇게 도망진 아이를 잡아 온 경우에는 소개업자가 화가 나서 화물어로 '너 한번 고생 좀 해라'고 미치게 돈을 붙여 넣기지.¹⁵⁾

빚 때문에 산간 벽지나 섬으로 매매된 여성의 경우 탈매춘은 거의 불가능한데, 팔려 온 가격에 빚이 되어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곳의 경찰과 지방 유지들이 결탁해 있어 탈출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 매매나 빚에 의한 갈급과 같은 생활은 매춘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구조들이며 이러한 폭력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성매매 시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매춘 여성은 더 많은 빚을

지 갚아주는 구조를 갖는다. 현장 활동가(34세)에 따르면, 시장가, 유흥 업소를 거치면서 에이전트 갈급이 많다. 사례 제언(김기원, 1997, 44쪽).

15)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정 폭력으로 고용하고 매가 붙어 빚이 지게 되어서 유흥 업소, 몇몇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들 업소에 여성을 알선해 주는 직업 소개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례 제언(김기원, 1997, 45쪽).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¹⁶⁾ 이는 생산업의 구조가 얼마나 확립적 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빗과 그 이자는 그 자체로 확립적일 뿐 아니라 매춘 여성을 강제하고 탈매춘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예화 하는 가장 극악한 수단인 것이다.

매춘 여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하는 집단은 포주나 업주, 알 선업자 등에 국한되지만 매춘 여성의 존재와 수입에 기생하여 이를 착취하는 집단은 유흥업소의 마담이나 웨이터에서 주변의 시장, 목욕탕, 옷가게, 화장물 가게, 세탁소, 학과, 미용실, 음식점, 포장마차, 커피숍이나 카페, 호텔, 여관에서 잠집, 여행사, 주택, 택시, 고리 대금 업자들까지 확장된다. 한편 매춘 여성들의 수입에 공생하는 집단은 범죄 조직뿐 아니라 경찰, 구청 직원, 보건소 등으로 이들에게 포주 등이 상납하는 돈은 매춘 여성의 부재로 돌아온다. 이들은 매춘 여성이 생산업에 이용되는 데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 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 데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매춘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부추기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쉽게 생산업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고리 대금 업자나 소비를 부추기는 이들 주변의 상권은 여성의 경제성을 더욱 소비적인 성향으로 길들여 실제 다른 경제적 대안이 없는 그들을 묶어 놓는 역할을 한다. 매춘 여성이 일단 생산업 시장에서 붕괴되는 씀씀이에 길들여지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매춘 여성은 유흥업소, 시장가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업의 특성상 마약이나 약물¹⁷⁾뿐 아니라 노름이나 술을 쉽게 접하고 중독에 빠

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이나 약물은 주로 주변의 목욕 조직이나 업주로 부터 얻기 때문에 약물, 마약 중독은 매춘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매춘 여성이 일단 습관성 약물이나 노름, 술, 마약 등에 빠지면 경제적 독립이나 미래에 대해 더욱 무력하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무절제한 낭비에 빠지는 것이다.

생산업의 비가시적인 착취 구조 때문에 매춘 여성은 가시적으로 버는 돈에 비해 착취되는 돈의 비율이 크다는 사실에 문감해지면서 오히려 쉽게 탈매춘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특히 생산업 주변의 먹이사슬은 매춘 여성을 '여모'에 대한 무지나 죄의 문화에 쉽게 끌어들이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산업에 길들여지게 함으로써 더욱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결국 생산업은 여성의 유입 불가(자발적/비자발적 선택)라는 별개로 매춘 여성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많은 매춘 여성들이 그 생활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빚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이므로 매춘 여성은 포주에게 진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매춘 여성들이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 지식의 부재나 처벌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포주나 중간 매개자와 폭력 또는 의리나 정으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 관계는 매춘 여성이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매춘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분배와 벌칙, 빚과 이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매춘 여성에게 지우는 빚과 이자는 경제적 착취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인신 구속과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박정호, 1994, 44쪽). 서구의 경우, 포주에 의한 매매나 착취가 없고 남성 손님들 중에서도 이도 있고의 자유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저리의 매춘(sex-prostitute) 여성들이 경우, 화대는 고남의 고가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여 마약 거래상과 이를 연결하는 주변의 폭력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다(Moore, 1993, 427-432쪽).

16) 매매춘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18.7%가 빚을 지고 있는 반면, 1년-3년인 집단은 27.1%, 3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27.5%가 빚을 지고 있었다(박정호, 1994, 42쪽).
17) 매춘 여성의 습관적 중독성 약물 사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자와 유흥을 일으키는 카페 거담제, 필로폰, 코카인, 마약, 콘도, 가스 등에 의한 습관적 중독이 이들은 매매춘에 종사한 저 소득층수족 사용들과 남용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산업 주변에 형성된 먹이사슬은 매춘 여성이 생산업에 이용되는 것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 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 데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착취 구조를 무마할 수 있는 것은 착취자들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매춘 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성매매 반대의 정치학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매춘 여성은 돈을 주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춘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여성'의 경제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맥락에서 일해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일단 남성은 성욕의 '대상'이나 성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 남성의 경제성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지 신체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대상화된 육체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력이나 성적 욕망은 오히려 당연시되거나 경멸된다. 이와 더불어 남성은 지배적인 역할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여성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되기에 앞서 신체적 기능에 따라 '여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여성'이란 남성에 비해 점유되고 취복,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중 규범의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성의 성고는 '머뭇는다', '갖는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침범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남성에 의한 성고가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성과 성고는 여성 존재에 대한 침범으로 읽힐 수 있다.

게리(Ann Garry)의 지적처럼 남성들은 성을 '여성을 침범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의 역할은 배를 입는 대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여성의 성은 남성과는 달리 '지배당함', '자기 파괴'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욕구에 지배되는 대상이 필요로써 자신을 실현한다는 강간 신화의 논리이다. 그러한 신화 속에서 공식적으로 기꺼이 강간을 대신 당하는 존재가 '매춘 여성'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춘 여성의 존재는 아무런 인격적 의미를 갖지 않는,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가 남성을 위한 '성적 대상'인 셈이다. 한드레아드워킨은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매춘 여성의 존재를 '웃는 집구멍'에 비유하기도 했다. 남성들은 서로의 의사 소통과 단합을 위해 집단 강간과 성매매를 통해 여성의 육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여성들의 존재는 남성성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어느 곳에서도 매춘 여성은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매춘 여성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자체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우리 중 누가 또는 어떠한 집단이 우리를 아무 것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라. 매춘 여성들에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다.

성매매가 잘못된 것은 여성의 순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다. 생산업에서 매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만도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여성의 사회적 존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선명함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페르바인 관계는 매

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그 자체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일각한 때에 여성의 지위는 지극히 할 순결을 상실한 집단에게 떨어지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다. 그녀의 지위는 최대 지위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돈을 받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때론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때론 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문제이며 높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때론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 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때론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강간, 살인, 폭력, 인신 구속과 매매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사 켜다. 남성들은 결코 때론부처님 자신의 몸을 파는 형식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파는 것, 그 행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가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발달하는 역할은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안드레아 드라킨, 1992). 성매매를 통해 모든 여성들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위에 서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지배적인 권력의 혈통을 이어 나가려는 수단이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실제로 때론을 하는 안 하는 '여성들이 때론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익을 본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착하고 실행하는, 잘 조

직된 사회적 행위이다. 때론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학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어떠한 개인적 이유와 의도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든지간에 성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 지배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려는 논리는 남성에 의해 강요되어 온 서비스를 끝으로 여성이 다른 영역에서 성취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막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때론 여성은 '여성'의 주변화된 경제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존재이다. 여성의 경제성을 '성매매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역사로부터 내몰고 주변화함으로써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이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하고 강화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대한적 노동이 될 수 있거나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성매매에 대한 가치와 규범 만들기

법이란 주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법이란 경찰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간의 관계와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관이다(Wassila Tamazi, 1993).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도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의미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주의(penalization),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regulation), 인신 매매나 중간 착취 구조는 처벌하고 성

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는 폐지주의(abolition)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시대의 공창이 폐지되고 1961년 '음탕 행위 방지법'을 제정하여 표면상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962년 4월에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따르는 법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인신 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특별 법안'이 제정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90쪽).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9년 4월이 되어서야 되려 이 법안에 성매매를 요구한 남자 손님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되었을 뿐이다(『동아일보』, 1989년 4월 26일자).

성매매를 범죄화한 후, 때론 여성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고,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었다.¹⁸⁾ 특히 여성들은 섣도 보호, 사회 복귀라는 명목 아래 10개월 이상 열악한 보호소로 강제 입소되었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요보호자'라는 특수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여 실제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기술 교육, 연장 가능한 수용 기간, 군대식 훈련과 강요된 예매 등의 열악한 환경과 구타와 기합, 폭발, 갑질 등의 인권 침해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3년 10월 한성들의 방화로 서창살에 감금되어 있던 한성 40명이 사망, 12명이 부상을 당한 '경기도 여자 기술 학원 방화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음탕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62년 내무부, 보사부, 법무부 등은 합동으로 전국 104개소에 특정 지역(기지촌, 사창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¹⁹⁾ 공동 보건이란 명목으로 강제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지

금도 때론 여성에게만 국한된 성병 검진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 검진에서 실패한 여성들은 무조건 감금되어 치료를 받지만 여성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남성들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특히 미군지 경부)들에게는 때론 여성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 지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게 깨끗한 성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야말로 '성적 대상'인 것이다.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때론 여성은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가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홍보하지 않으며, 에이즈 예방에 관여할 일이나 받을 수 없는지, 때론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매매를 그만두는 일이라고 교육하지 않는다. 남성 손님과 가족, 미군을 위해 감염된 때론 여성을 세출하는 때론 할인이 되어 있을 뿐 때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내용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가능한 것은 규제, 폐지, 금지하는 법 자체의 속성에 있기보다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일반인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었던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때론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국이 성매매 현장을 달릴 때 그곳에 있는 남성의 신원을 기록하여 공공 발달의 위박이나 경찰의 게시판에 눈에 띄게 붙였다. 또한 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미군 당국은 음탕을 폐쇄하고 성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때론부 검진에서 군인 검진으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니 델로, 1992, 427쪽). 이처럼 성매매를 단속하는 정책에서 관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8) 1999년 개정법은 성을 받고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명시했고 남성은 남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 1994년 미국의 공적 정책에 따르면 기지촌 및 성매매 집중 지역의 수는 56지점, 여기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5023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1999).

때론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규제, 처벌이 철폐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때론에 대한 규제 폐지를 통해 성산업에서 때론 여성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성매매는 이미 고도의 성산업화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때론 여성의 대부분이 벨프 등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벨프가 없이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때론 여성들(특히 저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폭력이나 마약상들에 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J. Miller, 1993).

배리(K. Barry)는 성매매가 금지되는 영역뿐 아니라 비범죄화된 영역에서도 벨프의 교묘한 변화와 가부장적인 법률에 의해 때론 여성들이 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매매의 완전한 합법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때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 Barry, 1993, 236쪽). 이들은 때론 여성에 대한 범죄화나 규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남성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는 손님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자멸적 범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루(K. Minnow)는 성매매를 탈범죄화하는 것은 대규모의 성산업을 창출하고 열악한 여성을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속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과는 다른 '급진적 규제주의(radical regulationism)'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²⁰

때론에서 수익성과 성산업을 통제하는 이러한 대안적 규제 체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압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때론 여

20. 그는 사회적 정책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성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응하여야 한다는 단편적 남성의 권력에 대한 직접 통제, 공공적인 소란이나 추방 소명, 성매, 착취나 착취에 대한 처벌, 둘째, 성 산업에서 감소.

성의 파트너뿐 아니라 법적 계도로부터 가해지는 추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L. Strage, 1994, 82-87쪽).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때론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매매의 해학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때론 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때론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말모(Malmö)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때론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치료 서비스, 벨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때론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매매를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때론 여성을 감호, 장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Barry, 1993, 248-249쪽).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 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이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벨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와 상충될 수 있는가여 여부이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탈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양쪽 끝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찰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상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작업이 될 것이다.

6. 맺는 말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랬듯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때론 여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어딘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용아매는 것은 '빛과 폭력'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빛과 폭력이다. 그러나 빛을 탐할 대안이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짐작 기회를 한 번도 가지 보지 못한 여성일 수 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때론 여성은 사회적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단절 계층이라고 지적한다. 철저하게 봉쇄된 그들 내부에 폭력이 난무하고 성매매의 비가시성 자체가 행사하는 폭력은 때론 여성과 여성들에게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대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결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동시대인으로서 갖는 의무적인 또는 호기심에 불과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때론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인식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때론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남성이 지배하는 가정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성매매 공간 또한 그러하다. 특히 남성이 자기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이유로 타인에게 행사하지 않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자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폭력이 사회화, 격리된 '사적 관계'로 행사되는 것처럼 업소 여성들과 조주, 폭력매의 관계는 잘 짜여진 사적인 통제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창가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저택의 수위처럼 파출소가 세워져 있고 잘 구조화된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속세에 대한 학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드레아 드워킨의 말은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들의 몸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될 때의 느낌을 느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매매의 실체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때론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는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는 편승이나 취리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신중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여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존엄하는 상태에, 그 가부장제의 비결정성이 우리의 문화에 누적되어 슬픔을 막게 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정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태에 반대는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힘이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끌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일기의 첫걸음으로 주변의 사
랑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오빠, 동생, 애인, 아버지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합리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성과 매춘 여성의 성은 뭐가 다른지, 성매매가 더
아닌 혐오와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민어 보자.

성매매에 대해 말할 자

글. 레지카를(sidestory101@empal.com) / 만나에 편집

서고려를 날자물,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날자물은 좌우를 막론하고 자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술자와 높은 이론들이 보여주는 "정상가족"이 최근에 의해있다고 있는 보수층들과 함께 유정주의적 층의 우위성을 사고 하는 행위는 인간성에 의해되지 않나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대표되는)는 성매매 문제를 관성한다.

한편, 한나라당 김충현과 한국경제연구원 최창희 원장의 발언이 보여주는 성매매 방지법을 남성들의 욕망을 관리하는 국가통제적 과학정책이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사회진보연대 등에 모여있는 소리 '과학'들은 이 같이 우호주의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한다.

자신 보면 좌우의 입장에도 있어 통관스럽고 다양하지만 한 이 관행들을 사이에서 좌우의 이해를조각과 도덕들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이론이다. 성소수주의 이론에서부터 여성을 어머니와 '할머니' '그들이 쓰는 그대로의 표현을 살리기 위해 무시한 이 말을 그대로 옮긴다'로 나눈다. 성소수주의 이론에서는 (솔직히) '할머니'와 (비밀한) '여기' '할머니'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이론에서 여성은 과학만 아니면 모두 '할머니'거나 그와 다름없다. 우리 이론에서는 전정부 우호주의 여성과 가난한 성노동자 여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입장에서부터 여성은 성매매 여성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러한 이론들은 "어떤 여성들" 인간의 범주에서 서고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정당화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

여성도 인간이다.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

이 발언은

(어떤)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상당여자는 인원이 없다.

모든 여성이 존엄한가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존엄함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명함을 우리네보라, 어머니, 아내... 동물)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다.

사실을 관성은 다르게 있는거 아니?

이 이론들을 쉽게 설명할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남성들이 우호주의 기준 기준 여성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타자화 시키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 때문이다. 알약 우호주의 기준 기준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과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러한 분리의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할머니 어머니"라는 이론들을 고안해내고 실천한 남성들에게서 성매매화사회에 있다. 2차적 책임은 지체 속담을 계속설치자를 통해 해소하는 구체적 남성 개인들에게 있다는 주장할 나쁘고 없다. 게다가 이들이 성매매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저지르는 반인간적 학대에 분노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성매매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이론적 틀에 가두고 지극히 정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행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을 합법적 계층인 결혼제도를 강화하고 비합법적 계층을 통제하는 정부의 신자 우호주의 정책과 여성 정책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음모라고 분석한다. 성매매 금지하려는 근본적으로 할머니 성녀라는 이론에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제국이며 우호노동자를 확보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우호주의로 행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합법적 계층이라는 이유로 인적은 모든 제도화과 모든 법률을 통한 해결에 대한 반대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성매매 합법화 역시 국가에 의한 통제이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바로 가족과 결혼제도를 재정의하려는 노무현 정권과의 싸움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과학들의 말대기 이론이다. 모든 문제의 답에는 정권과도투쟁이 있다는.

여자(들)은 집지로 다르지도 않는데

사실 성매매 문제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공포이다. 여성들에게 성매매 문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적과학에 도사리고 있는 학제에 대해 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혼과 연애, 노동 과정에서 여성은 언제나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한 채소 "과학"으로서의 존재로 간주된다.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처우와 나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결혼시장에서 여성은 기와 불우리가 다른 어떤 과학보다 1차적인 자원으로 간주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상황과 문제와 연관되며, 여성의 상황화가 바로 성매매 문제의 핵심이다. 예술인 에리는 여성을 상품으로 생각

하면 여성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여성은 해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arry, 2001) 매혹적인 매춘은 성매매의 한 형태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경험하는 고용자별과 결혼시장의 처분중심주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모두 성매매의 한 형태이며 여성은 성매매의 희생자라는 관에서는 모두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를 "근원화"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 모든 여성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는 남성과 남성이 아닌 여성이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들의 함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여성들에게 성매매 문제와 "인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곧바로 "종교"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 모두 성차별주의의 결과이며 각각 각각 연관되어서도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어떻게 서로 떨어져서 지역적 남성적우월주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 그래서 모든 여성에 관해서는 사실 성폭력에 기반 해 있다는 인식은 여성주의학을 고양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결과에 따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해법을 역시 유일하거나 관련하지 않다. 이론들은 그들의 논리일 뿐이다.

다르고 낯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매매 여성 및 여성매매 여성이라는 이론들은 여성을 누구의 것도 못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성매매 방지법 이후 생긴 가장 크고 희망적인 변화 중 하나는 지금까지 거부당해 성매매 여성에게 나쁜 것만 씌웠던 다른 여성들을 성폭력과 관련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주고 노력해왔지만 이제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관점을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황녀와 상녀" 두 중요한 분류적인 여성들이 이제 서로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를 인내의 저항이 난 날엔 때문에 서로 침묵의 목소리가 성매매라는 기존 여성, 성이 왜 침묵성을 대표하는 수단인지 모르면서도 고개를 거부당하는 10대 여성, 농촌이 매질 때 주머니에 오는 편지는 모두 집에서 침묵으로 전하는 현상들의 여성, 나그네 남고 사귀고도 남아서 이제부터 정말 지방으로 걸으며 살아가는 수줍은 남자와 그 한숨 치는 여자들의 여성, 사실 나도 성매매 한 적이 있다고 레포트를 통해 그 때의 대학 내내 거성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성매매와 맞서온 다양한 관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메이니스프린의 입장 차이로 좀 더 무뎌지게 나타나고 있다. 24년 유엔 특별여성대회를 기념하고 아시아 여성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10 여성

NGO 포럼'이 8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역시 대회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대회의 중점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용어를 'Sex Worker'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람과 분리된 여성은 이를 반대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세스피에게 제이크 매달과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대만에서는 여성단체와 성매매 여성들이 특별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거부 감정을 열기도 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주연인과 기자 등은 '여기도 잘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하지만 현재 법과 정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다. 비판적인 발언들은 남성의 정책추진권을 말하는 입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 다른 대안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어떠한 성매매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관성매매 활동가들에게 교육이 되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나무 벼온 제도화와 법제정 운동,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담론)사이에서 성매매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가진 여성은 피해 당사자거나 혹은 정책입안자 여성이거나 활동가들이 정도로 갈수록 제한되어 가는 느낌이다.

남자들은 아무나 아무 말이나 다 하는데 말이다. 남자들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의 "다르고 낯선" 말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성매매 문제는 여성들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 여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성들이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면서 쌓아온 지식이 쓸모없어지고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을 겪는다. 그들이 말하는 자활성은 사실 성매매 여성의 리스를 떨치 않았다는 게 드러날 때 관계라는 것들이 인연에서 드러남과 연결감이라는 리스 이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친구이며, 한편 성매매 여성은 정말 성매매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남성적매관념을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모든 해법은 새로운 담론과 그 담을 제대로 풀어 정작들의 보내는 시간에서 존재하고 있다.

- 자료정보검색 <http://www.pauk.org> 성매매방지법 논란, 무엇이 '종교' 문제인가
- 한국인민뉴스
- 서울경제 세스피에게 노동운동! (오마이뉴스 2004-01-16 정운선 기자)
- 인사이드 아시아 - 부록 : 1회 - 아시아의 성(3부) Q-channel

* 이 글을 저자일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보내기(www.uninet.co.kr) 2004년 1월 독립 "남성운동"을 필요로, 동시에 "오리" 중,

1장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여자인 달 섹스에 주는 기구.” 이의 줄집이 끝마치게 붙어서 있는 거리의 기둥에 붙어 있는 이 간판은 성 산업의 실상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필리핀의 앙겔레스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콘돔을 사용하여 에이즈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시오”라고 써져 있는 다른 간판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만이 에이즈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1993년 마닐라에서 열린 법률 포럼에 패널로 있어서 피상했던 장면이다. 포럼은 “여성의 권리가 인권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여성들을 떠올렸다. 그 여성들은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매매되어 온 사람들로 울퉁불퉁, 수백, 앙겔레스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 시골에서 어루해 온 이 여성들은 여전히 순박함을 지닌 모습을 이었다. 개중에는 이집트 근전 강간이나 성 학대, 강간 등으로 성적인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여성들은 성 경험이나 관련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대다수 여성들은 자신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여성은 필리핀 기자가 필수하면서 함께 떠나 버린 미국인 ‘남자 친구’가 돌아올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구강

성교 후에 수건에 구역질을 해대는 여성들도 있었다. 바꾸어 슬럼프와 밀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을 위해 운영되는 이 끔찍한 소굴은 한 곳과 세일 한 곳으로 구분되어 있었다에 있는 여성들은 '세 구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판매와 구매자의 침입으로부터 인간 신체의 어떤 구멍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¹¹

필리핀의 전형적인 여를 한낱 다마(성교 330) 속에서 우리는 마닐라의 '정전 정책'과 상관없이 여여인이 시뮬하게 들어가는 방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가 만난 슬럼프 여자들한테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내가 잠깐 들었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다. 내 동료가 "여성의 권리가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뻑뻑하게 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제 막 본 현실과 지난 15년간 계속해서 보아 왔던 현실 앞에서, 나는 거의 두기를 통해 학문의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쓰거나 감춰짐을 가장한 자유주의적인 법에 이르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¹²

이전의 경험들로 인해 내게는 이 폐쇄한 방 안에 모여 있는 일련 활동가와 법률가들의 열정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15년 전 파리의 대중 다마타우 부근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파리에서, 필리핀에서, 타이에서, 매춘업소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길거리 창문에서 여성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무시해 내려는 것을 나는 그때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 여성의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남성과 정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정책과 제도 앞에 보다 직접적으로 언저적일 때에도 단 한 번도 언저지지 않았던 질문을 언저지 만드는 것이었

11 성 인원은 혼란되어 있어서 어떤 한 지역에서 혹은 성행위를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필리핀 수력 해군 기지의 비군들을 위한 매춘업소들은 자기 어떤 것을 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세 구멍' (Three Holes)은 특히 수역에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슬럼프로서나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마닐라.

12 Patricia J. Williams, *The Alchemy of Race and Rights: Diary of a Law Profess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 87. 원문.

다. "여성은 인간인가?"

사회 전체가 성적 탐닉에 빠져 있을 때 섹스는 여성의 몸과 동일시된다. 그것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성예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섹스를 위한 몸통이일 뿐이다. 성예화된 사회는 여성성을 그 핵심으로, 목적물로 구성한다. 그것이 섹스이다. 여성은 섹스화된 몸으로서 보편화되었고, 섹스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서로 구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 본질주의(sexual essentialism)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성은 섹스를 필요로 하고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섹스를 얻고 가지며 지주 오용한다. 심지어 섹스를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은 성예화의 대상물이 아니다. 집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결코 섹스 또는 섹스화된 몸이 아니다. 사실 남성들은 몸으로 존경되지 않으며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충동 그 자체로도 존경되지 않는다. 남성의 성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인데, 이렇게 그들의 성적 욕망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몸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성에게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반면, 남성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성예화된 사회는 불평등을 성별화한다. 성 본질주의는 불평등을 축전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을 생산해 낸다. 가부장적 지배는 여성들을 서로간에 구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 남성과는 구별되고 열등한 존재로 인아되도록 만든다.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만 주어지는 섹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보다 우선한다. 성적인 욕망은 욕구와 필요성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축된다. 남성이 여성과 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섹스는 문화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성별 체계로서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성 권력의 조건이다. 성예화는 대중 매체, 모로노

그러고, 그리고(성 과학이 섹스를 자연적인 것으로 존경시켜 만들어 낸) 섹스의 '과학적인' 구성물¹³ 안에서 도라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 전달된다. 나아가 섹스를 사물로, 여성을 대상으로 존경시키는 세슈얼리티의 구성물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실재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건이다. 남성 권력의 사회적인 실재(sex)로서 섹스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여성을 공식적인 실체로서 성예화한다.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가부장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존경시킨 것이 매춘이다.

여성을 섹스와 동일화시키는 일상의 관행은 멜린다(Melinda)라는 여성이 매춘을 시작하게 된 과정에 잘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내가 만났을 무렵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미국에서 매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대 시절 한 여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오후의 밤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가 자신과 데이트를 해주면 1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집에 있었다는 것이 그녀가 매춘 여성으로 간주되는 데 필요한 전부였다. 그녀는 열 다섯 살의 순진한 소녀였고, 그 남자가 진심으로 자기와 데이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는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남자가 매춘을 목적으로 자신을 유혹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호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데이트라는 것이 섹스를 위해 자신을 살다는 의미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매춘부로 걸려들었음을 깨닫기 전까지 그녀는 그곳을 나올 수 없었다. 그 남자가 자기한테 섹스를 기대한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안 될 게 뭐야?"라고 생각했다. '잠깐 끝날 거야. 그리고 나선 여기서 나갈 거야.' 열 다섯 살짜리

소녀는 섹스를 위한 몸통으로 걸려들었고, 그것은 곧 매춘으로 바뀌고 말았다. 일단 시작되자 그녀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루에도 매춘은 계속 그녀에게 다가왔다.

멜린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례에서, 이전에 받았던 성적 학대, 특히 근원 강간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학대를 받아 온 여성들은 다른 형태의 성 착취에 걸려들기 쉽고 이에 맞서 싸우기도 힘들어진다. 멜린다와 함께 그녀의 지난 시절을 탐험해 들어가면서 섹스를 목적으로 그녀를 산 사람이 단지 집에서 만난 그 남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의 피로아버지 또한 섹스를 위해 그녀를 산 적이 있었다. 그녀를 매춘 여성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 섹스를 위한 몸으로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이 폭력으로 존경되고, 동물이 인간 없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활용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인간은 육화된 자아이다. 인간이란 그러한 자아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그리고 인간의 발전이란 그러한 자아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적 맥락에서는 동의라는 것이 폭력이 발생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경험과 자아의 완전함은 하지, 의도 혹은 동의로 축소되고, 마치 그것이 폭력이 일어나는 데 관련된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자유주의 이론과 법률의 토대이고, 인간의 서구적인 개념 안에서 그것은 개인을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자유주의 법 이론은 억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동의와 공포 혹은 협조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계급 지배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다. 계급 지배는 실제로 폐지에 계급으로부터 공포, 혐오, 동의를 만들어 낸다. 매춘은 결혼이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세슈얼리티처럼 여성이 동의하게끔 구성된다.

이 연구를 하면서 나는 억압의 법리를 개인적인 강제에서 계급 지배로 확장

13 William H. Masters and Virginia E. Johnson,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1966) and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1979)는 남자들의 경우 섹스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때 여성 "대리물"을 사용함으로써 성적 자극과 성관계 기능을 회복시키는 섹스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어떤 여성도 남자들이 서드섹션과 같은 성적 기능의 장애를 위해 다른 여성을 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시킴을 위하여, 특별을 결정짓는 거의 유일한 기준인 몸이나 강제나로부터 온전히 인간적이고 상호적인 몸의 경험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인간 경험의 전체성에서 보자면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될 때 그리고 섹스화된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타자로, 결국 종속된 자로 취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이고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여성 인권의 실체이다. 따라서 포스트노그라피 매체들은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강간은 성 착취의 전형적인 증거인 한편, 매체들은 여성과 몸의 가진 없던 여성 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다.

억압자들에게 성적 차이, 인종적 차이는 백인 남성과는 다른 모든 여성과 유색인들은 타자이며 열등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여기에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환원하는 것의 심각성이 있다. 여자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든 상관없이 여자는 그렇게 여겨진다. 이러한 '타자성' 속에서 피억압자들에게 시간이 멈춰 있게 된다. 피억압자들을 생물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함으로써, 차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을 '타자'로 환원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권력은 여성들을 그들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는 방식이다. 역사를 만든다는 행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에 피억압자들에게 억압은 역사적 조건일 뿐이다. 억압 속에서 시간은 한 순간으로 축소된다. 그것은 역사를 빼앗긴다는 것,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것, 마음속에서만 일어날 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정복의 형태이다. 이것이 인종 차별주의, 인종 격리주의, 식민주의의 권력 관계들의 토대가 되는 이데올로기의 정당화이다.

성적 억압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 운동을 멈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진보와 변화,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전멸시키려

고 시도한다. 성적으로 종속된 여성은 더 이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들은 억압된 바시간성을 내재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정도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종속된 자들은 인간성의 잠재성과 존엄성을 확실하게 박탈당한다. 남성들은 인종과 성별을 통해 물리적으로 자신들과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들이 '타자'로 만들어 온 사람들을 최성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역사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그저 다른 몸이 아니라 섹스화된 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이 역사를 만들어 감으로써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의 길에 남성들이 복수심에 몰려 여성을 섹스를 위한 몸종으로 전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복수심은 포스트노그라피를 통해 사회에 스며들어 있고, 성적 착취를 통해 여성의 몸으로 침입한다.

성, 인종 그리고 문화에 의한 지배는 인간 내부에 기호화되어 있다. 몸은 인간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인 외부 세계, 우리 자아와 사회의 연결점이다. 몸은 분화(구분 짓기, differentiation)의 물리적 공간이며, 분리된 독특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알게 하는 자기 바깥 세계와의 연결점이다. 세계 그리고 타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인간성이 성취되고 유지될 때, 몸은 인간의 경험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그 자체를 초월한다. 모리스 메란은 "몸의 이미지는 몸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다"고 지적한다.⁵⁴ 그는 폴 샬라(Paul Schaller)를 인용하고 있다. "몸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무엇이 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이 있다. 몸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차원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⁵⁵ 몸은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떨어진,

54.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 Smith (New York: Harcourt, 1963), p. 21. 여기서는 문화적 역사와 우리의 몸에 관련된 124쪽을 지적하고 있다.
55. *Ibid.*, p. 17.
56. *Ibid.*, p. 38.

분리된 사물로 여겨질 수 없다. 비만과 다른 사람들이 지적화듯이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은 세계 속에서 개별적인 자아로서 개인이 분리되는 근원인 동시에 세계와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몸으로 전달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자아는 "내재적인 것 이상의 다른 어떤 무리도 갖고 있지 않다."⁵⁷ 그렇지만 자아는 사회적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갖고 있다.

일제적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는 사회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에 열등성과 우월성을 새겨 넣었으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의 삶을 사회적으로 구성한다. 상호 작용은 인간 안에, 인간의 삶 위에, 인간의 조건 속에 지배를 기호화하기 위한 가장 특별한 개인적 수단이다. 지배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기호화될 때, 그것은 때 순간 비인간적인 것이다. 인종 차별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를 통해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인종적 특징을 차별화시키는 방식으로 몸을 이용한다. 자기 다른 역사적 계기에서 이러한 신체적 차이는 생물학이나 문화에서 기원을 찾는다. 지배를 위한 차이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효라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성 차별주의도 지배의 권력 관계에서 몸을 이용하는데, 신체적으로 구별되는 섹스별의 특징들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사회의 성적 탐닉 상태는 남성 지배의 정치적인 성과이다. 성 차별주의와 함께 지배는 성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여성의 몸에 전달된다. 섹스가 대상화되고 인간이 단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물로 환원될 때 성적 지배는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것이 매체들의 기본 토대이고 레슬리디치의 매체화를 통해 매체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섹스는 자아가 구체화된 자원으로, 신체적 또는 생리학적 사실에 선행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것이 자극될 때 나타나는 인간 경험으로서 미리 결정된

57. *Ibid.*, p. 15.

사실이 아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욕구'나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도 성 경험의 본질도 아니다. 오히려 섹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가부장제에서 이것은 종속이라는 정치적 사실이다.

인간의 경험 안에서 성적 상호 작용이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라는 것은, 이때 자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다는 것이다. 장antly 우리는 자아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상호 작용과 분리해서는 자아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억압은 인간의 삶을 본질화하고 그것이 종속시키는 사람들을 결정 짓는다. 생물학적·문화적 결정론은 본질주의를 이론화하는데, 가령 여성은 섹스화된 몸이라는 식으로 지배를 학문적인 진리로 구성하여 종속을 만드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잔 케레스 박사는 몸을 인권의 관계 속에서, 특히 매체들이 폭력성이라는 맥락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 왔다. 그녀는 "인간"을 "에너지의 근원인 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상태이고 마음과 정신은 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존하고 그것을 반영한다"고 정의하였다. 몸을 에너지, 즉 "원동력, 감정, 지능, 본능, 성적 기능을 공급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근원으로 이해하면서, 케레스 박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 에너지가 자아 인식과 자기 수용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존재를 지탱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세계 속에서 몸(자아)이 교섭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자기 성찰적인 지식을 이끌어내는 데는 자아 인식과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의 이원성을 추구하면서, 케레스 박사는 "기쁨과 슬픔의 입장이 일어나는" 바깥 세계와 "감각, 감정, 생각, 이미지, 상상된 또는 상상의 행동이

58. Dr. Suzanne Kessler, "The Representation of the Condition of persons i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sychiatric and World Problems: A Theme in Humanity, Record of the Congress, 25th International Congres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Mind-Body Connection*, vol. 1, and *Deutscher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NY, 1985), p. 61.

짜여진 영구한 작품인" 내부 세계를 구분하였다.¹⁰ 제페스 박사는 "전통 의학의 관점"에서 몸이 어떻게 자체의 에너지에 반응하고 상호 작용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는 저지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부분인 시상하부에서 시상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몸의 이미지가 구성된다. 대뇌 변연계의 감정 중추와 항상적으로 알려진 조밀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시상 안에는 다른 행동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적인 모든 행동은 적절한 순간에 발출된다. 거기에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고유의 것을 고려하고 드러내 주는 행동, 한마디로 '진실한' 행동이라에는 어떠한 정형화된 행동도 없다. 만약 우리의 내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러한 행동들이 과열되거나 과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막을 것이다.¹¹

제페스 박사의 몸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인간의 모태를 신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 개개인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자아를 빼앗는 억압은 인간을 침묵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을 파괴화하고 그들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몸과 연결된 끈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과 우리가 모든 것의 내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로부터 분리된다.¹² "육체의 뿌리 내림"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붕괴된다. "만약 달신이 몸에서 이탈한다면, 달신은 존재가서 있는 기반을 느끼기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¹³ 성적 착취·대상화는 인간 경험의 연결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성의 존엄을 위하여 성적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인간은 자아의 발전에서 연약한 것만들이나 신체의 위치의 안전함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탄력적이다. 자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에서 있지 않은 것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교섭을 계속 추구한다. 안과 밖의 긴장,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세계와 교섭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폭력은 그것이 심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성적이든 신체적이든 간에 제화되는 것이다. 폭력은 자아와 자아 외부에 있는 것 사이의 긴장을 빼앗아 감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을 재복사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파괴하는 것이다. 영의 공식에 따르면, "만약 우리의 고통이 파괴된다면 우리의 행복은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¹⁴

성의 사회적 구성: 비인간화의 단계를

오늘날 남성 지배하에서 세스가 진정한 인간적 의사 소통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 그것은 경험을 비인간화하고 그함으로써 여성을 지배하게 한다. 상호 작용에서 생겨나는 의미를 통해, 어떻게 세스가 인간 발전의 고향을 보며 경험되며 어떻게 성적 상호 작용이 인간 경험을 파괴하는지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스의 경험에서 어떻게 의미가 생산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권에 페미니즘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페미니즘 이론은 권력과 지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분석을 보다 심화시킨다. 페미니즘은 권력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인간적이고 평등한 관계들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 속에

10) Ibid., p. 42.
11) Ibid.
12) Ibid., p. 43.

13) Breman, *op. cit.*, p. 23.
14) R.D. Long, *The Politics of Expressive Challenge*, (1975), p. 24.

현재의 착취적인 조건을 넘어선 현실을 가정한다.

개개인이 성 착취로 입은 피해와 인종가 치를 회생할 밝혀 온 지난 20년에 걸친 페미니즘 연구가 없었다면, 특히 에블라나 기요브와 WISSENER, 매춘대 안절의와 스펜의 한나 올슨(Hanna Olson), 노르웨이의 리브 핀스테르(Liv Finstad)와 세실 호이거(Cecil Hoigard)의 연구들, 그리고 미국의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 플로렌스 리시(Florence Rich), 루이즈 암스트롱(Louise Armstrong), 산드라 버틀러(Sandra Butler)의 근원 공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 착취 경험을 통감하게 폭로한 여성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성 산업에 대항한 페미니스트들의 끊임없는 저항, 특히 아시아 여성 조직들과 전세계적으로 포르노그라피에 대항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없었다면, 이 모든 여성들과 그들의 노력 그 이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스라는 인간의 활동이 피해, 비인간화, 인권 침해로 변화하게 되는지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매춘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가 없었다면, 매춘의 세슈얼리티가 세슈얼리티의 매춘화로 변형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성 착취를 드러낼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여성들의 그러한 침묵 속에 매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연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 연구와 운동을 통해, 이 이슈에 대한 지난 20년간 내 자신의 연구를 통해 내가 「여성 성 노예제」를 쓰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인터뷰했던 여성들을 통해 나는 매춘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사회적으로 구성해 가는 네 가지 단계를 확인하였다. ① 거리 두기(disavowal), ② 이탈하기(disengagement), ③ 분리화(disassociation), ④ 탈신체화(disembodiment)가 그것이다. 매춘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성 착취이다. 상품화는 대상화의 가장 확실한 형태 중 하나이다. 매춘 속에서 상품화는 마케팅을 통해 세스를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러므로써 그들의 자아로부터도 분리시킨다. 매춘 세스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매춘과 매춘이 정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거리 두기

매춘 세스 매춘 행위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즉 자신에게 고유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을 그 매춘 행위로부터 떨어뜨려 거리를 두게 하는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춘에서 이러한 분리는 지리적인 제재와 심리적인 분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 여성이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녀 스스로 자기를 계기 저분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몇몇의 경우에는 법 밖에 놓이는 무법 상태를 수용하기도 한다. 거리 두기는 자아를 가족과 집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세계에서 분리함으로써 시작된다. 여성이 매춘 여성으로 판정되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이름과 위조된 신분 증명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때때로 그들의 나이를 속이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폭력성과 극단성은 여성들이 결혼할 때 자신의 이름과 친구, 친래의 가족에서 분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명백하게 매춘을 하도록 강요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성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한다(로라의 경우).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오래된 또는 분당했던 정체성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정체성과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이며, 매춘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분리를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물시에 거리 두기는 매춘 여성에게 생존 전략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여성들은 매춘 거리로부터 그리고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여성들은 매춘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로부터 분리된 매춘부로서의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리 두기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멸망을 미치는 매춘의 복잡한 그물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만든다.

매춘 옹호 그들은 정말이지 단순한 차원에서 만약 매춘이 정상적인 여성의 일로 받아들여진다면 매춘 여성은 더 이상 주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을 상품화하는 매춘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성 착취를 덜 착취적인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더 착취할 수 있게 만들 뿐이다. 실제로 만약 여성이 자기 자신,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성 상품으로서의 자상에 대한 지식 안에서 통합되도록 조장된다면, 매춘을 비롯한 성적 대상화의 해악성은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거리 투기는 여성을 매춘부로 만들어 가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 여성이 매춘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거리 투기는 이탈하기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탈하기

이탈하기는 매춘 여성의 중요한 전략이다. 매춘이라는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수반되는 상품의 교환에서 자신을 분리시킬으로써 감정적인 거리를 만든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실매 여성, 애인, 아내들이 대상화된 섹스를 경험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이탈된 것이다.

이탈하기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매춘 섹스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섹스는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상품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 여성은 그곳에 있을 것과 '행위하기'를 요구받는다. 여성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들 앞에서, 그들 위에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들은 "그곳에 없다." 그곳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구매자에 대해서 생겨난 매춘의 권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다.

세실 호이가드와 리브 핀스테드는 최근 노르웨이의 매춘에 관한 연구에서 매춘 여성들은 남성들이 구매하는 자신들의 성 거체로부터 이탈한다고 보고하였다. 피아(Pia)는 "나는 그것을 하기 전에 약약을 좀 하지. 난 내 감정을 완전히 한쪽으로 밀어 봐야 하거든. 말도 많고지고 아무 신경도 안 써."라고 말한다. 엘리자베스(Elisabeth)는 "내 감정을 완전히 켜 두어야 할 거야. 그 일을 해야 하나?"라고 말한다. 제인(Jane)은 "나는 내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다짐하고 감정을 먼저 버릴꼬. 거기에 돈이 있는 한 개의지 않아요. 감정과는 아무 상관 없죠."라고 말한다.¹⁴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일용살이 감정이 없어진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는 구매자와 일목적으로 동의한 '매춘 계약'에 따라 야망을 떨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순간에도 구매자들을 경멸하며 바라본다.

성적 권력 관계에서 여성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과 남남(그것을 잘 변리가 있다고 평가하는)과의 행위가 동면되기 때문에, 여성은 이탈하기를 통해 자신의 진짜 자아와 하나의 상품으로서 섹스를 위해 사용되는 자아를 구분하기 위해 감정적 거리를 둔다.

매춘 여성은 장벽을 구축한다. 이탈하기를 통해 매춘 여성은 구매자에 대한 한계, 즉 사용될 수 있는 자아와 자신의 몸 그리고 사용될 수 없는 것 사이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경계들은 매우 강력하게 실행된다. 자아의 어떤 부분은 사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어떤 특정한 행위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특정한 부위는 출입 금지 구역이다. 종종 매춘 여성들은 키스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아를 구분하는 장벽으로서 콘돔 사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의 진짜 자아를 위해 반드시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 한 프랑스 매춘 여성은 "절대로, 절대로 남자가 내 침대 위에 누울 수

14) Cecil Hoigaard and Liv Finstad, *Sexworkers, Prostitutes, Money and Love from Victorian Norway: Flawed Sins and Broken Whores* (Oslo: Felt Press, 1992), p. 42.

없어요. 남자는 특별한 시트와 담요 위에 누울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내가 쓰는 침대 위에 누는 건 안 돼요"라고 말했다.¹⁵ 이러한 종류의 구분을 만들어 내면서 여성은 진짜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일부분, 즉 그들이 선택할 경우에는 매춘이 아닌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분을 구별한다. 그러나 매춘 여성은 자신들이 사회적 생활에서는 섹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성적인 상품으로서 구분된 자아의 일부분은 매춘에서 여성의 최소한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성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아를 분할한다. 그러나 사실 자아는 분할할 수 없다. 자아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란 없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보호되는 가운데 조차난 몸의 어떤 부분, 어떤 심리적인 행위만 관여를 위해 버려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이유이자 방식이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아를 분할할 때, 그것은 분리되어 각 부분들은 분리된 조각으로서 사용된다. 자아의 분할은 해독과 미인간화를 낳는다. 섹스는 인간, 즉 자아의 핵심적인 차원이다. 섹스가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될 때 인간은 사물이 된다. 대상화는 인간을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 전체 조건의 인간성 존엄성을 파괴한다.

여성에게 매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마치 어떠한 맥락에서건 성적 대상화와 자아의 미인간화를 선택하듯이 말이다. 거리 투기에 이은 이탈하기의 단계는 피해를 야기한다. 이 피해는 원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사이에 억지로 차이를 만들어 내는 형식을 취한다. 바로 어차피 여성은 매춘이건 다른 어떠한 형태건에서 교환에서, 사육에서, 공장에서 동물이던 성 착취의 조건에 동원되지 않는다.

동시에 마치 선택인 듯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다. 구매자와 함께 가는 것에 응하고 돈을 받고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선택의 필요성은, 이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자아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매춘 여성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측면, 즉 단순히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상품화를 구성하는 단계들에 개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매춘 여성을 개입시키고 본질적으로 자신을 대상화하는 단계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매춘의 해악과 학대를 심화시킴으로써 매춘 여성을 '보호한다'는 매춘 계약이다.¹⁶ 거리 투기에 이은 이탈하기의 단계를 통해 매춘 거래 섹스가 가능한 일로 변화된다. 매춘을 한다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매춘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만든다. 시장 거래에서 만약 여성이 평균 9년 동안 매춘을 하고 일 주일에 6일, 하루에 5명의 구매자를 받았다면, 그 여성은 당분의 계약을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 위에서, 몸 안에서, 몸을 통해 9,360번 섹스를 관 것이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추정치일 뿐이다.

분리하기

스웨덴의 매춘에 대한 연구에서 한나 올손은 매춘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남성의 자위 행위"라고 묘사하였다.¹⁷ 구매자는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요구할 수 있는데 항상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항문, 입 안 또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가능하다. 올라(Ola)는 "남자들을 꼭 버리기 위해 그것을 한다. 그게 전부다."라고 지적한다.¹⁸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섹스가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남성의

15) 매춘 계약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Cecil Finstad, *The Sexual Contrac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129-134 참조.

17) Hanna Olsson, *Prostitution: Behind the Veil* (Stockholm: Liber, 1991), 스웨덴 정부가 의뢰한 매춘 연구 보고서.

18) Hoigaard and Finstad, p. 42, p. 51.

자위 행위도 관용될지라도,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매춘 여성에게 연인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관상을 가장하여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몰입한 것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매춘 여성은 장녀처럼 연기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연기하기도 한다. 한편 성 도발적인 소재들도 많은데, 특히 "오줌이나 똥을 싸는" 판타지를 행함으로써 구매자는 세스를 오줌, 더러운 것, 대변과 연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매춘 여성에게는 복종적이고 순종적이며 온순하고 아첨하는 듯한 성격 행동을 기대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반적인 강간범이 그렇듯이 매춘 구매자들도 "평판적인 성격 만족을 원하는 절절한 남성"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¹⁹

남성들은 자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처럼 행동하는 몸을 사는 것인데, 이러한 자아는 가장 때로는 피해가 심한 인종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개념과 잘 맞아떨어진다. 서구 남성들, 특히 개방적인 남성들은 서구 여성들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반응적인 연기를 요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서구 남성들과 아시아 남성들은 아시아 매춘 여성에게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노예 같은 성행위를 요구한다.

매춘에서 구매자의 요구는 광고되고 판매되는 피부색과 문화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 착취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대상화하는 인종 차별주의도 매춘 산업의 토대이다. 매춘에서 유색인 여성은 세스화된 몸뿐 아니라 '색깔이 있는' 몸을 팔게 된다. 유색인 여성은 자신의 일부로서 자기가 팔고 있는 색깔이 있는 몸으로부터도 역시 분리하기를 실행해야 한다. 인종은 세스와 함께 팔린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들로 나뉘었다. 문화적 맥락이 무엇이든, 세스의 거래 속에서 매춘은 여성을 팔 수 있는 부분물로 소개는 가운데 그 자체로 가장 반응적인 인종 차별적·성 차별적 편향성을 만들어 내고 수행한다.

19) *Ibid.*, p. 15.

탈신체화 그리고 가장하기(Disassembling)

매춘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정서적·성적으로 몰입하는 사냥과, 기백하면서 스스로 바라는 것처럼 행동할 것 그리고 상물을 거래하는 순간에 피치 못할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사냥을 기대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들은 매춘 여성들이 마치 매춘 여성이 아닌 아내, 애인,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매춘 여성들은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된 자아를 속제로부터 이탈시키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종속되고 비인간화된 자아가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자아는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아직 몰입에 있는 것처럼 행위해야만 한다. 구매자에게 여성이 그들을 경멸할지라도 관성이 있는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성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무심결에 성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성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과 때로 실제로 성적으로 느끼는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인종 차별적·성 차별적 행위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한계—모든 것 속의 모든 것인 것처럼 행위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냉정함이 아직 없는 것처럼 연기함으로써, 그렇게 행위해야만 한다.

자신의 자아와 거리를 두는 것은 탈신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그때의 경험이 제화된 것처럼 행위하는 것이 매춘의 세스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생각에서 여성은 포르노 매장에서 파는, 삽입과 사정을 위해 구멍이 나 있는 실물 크기 피 클라스틱 인형으로 마비될 수 있다. 하지만 인형은 '반물'을 꾸며 내고 연기할 수 없다. 구분을 짓는 요소로서 의자의 기압 여부에 강박적으로 조짐을 빚추는 자유주의의 법적 가속에 따라 반응은 선택적 치료로 간주된다.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성행위 내에서 여성이 반응한다는 것은 정상적 세슈얼리티가 거부당함으로써 구성된다는 증거이다.

여성의 경험 속에서, 익명의 상품 교환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모든 행동과 모든 연기를 포함한 이것이 바로 매춘이다. 이것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더욱더 정당화되는 성 착취적인 세스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간인가?

매춘에서 구매, 강간, 심지어 살인조차도 대개는 단지 '작업상의 위험'으로 간주될 뿐이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 사에 있는 매춘대안협회는 1990~91년에 매춘에서 벗어나 이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79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고했는데, "생존자의 78퍼센트가 A급 범죄인 강간 피해자였으며, 거의 절반(48퍼센트)이 포주들에 의해 일 년에 평균 16번 강간을 당하고, 4분의 3(75퍼센트)이 일 년에 33번 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한다."²⁰

매춘 세계에서는, 돈의 지불 여부가 매춘 세스와 강간 세스를 구분하는 요소이다. 여성의 삶과 경험 안에서 그것들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WISPER의 구술사 프로젝트(*oral history project*)에서 에블리나 기요브는, 매춘 여성이 "자신과 세스한 후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으로 강간을 정의했다"고 밝혔다.²¹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춘에 종사하는 300명의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 중 73퍼센트가 매춘을 하는 동안 강간을 당했다고 보고하였고, 실버트와 파인스(Silver and Pines)는 19퍼센트의 여성들이 강간범에게 자신이 매춘부였다고 말함으로써 강간을 범주화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제적 거래로 세스를 제공하려고 하자, 강간범들은 강간을 중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한층 강화했다고 매춘 여성들은 말했다. "그들은 여성이 매춘부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

했다. 대부분의 강간범은 여자에게 그 말을 취소하라고 강요했으며, 계속해서 강제로 여성을 밀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가해자는 극도로 폭력적이 된다."²²

실버트와 파인스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매춘 여성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그 상황을 약간이나마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말을 한 여성들(12퍼센트)은 더욱더 폭력적인 학대를 당했다. 강간범들의 행동과 말은 그들이 작업적으로 포르노그래피에 몰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매춘 여성은 덜 빚기 위해 세스를 제공하지만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에 의한 세스인 양 취급된다. 여성들은 강간 세스와 매춘 세스를 행위해 의해서가 아니라 돈의 지불 여부에 의해서 구분한다. 매춘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에서 여성은 착취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는 육화된 인간(*sexed human being*)처럼 행동한다. 이는 강간 피해자들이 저항할 때 공격자들로부터 안전이 안 있으면 더 다치게 할지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과 같다.

실버트와 파인스가 지적했듯이, 매춘 여성들은 통제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매춘은 남성이 산 세스이다. 강간은 남성이 강요하는 것이다. 매춘에서 남성이 산 세스는 그들이 강간으로 강요한 세스와 같은 것이다. 이 세스는 탈신체화(*disembodiment*)된 것이며, 남성을 위해,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여성의 몸 위에서 일어난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세스를 할 것인지, 혹은 강제로 아니면 동의를 받고 할 것인지는 남성이 결정한다.

매춘 여성에 대한 강간은 난해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것은 매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탈신체화된 세스의 경험(강간과 매춘 둘 다에서)이 동의나 강제나에 이유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합의에 의한 세스를

20) Council for Prostitutes Alternatives Annual Report (Portland, Oregon: July 1990–June 1991).

21) Evelyn Gidycz, "Female Prostitutes' Perceptions of Rape," in Ann Wilentz Rogers et al., *Child Trauma: Issue and Remedy* (New York: Garland Press, 1992), p. 125.

22) Silver Silver and April Pines, "Photography and Sexual Abuse of Women," *Sex Role* 22, nos. 11–12 (1984), p. 864.

계몽한 매춘 여성은 그들 자체가 섹스이며 상품이기 때문에 강간 상황에서 매춘부가 되어 섹스를 제공하면 폭력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춘, 섹스와 강간 섹스 모두 성적 권력의 구성물이다. 페슈윌리치의 매춘화는 여성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섹스의 형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춘 여성이 강간에서 섹스를 깨어내려고 할 때, 그녀는 성적 권력의 한 형태인 강간이 또 다른 형태인 매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간과 매춘 섹스가 그것을 쥐는 여성에게 정형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유이다. 매춘에 종사한 여성들의 구술사 프로젝트에서 한 여성이 에블리나 기요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매춘은 강간과 같아요. 그것은 내가 15살에 강간당했던 것과 같아요. 나는 내 몸을 떠나는 경험을 하곤 해요. 내 말은, 그 남자가 나를 강간할 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요. 나는 경찰을 불러다보았고, 경찰으로 올라가서 감자를 샀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매춘을 하는 동안 나는 할 그렇게 했어요. 나는 감자들을 샀었고, 심지어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나는 내 몸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곳으로든 가곤 하죠. 남자가 할 때까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강간이라고 느낀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에게 강간이었어요.²⁰

성적인 비밀

매매춘은 종종 성적 자율분방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남성 구매자의 기대

에 맞추어진 매춘은 보수적이며 회색적이고 억압적인 성적 행동이다. 시장은 비밀리에 운영된다. 손님은 익명성과 비밀, 즉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매춘 여성이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구매하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섹스이다. 성적인 억압의 근원은 여성의 몸을 비밀스럽게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매춘에서 여성의 주변화는 구매자의 은밀한 섹스에 대한 보호와 익명성 및 비밀 유지 요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구매자는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이 '타자'이고 아웃사이더이며 주변화되어 있기를 요구한다. 비밀 유지는 성적 권력의 기본 토대이다. 그것은 성 산업에서 여성들이 인쇄된 광고지, 잡음, 광고판, 가게 앞 간접대에 전시되는 순간에, 구매자인 남성들이 비밀스럽게 섹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매춘의 은밀함은 구매자가 사물어는 성적 경험과 흥분의 일부이다. 만약 페미니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춘이 너무나 정상화되어 있어서 섹스를 구입하는 데 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의 '헛소리해라 타임'(Hush, 20세기 말 저임과 적지 많함, 에이즈의 반면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재생산의 위기가 닥치면서 여성의 역할이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내용의 19 소설, 1999년 영화화되기도 하였다—출간이후 나오는, 오로지 여성을 사어만 섹스를 할 수 있는 암흑 시대의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처음 접했을 때에도 그리고 최종적인 분석에 이르러서도,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여성이 매춘을 하나의 원리로서 주장하는, 자신들에 대한 착취라고 비난하든, 이는 매춘의 변성과 지속되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매매춘과 여성 매매는 여성이 매춘을 원하는가 매춘을 강요당하는가에 기반하여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매매춘 안에 존재한다. 제나라면 남성이 섹스를 위해 여성을 살기 때문이다. 남성은 섹스를 위해 아이들을 사고 섹스를 위해 다른 남성을 산다. 때때로 사회는 어린이들을 사는 것에 대해

20 Erika Groll, "Victimhood During the Rape to Rape," in Ann Wolcott Burgess, ed., *Rape and Sexual Abuse: A Reader Handbook* (New York: Garland Press, 1992), p. 144.

우려한다. 때로 사회는 매춘을 위해 팔리는 남성들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남성이 섹스를 위해 여성을 사는 것에는 거의 의문을 품지 않는다. 몇몇 나라에서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을 더 이상 천 단위로 셀 수 없고 백만 단위로 세어만 하는대도 말이다.

매매춘은 남성 소비자 시장이다. 여성의 처지, 여성의 선택 또는 여성의 '매춘부가 될 권리'라는 것에 여권이 집중적으로 조명됨으로써, 먼저 남성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춘이 존재한다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가 관심권에서 멀어진다. 매춘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성 구매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성 산업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몸을 공급하면서 인신 매매에서 매춘 업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 매춘 시장과 남성의 수요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섹스 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여성의 몸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시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계는 무너지고

매춘에서 탈신체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아와 거리를 두는 것은 한계를 설정하고 구매자에 대한 방어벽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 낸 상품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 내기도 할지라도, 이것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 통제를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한계가 무너지면 자아는 버려진다. 강간이 여성에게 착취와 한계를 설정하거나 만들어 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벽과 한계가 없는 매춘은 강간 섹스와 매춘 섹스가 통합된 것이다.

독일의 매춘 여성 권리 운동의 지도자이자 그 자신이 나이는 매춘 여성인

도미니카(Dominica)는 매춘에 종사하는 어린 세대 여성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잡지 『레미아』(Lemna)의 편집자인 엘리스 슈파르츠와와의 인터뷰에서 도미니카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매춘에서 자신이 목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한계도 없이 매춘을 하는 모든 계층의 여성들로 넘치는 거리를 "아시아"라고 묘사했다.²¹ 그곳에는 손님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상한선도 없고 하한가도 없으며, 여성들은 성적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경험과 조감도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여성들은 성적인 물건이 되어야만 한다.

그곳에는 매춘의 세계가 만들어 낸 위계가 있다. 여성들은 최고 계급인 클럽에서 최하위 계급인 거리 매춘부까지로 분류된다. 지난 10년간 이 구조는 밀려들기까지 내려갔고, 한계가 없는 매춘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것은 매춘의 종속(그녀의 경우에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규칙과 한계를 설정하도록 해준 그녀 세대의 여성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내 말은 쓰레기통이 아니요. 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 할머니들은 나를 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면서 그 일을 했고, 언제나 그렇게 해왔고 우리는 키스도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키스는 당연히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항문으로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 포주에게서 얻은 아박을 한 다음 거리로 내보내지는 어린 여자 아이들은 무슨 짓이든 해요. 어떤 것도 거하지 않죠. 그들은 몸과 영혼이 너무나 파괴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볼 힘이 없어요. 지금 그 아이들은 고향되어 있다기보다는 포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요.²²

21 Alex Schwan, "Domestic Prostitution," in *Women and the World: A Reader Handbook* (New York: Garland Press, 1992), pp. 23-44.

22 Ibid.

다시 말해 내가 앞서 말했던 매춘이 구성되는 단계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과 소녀들에게서 자아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규정해 주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매춘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 여성과 소녀들은 "모든 여성은 창녀"라거나, '섹스 노동'은 여성에게 가능한 경제적 대안이라는 생각을 조장하는 매춘 용로 윤곽의 뒷받침에 서 있는 여성들이 아니다. 매춘에 있어 성적 학대와 가난, 노숙을 경험하고 한계가 없는 매춘부가 된 실패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매춘은 곧 자신의 자아가 된다. 따라서 매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또한 한계가 없다. 즉 매춘 여성들의 삶의 몇몇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왔고, 팔리는 것으로부터 자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던 거리 두기, 이탈, 분리, 가장하기를 통한 계속된 리미트의 매춘화는 1990년대 거리 매춘 안에서 불타고 있다.

마약은 매춘 여성의 궤멸에서 10~20년 전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1970년대에도 매춘 여성이 마약을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포주들은 여성뿐 아니라 마약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한 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것을 전다리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곤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주와 매춘 여성 모두,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거리에서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훨씬 일상적인 매춘에서건 혹은 이따금씩 하는 매춘에서건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는 일부 여성들은 마치 자신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도둑질로 돈을 마련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팔곤 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매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마약으로 인해 다른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인 리자 메이허와 커티스는 뉴욕 시에서 코카인을 흡입하고 거리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도시의 가난한 소수 집단 거주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는 코카인 흡입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섹스 시장에 참여하

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²⁰ 그들의 연구는 독일의 도미니카가 목격한 바를 뒷받침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춘 여성들의 소외가 높고 특히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더트모이르의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 센터의 관리자인 드와이트 보타(Dwight Bothe)는 코카인 흡입이 오늘날 점점 거리 매춘과 동의어가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인간의 다른 모든 본능을 뛰어넘는다. 마약이 최후선이다. 즉 먹을 것과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마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 삶 그 자체를 위한 본능은 그 앞에서 굴복한다."²¹

메이허와 커티스는, "마약이 유발시킨 여성 섹스 노동자의 증가"가 매춘의 특성을 잘 설명에서 구강 성교로, 실내에서 실외로 변화시켰으며 "섹스 거래의 가격을 하락"시켰음을 보여주었다.²² 가격의 하락, 그리고 구매자가 여성에게 "어떤 것도 다 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춘의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 즉 그것이 밀마약까지 밀어붙임을 반영한다. 도미니카가 말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한다", 그리고 "거리 끝까지 한다" 구강 성교 1달러, 질 성교 3달러가 의미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매춘 생활이 보다 거칠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매자의 욕구를 증가시키는 데 구두와 고문을 매춘 거리에서 당연한 일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된 리미트의 매춘화이다.

노르웨이와 사회학자인 리브 핀스테드와 세실 호이거드는, 매춘의 가격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지만 거기에는 매춘 여성들이 고집하는 최저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최저 가격의 제정은, 가격에 문제가 생길 때 피고용인들이 보여주는 내부적인 단결의 정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개인의 이해는 공동의 이해와 일치한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싸게 팔면, 이것은 다른 모든 여성에게

20) Lisa Maher and R. Curtis, "Women on the Edge of Control: Crack Cocaine and the Changing Contexts of Street-Level Sex Work in New York City," *Crim. Law and Social Change* 18, no. 3 (1992), p. 277.
21) David Bothe, July 31, 1992.
22) Maher and Curtis, op. cit., p. 275.

영향을 준다. 가격은 하락한다."²³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을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도록 만든다.

호이거드와 핀스테드는 스웨덴에서 매춘 가격이 헤로인의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 스스로를 창녀라고 보는 여성들은 마약과 매춘을 연결해 하는 입장을 살아가고 있다."²⁴ 거리의 마약 가격과 매춘 가격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오슬로와 스톡홀름, 함부르크, 런던, 뉴욕에서도 발견된다. 매춘의 가격은 마약의 하루 소비량과 연관된 뿐 아니라 가장 폭력과 빈곤을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주변화, 노숙 생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메이허와 커티스는 연구에서 길이 없고 마약에 중독되고, 포주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리 여성들의 실상을 드러냈는데, 이들에게 매춘은 극히 드문 "비공식적 경제에서 가능한 수입 창출의 기회"이다.²⁵ 이 연구는 같은 지역에 있는 남성들이 차를 강도질하는 동안 여성들은 매춘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남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지역에서의 비공식적 경제와 사회적 직접 관계들이 결부되어 있는 마약 거래를 대부분 통제하고 있다."²⁶

메이허와 커티스의 발견은 우리가 1970년대에 마약 남용과 관련하여 알고 있던 바와는 다른 패턴을 드러낸다. 코카인 실패에서의 매춘은 더욱 깊은 절망과 지도자기를 야기한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 마약은 매춘을 하는 이유가 된다. 자아가 온전한 상태로 보호되는 특정 성격에 대한 침묵은 생존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은 새로운 극단으로 치달는다. 반대로 생존을 위한 노력,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매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이라

도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인간이라면 여전히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절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뭔가가 달라질지 모르는 미래의 순간을 위하여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아주 여성들과, 이전에 성 노예 생활과 마약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이 모든 것과 생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마약을 쓰지 않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더 깊은 박탈감에 도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매춘은 그들이 자아를 포기하는 수단이 된다.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모든 절망 속으로 내던져진다. 밀마약까지 밀어진 매춘 속에서는, 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도 마약을 사기 위해 매춘을 한다는 막연한 가정 속에서 사소하게 취급된다. 밀마약까지 밀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도 없을 때 인간은 생존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매춘의 세계가 새로운 밀마약에 도달할 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 존엄을 잃는다.

메이허와 커티스의 연구, 호이거드와 핀스테드의 연구는 모두 거리에서 헤로인과 코카인에 중독된 여성들에게 아주 어린 시절 성적 학대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들은 근친 강간에서 계속된 리미트의 매춘화를 경험했고 그런 경험을 당한 모든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거지에서 이탈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이제 매춘을 하고, 매춘 안에서 육체로부터 이탈한다. 마약을 함으로써 더욱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한다. 어릴 때의 성 학대로 인한 과거에 덧붙여 노숙과 가난이라는 절망은 젊은 여성들 소녀 들을 한계가 없는 매춘에 다가가게 만든다. 그곳에는 생존을 위해 남겨진 자아가 없다.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때로 무어,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아를 성격으로 착취할 수 있는 사물로 환원시킨다. 이 여성들의 매춘 가격은 아주 싸다. 그 이유는 마약 추사를 위해 돈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아들에게 남겨 놓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23) Hagard and Russell, op. cit., p. 41.
24) Ibid., p. 42.
25) Maher and Curtis, op. cit., p. 276.
26) Ibid., p. 276.

경우보다 가장 가혹한 배간과 조전 안에 놓이게 되는데 한 거실에 다른 사람의 몸을 파는 노예 살인과 달리 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파는 것이다. 그들에게 남아 있는 삶이란 없다. 자기 자신을 매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여성들과는 달리 이러한 여성들은 매춘 여성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살인

체계적인 성 착취는 여성의 삶의 가치를 '쓰고 버리는 여성들'의 가치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일회용 병이나 상자처럼 내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내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경찰이 쏜 매춘 살인 사건들을 몇 장 보았다. 어떤 과실은 나를 난감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했다. 거가에는 낡은 빌딩의 지하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다. 죽은 소녀의 몸이 그 통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분 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았다. 머리 위에 구부러진 팔만이 보였다. 경찰 통제에 따르면, 뉴욕 시에서 1973년 한 해에만 71건의 매춘 살인 사건이 보고되었다. 그 중 54건은 로쿠나 남성 구매자에게 의해 자행되었다.¹⁶⁾ 이러한 숫자는 과실할 바 없이 어림잡은 추정치일 뿐이다.

메이허와 커티스는 뉴욕 시의 두 동네에서 적어도 네 명의 매춘 여성이 그들이 연구하는 기간 동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여자는 경찰에게 쫓기던 트럭에서 주차 요강 표시기로 세계 전체적 있었다. 다른 여성은 가슴이 드러나어져 있고 목이 잘려 나간 사체로 철도 위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여성은..... 데이프홀에 구타당해 죽었다."¹⁷⁾

16) Harold Acheson, *Office of Management, Analysis of Crime Scenes* (New York, 1976).
17) Maher and Curtis, *op. cit.*, p. 245.

이런 매춘 여성들의 죽음은 거의 표면화되지 않는다. 마리스코리스 시오온(Marion Sisson)은 일가리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일본 야쿠자의 수중에 들어가 술집 여성이 된 8만 명의 필리핀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매장을 위해 시오온의 사체를 필리핀으로 송환하면서 일본 피요장이 사인으로 진단한 기관 손(Morgan follow)만으로는, 그녀의 신체에 자행된 학도의 잔인함을 드러내기 부족했다. 심한 두부 손상과 그녀의 다리를 비롯한 다른 신체 부위에 남겨진 상처들을 통해 명백하게 증명되는 전안상은, 시오온의 부모가 언론에 부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이 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급파한 이후 보고서는 과실의 책임을 없애무리기 시작했다.¹⁸⁾

외국 이민자는 자국 내 도망자든, 살인 사건과 매춘 여성의 자살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매춘 여성들이 예전 친구, 가족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그들을 익명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 아무도 모른다. 매춘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매춘 여성이 남자를 죽였을 때는 마치 세상이 참란 것처럼 다루어진다. 1992년 아틸린 케를 우오르노스는 매춘 여성을 연쇄 살인한 남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필리스 제슬러(Phyllis Gessler)가 쓴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그녀 제스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 너는 개년이야. 내가 말해 주지, 나는 무슨 것이든 할 거야. 만약 네가 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른 년들처럼 (너가 제스틀) 할 거야. 살인업어. 내 몸은 여전히 깨끗할 테니."라고 말하곤는, 내 손목을 뱀줄에 묶고 창문에서 뛰어

18) Gail Melman, "A Dark Bridge Meets Light in Japan's Dark Side," *Buzz* (Gib), October 25, 1991.

요..... 나중에 나를 풀어 주고 내 목을 라디오 줄로 묶은 다음 나를 다시 장간하러고 했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죠, 이 더러운 개자식은 내게 한 것으로 죽어 이땅에 우리는 싸웠어요. 내 손이 출에 닿았고, 그를 풀어요."¹⁹⁾

우오르노스는 모두 합해 여섯 명의 폭력적인 남자들을 죽였다. 여자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이다. 제슬러는 "대부분의 연쇄 살인범은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여성을 중독하는 비둘이 백인 남자들인데, 그들은 피해자를 죽이기 전이나 후에 성적으로 이용했으며, 또 그를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학대당한 아이들이었다"라고 지적한다.²⁰⁾ 그들은 우오르노스처럼 살인과 강간, 구타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고, 정당 방위를 주장하지도 않았다.²¹⁾ 첫 번째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형의 대에 이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남성을 죽인 여자 연쇄 살인범 우오르노스의 사례는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행동은 플로리다 법정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남자 구매자가 죽었다는 점 때문에 주 정부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제슬러의 지적처럼 "만약 플로리다 주가 할 수만 있었다면, 우오르노스가 살해했다는 남성 한 사람당 한 번씩 그녀를 전기 처형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²²⁾ 매춘 여성이 당하는 살인은 매춘의 직접적인 위협 중의 하나라는 것이 이 사건을 다루는 법정의 심리와 처리 과정에서 명백하게 증명되었는데, 그녀의 사건은 그녀가 매춘 여성으로 팔렸으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남자 구매자에게 섹스 상품으로 취급되었다

는 명백한 상황과 별개로 다루어졌다.

뉴욕 도제스틀의 아서 쇼크로스(Arthur Shewcross)는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11명의 여성을 죽였을 당시, 과실 지사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가 죽인 여성들은 대부분 매춘 여성이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매춘 여성 '일제 단속' 혹은 소탕 기간 동안 1992년 한 해에 1만 2천 명 이상의 여성이 제포되었으며, 10명 이상의 매춘 여성이 살해가 발생되었다.²³⁾ 그러나 이 중 어떤 사건도 우오르노스가 정당 방위로 행했던 살인이 아니었던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매춘 여성에 대한 연쇄 살인은 주기적으로 보고된다. 1977년 말에서 1978년 초까지 'LA 살인자'가 많은 여성들을 잔혹하게 강간하고 죽였다. 그가 죽인 피해자 대부분은 매춘 여성들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북잉글랜드의 많은 거리 매춘 여성들이 '살인방'에 의해 절단된 채 살해당했다. 매춘 여성에 대한 연쇄 살인은 계속되었다. 1992년 디트로이트에서는 코카인을 파는 9명의 매춘 여성들이 교살당한 뒤 빈 건물에 버려졌다. 그들은 묶이고 재갈을 물린 채 팔가벗겨져 있었다. 몇몇은 팔뚝 당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6개월 동안 건물 안에 유기된 것으로 보였다.²⁴⁾

맥 볼드윈(Mag Baldwin)은 매춘 살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주로 매춘 여성인 48명의 여성들은 "그린 리버 킬러"(Green River Killer)에 의해 살해당했다. 3년 간격으로 마이애미에서 31명의 여성들이 살해되었고, 그들 대부분이 매춘 여성이었다. 14명은 덴버에서, 25명은 LA에서, 7명은 오를랜드에서였다. 샌디에이고에서 43명, 로제스라에서 14명,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에서 8명, 메사추세츠의 뉴베르포트 9명, 알래스카 17명, 알과 10명 등이다. 1990

19) Phyllis Gessler, "Ten, Dead and the Double Standard," *On the Line* (Summer 1992), p. 11.
20) Phyllis Gessler, "A Woman's Right to Self-Defense: The Case of Allen Carol Warren," *A John's Law Review* 46, no. 4 (Fall Winter 1992), p. 346.
21) *Ibid.*, p. 347.
22) *Ibid.*, p. 347.

23) *New York Times*, November 15, 1992.
24) *Chicago News*, July 16, 1992.

년 워싱턴의 스모칸에서 3명의 매춘 여성이 죽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4명의 여성과 소년을 죽인 살인범 '그린 리버 킬러'가 다시 한번 '활물을 사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⁴²⁾

제인 카플리는 "성적 연애 살인은 외부 세계의 학이나 원인 불명 정신병의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전염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살인은 가부장적 억압, 가치, 욕구 그리고 힘의 범위의 자정 속에 진행되는 현저하게 논리적인 단계이다"라고 지적한다.⁴³⁾

살인, 말버락까지 떨어지는 것, 강간 그리고 매춘은 자제는 비인간화된 세속엘리트의 결과이고 억압의 조건이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자유주의 범구조가 언제 어디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가부장적 억압을 통한 세속엘리트의 비인간화는 개인에게 발생한 폭력으로부터 분리된다. 원인과 결과가 분리된다. 지배는 계속된다.

내가 『여성 성 노예제』에서 발견한 것과 같이, 그러한 권력의 행위자는 남성이다. 남성들은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협력하여 기능한다.

모수, 살인범, 범죄 조직의 구성원, 노예 살인, 매춘업소의 경찰주, 마사지 업소, 성 착취 산업 관련 종사자, 포르노그래피 공급업자, 아내 구타자, 어린이 성추행자, 근친 강간의 가해자, 매춘 구매자, 강간범인 남성의 수를 고려할 때, 여성의 성 노예화에 참여하는 남성 인구의 거대함에 어느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수가 막대하다는 사실은 국가적·국제적 위급 상황, 성 폭력으로 인한 위기를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야

42) Margaret Baldwin, "Spleen in the East: Prostitution and Promiscuous Relations of Love Relations,"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1 (Fall, 1992), p. 88.

43) Jane Caplan, *The Age of the Crime (Reading Crime, Crime Reading Crime from University Popular Press, 1987), p. 3.*

할 것이다.

위의 목록에는 포르노그래피를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고 매춘을 합리적 섹스라고 주장하는 성 자유주의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내가 『여성 성 노예제』에서 확인한 위기 상황은 아직까지도 인식되지 않고 있다. 20세기 말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는 세속엘리트의 매춘화 속에서 매춘의 정상화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여성 인권의 침해는 여성의 동의로 확인되는 정상적인 섹스의 조건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18세기 사도 백작이 던진 "자유로운 노예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2장 성적 권력

필리핀의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리사 매매(Lisa Mame)은 자기가 자라 온 가난한 환경,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젊은 여자들처럼 리사도 도시로 가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었다.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족 밖에서는 거의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농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사회적으로 이탈시킨다. 이런 조건하에서 여성들은 특히 성적인 착취에 쉽게 노출된다. 고향을 떠나 혼자서 된 리사는 사랑에 빠졌고 임신하게 되었지만,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버림받은 후 혼자서 아이와 버티 보았지만, 아이는 8개월 되었을 때 죽고 말았다. 학교를 다시 다니려 해도 돈이 없었다. 결국 학교를 보내 주겠다고 나선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그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83년 10월에 리사는 그 지역의 검사장(judge prosecutor)을 만났다. 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접수계에서 고소직으로 일할 수 있다며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자국의 산업과 과정에서 주변화되는 여성들은 이면을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매매준으로 몰림 거래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촌 출신인데, 이들은 한동안 남자와 결혼 관계나 애인 관계를 맺고는 버림받는다.⁴⁴⁾ 리사는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매춘업소로 보내졌다. 불법 거래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망치기 위해 구매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다. 1983년에 한 구매자가 리사의 이야기를 물더니 도와 주겠다고 했다. 이것은 경찰이 현장을 불시 단속하기 2년 전의 일이다. 리사 매백은 자유의 몸이 되자 네덜란드에 있는 필리핀 단체를, 그곳의 여성 단체를 그리고 필리핀 여성 단체들의 후원을 받으며 1985년에 법정 무장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 한 쇼맨(Jan Schoonman)은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네덜란드 법정에서 불법 거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법원은 1991년 그의 필리핀 거래 상대자였던 전직 국가 공무원 베스토리아 플레이서(Besteria Pleister)를 석방시켰다. 달달 판사는 도리어 "부정한 성에 대한 열난 취향 때문에 나타난 그녀의 명백한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리사 매백을 비난하였고, 반대로 플레이서에 대해서는 "그의 성격은 트림함을 대가 없고 그의 공적 생활에는 오점이 없다"고 하였다.¹⁾ 1993년에 그 사건은 항소심에 있었다.

식물의 가난을 박차고 나온 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조건에서 리사 매백은 매춘으로 매여져 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나라에서 매춘은 산업화되어 가고 있었다. 군대 특히 미국의 수백(Seab) 해군 기지와 클라크(Clark) 공군 기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에서 성 산업이 개발되고 있었다. 리사는 필리핀에서 네덜란드로 매여되었는데, 네덜란드는 후기 산업 국가들에서 매춘을 합법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서구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리사 매백이 매춘을 통해 당한 착취는 이 책에서 밝히는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 중 ① 여성에 대한 불법 거래, ② 군대에서의 매매춘, ③ 성의 산업화, ④ 매춘의 정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성 착취의 역사적 단계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을 성으로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단일하지만 성적 종속을 발생시키는 정치적·경제적 전략면에서는 다양함을 보여준다. 성 착취는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권력과 성 정치학에는 단일한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다.²⁾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들은 한 나라의 특정 경제 발달 단계나 역사적 시기에서 발전되지만, 경제 발전 및 민영화 더불어 서로 이어지는 점진적 진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매매

이것은 특히 일차적으로 농경 사회로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전(前) 산업 사회 및 봉건 사회에서 두세된다.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는 것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남편의 권력에 의해 집에서 무임 노동, 재생산 기능, 성 관계로 착취된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사적 존재가 되어, 집 밖에서의 노동도 공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으로 제한된다.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에 가인하는 성적 종속과 경제적 의존은 결혼 봉건제(married feudalism)라고 할 수 있다. 봉건 제하에서 남성은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침을 두고 매춘부를 사도 벌을 받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양종을 보장해 주는 남성 지배 체계의 특권이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감금과 강제 매춘을 포함하여

1) Paula Phangsoo, *From Peasant Girl to Bangkok Housewif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2), p. 22.
2) Gabriela Witten's *Condition: "Highlights of the Court Decision," Manila, March 25, 1991, Decision of the Manila Regional Trial Court, Case of Manila Place, p. 32 - 34.*

결혼 외의 그 어떠한 성적 행동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엄한 벌을 받는다. 가부장제의 사적 영역 밖에서는 여성에게 사회적 공간이 거의 없다. 남성을 위해서는 매춘이 성행한다. 가부장제의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주로 야만적인 매매와 강제 매춘을 통해 매춘업소로 보내진다.

군대에서의 매매춘

전쟁 지역이나 대규모의 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군대 매춘은 군인에게 휴식과 오락(Rest & Recreation)을 제공한다. 전쟁은 주로 제2세계에서 혹은 전쟁 때문에 경제적 후진국이 된 동유럽과 같은 나라들에서 점점 더 많이 치러진다. 이러한가치로 군대 매춘은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취약한, 즉 전쟁중의 경제적 저개발 속에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전통주의적 가부장제 속에서의 강간으로 인해 군인들사이의 정황자이든 주로 파국인 남자이든을 위한 성 상품으로 자신을 팔 수 있는 곳에서 형성한다.

성의 산업화

경제 발전은 성 산업을 동반한다. 산업화와 공적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사적인 가정을 떠나 주로 도시 지역에 있는 공적 경제 영역에서 직업을 찾아나선다. 산업 경제가 국내 생산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으로 바뀌어 갈수록 서구의 성 산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매매업자들과 거래하게 된다. 합선업자들에게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적절한 대상이다. 가정에서 무임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이들의 노동은 공적 부문에서도 평가절하되고 주변화된다. 가족 내에서의 착취는 공적 부문에서의 노동 착취로 이어진다. 산업화가 진전함에 따라 성 산업은 여성에게 수출 생산 노동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 성 산업은 여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매춘으로 이끌어, 더 이상 불법 거래에 의한 강제 매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요한 성 착취는 여성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물리적 장벽이 별로 없는 성 산업으로 나타난다. 이주 과정에서 경제적 궁핍과 고용 기회의 부재로 여성에게 모든 가능성은 닫히고 만다. 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여성들에게 그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온다.

매매춘의 정상화

이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리잡는다. 발전된 후기 산업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갈수록 남성은 결혼에서 여성에 대한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물세권을 회피하기 위해 가부장적 권력은 공적 세계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종속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성 착취는 개별화된다. 성 과학자들이 고무하는 포르노그래피로 가득 찬 사회는 공적 영역에서의 개별화된 성 착취를 지명시킨다. 이와는 달리 봉건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종속에 대한 공공연한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은 결혼에 의한 사적 소유의 문제였고 여성에게는 결혼 외의 다른 경제적·사회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남편의 정당 한 소유물이었을 때에는 여성의 동의라는 이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로 가득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동의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산업 부문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 남성의 통제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그 대신 여성들로 하여금 세속일터의 매매화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공적 세계에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의 참여력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공적·사회적 착취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이전에 결혼에서 행해졌던 성 착취에 기반한 것이다. 독산이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 역사적 현실로 등장했을 때, 성 착취의 공적 제도들이 그녀를

다시 성적 존재로 귀결시킨다.

이것이 바로 아니타 힐(Anita Hill)이 경험한 것이다.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그녀는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국회 위원회에 보고하여, 1991년 그를 미국 대법원에 서게 하였다. 힐이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국회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고 성대화된 몸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성적인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 노예가 백인 남성의 성적 소유물로 환원되었던 일을 차별주의적 성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⁸⁰

아니타 힐에 대한 위원회의 심문, 특히 편실베아니아 주의 상원의원 스펀터(Spencer)의 힐박은 단지 한 명의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었다. 전권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탈레비전을 통해 아니타 힐을 모든 여성의 본보기로 삼았다. 미국 여성들을 향해 던지진 메시지는 바로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감도 높은 교화 성문을 통해 일말의 적의를 찾아내려고만 하는 가짜없는 노력에 그녀가 용감하고 잘못하게 버티었을 때 전 미국의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타 힐과 같은 여성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을 중 어느 누구의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클라렌스 토머스를 보호하던 남성 국회의원들의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 낸 인종 차별주의적 메시지였다. 힐의 사건이 이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유색으로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거부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 Patricia Hill Collins,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0), p. 107.

성문화와 색슈얼리티의 구성

성적 권력은 사회적이고 불건전한 형태나 공적이고 산업적인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여성의 삶을 조건 짓는 정치적인 것이다. 자리의 역사적 시기마다 결혼 불건전에서 실 산업화와 성상화된 매춘에 이르기까지 자리의 경제적 조건들의 기반하에서, 색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또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을 통해 그 사회의 특정한 가부장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형태 지어진다. 사회가 색슈얼리티보다 선행하여 성문화이나 혹은 필요 욕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 경험을 구조화·맥락화시키는 것이다.

색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적 교란의 행위를 속에서 지배 관계가 생산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성리적 실 충돌, 욕구 등을 통해 짓고 만들어 낸다. 성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성 충돌이 선천적인 현실로 먼저 나타나서 성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틴 델퍼가 지적했듯이 "억압이 권력을 만들어 냈고 권력은 다시 해부학적 실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동질적인 것을 두 개의 위계적인 것으로 나눌으로써 (그 자체로서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해부학적 차이를 사회적으로 용의미하게 구분되는 단위로 변화시켰다."⁸¹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성 과학 및 그 반대 담론, 즉 매체들의 시각적 재현을 인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색슈얼리티'라는 사회적·문화적 생산물, 즉 상상화된 매체들의 색슈얼리티가 발전하고 전개된다. 루오는 "19세기 이래로 성 과학(sexuality science)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론(relativist)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⁸² 성은 공적·사회적 색슈얼리티로서 전개되어 "욕제들을 만연시키고, 혁신시키고, 병합하고, 창조하고, 침

© Christine Delphy, *On a Hierarchy, trans. Diana Leonard* (Lond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p. 144.
© Michel Foucault, *History of Sexuality*, vol. 1 (New York: Vintage, 1983), pp. 70-71.

침 세부적인 방식으로 침투하고…… 점점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구를 통제하여"⁸³ '담론'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에 선행하는 정치나 의미가 없던 성이 '성'·차별적 권력의 조건으로서의 색슈얼리티가 되었다.

한 세기에 걸쳐 사구의 개방적인 지역에서 성에 관한 공적·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남편의 권위하에 여성을 사유화하는 결혼이라는 것에서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을 공적으로 식민화하는 성으로 옮겨졌다. 후기 산업 사회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을 가족 내의 재생산 및 성적 통제하에 가두어 놓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커플링(coupling, 쌍쌍 문화—결혼이라는 말에 대한 성적 차원에서의 강조가 등장했다. 20세기 말에는 이 말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여성에 대한 통제라는 차원에서 결혼이 의미하던 바를 의미한다. 여성이 더 이상 아내로서만 규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제 여성은 누군가와 성적 결합에 의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기대받는다. 커플링(쌍쌍 문화)은 여성이 누군가와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므로 (더 이상 결혼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통제하에 있다는 사회적 의미 작용을 하게 되었다. 여성은 성적 존재이며 또 그래야 한다는 명명은, 여성을 더 이상 결혼이나 경제적 의존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최근에 구성된 사회적 권력이다.

1960년대의 성 혁명은 성 과학자들과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작업을 경전으로 삼았는데 실라 제프리스가 지적했듯이 이들 두 집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 해방에 적대적이었다.⁸⁴ 결국 1980년대에 이르면 이들은 여성 '해방'의 뜻과 의미를 포르노그래피로 환원시키게 되었는데, 이때의 '해방'이란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성 규범들을 깨고 여성을 세스로 환원시키는 권력·공적인 남성주의적 규범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과학과 포르노 담론에서

등장한 성 해방 문화는 세스를 획득하는, 취해지는, 얻어지는 그 어떤 사물화된 '물건'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물건'은 오르가슴 속에서 사물화되었다. 스테판 히스가 지적했듯이, 오르가슴은 "성행위에서의 주요 작전이다."

오르가슴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는 한, 우리는 성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남녀의 '본성적' 차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상호으로서의 성을 실현시키는 교란의 주체로 하지 지어진다.⁸⁵

시구에서 한 세기 동안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발전하는 동안, 색슈얼리티는 강제적인 것이 되었으며 마치 강제적 성이 '정상적' 성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색슈얼리티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초에 대량 생산을 위해 출현한 포르노그래피의 발전을 따라간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검열이 제거되자, 그 주제는 여자 내세 사건에서 점차 더욱 도전적인 포즈들로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소비자들이 성적 명확성을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고,⁸⁶ 결국에는 하드코어적이고 거칠고 모욕적이며 비하적인 세스와 여성이 성행위중에 실패하는 스니프 필름 등이 생겨났다.

오늘날 남성 지배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공정적 인간 경험으로서의 성을 착취로서의 성과 구별하는 데 실패한 사회에 의해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적 성의 구성에 개입했다. 도위킨과 매키넨은 시민적 권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포르노그래피가 "세스에 기반한 착취 및 종속화의 체계이며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재규정하였다.⁸⁷ 도위킨과 매키넨이 포르노그래피를 해로운

80. Stephen Heath, *The Sexual Po* (New York: Schocken, 1982), p. 45.

81. Richard Barthes, "Photography and Sex: The Danish Experience," *Visual Pleasure: Pleasure in Cinema and Photography* (London: Routledge, 1983), p. 241.

82. Andrea Dworkin and Catherine MacKinnon, *Photography and Civil Rights: A Fair Play for Women's Equality*

83. Ibid., p. 107.

84. Sheila Jefferys, *Amateu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p. 143.

것으로 규정된 것은 단지 그것이 난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은 물건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당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상처받고 괴롭히고 영혼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 핵심에 있어서 포르노그래피가 침투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탈인간화된 성적 대상, 물건이나 상품으로 제시된다."¹⁵

법적으로, 브리킨과 메키넨은 포르노그래피의 주제가 "사진 그리고/또는 단어들을 통해 여성의 종속을 생산하는 성적으로 명확한 그래픽 표현"이라고 규정했다(중요한 인용자) 때문에 포르노그래피를 실행에 옮긴 버전이다. 여기서 여성 종속의 시각적 재현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 때문에 정상화는 사회적 삶과 관계를 속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정상화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상업적인 성적 서비스로서 이용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일차적·주관적 경험일 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한 결합이기도 하다.

성을 자유의 한 형식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데로 가는 실천이 그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서만 장라화했던 성적 자유론자들은, 남성 지배를 옹호하기 위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시민권의 접근을 비난하려고 움직였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포르노그래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매춘이 성적 행동의 정상적 모델로 자리 잡는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속세를 식민화하는 이러한 서구 남성주의적 성은 서구적 매춘의 주요한 차원이 되었다. 미국·유럽·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사업에서, 관광객으로서 이러한 성을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시장 수요의 형식으로 요구한다. 미국, 유럽 또는 여타의 정령군들이 제3세계 여성들을 감당하고 매춘을 하게 할 때 그들이 이런 종류의 섹스물처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고할의 매인과 아내에게

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환원되는 자라의 역사적 시가불건제,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마다 여성의 종속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환원시킨다. 즉 여성을 자신의 몸이 박탈되어 사물화되는 계급적 조건에 놓이게 하며, 여성의 성을 사회적 현실로서가 아니라 본질적 현실로 취급한다. ② 인간을 목적적 기능으로 환원하여 여성을 역사 밖으로 내몬다. ③ 초시간성. 여기서 여성은 시간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 착취에서 여성은 보편화되므로 역사적이지 못하게 되고, 생물학적으로 환원되므로 사회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러는 대조적으로 케서린 메키넨은 성이 종속의 조건이 아닐 경우에 가능해지는 법적·사회적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남성이 평등하다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억압되지 않을 것이다. 성적 권력은 배척될 것이고 성 관계에 동의하는 일은 일상적인 현실일 것이며, 성폭행당한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성이 평등하다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억압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결방과 주변성이 배양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중요한 이론이 성적·경제적으로 착취되지 않을 것이다.¹⁶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매춘이 정상화되면 돈의 교환이나 상대를 불과 10분 정도 대했다는 점에서 의식형식만으로는 더 이상 매춘 여성이 경험하는 성 관계를 일반 여성들, 상대들, 소녀들의 경험과 구별할 수 없다. 1990년대에 이르면 매춘 행위로

Copyrighted and published by authors, 1998, p. 22.
15) *Ibid.*, p. 26.

16) Catherine M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11.

구별되는 섹스나 포르노그래피로 조장되는 섹스는 공간에서의 섹스 상대들이 데이터에서 강조하는 섹스 그리고 많은 사회적 관계들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섹스와 유대미하게 다르게 있다. 이는 서구에서 강한 매춘은 사회적 성 관계 사이에 정상성의 구분선이 흐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1990년대의 성 매춘 문물과 포르노그래피의 합법화가 남긴 유산은 여성의 매춘이 아니라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였다. 1990년대에 비디오카세트 녹화기는 포르노그래피를 집 안의 침실과 사적인 성 관계에 끌어들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침실이라는 침실(포르노그래피, 즉 매춘화된 섹스가 행해지는 어느 곳이란) 포르노 제작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매춘 새로 나오는 대략 75개의 성인용 비디오의 3분의 1은 집에서 아이두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있다.¹⁷ 그리고 남편과 애인들이 집에서의 내밀한 개인적 경험들을 찍는 것이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게 됨에 따라, 여성들은 성 관계 상황들이 점점 더 고문처럼 느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이애나 러셀은 장간을 연구하면서 인터뷰한 여성 90명 중 10퍼센트에게 포르노그래피가 실제의 성적 경험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여인: 애인이었어요 그는 포르노 영화관에 가곤 했는데 집으로 자서는 "영화에서 그런 걸 봤어. 한번 해보자"고 말했어요 난 어떤 물 속에 갇히는 것처럼 정말 착취되는 기분이었어요.

D 여인: 내가 그 남자 집에 머물 때였어요 그는 나한테 오일섹스를 하게 하려 했어요 그는 영화 속에서 이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F 여인: 그는 포르노 책에서 무언가를 읽었는데 그것을 나와 해보고 싶어했어

요 그런 것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질척 있고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었어요 그가 나를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 했어요.

H 여인: 그 커튼은 막 포르노 책을 읽고 나서 내 방에서 그룹섹스를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남자친구에게 나를 섹스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잘가졌을 때 몰아다녔고 난 정말 불편했어요.

I 여인: 시도카르티움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 맞은 일에 참여해 보겠느냐고 물어 왔어요 제인일 뿐이었고 실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난 그런 발상이 싫었어요.

인터뷰자: 당신을 떠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I 여인: 참은 성교요 그것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그 것을 해야만 했었고, 아주 가깝요.

M 여인: 참은 성교 처음엔 나를 살상 섹스하러 했고 그와 매이트한 기간이 좀 짧고 몇 번 자기도 했죠 한 번은 나더러 참은 성교를 해보라고 섹스하러 했었어요 처음엔 말로 했고 나중엔 침묵을 하면서 그랬죠 내가 "싫어"라고 말했는데도 그는 그 것을 했어요 난 너무 아팠어요 정말 미치도록 아팠어요!!

사회과학자 필립 볼름슈타인과 제퍼 슈타르츠는 1990년대 초에 이상에 밀 동성애 커플 1만 2,000명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 관계를 더 규칙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적 활동이 가장 내에서 증가하는 한편, 섹슈얼리티는 성적 선호/지향보다는 오히려 성별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 성적인 면에 있어서 "남편과 남성 동거인들은 아내 또는 여성 동거인보다

17) *State* (GSA, May 17, 1992).

18) Diane E.H. Russell,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man's Movement* (Berkeley: UCL, Calif., 1986), pp. 121-26.

는 게이 남성과 더 유사하다. 레즈비언이나 이성애 여성이 자기 게이나 이성애 남성과 비슷한 정도보다 오히려 레즈비언이 이성애 여성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¹⁶⁾ 이들의 결론은 권력·통제와 관련된 성행위에 대한 선호도에 상당 부분 기반해 있었다. 세슈얼리티의 성별화에 있어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성행위의 주요 포커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세스는 보다 많은 성적 대상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적인 경험과 세스를 분리시킨다. 이런 세슈얼리티가 포르노그래피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가 그렇다. 여기서 란다 리브레 이스는 실제로 포루(포르노 제작자인 척 토레이너에게) 성적으로 노예화되어 있었다.

서로에게 상호적이지 않으며 상대로부터 분리된 세스는 경우에 따라 여성을 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분리시키고 탈성체화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성을 증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를 연구에서 이성애 여성들은 성 관계를 상호적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점이 그들의 성적 만족에 중요한 점이었다. 그러나 안드레아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여성들은 성 관계가 자신들에게 광둥과 열정, 관능과 친밀성의 경험이 되기를 바랐다. 여성들이 사랑에 대해 갖는 바깥에는 인간으로서의 남성도 포함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인간적인 특성이 성 관계 행위 속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운동된 권력을 통해 권력상을 입지 못할 때조차, 여성들은 사랑의 구현적 잠재력을 밀었다.¹⁷⁾

16) Philip Blumstein, *Paper Marriage: American Couples Map the World*, 2nd (New York: William Morrow, 1987), p. 305.

17)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 p. 128.

사회의 성매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생활에서 성 폭력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상이한 지점에 도달해 있다. 드워킨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 "평등에 기반한 인간적 관능에 대한 이러한 비전이 여성들의 열망 속에 있다. 그리고 성적 열등함의 막을조차도 이것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¹⁸⁾ 선택과 욕망에 있어서 남성 세슈얼리티는 관계가 소원한 세스 인간적 경험과 상호 작용으로부터 분리된 세스 그 자체를 위한 세스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성적 상호 작용을 파괴하여, 세슈얼리티의 매춘화의 원인이 되는 대상화된 세스를 고무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세스로, 바로 세슈얼리티가 성 차별주의적인 권력 관계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만약 자아가 성적 사물로 환원되는 세슈얼리티의 매춘화가 성인 여성에게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면, 십대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부과된다. 사회가 성매화되면서 보다 이른 나이에 십대에 첫 세스를 하게 된다.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의 데이토에서 성적인 용어들은 때때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후리다, 남아세다(hooking up)"라는 말은 세스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토를 의미한다. 1981년에 미혼 소녀의 19퍼센트는 15살 전에 성 관계를 가졌다. 1988년에 그 수치는 27퍼센트로 증가하였다. 1991년에 15~19세의 미혼 여성 30퍼센트와 미혼 남성 60퍼센트는 성 관계 경험이 있었다. 성적으로 활동적인 15~19세 소녀 3명 중 1명이 임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¹⁹⁾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십대 임신의 위기로 인해 1990년대 십대 중반 청소년들의 성적 절제를 권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소녀들에게 세스에 대한 압력과 "남아세기"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권하는 압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18) *Ibid.*, p. 128.

19) "Teenage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Fact in Brief* (New York: Alan Guttmacher Institute, 1991).

가르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소녀들은 그들 자신의 목표를 확립하게 세움으로써 세스에 대한 압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도시연맹'(Urban League)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 장려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십대들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 발달에서 초기 세스의 해로운데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는다. 절제나 순결 프로그램들은 도덕주의적인 경우가 많고 부시-퀘일(Bush-Quayle) 행정부에서 촉진된 반동적인 '가족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십대 임신의 위기를 이용하여 성을 억압한다. 이하는 달리 인간 발달 단계상 성숙해질 때까지 성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성적·개인의 자율성을 무가시킴에 것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은 십대 여성의 발달을 침해하기 일췌인 성적 권력 관계에 도전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초기 성 관계의 빈도에서 인종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훨씬 못마쳐 연구소(Alan 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1980년대의 여성의 성적 활동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층 백인 십대 여성층에서 발생하였다."²⁰⁾ 이러한 경향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통한 부조류에 상류 계급의 초기 성적 행동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은 점차적으로 노동 계급과 빈곤층에서도 폭력을 생산해 낸다. 1993년 동부 메란의 사립 여자 예비 고등학교 상급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108명의 응답자 중에서 60명을 전제로 해서) 43.3퍼센트는 세스 경험이 있었고 이들의 92.3퍼센트는 첫 세스를 15~17세 사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백인이며 중·상류층 집단 출신인 이 학교 십대 소녀들의 1993년 성 행동 양식은 불륜슈타인과 슈바르츠가 1983년 성인들에게서 보았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63.2퍼센트는 남학생을 오르가슴에 이르게 한 반면, 여학생의

30.7퍼센트가 남학생에 의해 오르가슴을 느꼈다. 여학생의 45.6퍼센트가 남학생에게 질러다오(여성기 남성에게 하는 구강 성교)를 해준 반면, 36.8퍼센트가 기널질거스(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구강 성교)를 경험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이 오래 전에 확립해 놓았던 내용과 연관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브루스 암부렐과 글라달 라파로르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단지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다음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14세의 백인 소녀 7퍼센트와 아프리카계 소녀 9퍼센트가 성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백인의 2퍼센트 그리고 아프리카계의 6퍼센트만이 자발적으로 세스를 하였다."²¹⁾ 이러한 강제가 정상적인 성 생활의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성의 사회화는 세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강요된 세스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세스가 되는 기초 조건이다. 전미여대생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가 행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것은 세스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성취까지 끌어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경제적·정치적 종속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다. 전미여대생협회의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81퍼센트가 학교에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여학생의 76퍼센트와 남학생의 56퍼센트는 성적 언사와 시선을 받았다고 했고, 여학생의 63퍼센트와 남학생의 42퍼센트는 성적인 접촉, 용지럼, 고집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십대의 성적 발달이 조기에 여성의 성적 종속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여성 발전의 잠재력을 잘라 버리는지 보여준다. 현재 십대들의 급격한 성 행동의 부정적 효과는 소녀들의 학교 생활 경험과 성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성매화에 종속된 소녀들 중 33퍼센트와

20) Bruce Ackard and Julian Ruggiano, "Development Trends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Legal Competence to Consent to Intercourse," *Law and Human Behavior* 16, no. 2 (1992), p. 149; citing K. A. Moore, C. W. Hoar, J. L. Peterson, "Masturbatory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1, pp. 110~114.

소년의 12퍼센트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소녀의 32퍼센트와 소년의 13퍼센트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학교 내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의 30퍼센트는 절수가 떨어졌고 17퍼센트는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²²⁾

고등학교 교사인 에드 도넬란(Ed Donnellan)은 매년 14~17세 연령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²³⁾ 도넬란은 성 착취에 대한 하식을 고발하는 데 이 조사를 활용한다. 1992년에 조사한 70명의 학생 중에서, 17퍼센트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섹스를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다. 57퍼센트는 원치 않는 키스를 당했고, 23퍼센트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성기 접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1993년에는 여학생의 9퍼센트가 원치 않는 섹스를 당했고, 78퍼센트는 억지로 넓적다리나 가슴에 성적 접촉을 당했다.

도넬란의 조사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14살 먹은 한 여학생은 개인적으로 도넬란에게 와서 자신이 지난 9개월 동안 13명의 남자아이와 섹스를 했지만 "전 그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걸요"라고 말했다. 포르노그래피와 언론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여성의 상에와는 싹대 남자아이들의 섹스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시켰고, 싹대 여자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은 결코 "싫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아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경험을 극대화시켰다.

내가 도넬란의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몇몇 학생들은 아이 돌보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포르노그래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나는 친구나 신뢰할 만한 가족 중 누군가를 전화로 불러 그들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거나 집에 같이 가 달라고 해서 성적 착취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있지 달라고 강조했다. 몇몇 소녀는 이런 보호가 극단적인 반응처럼 보이거나 자신들을 약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게 해, 도리어 성적인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조기 섹스 경험이 청소년기의 정서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강제가 갈수록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성 의존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자음성, 독립성 그리고 물론 권위를 위한 기초로서 소녀와 여성들이 그들만의 개별적인 정서성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연적이거나 본질적인 여성성 때문이라기보다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들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의 성적 종속과 편차 불평 등의 토대이다.

성 착취를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매춘과 포르노에 참여하는 여성의 선택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정책적인 여성의 동의를 중요한 이유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접근은 모두 남성의 성적 권력을 거부장제 억압의 체계, 즉 계급으로서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섹스 계급으로 환원하여 종속시키고 있는 체계로부터 분리시킨다. 동의의도적인 순서는 거부장제가 억압을 규정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억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한다면,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피해자 개념은 거부장제의 정치적인 억압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서, 여성과 소녀들을 끊임없이 아편적인 일에 의해 움직이고 폭력당하는, 비합리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성폭력을 당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폭력에 종속되는 것은 성 착취와 억압의 연속체 속에서 발견되는 한 측면일 뿐이며,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 폭력에 동의했다는 것은 억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어떤 식의 억압이든 간에, 모든 억압에는 폭력에 대한 동의가 있다.

22)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Unsafe Passage: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assembled by Louise Harris and Associates, June 1993, p. 7. 8. 13. 14.
23) Correspondence and survey results from Ed Donnellan, 1991-92 and 1993.

노동으로서의 섹스

매매춘은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키는 가장 체계적인 제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성 착취의 토대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원형이며 모델이다. 다시 말해 만일 매매춘이 성 착취와 여성에 성적 종속의 모델로서 인식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들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 중의 많은 것은 이제 성 착취로서 인정되지조차 못할 것이다.

세슈엘리티의 매춘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매춘이 단지 새로운 노동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매춘을 또 하나의 노동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노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예 노동인가, 봉건제의 착취 노동인가, 자본주의의 계급 착취인가?

노예 노동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의 결과물을 박탈하기 때문에 미안받고 있으며, 어떤 노동은 자유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 발달상 너무 이른 시기의 노동이라고 여겨진다. 만일 통의를 기준으로 노예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한다면, 노예 제도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노예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의 자기 혐오가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다.

수많은 노동 이론과 노동 시장 분석은 불평등과 이중 노동 시장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을 일여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인(對人) 서비스 산물 생산에서의 노동을 생각해 보자. 감정 노동을 포함하여 무보수이면서 착취된 가사 노동과 개인적인 섹스 교환 사이에는 시장 상품화된 일련의 개인적 서비스들(성적 치료, 상단, 합타 치료, 마사지 등)이 존재한다. 대인 서비스는 무엇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구분 짓는 것에서 시작한다.

성적 치료와 마사지는 특정 상황에서 거리에 따라 제공되는 적절한 치료로 규정된다. 이 행위들은 정서적·개인적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러한 처치를 통해 정서적인 그리고/또는 개인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 치료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충동 또는 그 밖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매춘과 다른 것은 섹스를 연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분야에서의 작업 윤리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손님에게 행하는 서비스가 성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매춘이 노동으로서 착취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은 특정한 경험과 행동들이 과연 노동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위험하게도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가 노동에 대해 행한 연구를 페미니즘은 성에 대해 아직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자본가의 착취에서 해방된 노동,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그들이 바라는 해방과 모순 없이, 미래 연봉가 여성들이 자유로운 성 노동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가? 매춘이 거부장제의 성적 권력 관계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대까지 제거되지도 탐구되지도 않았으며 가장 없어 곤경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섹스가 어떤 것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해방의 조건으로서 세슈엘리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여성의 무를 가사 노동과 그것의 일부본인 감정 노동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는²⁴⁾ '성적인 일' 또는 '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채택함으로써 위의 질문들에 대한 이슈와 답을 통동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인 일' 또는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만약 섹스가 인간 매매자나 포주 그리고 성 산업에 의해 착취되지

24) See Arlie Russell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않는다면 누구나 사회 보장과 일감을 충분히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작업 또는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와 남편들이 자행하는 노동 착취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결여된 채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여간을 부여받는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보다 거대한 질문이 깔려 있다. 감정 노동이 착취적인 것은 무보수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서적·성적인 생활이 단순한 서비스로, 편더 권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노동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인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여성 종속, 특수하게는 성 착취가 이전부터 제기해 온 질문이다. 광범위한 인간 경험의 나열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착취적이지 않은 노동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가?

섹스를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성 노동의 속성은 특별히 설명되어 있다. 서비스는 남성들에 의해 구매되고 남성들을 위해 제공되는데, 성적 서비스는 남성 지배의 특권일 뿐 아니라 지배의 직접적인 현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공동체, 가족 그리고 개인 삶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내부, 감정,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아는 생활 내부와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발전된다.²⁵ 감정, 내부 생활, 개인적 영역은 상품화되어 남자에게 자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감정 노동과 성적 서비스는 남자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남성의 정서적 이탈과 성적 요구는 단순히 남성주의적 사회화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의 정서·생활 발육 부진과 성생활의 대상화가 권력의 배치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치 속에서 감정과 섹스는 노동으로 전락되고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착취이다.

섹스가 가정적 의무라는 맥락에서 요구될 때, 그것은 일종의 노물이자 결혼

내 성적 권력의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섹스가 또 다른 노동의 형태로 수용될 때, 인간은 인간의 성적 경험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몸은 자아가 머무는 곳으로서 그 연합과 취약성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자아에서 타자에게로, 스스로를 넘어서 현실에까지 확장되며, 이러한 인간의 몸에는 연합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지배와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로 인도한다. 감정, 섹스 재생산 활동이 (상품화되는 것이 가능한가) 물을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작업 원칙은, 여성 착취로서의 매매춘에 대항할 때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노동과 시장 교환의 행위로 환원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방어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니스 레이몬드는 「자강으로서의 여성」(*Women as Warriors*)에서 재생산의 마케팅을 비판하였다.²⁶ 레이몬드가 여성을 방어하기려면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통시에 인간의 연합과 취약성을 침략하기보다는 그것을 보호하는 경험으로서 섹스와 재생산을 다루어야 한다. 나는 성적인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섹스 안에 있어야 하며 존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하지만 가부장적 지배 구조로서 결혼이나 매매춘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남자가 인간적 존엄성과 개인적 존중을 침략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권력의 외부에 놓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매매춘에서

25 Richard Semon, *The Fall of Public Man: On the Social Psychology of Capitalism* (New York: Vintage, 1976), p. 27.

26 Janice G. Raymond, *Women as Warriors: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the Battle Over Women's Power*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3).

생산되는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논리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모노노에 대항하는 여성 운동이 모든 가정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섹스가 매매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과학과 애정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을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상호 작용이 될 것이며, 원하는 이들에겐 재생산의 경험이 될 것이다.

매매춘 옹호론

소수이지만 꽤나 시끄러운 매매춘 옹호 운동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의 매매춘을 '성 노동'이라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억압되지 않은 섹스 경험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사도마코리들을 여성들을 위한 성적 욕망의 행위로서 옹호하는 일부 이성애자와 레즈비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모노노그래피를 조장하기 위한 이 운동 그룹은 R.A.C.T.가 이끌고 있으며, 캐롤 텐스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관점을 전개하고 있다.²⁷ 많은 여성들은 그들 삶의 선택된 영역으로서 모노노그래피와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동시에 또 다른 여성들은 '매춘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은 어떤 본리를 통해 비인간화된 것인가 아니면 다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모노노그래피와 매매춘의 섹스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섹스가 선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매매춘에서 교환의 매각을 비가시화시키고 섹스를 살 속에서 경험하는 중부함으로써 본리사키며, 그것을 오로지 인간의 의지 안에 위치시키면서 매매춘의 경험을 통치의 문제 안에서 차폐시킨다. 이것은 소비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을 강조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이끄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변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매매춘의 섹스는 여성의 계급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선택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개인의 선택을 공공의 선택보다 우선시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선택된 가부장적 폭력은 자본주의적 시장 교환에 이바지한다.

성 착취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은 실제의 살아 있는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계급 조건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에 대한 여성주의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본래의 행위로 살아 있는 경험으로, 섹스가 행해지는 그곳의 조건으로 되돌리어서 그것이 어떤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인간에서 매매춘이라는 것은 그 행위, 그 경험과 재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이는 개별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여성의 계급적 조건이라는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그 행위가 착취적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과 복지와 존엄함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되어 있어서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억압이다.

그런데 일부 매매춘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 착취를 옹호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유 혹은 자기 결정권의 조건으로 다룬다. 매리리 구드가 지적했듯이, "우리를 중 많은 수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만큼 그 행위가 매력적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립화'시키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없애 버려야 한다."²⁸ 왜냐하면 "스스로를 경험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때문이다."²⁹ 그러므로 매매춘의 일탈적인 지위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매각을 중립화시키는 것과 그 매각을 세시하고 재밌고 스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화시키

27 Beth Green, *Deviant Behavior: An Interactionist Approach* (New York: Prentice-Hall, 1976), p. 71. Based on Graham M. Lykes and David Mares, "Techniques of Norm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Dec. 1975), pp. 664-676.
28 Ibid., pp. 664-676.

고 장려하는 것이다. 때론의 경우에 그것은 비인간화를 자신의 정복성 속에 적극적으로 통합시켜 그것을 삶 속에서 끌어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비인간화된 성이란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이 탈속화된 성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비인간화 과정을 마치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인 것처럼, 온전한 자아의 행위인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과련화를 비히 적극적인 선택, 순복성, 재미와 즐거움인 것처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인간화를 자신에게 장려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의 사회적 낙인을 중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때론은 옹호 운동이 시작되고, 부부간·연인간의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섹스가 유효하게 되며, 레즈비언 사도카조히즘도 장려된다. 그러나 때론의 장려는 단지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만이 아니다. 때론 옹호론자들의 로비 활동은 성적 관계가 전반적으로 비인간화되는 풍토 속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세슈얼리티의 때론화라고 간주한다.

때론을 공개적으로 옹호한다고 해서 때론이 중화되거나 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착취하는 섹스의 사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때론 옹호 운동의 정치적 맥락은 성적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때론의 섹스를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의 억압을 촉진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때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하는 비인간화되고 대상화된 섹스를 스스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때론을 옹호하는 여성에게 있어 때론을 중화시키는 작업은, 때론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때에 거리를 두고 자신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그 모든 것들, 즉 그들이 거리 두기에서부터 탈신체화에 이르기까지 파라의 단계들을 거쳐

서 설정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면화하고, 때론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하던 것과 정반대로 때론에서의 섹스를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경험으로 내면화하는 일이다. 때론 여성이 때론 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때론화된 섹스를 제화하는 일이다. 거리 두기에서 탈신체화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여성은 소수의 때론 여성들만이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를 거부하지 않는다. 때론은 성 착취이기 때문에, 자아에 때로우며 섹스를 통해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들을 비인간화시킨다. 즉 자신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성적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곧 본래의 자아가 분해되었던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본래 본질적으로 제화된 때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때론을 마치 성 착취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곧 실제 비인간화가 본래의 인간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전통적인 예로 때론 옹호 로비 활동은 때론의 법적·사회적 수용을 장려함으로써 그것의 부정적 위상을 중화시킨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적 성 산업에서 사장의 눈을 끌려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때론 활동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통합시키기 위해 단지 '일탈성의 중화'만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때론이 인연 형태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때론 여성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붙은 일탈의 딱지를 떼어내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때론 여성들이 일탈자로 여겨지는 한, 대상화된 섹스를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는 모든 여성들은 스스로가 때론 여성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보모받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는, 누군가가 행하는 일이 사회에서 일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는 '일탈성의 중화' 이론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때론은 일탈로 여겨져 왔지만 세슈얼리티의 때론화를 통해 그 일탈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때론이 점점 더 정상적인 섹스 경험의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론 여성이 자신의 행위를 노물이라고 변호하고 장려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부과된 일탈의 딱지를 중화시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위한 섹스의 교환을 그저 단지 섹스로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섹스'는 열정적·매혹적·모든 형태의 대상화와 비인간화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세슈얼리티의 때론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때론의 섹스가 정상화되는 방식이다.

포르노그래피의 정상화와 세슈얼리티의 때론화 속에서, 섹스의 경험은 성적 고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적 박해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권력 관련이 없어진다. 때론의 정상화는 자유 의지 또는 동의만이 강조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산물이다.

많은 비매론(neopentism) 여성들이 때론 옹호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세슈얼리티의 때론화에서 찾을 수 있다. 비매론 여성들의 때론 옹호에는 때론의 낙인을 없애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비매론 여성들이 때론을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와 때론 여성 사이의 구분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에서 오는데, 특히 세슈얼리티의 때론화로 인해 성행위 자체에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때론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세슈얼리티'가 단지 때론이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매론 여성들이 자신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여성들을 때론부류로 부르고 '성 노동자'라고 부르고 간에 어쨌든 그들을 분리된 범주로 묶어 두는 것이다. 비매론 여성들의 때론 옹호를 통해서, 비매론 여성들과 때론 여성들 사이의 분리가 유지된다. '성인들간에 동의한 섹스'의 때론—출간을 하는 여성들이 '성 노동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으로써, 일반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 데이프, 익명적 관계, 무분별한 성 관계에서 똑같은 섹스를 하더라도 참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것을 안다.

성적 권력 관계

모든 성 착취를 거부장적 억압의 삶에 있는 실제 경험 속에 위치시키는 일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다. 성적 권력에 대한 이론을 탐구한 루소는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에서 상당히 가까이 다가갔다. '세슈얼리티'라는 용어가 19세기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루소는 성적 권력을 초역사적인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 안에 위치시켰다. 그는 권력을 오직 국가나 일반적인 계급 상태 위에 있는, 다시 말해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서만 확립하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해를 거부하였다. 루소는 이전의 세슈얼리티 이론가들에게서 무시되었던 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끌어들이 이를 분석함으로써 성적 권력을 이론화하였다.

루소가 우리에게 말한 권력으로서의 섹스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강력한 단일성 아래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때론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¹⁰ 루소는 성적 권력 관계를 "고유한 제제를 구성하고 작동하는 영역 안에 내재해 있는 복합적인 힘의 관계들"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¹¹ 결과적으로 그는 섹스와 권력의 영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예컨대 남성과 여성 사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사제와 평신도 사이, 행정 당국과 대중 사이에서, 권력 관계를 위한 필요 있는 권이 지점을 구성한다. 세슈얼리티는 권력 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요소가 아니라 최고로 다양한 전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레기이

100 Foucault, *op. cit.*, p. 91.
111 *Ibid.*, p. 92.

자 수많은 책들을 위해 유용한, 참으로 대단한 도구성을 부여받은 요소 중의 하나이다.¹¹³

섹스가 어떻게 권력으로 구조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개별적 내용물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그것이 작동하는 지점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루크 이론의 문제점은, 그가 미시 영역에서의 성적 권력을 밝혀 노와 권력의 계급들을 만들어 내는 집단적 조건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¹¹⁴ 성적 권력은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것은 개인적 커를 관계 내에서, 그리고 동시에 집단적·제도적·문화적 차원의 성적 관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성적 관계에서 "권력은 어느 곳이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인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구조를 제거하였고, 그럼으로써 권력을 무형의 것으로 만들면서 권력의 구체성을 무효화시켰다. 권력을 정의하면서 루크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권력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냈다.

루크의 말처럼, 성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의 작용은 권재성으로 나타난다. 루크에게 "주체는 없다" 억압의 주체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게 되어 나간다. 권력에 대한 루크의 정의는, 성적 권력이 "권력 관계들의 다중적인" 상호 그물망 속에서 "순간순간(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루크는 권력을 결혼, 매매춘, 구조적 불평등의 맥락 안에서 설명

113 Ibid., p. 102.
114 Henry Giroux, "Toward an Power: A Theory for Women?" in Linda Nicholson, ed., *Women's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1990), pp. 117-171에서는 루크가 지배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권재성은 이 책의 108-109쪽에서 루크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사회 구조의 지위를 놓았다고 지적한다.

로 구조화된 위계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결국 그가 피하려고 했던 그 자점에 도달하고 만다. 권력에 대한 루크의 정의는 국가 차원의 권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부장제 권력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남성주의적 권력 이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루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피지배자는 단지 수동적인 존재로 행위한다고 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 권력의 관계에는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이 존재한다. 권력은 상호 작용을 통해 생산되는데, 이 상호 작용에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억압된 '피지배자'와 '지배자' 양자 모두가 참여한다. 비록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상호 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권력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성의 권력 관계에서 특히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 성역에서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당한 학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의식이 노출되면서 이전에는 모호하던 권력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남성과 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성적인 착취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한 성이 일방적으로 다른 성에게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남성과 소년들도 성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계급으로서의 여성 집단에 대한 성적 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의 이분법적 대립(개별적 남성 및 소년 대 개별적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집착은 대립(남성들과 소년들이 당하는 폭력은 여성이 당하는 폭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을 낳고 이것은 소년들에 대한 성 착취를 지배의 예외 조항으로 만든다.

그러나 루크가 주장하는 이분법적 대립의 거부는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성적 권력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립 나머지를 보려는 여성주의 이론과 같은 전체에 근거하지 않는다. 루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있어 이분법적 대립을 거부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지배가 행해지고 끊임없이 성적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커를 문화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이탈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권력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루크는 권력의 주체를 비가시화시키기 때문에 권력 관계를 사라지게 만든다. 섹스와 권력을 연관 지으려는 노력 속에서, 루크는 성적인 인간 관계가 반합법적으로 위계화된 성적 권력 관계로 변하는 커를 제도를 폭로한다. 그러나 이론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실을 숨길 뿐이다. 사회로부터 그 자체를 구상하고 있는 제도적·개별적 권력 구조를 제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권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루크의 '권력 관계의 다중성'은 그 자체가 담지한 다당성의 궁지에 빠질 뿐이다. 지배는 이러한 권력의 다중성 속에서 개별화되고 결국 확인 불가능한 것이 된다. 루크에게 있어 커를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개별화된 성적 권력 관계는 집단으로서 체계적인 지배를 가하지 않는다. 제나하면 성적 권력에 대한 그의 정의에서 루크는 개인간의 설명화된 권력 관계로서의 계급 조건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성적 권력은 그것과 구분되는 그 너머의 제도적·경제적·국가의 지배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루크는 헤슈엘리타를 그 각각의 경우로 상대화시켰다. 헤슈엘리타가 "최고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최고의 도구성을 부여받았다"는 개념은 우리를 아무곳으로도 이끌어 주지 못한다. 하나의 성적 관계와 다른 성적 관계 사이에 아무런 유형이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은 관계적이다. 이것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연루시킨다. '권력 관계의 다중성' 안에서 권력은 계급들, 즉 경제적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인종적 계급(백인과 유색 인종), 그리고 성 계급(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작동한다. 주인과 노예의 상호 의존에 대한 헤겔의 설명과, 자본가와 노동 계급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권력 관계가 힘의 위계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피억압자를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억압자들에 의해 유지된다. 억압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퍼져 있기도 하다. 직접적인 폭력은 '타자'를 종속시키는 억압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일터로 가서 그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들의 노동 가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가 바로 자본가의 이익이 된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임금과 자본의 착취 계산 안에서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지배의 상호 작용의 기본이며, 억압자와 피억압자 관계의 토대이다. 권력에 대한 관계적 이론은 종속된 자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스스로의 종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권력 이론은 억압을 유지시키는 상호 작용적인 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억압의 역동성을 밝혀 준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력은 상호 작용적인 성적 관계를 성적 착취로 만든다. 이로 인해 남성 지배의 관계적 권력은 개인과 묶여 도달한다. 성 착취를 살아 있는 경험으로서 고려하고 몰아내려 하던 것이건 아니건 간에 설명의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성 착취를 조장하는 제도, 즉 매매춘과 결혼의 맥락에서 그것을 분석할 때, 억압은 실재적 맥락을 갖게 되고 성 계급이라는 조건이 드러난다.

여러 가지 지배 관계를 중에서 오직 여성의 종속인이 계급적 관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이며, 성 관계처럼 은밀한 상호 작용들이 동시에 권력의 관계가 된다. 계급으로서의 남성에 의한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 착취주의는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해 작동하는 계급 관계이다. 여성 계급의 종속에 대한 여성주의 권력 이론은 개인적 상호 작용,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신적·정서적 관계들에서의 권력을 밝혀내야만 한다. 가부장제는 권력 관계의 계급적 조건들을 남녀간의 섹스얼터 관계 위에

없이 놓음으로써 계급 관계와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거의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이것이 여성 억압을 특수하게 만드는 데, 세스가 연루되는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통해 구상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고도로 공식적·가시적·구조적인 동시에 개인적이다. 즉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우며 육체적·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성 권력의 권력 관계는 때때로, 포노노그라피 그리고 결혼 안에서 제도화된 동시에 개인화되어 있다. 세스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관계적 권력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엘리아제르 도미니크는 '비밀'로 지칭되다¹⁴⁾ 그들 스스로 그리고/또는 집단 감각을 제외하면 성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권력 관계는 구조적으로 개인화되고 그러면서도 상업화되게 마련이다.

사회적 성적 관계에서의 권력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성 산업에서의 권력도 부인된다. 세스가 사업과 다국적 복합 기업을 통해 산업화됨에 따라, 미국이 제3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관계 안에서의 세스의 사용도 비가시화된다. 결과적으로 성의 권력 관계에서 개인이라는 단위는 여성을 매매하고 상품화하는 성 산업의 발전과 국가 정책에 의해 실현되는 동시에 유지된다.

이러한 성의 권력 관계라는 맥락에서, 즉 여성 억압의 개인적이고 상업화된 지점에서, 여성들이 (여성주의 선택이나 실질적 경제적 대안이 없는 상태) 길을 떠날 때(사구에서의 가을, 제3세계에서의 이민) 그들은 거의 대부분 세스의 공식·정치적 제도인 매매장에 빠져든다. 또다시 유색 인종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가로막는 인종 차별의 권력 관계와 사구의 세계모니는 빈곤한

여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으로서 매매장을 몰아들인다.

권력은 폭이 된다. 그것은 '타자'를 종속시킴으로써 자제 계급을 위한 이득과 우월적 지위를 생산한다. 성 착취는 여성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남성들이 얻는 이익은 단순히 남성에게 폭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 착취는 여성을 추방시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 속으로 퇴락시키기 때문에 발전과 성장을 향한 여성의 성취 능력을 좌절시킨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 대 이데올로기

십 년이 넘도록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면, 나는 몇몇 여성들로부터 이 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거나 "너무 기분을 착잡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듣는 한편으로, 그들이 경험한 착취와 노예 상태였음을 이 책이 폭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지레가 명백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여성들의 반응도 접한다.

이 밖의 다른 반응들 중에는 이 작업을 '괴해자 페미니즘' 또는 '남성 죽이기'로 분류하는 것도 있다. 미국에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반응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페방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제나 시그와우면서 언론에 의해 과대 포장된 이러한 공격은,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는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등장한다. 그들은 여성 억압을 부인함으로써 성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정치적 관심을 침묵시킨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변호라는 형태의 안티페미니즘이 여성 운동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익과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은 새로운 것이다. 제시 로이퍼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우익 진영 및 자유주의자들과 문묘한 뒤엎힌 여성 운동의 전형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결집 있는

14) See Alan Collins, "The Secret of the Individual" and "Intimate Relations," in Michelle Press, ed., *Arthur Goldhamer, trans., A History of the Prison Life*, Vol. 37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437-438.

비판들을 출처로 인용하여 데이브 강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4명 중 1명 꼴로 대학 내에서 데이브 강건을 달한다고 밝힌 메리 코츠(Mary Koetz)의 통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 운동을 풍요화하면서 로이퍼는 여성들을 오로지 괴해자로 보는 것과 "남성들은 모두 용감하고 여성들은 무죄"라고 보는 관점을 문제 삼는다.¹⁵⁾ 로이퍼는 여성이 술을 마신 후나 아약을 한 후에 벌어지는 강간에 대해서 여성의 주체성을 지적한다. 마치 사회가 성별화되지 않고 가부장적이지 않다는 뜻이, 개인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1960년대 말 미국 여성 운동의 출현 이래로, 좌익 정치 세력들은 오늘날 윈디 카미너(Windy Kaminer)가 『윈욕타임스』에 로이퍼를 풍자하기 위해 실은 다음의 글과 같은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탈정당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 왔다. "자신이 성적 괴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통해 특권층 여성에게 억압된 여성들이 인종 차별주의와 계급 차별주의 그리고 동성애 공포증의 괴해자들에게 일어난 고결한 도덕성에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¹⁶⁾ 로이퍼에 대한 카미너의 지지는 좌익 내의 안티페미니스트 여성 운동의 기원을 시사한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우익의 비난은 독자적 페미니즘을 특권층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뛰어넘으면서 탈정당화하려는, 좌익이 25년간 벌여 온 정계 안에서부터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좌익은 여성 운동을 무효화할 수 없었다. 제나하면 성 착취에 대항하는 운동들은 페미니즘을 단순히 경제 계급의 이슈만을 다루는 것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로이퍼는 비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하거나 여성 문제를 뛰어나

인론, 여성학을 통해 때론 일부 여성들을 대표한다. 전반적으로 여성학은 페미니즘의 행동주의와 분리되면서 정치적으로 여성에 대한 비정치적 학문이 되었다.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끌어올린 의식의 고장으로 부터 태동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성주의 의식과 정치적 행동을 개인적 선택(전통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다시 대적하였다. 점점 더 정치적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운동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으로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초기 '나(me) 세대'의 유산이다. 이것은 문제가 바로 옆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간에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나 권력으로부터도 떨어져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다루게 만들었다. 즉 어떠한 것도 그를 자신의 야심 세계 바깥에 존재하게 한 것이다.

1990년대 현재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위험에 처해 있다. 1890년대에 이르러 1850년대에 시작되었던 여성 운동의 정치적 의식이 사라져 갔다. 운동은 급속도로 비정치적인 개혁으로 환원되었는데, 이것은 여권(女權)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제외하면 세상의 나머지에게 대해 착취적인 당시의 자제 이데올로기들을 명목적으로 빌려 주었다. 그 세대가 페미니즘의 공감을 가져왔다. 이것은 1960년대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 차별주의에 대해 침묵하게 했다.

1990년대 중반, 여성 운동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어렵게 생애한 의식을 통해 형성된, 여성 해방에 헌신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교집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 운동의 반동의 뿌리는 무엇인가? '남성 죽이기'라는 용어는 비난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첫째, 이것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들과 가장 반동적인 우익, 특히 이 말을 만든 러시 린보(Rush Limbaugh)와 같은 사람들의 중도를 상징한다. 이제 우익 선동가와 성적 자유주의자들과의 반동적 계류 속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의 여성주의가 남성들, 인종 차별주의자들, 이성애적 성 차별주의자들, 호모제들을 '죽이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5) Kate Kipley, "Dear Rapist's Other Victim," *New York Times*, June 13, 1995, p. 43.

16) *New York Times*, September 15, 1995.

그 전략은 직접적이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추측전대 성적 권력 관계가 의식화
와 여성의 운동들과의 행동주의 속에서 표현화됨에 따라, 일부 남성들, 학인
들, 여성애자들 그리고 환경 오염자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구성원들이 점차로
부정의와 착취의 가해자로 인식되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적
권력에 맞서기보다는 억압을 드러내고 부정의에 대항하는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여성을 피해자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
은 정치적 의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의식은 피해자
화라는 것이 단순히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페니스 레이
몬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래 전, 페미니즘 물결이 시작되던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선택이 가
부장제에 의해 구성되고, 무한 지워지고, 잘 자여지고, 찬양되고, 제압되고, 제
한받고, 강요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었다. 어느 누구도 이것
의 의미를 여성의 선택이 결정 지어졌거나 여성이 수동적이거나 가부장제의
무력한 피해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즘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분명히 가부장제
의 손아귀에 있는 나뭇나뭇한 운동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장된 역할 속에 있을
때는 여성들이 변화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¹⁷⁾

지금의 운동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풀 풀던
시기에 그곳에 없었던 여성들에 의해 갈수록 더 주도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침묵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계급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여성주의 운동

17) Janet G. Raymond, "Sexual and Reproductive Liberation," in Daphne Lewis and Janet G. Raymond, eds., *Sexual Liberty and the Abolition of Pornography* (Stanford, N. Y.: Penguin Press, 1980), p. 103.

을 특징 지었던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비정치적인
개인주의의 수렁에 빠지 그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라 제프리스가
정의한 성 자유주의론인데, 즉 "성적 표현은 본래적으로 해방적이며 심지어
이것이 타인에 대한 착취와 야만 상태를 수반하는 때에도 감칠 없이 번성지도
꼭 허락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양식"을 말한다.¹⁸⁾
이제 분명해진 것은 '성 자유주의'도 '반동'ism도 개인적 선택이라는 물의
식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익과 자유주의자 둘 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점점 더 여성 운동은 공간을 비난하기 위해서 강력한
물리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든지, 특히 성적 권력 관계가 사회에서 여성,
남성의 상호 작용을 형성하면서 일상 생활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강력한 물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1970년대에 우리
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간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데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사회적 서비스 삭감과 사회
적합 운동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이데올로기적 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운동이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수많은 공간 위기 센터와 세 많은 아내를 위한
센터들이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단체들은 그들이 받고 있던 열마 되지 않지만
귀중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모이리과 소위 '남성 죽이기'
운동으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려는 여성 전위 부대는 레이건 반동 정부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인 자기 검제를 지속시키고 있고, 이것은 부시 행정부에서
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근본주의자, 정치적으로 반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여성들 간의 이질화라고도 위험한 중첩점이다. 이들은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여 공간을 정상적인 섹스로 취급하고, 모노그라피를 상회하고, 인물

18) Daphne Lewis, "Introduction," in Lewis and Raymond, eds., p. 10.

적 중요성을 인종적으로 '순수한' 환경에 대한 개인적 선호로 여기고, 동성애
혐오를 레즈비언과 게이 조직과 동떨어져서 살며 일하고자 하는 개인적 선택
으로 여긴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개인적 선택의 중요가 자유의 유일한라고도
궁극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여성 운동보다 우세해진
다면 이것은 궁극에는 자유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적 움직임에 반대하여 개인적 선택을 중요하는 정치학과 캠페인의 해
악은, 이것이 시장 경쟁과 소비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표현이 됨에 따라 피억압 집단들에
게 더욱 가혹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적 선택이 그
어떠한 집단의 선이나 사회의 안녕보다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 환경을 조성
한다. 이때 자유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부터 서구와 제3세계의 관계에 이르
기까지 구조적·정치적으로 무력한 불평등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선택
으로 정의된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식을 개인적 선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된 물의의 문제로 몰려 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후기 산업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지위를 전행시키는 방식이다.

성폭력 반대 운동에서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 No Means No"이라는 슬로건
은 여성들이 자신이 거절하는 남성에게 원치 않는 성적 경험으로 놓여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주장이지만, 동시에 여성은 물의가 없었을 때, 분명하
게 싫다고 말할 것을 때에안 성적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은
곧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때 여성들은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간을 물의에 대한 침범으로 정의하는 것은
성을 착취하고 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적 회피의 문제로 정치적
의식의 강조점을 이동시킨다. 이것은 억압 문제를 성 착취의 계급적 조건에서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은 성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교환
시장에 스스로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력과 비인간적인 섹스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 즉 '타자'가 되기 위한 존재가 된다.

성 자유주의의 가부장적인 권력은 찬양된 판단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최소한 피아의 동의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전개시켰다. 가부
장적인 법은 개별적으로 말하는 상황에 대해 다룰 수는 있지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억압에 대항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 착취의
경제선이 불분명하다면 그런 식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게 된다. 그러한 법은 여성이 성적 권력에 종속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은 모든 사례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집단적 조건
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자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교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억압을 분석하는 집단적 해방 운동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성의 종속은 우리가 그것을 여성의 정치적 현실로 의식하게 되기 전까지
는 침묵 속에 가려진 세 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인 형태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것은 우리를 여성으로서 비인간화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다.

침묵을 깨고 성 착취의 야만적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정치
의식화가 필요하다. 의식화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서 권력을 폭로하게 하고 실현하게 한다. 성 착취에 직면하여 권력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가 없는 채로 무지에서 삶으로 나아간다면, 기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고통 그 자체와 만나게 될 뿐이다. 즉 성 착취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해체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된다.

모든 성 착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갈라, 즉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분열과 침묵이다.

매매춘과 근친 강간은 장둥이로 같다. 양자 모두 소녀 및 여성 들을 스스로의 자아로부터 분리시키고 온전한 전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분할하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조각 내는 여성 종속의 태러적인 모델이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파편화되었던 전체를 다시 복원한다. 이것은 자유 및 행동의 토대가 된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 또 우리 자신의 문화적·국가적인 특수성과 전세계적인 공통체 및 전지구적인 페미니즘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을 하게 한다. 정치 의식화는 우리 개인과 집에서부터 공동체로, 개별 국가에서 전세계 경계로 그리고 전지구적인 정치 질서로 사회적 지형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스트 행동주의는 우리를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분석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의식화는 섹스가 착취되는 조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과 섹스 교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의식화는 단지 자적인 다상이 아니다. 정치적 의식화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경험을 공통스러운 종속자로서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자로서 알게 해준다. 나는 여기서 초월성을 영적이지나 막연한 뜻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 의식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지식인데, 구체적인 현실을 만들어 내는 지체에 대해 아는 만큼 이들 조건들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여성주의 의식은 남성 지배의 전체적 지형, 즉 억압을 인식한다. 억압에 대한 의식은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비전을 전제적이게 하여, 행동을 보다 실화시킨다.

페미니즘에 대한 흔한 비판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합있는 자'로, 피해인자로 그리고 또는 해방된 자로 인식하는 일은 오로지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의식화의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역동적이고 강력한 삶은 '정치적 올바른'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의식화의 힘은 가부장적 지배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해방적이다. 의식화되지 않았거나 의식화되기 이전의 많은 개인들에게 고립된 세 경험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말해지지도 않은 그 무엇이 된다. 삶은 타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은 삶을 상대화시켜 개인 내부의 심리적 조건으로 규정해 버린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동안, 지배로 인한 여성들의 고립되고 억압된 분노와 고통은 입상적 조건들, 즉 고통의 물리적 근원으로 환원된다. 객관적인 지식은 자아의 안과 밖에서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억압의 경우에서처럼 자아를 의적으로 결장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의식화의 경우에서처럼 집단의 행동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객관적 지배를 극복하는 것을 의지의 행동으로서, 심리적 상태로서 다루는 개인적 힘의 패배(empowerment)는 억압에 대한 지식을 개별화된 개인 감정과 선호 안에 파르리는 이상주의적 접근이다.

의식화는 객관적 조건들을 정치적인 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개인화되고 고립된 지식을 재구성한다.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은 피해자화를 재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개인 내부의 정형으로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지나 동기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최악의 가부장적 지배를 아는 것과 관련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성 억압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에 달려 있다. 내가 논하고 있는 의식화란 개인적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삶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동은 현실에 대해 저항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바꿀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확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은 집단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제한

을 넘어서게 한다.

의식화는 성 착취에 대항하는 여성 운동의 행동주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지식과 정치적 대결의 기반이다. 그것은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이며 지배와 억압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에 직면하는 의식화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인적·집단적으로 강간, 매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자유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여성들이 거리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집에서 도망쳤을 때, 그리고 또는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만날 수 있는 지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의식화는 정치적인 투쟁과 삶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식화는 다차원적이고 대포적일 때만이 여성주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전지구적이지 않다면 의식화가 아니다. 그것이 억압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단지 부분 수정을 통해 가부장제를 보다 잘 작동하게 하려는 개량에 불과하다. 만약에 여성 운동이 서구에서의 포로노그라피나 제3세계의 인신 매매 문제처럼 성 착취의 모체가 되는 전체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슈에만 대항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여성주의 의식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 이슈 페미니즘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과 모순된다. 제3세계 여성들을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성 정치학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서구 여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계몽적 페미니즘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만연해 있는 여성 비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때문에 살인한 빈곤을 넘어서는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극심한 여성의 상대화가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여성주의 의식은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의식화란 정당한 정치적 분석을 하거나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는 특정 권력 배치를 정당화하는, 구조화되고 이미 만들어진 사고의 장치이다. 정치적 의식화 대신에 이데올로기는 현재 상황

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정치적 분석을 하게 한다. 이하는 달리 의식화는 입상의 현실을 권력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구조화된 권력을 보고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의식화는 매일 일상 속의 권력과 지배와 종속을 드러내 주는 비관적인 사유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 페미니즘은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공식적인 것에서만 이 아니라 침묵 안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들에 저항해야 한다. 서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위한 법적인 투쟁을 할 때 시장 경제를 합리화하고 개인주의를 고무하는 법률적 자유주의가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국가와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성주의 의식화의 실효가 미로소 등장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작업으로부터 법률적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것의 권력과 대면해야 했던 경험에 있다. 의식은 이러한 과정에서 있다. 1983년 나는 스페인의 연구자 한나 올슨(Hanna Olson)을 만났는데, 그녀는 중요한 정부 연구를 '매매춘 보고서'(The Prostitution Report)의 책임자였다. 한나와 나는 이미 1981년에 스페인의 매매춘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었다. 우리는 자국의 다른 곳에서 살며 서로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면서도, 똑같은 주제로 연구했고 심지어 매우 유사한 결론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출판을 했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매매춘 보고서'에서 한나가 "사당 없는 남성 사회"에 대해 말하는 동안, 나는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서 포주들의 유인 전략으로서의 친절하기와 사찰하기(제타적인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1983년 내가 소집한 국제 회의의 긴급한 안건들을 뒤로 하면서 한나는 내게 솔직하게 물어 왔다. "한나, 세시, 세 글이 노예제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죠?" 매매춘이 얼마나 노예화시키는 일인지 그녀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질문 뒤에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나도 모르게 나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자유 강제' 이론법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나의 생각 때문에 『여성 성 노예제』에서 매매춘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전략으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시장 교환을 장려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배격되고 제한된 미국의 권리 개념과 싸워야 하는 미국의 사고의 덫이라고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그 덫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극도로 피도한 개인주의는 권리를 개인적 권리로 한정시키고 그럼으로써 권리를 도구화한다. 시장 경제를 장려하는 개인주의 아래에서, 권리는 온전한 인간의 조건을 할당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전략하고 결국 개인주의의 경쟁적인 측면을 촉진하게 된다. 인권을 개인의 물리로 축소시키는 것은 권리의 의미를 시장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도구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도구화될 때 권리는 인간 삶의 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미국의 성 자유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권리는 시장 경제적 용어로 이해된다. 즉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인간 경험의 내용과 질보다 우선시되는 탈규제화된 인간 조건으로서 이해된다.

내가 이 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인권 개념에 의하면, '통제'는 자유의 지표가 아닐 뿐더러 통제의 부재가 자유의 일차적 지표 또한 아니다. 자유주의적 통제의 개념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축소화하고 페미니즘을 개인주의 윤리학 속으로 퍼뜨린다. 이것은 сек스를 통제의 의지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고, сек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떻게 권력으로 구성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 및 제도적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сек스의 실제 경험은 여성에게 해악이 되고 권력 계급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억압이다. 억압에 묻혀되거나 대상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보이는 것은 억압의 한 조건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로운 상태의 표현이 아니다. 성 착취는 억압이다. 이 말은 성 착취가 피해

자가 집단 안에서 수용되고 심지어 장려될 것임을 뜻한다. 억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억압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통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마도 착취의 한 측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착취를 규정하는 결정적 특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유가 일차원적인 통제의 개념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전반적 조건, 여성의 조건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착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을 반대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운동은 광범위한 성적 착취에 대해서는 물론에서 여성들의 성적 종속과 대안으로서 삼대들의 성적 종속이 포함되듯이 매매춘도 포함된다의 일부분에 대한 도전적 불복하다.

그러하여 나는 통제의 문제나 강제의 개념은 법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매매춘을 강간으로부터 잘못 분리시킨다고 본다. 결혼, 약이로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 여성들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잘녀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들은 сек스를 위한 몸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점점 더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No means No)이라는 캠페인 수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강간이 сек스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때때로 무상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요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성적 권력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여성들이 우리의 온전한 해방을 성취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4장 성의 산업화

1970년 이래로 매매춘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매매춘이 산업화되고 정상화되었으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매매춘은 여성, 특히 산물 개발 경제 안의 여성들에게 밀려들었다. 현재 매매춘의 규모는 타이에 200만, 한국에 150만, 필리핀에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성의 산업화는 국내외 해외의 고도로 조직화된 여성 매매와 밀접하게 있는 비공식적인 일인 방식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지구적인 여성 시장을 형성한다.

산업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 제조된 상품과 서비스의 대량 생산을 의미한다. 나는 이 글에서 '성의 산업화'를 상품의 생산, 즉 сек스를 거래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래 сек스화되거나 매매될 수 없는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고 또 그 안에 있는, 원래 시장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상품으로 만든다. 성의 산업화는 대규모 상품 생산이다.

매매춘의 산업화는 ① 전쟁이나 외국 점령 시기의 군대 매춘을 위한 대규모 여성 배치, ② 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 소득을 올리는 관광 산업의 발전, ③ 특히 저역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면제된 수출 자유 지역의 여성 노동력 착취를 통해 여성을 주변화하는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에 의하여 일어난다.

매춘의 산업화는 각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째, 성 산업은 경제가 산업화되기 이전에도 외국 군대나 사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번성했다. 군대 매춘과 사스 관공은 산업화의 결과이기도했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군대의 산업 발전에 선행해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매춘은 이와 관련된 성 산업들, 즉 거대한 국제 호텔 체인점, 항공사, 술집, 엑스클럽, 마사지업소, 매춘업소, 매춘업소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여학생들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 모두를 상대로, 산업은 이들을 통해 섹스를 판다.

물론, 호텔, 항공사, 관광 산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라는 전통적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모주, 압선업자, 조직 범죄와 같은 대규모의 지하 경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성 산업은 여성의 몸을 사용해 남성에게 섹스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 국가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성 산업은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에 있는 여성을 철저히 착취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 산업은 노동 시장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 매춘에서 벌 수 있던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으로 여성들을 사게 된다. 개발 경제의 국가적·개인적 산업 통제와 산업화 이전에 이미 가족 내에서 형성된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에, 매춘은 일부 가난한 여성들에게 유일한 경제적 가능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전체 사회의 물질주의적 수준 향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매춘은 여성들이 산업화의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훨씬 그럴듯한 수단이 된다. 여성들은 장사화된 성 산업의 맥락 속에서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 매춘을 시작한다.

그러나 매춘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굴러간다. 산업 경제 이전과 초기 산업 경제에서는 남성이 군 복무나 사업을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의 수요가 가장 컸다. 전쟁은 주로 여성

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난민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적 제재치를 약화한다. 전쟁중의 대규모 강간은 그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명성을 타당한 여성들을 성 산업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강간당한 여성과 소녀들은 포주와 조직 범죄단과 그들 앞에 특히 잘 걸려온다.

1992년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에서 인종 청소의 일환으로 자행된 대규모 여성 강간은 마을과 거리에서뿐 아니라 수용소에서 일어났고, 일부 여성은 그러한 목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엔공동체에서 파견한 진상 조사단은 분쟁이 시작된 후 약 2만 명의 이슬람교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추정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인권 기관에서 파견한 또 다른 진상 조사팀들도 이슬람교도 여성에 대한 대규모의 강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이 1993년 보스니아에서 발생했던 강간을 조사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3년 말까지 유엔은 선원이 확인된 800명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3천 건의 보고를 받았다.

도움이 필요했던 보스니아의 여성들은 국제적인 여성 운동 덕분에 이러한 범죄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단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식 집계와 추장 간수 사이의 계속적인 불일치는 더 이상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잔혹 행위를 묻어 버릴 필요가 되지 못한다. 이라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중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간은 전쟁의 보이지 않는 결과였다.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보스니아 인종 학살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강간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었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착취업을 모욕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알려져 왔으나, 강간과 포르노그래피, 거기에서 파생한 매춘은 휴식과 오락과 R & R의 일부였고 평화유지군도 분명 예외가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발생한 강간이 포르노그래피 영화로 만들어져 왔다는 보고 이후, 수용소의 군인들은 매춘

를 위해 이러한 여성들을 이용했다. 1993년 12월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라(Boutros Boutros-Ghali)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말 소나스(Sonja)에서 이슬람교도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세르비아 군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다예보의 재판에서 드러났던 혐의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사다예보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소나스에는 레스토랑, 병기, 수용소 등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곳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1993년 11월 1일 뉴욕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한 '뉴스웨이'(Newsday)지의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인들이 매춘을 위해 여자들을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동안 몇 명의 여성들이 유엔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장교 한 명이 전했다. 강간과 매춘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는 세르비아인이 평화유지군에게 여성을 성적으로 사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벨살바도르 식민 전쟁 이후 수도 산살바도르의 매춘 여성 수는 군대의 대규모 수요로 1991년에 1만 9천 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¹¹ 벨살바도르와 파레알라에 국가 테러리즘에서 이루어진 정치·군사적 탄압에는 성 착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학대는 국가 테러리즘의 일부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할 수 없다. "어떠한 저항의 행위라도 생존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모든 지원의 길이 막혀 있다. 이 때문에 단지 암묵한 경험으로 시작된 일이 마지막에는 끝나지 않는 재앙이 되어 간다. 파괴적인 경험, 자아의 말살은 모두 테러를 유발하는 보다 큰 그림 안의 하나의 세부적인 일부로서 존재한다.¹²

여기에는 매춘이 포함된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중층적인 고문과 억압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다. "젊은 여성들이 전체 군대의 공을 재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명의 군인에게 자신의 몸을 사유 재산으로 주는 권력이 벨살바도르 전쟁 지역에서 목격되었다."¹³

매춘은 자발적이진 강제적이진 상관없이 전쟁과 정치적 억압과 고문의 시기에 일어나는 성 학대의 한 형태이자 결과이다. 결국 매춘은 아드리안느 아론과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확인된 군대 성 학대의 공약에 잘 들어맞는다.

확인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형태는 그것이 다음 중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에 따라 잘 구분된다. ① 한 여성이 구금되어 있을 때 군대의 관리 운을 질자(SOP, standard operation system, 예를 들면 고문의 구형 요소로서의 강간) ② 여성이 지역 사회에 거주할 때 권위 운을 정자제를 통해 군대의 연으로 성적 학대를 허용받은 군인에 의한 학제적인 착취 ③ 국안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무법적인 학대.¹⁴

제3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성적 수요는 사업가들이나 R & R 휴가 중인 군인들이 구매하는 여성들로 가득한 시장을 형성해 왔다. 매춘업소들은 대도시의 엑스 정류장과 거지 역에서뿐 아니라, 제3세계의 가난한 벽촌 마을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손에 넣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군인과 사업가의 대규모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매춘의 섹스 서비스를 위한 여성의 대규모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 인구가 매춘화되었다. 필리핀이나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촌들이 모두 매춘 관행으로 변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휴양지와

11 "Violence of Children's Rights in El Salvador, 1980-91,"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 1991, p. 26.

12 Adrienne Aron, Susan Green, Andrea Fortland, Barbara Zilman, "The Gender-specific issue of El Salvador and Guatemala: Post-war sexual violence in Central American Refugee Wome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June 14, No. 1-2, p. 42.

13 Ibid., p. 46.

14 Ibid., p. 46.

군사 전략 기지가 된 인접 필리핀과 타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매매춘은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내와 매춘부로 매매되었다. 남성들은 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타이완에서 섹스 관광을 온다. 이러한 섹스 관광은 이 나라들의 주요한 외화 수입 원천이다.

군대를 위한 매춘 시장: 한국

전쟁중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섹스 시장에서의 여성 판매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 발전 이전부터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의 일부 지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다. 전쟁중에 일본 군대는 10~2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여성에게 일본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1944년 4월 일본 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구치 사령관이 발표한 중원절에는 전쟁을 위한 노동력 증원에 "황군들에게 봉사할 자원대로 100명의 한국 여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⁵⁾ 1991년 12월 도쿄지방법원에 세 명의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은 이 "자원대"가 여성을 납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성 노예로 모집한 여성을 위한 한국위원회의 증언자들은 "이들 중 절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납치되었거나 밭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길을 가다가 경찰서로 호송되어 강제로 모집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⁶⁾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소'(미군 RAA의 일본판)에 배치

되었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⁷⁾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낸 고소장은 모집된 여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군 위안소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제도, 일본 등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다. 전황이 악화되어 일본 군대가 필수하게 되었을 때 군 위안부를 중 일부는 버려졌고, 일부는 일본군과 함께 병예롭게 속도로 강요 당했으며, 나머지는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군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에 의해 서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다.⁸⁾

이들 군 위안부의 약 80퍼센트가 한국 출신이며, 나머지는 일본, 태마, 필리핀,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한국·중국 여성들이 섹스 감옥 안에서 죽어갔다.

위안소의 이름은 오직 군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세카이칸'은 군사적 용어를 떨치고 있던 6연대와 9연대가 이용했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 표를 사야 했다. 그들은 '사무일'에서 '이름표'를 읽어주고 돈을 내고는 표를 훔치, 콘돔을 받았다. 표에는 위안부의 이름과 방 번호가 써어 있었다. 대개 군인들은 여자를 지명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해당 방 여자로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계급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낮에는 사병들에게, 초저녁에는 하급 장교들에게, 그리고 늦은 밤에는 고급 장교들에게 시간이 배당되었다. 규칙을 어기는 군인들은 수감되었다. 한마디로 군 위안소 이름 규칙은 군대 규칙의 일부였다. 실제로 현행은 이 사실들을 정기적으로

5) From Peti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eceived for sexual Service to Japan, p. 16.
6) Ibid., p. 14.

7) Speech of President of Japan Federation of the Associations,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8) Ibid., p. 21.

증명했다. 군인이 위안소에서 소란을 피울 때는 헌병에게 보고되었다.⁹⁾

한국과 일본의 여성 단체들이 수년 동안 계속 압력을 넣은 뒤인 1992년 초, 일본은 마침내 "여성들을 강제로 군인과 성 관계 하도록 하는 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¹⁰⁾ 얼마 후 네 명의 중국 여성이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한국 여성과 함께 매춘을 강요당한 수많은 중국 여성의 입원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¹¹⁾ 일본 정부는 문서를 통해, 군대의 관행으로 허용되는 전사 장간이 일본에 대한 점령지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군인들이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막고자 매춘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했던 일본군은 그 후 미군 점령기에 파군이 한국 여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인 기자 이요리 미츠오는 매춘이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해 준비된 조달통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을 미 점령군의 위안부로 제공했다. 일본이 항복한 날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21일 개최된 자코 회의에서 당시의 부일소장관인 고노에 후미마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는 섹스에 굶주린 미군으로부터 우리의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일 후에 시정학장은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우리는 4천명의 꽃과 같은 일본 여성

이 순열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이 미군을 위한 '위안' 사실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3천만 엔(현재의 환율로 대략 5백만 달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특수위락시설설립협회'(Association for the Creation of Special Recreation Facilities, 후에 유흥오락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RAA)로 불린다)의 설립을 공표하는 행사가 8월 28일 미 점령군의 첫 번째 연대가 도착하는 뒤에 맞춰 팔공 산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곧이어 RAA가 지원하는 최초의 군대 매춘업소인 고카지 가온이 도쿄의 오모리에서 개업했다. 8월 30일 전직 매춘부였거나 "신 일본 여성 모집, 숙식·의복 제공"이라는 광고에 속은 약 100명의 여성들이 미군에게 몸을 바치기만 했다. 일본의 군 사정기는 혼자 그대로 공상으로 불타 버린 도쿄의 폐허 대마에서 연기가 세 사라지기도 전에 켜져나가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25곳으로 늘어났다. 한창대는 7만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¹²⁾

처음에는 일본은, 나중에는 미 점령군을 위해 조성된 한국의 매춘은 후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군대 매춘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인 사업가들을 위한 섹스 관광으로 발전했다.

베트남과 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남베트남공화국 군과 연합해서 싸웠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패배했다. 그들의 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군대를 갖고 있던 베트남 공산주의자였다. 미군은 베트남의 작군을 조종하고 대상화하여 '노랑이'(gooks, 아시아 인종을 비하하는 속어—흑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이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려던 것 같다. 미군들에게 군복을 입은 '노랑이'

9) "Story of Jung Sun Do, Korean Former 'Comfort Women' Resident in Japan," statement prepared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10) New York Times, January 14, 1992.

11) New York Times, August 9, 1992.

12) Yoon Hwang, "Sexual Slavery in Korea," *Pantheon: A Journal of Women's Studies* 2, no. 1 (Spring 1977), pp. 27-38.

는 공산주의자들을 처기했다. 그러나 어떻게 군복을 입지 않은 나머지 민간 베트남인과 이들 노랑이를 구별했겠는가? 신장이나 컸겠는가? 여성은 그냥 장녀였을까 아니면 '노랑이 장녀'였을까? 전쟁, 특히 베트남전쟁에 인종 차별주의는 군인들에게 이국적인 성을 끌기 위해 성 산업이 채택한 전략의 일부였다. 처음에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다음에는 미군 등 침입자들과 인종이 달랐던 베트남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침입자들의 적이었으며 동시에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섹스였다.

베트남에서 매춘은 전쟁중에 벌어졌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중 하나였을 뿐이다. 전쟁중에 남성들은 대규모 강간을 통해서 그들의 적을 모욕했다. 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대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리 라이 헤이슬립은 전쟁중에 베트남 중부의 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던 십대 소녀였다. 처음에는 베트남이, 그 다음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공화국 군이 매일 마을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그녀는 양면 군인들 모두에게서 강간을 당했다. 베트남전쟁에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특히 불명예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이 강간당한 것은 가문과 마을, 지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매춘은 헤이슬립과 같이 '결혼할 기량이 없는' 여성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다.¹⁴⁾ 전식의 성 산업은 섹스력과 강간이라는 군사 전략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강간당한 여성은 군사 전략의 피해자였지만 매춘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했다. 미국이 많은 군인을 베트남에 몰아 붓자 매춘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남성이 돈을 주고 매춘 여성을 살 때, 자신의 부인에게는 비밀이라는 점, 종교가 이를 금지한다는 점, 그리고 불평이라는 점이 남성들을 유혹한다. 군대 매춘의 또 다른 재미는 의심할 바 없이 마을과 가족을 강간당한 다른 인종의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시키는 것에 있다. 성 산업은 인종 차별적 권력행사로

시장을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인종 여성의 몸을 섹스 시장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손님의 인종 차별적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인종·민족·문화적 차이는 금지되어 있던 성 상품화의 일부이다. 구매자가 여성의 몸을 살 때, 다른 인종의 여성들은 흥분을 고조시키며 또 하나의 경계를 형성한다.

여성 매춘은 구매자에게 여성의 몸뿐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를 갖고 있는 '유색'의 몸을 제공함으로써 손님의 인종 차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미군이 그들의 적을 노랑이라고 부르면서 대상화할 때 베트남 여성들은 성이 실제로 구매되는 그러지 않은 장녀로 전락하였다. 베트남에서 미국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위협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절프전에 참여한 어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또한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위협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눈에 보이는 미국 여성들의 존재는 처음부터 장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요원, 군인의 부인 또는 관료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 차별주의는 피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강간이나 매춘을 통해서 성 착취를 받는 대상으로 선택될 때 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적인 미국 여성을 성 착취부터 보호해 주는(보호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기능을 한다. 인종주의는 성 착취에서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의 분리를 유지시킨다. 그러나 1992년 미 해군의 태일족 회담(Tailhook Commission)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들이 드러났듯이, 특별히 인종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나 미국 여성이 임무를 수행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섹스를 위한 몸통이로서의 위치를 다시 갖게 된다.

다음은 인종 해방 운동과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공화국 군과는 반대로 베트남 민족 해방군은 지역 여성에 대한 강간과 매춘을 금지하는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현실은 아니다. 특히 남성 주도적인 해방 운동에서 모든 군대가 여성 성 착취에 개입하고

14) Li Li Heislip, with Jay White, *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 (New York: Doubleday, 1989), p. 224.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중에 미국과 남쪽의 공화국 군 치하의 사이공에는 매춘이 번성하고 있었던 반면, 북쪽 호찌민의 민족 해방군이 통치하는 하노이에는 매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타이와 필리핀이 미군의 R & R 유양지가 되었던 것처럼, 군대 매춘이 섹스 관광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베트남전쟁 동안 되풀이되었고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전쟁에 그리고 그 후에 베트남, 타이, 필리핀 여성의 매춘이 미군을 위해 단계별로 용인되었다. 방콕의 꽃동 거리는 성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꽃동: 방콕의 큰 꽃동'(*Papaya Bangkok's Big Little Secret*)이라는 책에서 전직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기자는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꽃동 거리가 지금과 같은 부화 명성을 얻는 것이 가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떠올려대고 있다.¹⁵⁾

1963년 남베트남에서 군대 매춘을 위한 모집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문제거리가 되었다. 1963년 아외드 박사가 실시한 유엔 노예 조사는 라오스에서 여성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매춘부 모집은 남베트남에서부터 타이, 라오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⁶⁾ 처음에는 술집 여성, 그 다음에는 다남의 해군을 위한 마사지업소들, 그 뒤에는 "빈민 사창가와 아시아계업소, 도그레차(Dogwacha)로 알려진 마약 거래자가 차례로 가지 주변에 생겨났다."

1966년 중앙 고지대 안캄(Ao Kam)의 제1기병대, 사이공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라이캄(La Kam)의 제1보병대, 그리고 프레이부(Phu Bai)의 제4보병대는 기지 안에 공식적으로 군대 매춘업소를 설립했다……

전쟁중에 끌려 가족을 잃은 남인과 이전에 사이공 술집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주로 매춘업소를 만들었다……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매춘부의 알선과 가격 조정을 떠넘기면서 돈을 대지 않고 있던 미군이 직접 전쟁과 안전

을 통제하고 관리했다.¹⁷⁾

결국 매춘부들은 "현지 내국인 방문객"으로서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공식적 환영을 받았다. 사이공 근처의 롱빈(Long Binh)에서는 군인들이 군 기지 밖에서 기다리는 30-60명의 소녀들 중 아무나 현지 내국인 방문객 자격으로 기지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군대 사찰가는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을 이차에서도 출입 통제 매춘 지역으로 개입되었다. 남쪽의 공화국 정부는 이 지역의 매춘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30퍼센트를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다.¹⁸⁾

사이공의 거리들, 불통의 군사 기지와 미군 주거 지역 주변 그리고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은 술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술집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군 남성들에게만 용종을 제공해 주었고 어떤 때에는 각 술집마다 고객들과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게 부추기는 로스에 스물들 5명에서 20명까지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술집들이 비엔 호아(Bien Hoa), 농타우(Nong Tau), 나트랑(Nha Trang), 다낭(Da Nang)에 있었고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작은 규모를 이루며 나타났다.¹⁹⁾ 필리핀을 비롯하여 군대 매춘이 번성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로, 매춘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으로 사별한 여성이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아니면 강간의 피해자들이었다. 매춘 여성들은 가족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이었다. 불건 제도화에서의 미물이 여성의 지위는 전시에 전쟁으로 인한 사회 변동으로 더욱 악화된다.

종전이 되고 남베트남에서 정권할 때 많은 미군은 베트남인이 주도하는

15) Alan Dawson, *Papaya Bangkok's Big Little Secret* (Bangkok: Thai Women Press, 1988), p. 20.

16) Michael Auer, *Apes in Society* (New York: United Nations, 1966), p. 128.

18)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New York: Bantam and Schoon, 1976), pp. 93-94.

19) Richard Pines Perle, "Vietnam, Contemporary & the past," *Le Monde*, June 2, 1971.

20) Neil Johnson, *Understanding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 123.

통일을 위해 밀고 들어오는 북베트남 군으로부터 남베트남의 재혼 여성들을 '구해' 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다시 재혼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젊은 미국인들은 도시에서 있는 거의 모든 술집과 재혼업소를 돌면서 재혼 여성들을 끌어모아 베트남 밖으로 탈출시켜 주었다. 어떤 남자는 사이공에 네 번이나 갔다 왔으며, 그때마다 다른 '아내'와 몇 명의 '처제나 처할'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함께 떠나기를 거부했던 한 재혼 여성은 그녀가 자칭 '남편'이 오늘날부터 베트남인들로부터 구성된 재혼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CIA에서 일했다고 말했다.¹⁷⁰

리 라이 해이슬립은 자서전 『하늘과 땅이 바뀔 때』(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에서 부패한 베트남인의 일선으로 베트남 주둔 미군에게 팔리고 있는 노예 매매와 군대 재혼을 설명하고 있다. 미군 선택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뜻이, 재혼은 전쟁중에 여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로 당연시되었다. 반대로 소녀들이 매매되면 임신 때에는 노예제로 간주되었다. 해이슬립의 자서전은 그녀 자신을 비롯하여 거리에서 눈에 띄는 여성들을 누구나 재혼부라고 여기는 군인들에 맞서서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해이슬립은 대부분의 경우 재혼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끈질기게 거부해야만 했다. 그녀가 거리에 나설 때마다 군인들이 그녀를 재혼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과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물건을 팔러 거리로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녀는 베트남 여성이었기 때문에 재혼부로 여겨졌고 심지어 아무리 강하게 거절해도 자신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미군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한 번은 누군가 400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자신과 어머니가 1년간 먹고살

수 있는 돈이어서 그녀는 재혼을 승낙하기로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날 누워서 이 두 명의 미군을 남자가 되게 해주는 거야. 아직 겪어 보지 않았던 일을 그들이 내게 하는 것뿐이야"라고 말하면서, 매번 재혼을 몇 달 이년 것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¹⁷¹ 베트남에서의 노예 매매에 대한 해이슬립의 묘사는 자발적 재혼과 강요된 재혼 사이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상기시켜 준다.

이 소녀들은 재혼부가 아니라 시골에서 떨어지는 전부를 피해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온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일부는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다. 이 소녀들은 나처럼 농촌에서의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였으며, 좀더 안전하고 나은 생활을 하라고 전직들이 도시로 보낸 아이들이었다. 한 대의 피난민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아주 잘 생긴 젊은 남자 두 명을 동반한 젊은 여자가 버스에 탄 사람 중에서 가장 부나 보모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 왔다. 이러한 일들은 소녀들이 도시로 가면 찾아보라고 들어 왔던 직업이었고 잘 생긴 남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귀여운 어린 소녀들은 그 주변에 제발리 모여들었다. 그 여자는 좋은 가정에 편입된 일꾼으로 일할 가정부 자리를 약속하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며칠간 자기가 사는 집으로 데려가 일하게 했다. 새로운 부리의 소녀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때때로 소녀들을 복속시킨 후 그녀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그녀의 구애자들은 일반적으로 부패한 관료이거나 이상한 성격 취미를 가진 무지물이었다. 일부는 타이, 싱가포르, 심지어는 멀리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구애자들에게 이 소녀들을 넘기기도 했다.¹⁷²

170. Hardslip, p. 101.
171. Ibid., pp. 101-104.

172. Allen Darnon, *Shylock's Da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p. 207.

전쟁의 악랄함 속에서, 억압은 전쟁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차이에 대한 구분과 통찰을 준다. 해이슬립은 "정기적으로 재혼을 하는 여성은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했다"고 설명한다.¹⁷³ 재혼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질량적 차이에서 나온다. 재혼의 세계에서 "군사 시설 근처에 있는 가장 빈 재혼업소는 길 주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현지 소녀들에게 세를 준 작은 집이다." 거래는 때때로 술집이나 보석, 탕크, 골목길에서도 이루어진다.¹⁷⁴ "소녀들 중에 많은 경우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나치형 강간을 당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다."¹⁷⁵ 그 다음 재혼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는 재혼부인데, 그들은 야담과 재혼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재혼업소의 막대한 재혼 사다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전쟁 피해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에게 "문제될 게 뭐야? 한 톨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서 직군의 재혼 요구에 응해 살아남은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

1972년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1975년 남과 북이 통일을 했을 때 약 50만 명의 베트남 재혼 여성들이 있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재혼 여성들을 미국을 통해 입은 남베트남 '괴뢰' 정권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질서의 피해자로 간주하였고, 전쟁의 종결과 함께 베트남 새 정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병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부 관리들은 강력한 정책인으로도 성병을 다스리는 데 6~8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¹⁷⁶ 재혼 여성의 54퍼센트가 성병에 걸려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의료 검진과 치료를 포함한 출금 처치를 받았다. 지방 출신 재혼 여성

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했으며, 가능한 경우 가족과 재결합했다. 원래부터 도시에서 살던 여성과 소녀 들은 계속 학교인 여성재활학교(School to Rehabilitate Women's Dignity)에 보내져서 장사를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고, 정치 강의를 듣고,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비운은 각 도시의 혁명 정부가였다.¹⁷⁷ 1970년대 말 베트남이 통일되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되자 서구의 일부 인권 단체 들은 정치범들, 즉 남쪽에서 미군의 후원을 받던 폐당한 공화국 정부의 동조자들에 대한 처형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재혼 여성들과 함께 재교육 센터로 보내졌다. 재혼 여성을 위한 재교육 센터가 실제로 무용원 정치범을 위한 센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1979년 비정부 기구인 휴머니티스(Humanities)의 조사관들에 의해서 재혼 여성들이 정치범처럼 대우받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나는 1991년 1월과 1993년 1월에 베트남을 방문해 전쟁 후의 재혼 여성과 감소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호치민 시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 과장인 루이 티 킵 쉐(Lu Thi Kim Qui) 교수의 말에 의하면 종전과 더불어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전시에 재혼을 했던 여성의 3분의 2가 전통 사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난에 직면해 있던 전후 베트남에서 많은 수가 다시 매매혼으로 유입되었다.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주의 정부의 금지령 은 매매혼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하에서 포르노 그라피가 사라지고 포주 행위가 통제되었으며 매매혼이 감소했지만,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한 수요를 생산해 냈다.

1980년 '도어모어'개혁, 베트남식 제스토프로이카와 함께 자유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매매혼은 즉시 증가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경제 상황이 향상되고 소비가 증가하자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사는

173. Ibid., p. 104.
174. Ibid.
175. Ibid.
176. *Le Monde*, June 2, 1995.

177. "La réhabilitation des victimes passives du Sud Vietnam," *France et Asie*, no. 34 (Paris, France, 1997).

때 여류 문물였다. 도어모이 전에 사이공의 매춘 여성은 1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내가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나는 그렇게 낮았던 수치가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1993년 하노이 여성연구센터의 레 티 퀴(Le Thi Qui) 교수의 연구는, 베트남에 1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호치민 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공의 매춘부들은 1987년 1만 명에서 1991년 3만 명으로 증가했고 1993년 현재 5만 명으로 증가했다. 매매춘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매춘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레 티 퀴 교수가 매춘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여성의 75퍼센트가 매춘을 자신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²¹⁾

1991년 매춘을 위해 베트남 여성을 타이에 팔아넘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인신 매매는 대개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에서도 매춘을 하게 되었다. 1993년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1만 명의 베트남 매춘 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유엔 평화유지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기근과 질병이 전후 몇 년 동안 베트남을 강타한 데다, 미국의 통상 금지 정책으로 더욱 가혹을 부린 점들을 때문에 매매춘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층은 매매춘을 조장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일을 버리고 다른 이슈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쟁 전이나 전쟁중에도 사회주의 지도층은 여성 운동을 반역적인 일로 간주하였다. 여성을 위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여성 조직으로 여성연맹(Women's Union)이 있지만 당 지도부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에는 시장이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 착취는 금지되었다. 이제 1990년대 베트남

에서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발전 과정에서 여성이 주변화되고 있으며 매매춘도 부활되고 있다. 서울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여성이 도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적 성 산업이 이런 여성들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에 베트남 여성들의 의식 향상은 매춘의 급격한 증가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냈다(9장 참조).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정부는 여성들을 보호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매매춘을 1993년의 10대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섹스 관광: 군대에서 비즈니스 시장으로

산업화된 대규모 매매춘은 몇몇 아시아 국가에 주둔했던 외국 군대에 의해 시작되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 온 사업가와 남성 관광객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섹스 관광과 주권 주둔 신탁 사업은 군대 매춘을 바탕으로 형성된 두 가지 주요 성 산업이다. 남성을 위한 섹스 관광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두 개의 힘, 즉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미국의 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규모 군사적 배치에 있었기 때문이다.²²⁾ 제2차 세계대전 중과 그 후의 군대 매춘에 이어, 일본 시장에서 매춘 섹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일본의 섹스 관광은 처음에는 타이완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으로 옮겨갔다. 베트남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미국의 대규모 군사 매춘에 이어,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매매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생겨났다. 이후로 섹스 관광 사업은 특히 타이와 필리핀에서 발달하고 있다. 1970년 말엽부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섹스 관광 시장은,

21) Le Thi Qui, "Social Policy on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 Vietnam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22) Walter Dells, "From American Lure to a People's predicament," in Sandra Pollock Schwartz and Brenda Scholten, *Let the Good Times Roll: Quarters and the U.S. Military in Asia* (New York: New Press, 1992), pp. 14-21.

일본인들이 미국인, 유럽인,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 함께 필리핀과 타이의 섹스 관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이 지역에서 매춘이 형성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여성들의 어능 현상에 있다. 이 여성들은 매춘으로 매매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춘에 눈을 돌린다. 이 문제는 5장에서 다룰 것이다.)

한국

사업가들과 남성 관광객을 위한 섹스 관광이 1970년대 아시아에서 급증했다. 1980년대 타이완의 관광객들은 주로 남성이었다. 1984년 타이완에 여행 온 일본인 관광객의 81.8퍼센트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70퍼센트가 사업가, 세일즈맨, 사무직 노동자였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와 주요 매매춘 시장은 후아시(Hua Hsi)와 톱산(Tongshan) 사원 주변에 노점상들이 베퉀이 들어선 500여곳에서 정도의 작은 구역이다. 이곳에서 밤의 피와 살갗같은 남성들에게 정력제로 팔리고 있다. 타이완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 매매에 대항하면서 이들에게 선택을 제공해 주는 '타이완 무지개 프로젝트'는 1980년에 이 지역 매춘 여성의 40퍼센트 이상이 산악 부족에서 팔려 온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라고 보고했다.

1970년대 초기에 일본 남성들의 섹스 관광 수요는 한국 가정 관광으로 확대되었다.²³⁾ 1972년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 사업가들은 타이완 매춘 관광을 남한의 기생 매춘으로 바꾸었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1만 8천 명의 매춘 여성들이 27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4만 3천 명의 미군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술집과 클럽이

있는 소규모 성 산업 도시들이 다른 지역들에서처럼 군 거처를 둘러싸고 발달한다.

군대 매춘과 이후 섹스 관광에 종사하던 한국 여성의 매춘은 1970년대 말엽과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 범죄 조직이 미국의 마사치업소 매춘을 위해 한국 여성의 인신 매매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990년에 미국 이민과 화국(U.S.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미국 범죄 조직(CS Syndicates)에 팔아넘길 목적으로 이들과 결혼한 군인들에게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결혼 중개인들을 수사하였다. 미군들은 더러는 속아서 결혼한 경우도 있고, 더러는 본국으로 송환될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사기 사업을 벌인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여성들은 이혼당하고 마사치업소에 팔려간다.²⁵⁾ 1980년대 중반 연태원에서 매춘 단속이 실시된 후 뉴욕의 한국 마사치업소 매춘은 1992년에 연태원에서 토크로 옮겨갔다.

서구의 사업가와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섹스 관광은 기생 매춘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기생'은 원래 출주고 노래하거나 손님에 대인처럼 대하는 독립적인 여성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이제 기생은 매춘 여성이나 회사가 정비를 지원하기도 하는 일본인 사업가와 관광객을 남한으로 끌어들이는 매춘업소 부어를 지칭하게 되었다. "2와 3일간의 공식 여행 비용이 섹스를 포함해서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

아오리 파츠에 의하면, 1984년 남한에는 8천 명 이상의 기생들이 매춘을 하고 있으며, 2천 명이 등록되어 한 달에 두 번씩 설명 감전을 받고 있고, 서울에만 30개 이상의 기생집이 있다.²⁶⁾ 아오리는 매춘에 대한 소비자/시장

23) Yajun Ma, "Trafficking in Women and Prostitution in Japan," Japan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24) "Trafficking in Women: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The Situation of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Kore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25) "Organized Crime in Pennsylvania: A Decade of change, 1980 Report" (Harrisburg: Pennsylvania Crime Commission, 1990), p. 104.

26) Yajun Ma, "Why I Oppose Koryo Tour," in Kathleen Berry, Chulmin Park, and Shirley Gartin, eds., *International Prostitution: Networking against Prostitution* (New York, 1994), p. 27. Report of the Global Prostitution

수요 논리를 통해 자신의 매춘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사무직 노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 "남한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남성에게 완전히 바치고자 하는 정신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들의 철저한 서비스를 물리치기 어렵다."¹⁴⁹

김희원은 가성 관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의 사건을 제공했다. 판매의 수익률은 입구를 지키는 제주도의 수호신 불하포방에서 시작하는 일을 만하고 이국적인 경험이다. 일을 만하고 이국적인 것이라면 음식과 술에서부터 숙소와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까지 무엇이든지 팔린다. 여성들은 밤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4시에 도착하여 고객들이 부를 때까지 지하에서 재비를 한다. 20명의 여성들이 자신을 지옥에 밤을 같이 보내게 될 10명의 일본 남성을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저녁 식사 때 여성들은 자신을 선택한 일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 준다. 저녁 식사에는 한국의 전를 출과 노래가 곁들여진다. 이후 남성들은 여성들을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카라오케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여성들은 다음날 7시 경에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다.¹⁵⁰

1973년에 아시아여성연합(Asian Women's Association)은 가성 관광을 중단하라는 결례인을 발표했다. 크리스마스 날 여성 시위대는 "단제 섹스 관광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혹해나 가라 섹스 짐승들!"이라고 외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남자 관광객들에 맞섰다.¹⁵¹ 그러나 섹스 관광이나 다른 성 산업은 일단 한 지역에서 노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당시에 매춘 일산업자들이 상권을 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정부가 관광객들의 달아남 통해 외화 벌이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섹스 관광이 빠르게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여성들과 연대한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그 지역 전체의

Colony, Rotterdam, Netherlands, April 6-13, 1983.

149 Ibid., p. 85.

150 Kim Hye Won, "The Seduction of Korean Tourism in Ceylon Island," in *Sedu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Cases and Effect* (New Delhi, India: Vikas Press, 1986), pp. 147-148.

151 Munsu, "Why I Oppose Korean Tourism," p. 75.

섹스 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고객들을 공개한다는 공식적인 반대와 위협이 있는 후에, 1981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본 남성의 수는 급격히 감소해 전년도에 비해 3월에는 1만 4,000명에서 1만 1,988명으로, 4월에는 19.7퍼센트, 5월에는 34.6퍼센트 감소했다."¹⁵²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도쿄와 마닐라 간의 운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운동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이 나라들에서 관광은 여전히 일본과 서구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 매춘은 계속해서 점점 더 수익이 맞는 시장으로 산업을 옮겨갔다.

타이

타이에서 매춘 규모는 장간 사건 추정 건수의 패턴을 따른다. 1993년 현재 타이에는 매춘 여성이 공식적으로 2백만 명 정도 있으며, 경제 발전은 관광으로 떨어졌던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매춘은 매일 매춘 여성을 찾는 45만 명의 타이 남성들과 매마다 섹스 관광을 위해 타이를 방문하는 340만 명의 관광객을 위한 가장 큰 상품이다. 섹스 관광은 타이 관광 산업에서 외화 벌이의 주된 원천이다. 경찰은 1974년에 타이에 약 4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여성들은 베트남전쟁 동안 휴일 R & R 중인 미군을 위해 주로 모집되었다. 그러나 섹스 관광과 매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 보건국(The Public Health Ministry)은 1992년에 전국적으로 단지 7만 6,863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집계하였다.¹⁵³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군대가 철수하기 전까지 성 산업은 타이에서 가장 큰 사업의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판매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었던 타이에서 일산업자들은 미군에 의해서, 미군을 위해서 형성된 성 산업의 붐이

152 *Asiatraveller*, September 17, 1981.

153 *Asian Observer*, November 27, 1992; Lilian E. Robinson, "Touring Thailand's Sex Industry," *Nation*, November 1, 1993, p. 404.

지나간 후에 남겨나는 매춘 여성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나섰다. 성 산업의 피해자였던 타이 매춘 여성들은 다시 급격한 성 산업 몰락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좀더 강사가 되고 이익이 될 만한 지역으로 거래되기 위한 탈보물이 되었다.

경제적 조건과 자유 매춘법으로 인해 독일은 타이 여성 매춘의 그림자적인 표적이 되었다. 후에 네덜란드가 매춘을 합법화하자 필리핀이나 타이,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네덜란드로 여성 매춘을 확대시켰다. 1977년의 한 보고서는 프랑스루브르의 한 집단이 타이 소녀들을 1인당 1천 달러에 구입하고 한 달 밀려주는 데 2,200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⁵⁴ 일부는 아무런 계약이나 위장을 통하지 않고 타이에서 독일 매춘업소로 직접 보내졌다. 1977년 독일 거리에 버려져 있는 젊은 여성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곳에 갔던 타이의 한 사회 복지사는 당시 1천 명 이상의 타이 여성들이 그곳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⁵⁵

1972년에 베트남에서 미군 부대가 철수한 이후, '해외 복무 편사'(Overseas Foreign Service)를 쓰고 있던 저널리스트 톰 레버는 타이로 방문해 매춘 지역인 '심야 소녀들의 마을'(Village of Night Girls)에 남겨진 일부 매춘 여성들을 발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매일 300달러에 높은 출신의 젊은 처녀"를 제공하겠다는 포수들로 득실거렸다. 암시장의 운영자들은 대부분 미군에 자녀를 둔 버려진 고아들을 이용해 큰 사업을 벌였다. 고아들은 입양 기관을 통해 팔렸다. 레버는 방콕의 전형적인 마사지업소에 데리고 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갔던 곳은 1990년대의 마사지업소와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검토습은 전체적으로 화려해 보였다. 입구 안쪽에는 벽화장처럼 커다란 진열장

이 있다. 벽에는 붉은 벨벳이 쳐 있었다. 30개의 반짝거리는 스포트라이트가 상들을 비춘다. 상들이란 거의 200명쯤 되는 소녀들이다. 모두 예쁘게 화장하고 짧은 색의 옷을 입고 풍금 신발을 신고 있다. 그들은 한 줄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소녀 할당단처럼 보였다. 내가 그들 중 누가 팔이를 팔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 명이 지직되었다.

그가 여자를 선택하고 10달러 정도를 지불하자, 어린 여성이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복도를 한 후 문을 열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칭따오(Chiang Mao) 북동쪽의 농촌에서 자랐다. 그녀가 16살 때 한 미국인이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로 돈을 준 후 그녀를 미군 기지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이 태어난 후 "난관"을 미국으로 귀환했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를 자신의 친구에게 '위 버렸다.' 그녀는 그 후 계속해서 여러 남자를 전전했다. 지금은 더 이상 '결혼'할 미국인이 없으며, '심야 소녀들의 마을'에서 살고 있다.¹⁵⁶

베트남전쟁중에 "방콕에 있던 조직적인 미국 R & R 사무소는 여행사를 경영하는 타이의 장군과 결탁하여 하룻밤에 3달러 이하의 호텔을 일산해 주었다." 이 호텔들은 "새로 조성된 페지머라(Penthouse)기의 마사지업소와 대형 술집들이 길게 늘어선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¹⁵⁷ 휴가를

154 Lloyd Brown, "Intelligence Report," *Frank*, November 11, 1977, p. 12.

155 Brian Rich, "Porridge Turn Thai Porridge a Whore," reprinted from *London Observer* in *San Francisco Chronicle*, June 9, 1977.

156 Tim Wilton, *Los Angeles Chronicle*, April 26, 1994.

157 Darnon, *Porridge* (Bangkok: Big Book Press, p. 85).

받은 군인들이 그 거리를 벗어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지역인 꾃퐁에서는 전설 노동자, 기자, 사업가들이 전쟁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술을 마시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좀더 비싸고 수준 높은 남자들의 주무대였던 꾃퐁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나서 매춘과 섹스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꾃퐁에서 처음 고고 바가 문을 열었다. 그 후 "1973~79년 사이에 꾃퐁의 모든 상점과 사무실이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변했다."⁴⁰ 성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 바는 실제 섹스 공연으로 변했고 작은 술집들은 대형 술집으로 확장되었다.

발족의 아시아연구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 저급한 아시아연구소에는 잉글 노동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소녀 들은 유리창이나 새장 안에 전시되었다.

소녀들은 인공 조명이 비추고 있는 새장 안에 앉아 있었다. 반대편 파랑쪽에는 피자가 죽 늘어져 있어서 남자들이 앉아서 선택을 위해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곳에는 소녀들이 고객을 볼 수 있게 만든 유리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으나 가격이 더 한 곳에서는 어둠만으로도 충분했다. 고객은 플라우스에 꽂혀 있는 번호를 보고 소녀를 선택하여 새장 한 칸에 있는 계산대에 정해진 돈을 낸다.⁴¹

타이 북쪽에 있는 인구 25만의 도시 치앙마이에 1991년에 약 3천 명의 매춘 여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춘업소에서 여성들을 새장 속에 한 줄로 앉아서 선택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색깔별로 정해진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노란색은 4달러, 파란색 8달러, 붉은 색은 12달러, 무쌍한 것은

40) *Ibid.*, p. 48.

41) Paul Phengsakul, *From Prisoner Girl to Bangkok按摩 Center*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2), p. 1.

20달러."⁴²

1980년대 초반에 타이의 섹스 산업은 불경기였다. 1981년에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한 유럽의 비판 여론 때문에 정부는 매춘을 잠깐 단속했다.⁴³ 신시아 엔로에 의하면 "1980년까지 타이는 할라 같은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의 경제 활동보다 관광을 통해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였다."⁴⁴ 1990년까지 32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이를 방문했다. 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매우 불균형하게도 대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1992년을 여성 관광의 유지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남성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유인책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방콕에서 열렸음으로써 좌절했다. 타이의 여성 단체인 EMPPOWER에 의하면, 1993년에 매일 밤 약 30만 명의 남성들이 타이에서 섹스를 했다.

또한 타이에는 군대 매춘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필리핀이 시작되자 미군 7함대는 타이의 관광지인 수빅과 파타야에 정착했다. 파타야의 경제는 필리핀 동안은 침체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휴가를 받은 군인들을 맞을 재비를 갖추게 되자, 한 술집 주인의 말 그대로 "앞으로 4월 동안 지난 3개월의 침체를彌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⁴⁵ 소독은 대부분 타이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에 타이에서 에이즈가 크게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피자 피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의 매춘이 증가하는 한편, 매춘에 정부와 경찰이 연루되면서 나타난 부정 부패로 결국 어린이와 '강제적' 매춘을 단속하게 되었다.

42) James Edwards, "A Prisoner Society,"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14, 1991.

43) Linda K. Schell, *The Politics of Sex in Asia* (Stanfor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p. 98.

44) Cynthia Enloe, *Making Peace with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and San Francisc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 17.

45) *New York Times*, March 21, 1991.

1993년 초반에 이러한 단속이 실시된 곳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인 남성들이 매춘 관광을 오는 타이의 남부 지방이었다. 1993년 현재 "매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2~3년 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사업을 유지하고 번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연계를 갖추게 된…… 남부 지역의 매춘업소들은 약 30명의 회원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각자 조합장에게 회비와 매춘부 1명당 250바트에서 700바트 정도의 돈을 낸다. 이렇게 결한 돈은 회원자들에게 분배된다. 북부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여성들은 매일 경찰에게 30바트씩 벌금을 낸다."⁴⁶ "너를을 방지 말자"는 타이의 캠페인은 북부 지방에 있는 노라타마르 송기 콜롯(Noradawar's Songi Kolor) 매춘업소를 급습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18세 미만의 고된 부족 매춘 소녀들과 함께 경찰에게 돈을 지불 장부가 발견되었다.⁴⁷ 이 단속이 있은 후 1992년 12월에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나 매춘을 장조할 한 여성과 섹스를 하는 구매자는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⁴⁸

그러나 타이에서 매춘의 86퍼센트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매춘 여성의 2.1퍼센트만이 강제로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다.⁴⁹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에서도 강제 매춘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성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전반적인 매춘을 정상화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함이 작용한다. ① 여성 매춘과 강제 매춘 그리고 어린이 매춘은 성 산업화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은 성 산업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② 매춘과 성 산업이 타이의 경제 기반을 크게

확장시켜 온 반면, 매춘되어 온 외국 여성들로부터 지역 매춘은 위협받았는데, 이 외국 여성들은 낮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 성 산업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 현상은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여성들의 시장 판매에서 경쟁을 위해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사온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필리핀

미군의 필리핀 지배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군 지배가 공식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의 군사 기지 협정을 통해서이다. 1992년 피나부루 화산 폭발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잿더미를 쏟아 부었고 수백만 해군 기지의 일부를 파괴하여, 주재해 왔던 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를 마무리짓게 하였다.

화산 폭발 전에 앙겔레스 시는 클라크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2만 3,330 명의 미군들에게 용품을 제공해 주던 술집 거리였다. 1990년 당시 앙겔레스 시에는 1,567개의 술집, 아시아연구소, 매춘업소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3,642명의 엔터테인먼트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미등록된 여자들이 수천 명 있었다. 수빅만의 해군 기지에는 3천 명의 군 요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함대가 보수와 정비를 위해 정박할 경우, 350대의 항공기와 90척의 함선에서 쏟아져 나온 7만 명의 군인들은 율령가르 시로 몰려들곤 했다. 1989년 율령가르 시에는 1만 1,600명의 매춘 여성들이 엔터테인먼트로 등록되어 있었고, 6천여 명의 술집 여자와들 허가받지 않은 1만 4천 명의 저리 매춘 여성들과, 3백 개의 고고 바, 아시아연구소, 매춘업소들이 중 10퍼센트의 소유주는 피박한 미군이었다고 있었다.⁵⁰ 신시아 엔로는 "매년 필리핀 여자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는 3만여

46) EMPPOWER, "The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for Prostitution," The mone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4.

47) *Nation* (Singapore), January 18, 1993.

48) *Singapore Post*, December 11, 1992.

49) Joint stud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Population Institut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Singapore Post*, January 3, p. 25.

50) Virginia Minton, Cole Gatta, and Asha Palani Suresh, *Women Economies in Asia and Oceania: A Survey After Manila*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and KUALA LUMPUR, 1993).

명의 어린이들 중에 1만여 명이 거리의 아이가 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가진 미군들에게 매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¹³³ 미군의 필리핀 철수로 술집 여자들은 그들이 낳은 혼혈 자녀들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의료 혜택과 교육 및 양육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올롱가포 시는 오토라 드리오스가 말한 것처럼 "전시에는 번영을 누리고 평화시에는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관광 센터로서만 존재한다."¹³⁴ 매년 2백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올롱가포 시에서 6,600만 달러의 용가비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 드리오스는 미 해군 함대가 올롱가포 시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여성들이 매춘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걸프전이 발발하기 직전, 전쟁 태세를 갖춘 32척의 군함이 2개월간 올롱가포 시에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었다.¹³⁵ 전쟁이 끝나고, 1991년 3월에 3척의 전함을 따라 선원과 해병을 태운 배 6척이 걸프전에서 돌아왔다.¹³⁶ 한여밤에 7천 명의 미군들이 도착하자, 그곳에 있는 4백 명의 부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¹³⁷

1992년 11월 24일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고, 이제 그 기지들은 필리핀 관리하에 있다. 거대한 성 산업이 주창하고 있지만, 군인 구애자들을 사업가로 대체하는 관광 경제의 발전을 통해 성 산업을 제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군사 기지로 전환되면서 "수백만 기지는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또 다른 수출 가공 지역을 만들으로써 제2의 홍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올롱가포 시의 몇몇 매춘업소들은 "가라오케 술집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타이완인과 일본인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쓰고 있다."¹³⁸

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매춘은 정상화되었다. 매춘은 '유흥'(entertainment)으로 여겨지며, 매춘이 국가 경제를 위해 지화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매춘을 조장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¹³⁹ 상업 부문 중의 1970년대에 필리핀은 지화를 끌어들이는 관광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 조건을 자유화시켰다. 1976~86년 사이에 여객사는 300개에서 401개로 증가했으며, 관광 안내원과 상업 사원들이 1,330 명에서 8,120명으로 늘어났다. 마닐라의 '엔터테인먼트'들에게 발급된 관광 증명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1980년에 1,699개의 증명서가 발급된 데 비해, 1986년에는 7,033개가 발급되었다. 관광청에서 관광 인구의 증가를 보고 했다. 관광객의 67퍼센트가 미국,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에서 온 남자들이다. 이들 중 72퍼센트는 휴일을 보내려고 필리핀에 온다.¹⁴⁰

현재 필리핀에는 30만에서 5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¹⁴¹ 필리핀 정부는 미군 철수 후 수백만과 팔라르 공군 기지의 전환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성 교육·발전·생산성 연구 기구(WEDPRO,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의 1992년 6월 보고서를 무시하여 매춘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거부했다.¹⁴² 전환 계획은 자유 무역 차대와 관광 개발을 요청했다. 술집 여자들은 그 다음에 있을 외국인들의 물질(사업기물과 관광대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는 알릴

p. 35.

133. *Ibid.*, p. 40, p. 45.

134. Aurora Javier DeCina, "Through Ignorance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 Philippine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mo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Penn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4.

135. *Ibid.*

136. *Daily Globe (Manila)*, 1991.

137. *New York Times*, March 25, 1991.

138. *Asanajidji*의 매춘

139. Letter to Kathleen Barry from Aurora DeCina, October 22, 1992.

140.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Women, 1989-92, p. 150.

141. Aurora Javier DeCina,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in a Crisis Situation: The Philippine Cas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mo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Penn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1.

142. Jan Lee, "Minister Exploitation, Economic Un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port for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WEDPRO), Manila, June 1992.

4월 24일 신일회 191

레스 시와 세스 장사 지역 한가운데서 필리핀 관리와 전환 계획에 대해 토론하면서, 알릴레스 시가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의 설명을 들었다. 알릴레스 시가 폐한 도시가 아니어서 해변도 없고 다른 관광 자원도 없음을 알고, 나는 무엇으로 관광객들을 끌어올릴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커다란 카지노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의 각지에서 단순히 카지노를 위해 찾아오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카지노가 매춘이나 '유흥업'을 계속하기 위한 유일한 용인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에야 올롱가포 시와 알릴레스 시 당국은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대 매춘 마을이었던 곳의 '자유방임적인' 접근과 모순되게도, 마닐라의 시장은 매춘 '관광 지대'와 야악 거리, 여타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닐라 내의 모든 매춘업소와 세스 관광 시설의 폐쇄령을 내렸다.¹⁴³ 시장은 마닐라의 매춘 지역인 에르미타(Ermita)를 사업 지구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마사지업소, 나이트클럽, 술집들, 기타 매춘업소들은 폐쇄되었고, 창문과 문은 끈자로 막혔다. 시장은 무지개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돕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마닐라 시는 여자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들을 위한 아무런 사회적 지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는 계획은 술집 여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그들을 사는 남자들뿐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는 사업을 금지시키는 정부, 양쪽 모두에게서 취약당한다.

1992~93년 사이의 필리핀의 매춘 개혁이란 마닐라와 같이 몇몇 지역에서 성 산업을 폐쇄시켜 다른 지역에서 이를 재개발시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매춘 여성들의 복지나 미래, 합법적인 경제적 발전에 대한 철저한 무시는

621 Manila Bulletin, March 21, 1993.

192 *Asanajidji*의 매춘

매춘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필리핀에서 여자들은 외국인들에게 '갈매 피루를 가진 작은 세스 기계'라고 선정된다. WEDPRO의 1990년 연구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에는 3종류의 매춘이 있다. 최하위 계층은 대체로 필리핀의 빈곤한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인 카사(Kasas)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식물 취급자로 등록되었다. 이들은 매춘업소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구매자가 오면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음은 술집 여자로 이들은 정식으로 술집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월급은 받지 못한다. 이들은 술집에서 술에 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그 다음은 거리의 여자로 이들은 모후의 관리를 받는다. 그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매춘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모후에 차종에 살면서 술집 여자들이나 카사 노동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손님을 덜 받거나 더 많은 수당을 모후에게서 받는 등 다소의 이익을 얻는다.¹⁴⁴

술과 야악은 매춘의 형태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필리핀의 매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유흥업에 관련된 술과 야악의 사용으로 종업자의 83퍼센트가 자신들과 같은 여성 종업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73퍼센트는 야악 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¹⁴⁵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버지니아 마달라소(Virginia Madalaso)와 셀리아 카를로스(Celia Carlos), 아이다 폴로로스 산토스(Aida Pollores Santos)가 올롱가포 시에서 실시한 조사는, 이곳 매춘 여성들의 43퍼센트가 겨우 10대를 넘었고 3분의 1이 21~25세 사이이며 23퍼센트가 25세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롱가포에서는 매춘의 최하급인 카사(Kasas)의 89퍼센트가 지방에서 온 이주자들인 반면, 술집과 거리의 여자들은 도시 지역 출신이다. 대다수(70퍼센트)가 6명 이상

622 Manila Bulletin, March 21, 1993.

640 *Ibid.*

4월 24일 신일회 193

대가족의 중간 아이들이다. 그들은 가족 부양의 짐을 달고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 조사는 전형적인 율령가포의 젊은 대손 여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대가족의 셋째 아이인 그녀는 가난한 비자얀(Vizayan)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목수이고 어머니는 주부였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의 부양심 속에 있던 그녀는 달콤한 말로 결혼과 가족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는 남자의 편이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17살에 결혼, 즉 동거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사악한 '남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아무런 경제 지원도 없고 최소한의 평균 교육 외에는 아무런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한 그녀는 직업을 찾았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직업을 구하는 동안 아이를 가족에게 맡기기로 했다.⁶⁷

미국 기지 철수 3개월 후인 1993년에 율령가포 시와 알렉세스 시를 찾아가 슬립 여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여자들이 계속 되돌아해서 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인 미군들이 돌아와 그들을 아내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리라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었다. 시골에서 율령가포나 알렉세스로 온 많은 여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군과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대손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다. '슬립 요금'을 내고 여자들을 수일간 혹은 수주일간 데려간 미군들은 이들을 여자친구처럼 대했고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했다. 그러나 미국 철수 후 단지 몇 명의 여자들만이 염사라도 보냈다. 몇몇은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개는 최선 주소가

없어서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서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다. 대손 여성들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손의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대손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또 다른 성 산업인 우편 주문 신부의 기반이 된다.

여성 매매: 우편 주문 신부

결혼은 매매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대손 여성은 대개 버림받았거나, 과부이거나, 아내 구하기를 위해 다니고 있거나, 라사 매매처럼 가난한 시골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여성들은 결혼, 특히 부유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난과 대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베트남전쟁 중 '베트남인과 서양인 사이의 결혼'이 1963년에는 136명, 1968년에는 402명, 1971년에는 5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베트남인들이 결혼은 1963년에 96퍼센트에서 1970년에 81퍼센트로 감소하였다.⁶⁸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빈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많은 전통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매혼과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당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중매 결혼을 추진해 줄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

시리온 스크로바네(Siripon Skrobane)는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우편 주문 신부는 부분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하려는 대손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⁶⁹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손을 계속하기

67) Siripon Skrobane, p. 100.

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⁷⁰ 차이는 별로 없다. 우편 주문 신부 산업과 여성 매매는 모두 대손 여성과 가난한 여성,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외국인과 결혼할 길을 찾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매매술의 결과이자 중매혼의 또 다른 형태인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의 산업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도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여성 매매의 한 부분이었으며, 종종 '위장된 매매'로 불렸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이후부터는 중요한 성 산업이 되었다.

수많은 대행사들은 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신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수페 색시 관광'에 관한 광고를 유럽의 신문에 실는다. 색시 관광에서 첫 주는(원한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고르면서 보낸다. 둘째 주에는 '관광과 야자수가 물러하여 있는 남반의 해변에서 말어를 즐기며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 타이의 전투 시합을 보고 타이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춤을 본다. 셋째 주에는 관광 진행자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소유물을 출국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할 것이다.' 가격은 1,500~3,000달러이다.⁷¹

다른 보고서는 일부 대행사들이 돈을 받고도 상품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의 한 신문 광고에는 3주간의 타이 여행과 신부를 3천 달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관광 진행자는 돈을 챙기고 결혼식을 준비해 놓고는, '신부'를 나중에 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 이와 비슷하게 1973년에 홍콩에서 100명 이상의 남성들이 타이 출신 신부를 샀는데(이들은 1천 달러를 지불했다) 여자들이 결혼식을 한 후에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게

호소했다.⁷²

타이의 색시-결혼 관광은 유럽의 남성 잡지에 광고된다. 1979년 노르웨이 저부부 장관인 크나이트 프리아멘손(Kjetil Prydenhansen)은 타이 정부에 이런 관광을 중단하라는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 저부부 장관은 대대손과 그 중매 행위, 그리고 노예 매매는 인권과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국제대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⁷³ 1987년에 색시 관광 대행사가 여성주의 조직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타이의 시리온 스크로바네는 노르웨이 여성전선과 연대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매혼을 여성 착취와 여성 억압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여성 억압이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산업화된 서구 산업 국가의 거대한 관광 산업에 의해 유지될 때, 물질적이 인종 차별적 요소가 성 차별주의에 더해진다.⁷⁴

독일의 한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의 안내 책자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관에 박힌 독일인처럼 되게 하고 달디 간고 애그로운 머릿결과 알라미 반도의 매혹적인 아몬드형의 눈을 가진 눈에 띄게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그들의 대대에 복귀하여 먹이가 되어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민속학자와 여행가, 사진 작가, 레인디자이나들은 우아하고 놀면서 중국어 영향을 받은 자태와 거무스레한 얼굴을 한 필리핀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나는 여자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그런 피조물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67) Siripon Skrobane, "In Pursuit of an Elusive Thai Woman in Europe," *East-Southeast Asian Journal* 36, pp. 1-13.

68) Thak-Dan You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1998), p. 187.

69) *Ibid.*, pp. 10.

70) *See* Prudie Chinn, December 8, 1975.

71) *See* *World's News*, January 1-18, 1976.

72) Siripon Skrobane, "Voice of Thai Women," April 1976.

최고가 지속되는 한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이 독일 남성들을 유혹하지 못할 경우에 안내 책자는 계속해서 "필리핀 여성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며, 사랑에 빠지면 침대에서나 식탁에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1993년까지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을 통해 기탄을 다졌다. 어떤 대행사는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다른 대행사들은 필리핀, 타이, 그리고 최근에는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로도 신부가 매매되어 2만 건의 필리핀 여성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의 결혼이 성사되었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의 84퍼센트, 타이에서 온 사람들의 83퍼센트가 여성이었다.¹⁷⁰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제공된다. 이 남성들의 성 차별적 꿈은 인종 차별적이다. 아시아 여자를 신부로 사들임으로써 '해방된' 서구 여성들을 대신할 대안을 갖게 된다는 믿음이다. 이 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할 뿐 아니라,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남성들을 존속시킨다. 신부를 사는 남성들의 사장이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성을 사는 남성은 단지 가련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1984년에 미국 남성들은 "직업 갖기를 원치 않고, 파알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술도 있고, 내 주위에서만 맴돌며 사는 그런 신부를 원해요. 그리고 참, 그녀는 처녀여야 하죠"라는 말로 필리핀 신부를 사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6천 달러를 지불했다.¹⁷¹ 1970년대 중반-

170. Que Goco, "A Report on Australia," Australi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ustoms Agency for Trafficking in Women-Child Countries,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1980년대 중반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체는 12개 남짓에서 5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로 그 숫자는 추정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은 가사 노동자와 엔터테인먼트로 일하기 위한 여성들의 이민이 포함되어 있는 이민/취업 매매의 한 형태이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의 비율은 4,043건에서 7,759건으로 94퍼센트 증가하였다.¹⁷² 1989년에 우편 주문을 통해 7,759명의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났으며, 1988년 이후 94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민 당국은 편의상 필요한 서류가 구매되어 있는 한 이러한 관행을 모르는 체한다. 편의상 이러한 관행을 쉽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이민국은 약혼 비자를 제공한다. 약혼 비자는 남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안에 미래의 신부를 만났던 경우면 발급된다. 약혼 비자가 발급되려면 적게는 3달이 걸리고, 한번 발급되면 여성은 약혼자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나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90일이 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는 남성들에게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여자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그들의 고객에게 여자를 그녀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도 다른 약혼 비자로 다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바쁘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내가 전국여성협회(NCWF)의 머리 호세 레갑과 함께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와 그 구매자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진했던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한 남자는 네 명의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자랑하였다.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간단히 여자를 내뱉었다.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여성 매매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사

171.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5, 1984.

172. EnChin, "Through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 Philippine Perspective," p. 121.

노동과 성적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여성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매매준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우편 주문 신부 중 적지 않은 사례가 고착을 반복시키지 못하고 매춘부가 되었다. 필리핀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화병에 있음을 발견한다. 1984년에 필리핀의 한 전문직 여성은 캘리포니아의 발치프사의 아내로 미국에 도착한 후,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1년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남성은 이미 자신이 사들인 필리핀 신부가 있는데도 타이 신부를 또 얻고 나서 결혼피로 조사를 받았다. 우편 주문 신부 구입으로 초래된 마치 화병과 같은 상황은 타이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구매자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드러났다.¹⁷³

공산주의 전쟁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러시아와 그 외의 국가들로 해체되자마자,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를 통한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의 매매가 시작되어 급증했다. 1993년 북미의 남성과 라틴아메리카의 여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4년 반 이상 했던 라틴유로 소개사(LatinEuro Introduction)는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으로 눈을 돌렸다.

스칸나(Scanna)는 러시아 여성 2만 명의 명단을 팔고하는 대행사를 통해 3천 명의 미국 남성들이 러시아 신부를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머리 쿤데사(American Russian Matchmaking)는 열성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미국의 대행사이다. 이 대행사는 1992년 35달러를 받고 남성 구매자들에게 12명의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프로필에 올라가기 위해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인 80달러를 내야 한다. 이 프로필에는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몸매 지수(가슴, 허리, 엉덩이와 자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 있다).¹⁷⁴ 구매자는 3명의 여성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4천-5

천 달러가 드는 2주간의 러시아 여행을 떠난다. 대행사는 그가 최종 선택한 한 명의 여자를 위해 비자를 준비한다. 결혼이 48시간 내에 성사되면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2년 유효의 조건부 비자가 발급된다. 결혼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녀는 추방당한다. 이것은 자신을 산 '남편'을 안 지 못할 되지 않은 여성이 구매한 신부로서 남편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국여성협회의 국제부장인 머리 호세 레갑은 결혼 시장에서의 외국인 배우자, 결혼 매매의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상 조건부 노예의 지위를 완화하는 미국 법이 최근 통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결혼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가면 법원은 그녀의 비자에서 그 '조건'을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결혼 대행사를 통해 모집되고 즉석에서 이루어진 매매 결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1993년 여성폭력방지법'은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이민 자격을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들을 비자가 필요없는 내달판드로 매매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보르코달의 경찰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여성의 몸을 새롭게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 수요에서의 변화 즉 전에는 가질 수 없던 것들을 사고자 하는 남성의 욕구 변화 때문에 아시아 여성 신부나 매춘 여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¹⁷⁵

우편 주문 신부 판매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이 관행은 여성을 부모의 법적 소유물로 간주하며, 처분할 수 있고 남편의 법적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중매를 관행으로 남의 세대의 여러 사회에 있는 관행이며 20세기 서구에 만연하여 있던 관행에 토대를 두고 있다.

173. England Post, January 2, 1993.

174. Washington Post, January 2, 1993.

우편 주문 신부를 구입한 남성은 인간을 사는 것이다. 결혼이나 학혼은 국경을 넘은 여성 매매를 보다 쉽게 만들 뿐이다. 여성은 실패한 할수병에 시달리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많은 경우 '결혼'에 실패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만족한 구입자 한 명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그녀는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붓고 내 손톱을 정리해 주고, 매일 샤워를 시켜 주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고, 구두를 닦아 주고 옷을 벗기자마자 걸어 놓고 그녀는 대형사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돈을 지불한 만한 가치가 있어요"⁷⁰

일부 '남성의 권리' 운동들은 독립적인 서구 여성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 남성권리연대의 뉴스 잡지(Men's Rights Library News Magazine)/인 '라이브러리(Library)'가 1991년 발행한 소식지는 "미국 여자들아,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우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젊고 순진한 온두라스의 소녀들"을 광고하고 있다.⁷¹ 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행들을 폭로하는 아시아 여성주의 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에 관해 좀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국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민 압력이 강하고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부 아시아 조직들은 소수의 여성들이나 위험을 감수하면 살이 팔상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형태와 여성 매매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적·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매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에 의해 상쇄된다. 결국 결혼을 위해서는 매매춘을 위해서는 둘 다를 위해서는, 인간 매매는 근본적인 인권 파괴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을 놓치고 성 착취를 정상화할 때, 여성을 소유물로 향도하는

것은 비공식적 '개발'이라는 접근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에 기반한다. 그 가장이란 ① 여성의 폭력에 대한 남성의 반대와 ② 여성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매매가 바로 우편 주문 신부라고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필리핀에서 시행된 새로운 법에 의해서였다.

법정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우편 주문을 통해 결혼을 중매하는 관행과 모로소여, 장모, 기타 선전 문건의 광고, 출판, 매료를 포함하는 유사한 관행들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한다.(저자 강조)

이 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성들이 아내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법의 시행은 물론이고 이민국의 감독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강력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비난이 필리핀 여성 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범죄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범죄이다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관행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사회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리핀 여성들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학대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⁷²

81)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ection 1, Republic Act No. 6073.

70) John Kirk, "The Unsettling Business of Imported Love: How Come the Brides," *Men's Rights Library News Magazine*, 1991, p. 17.
80) *Liberty*, November 1991, 1.

서구 성 산업의 전개

선진 산업 국가에서 성 산업은 발전했으며, 폐기되기도 했고, 개발도상국에서 가능하게 된 새로운 시장을 준비했다. 내가 읽다시피,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고수하는 동안 시장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sex 관광 업체들과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베트남 정부가 시장 개혁화를 향한 산업화 노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자,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베트남을 활판날카하면서 초단간 개발될 이 새로운 시장베트남을 착취할 태세를 갖추었다.

법외 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던 성 산업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동유럽의 공산 정권 붕괴로 만들어진 시장을 인수하였다. 구 소련에서 소비에트 마피아는 많은 사업가들에게 밤에 매춘부를 제공하는 호텔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를 세웠다⁷³고 한다.⁷⁴

폴란드는 심지어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폴란드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9년이었으며, 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가 운영하는 통신사에 의해 배포되었다.⁷⁵ 부다페스트에서는 1990년 6월에 처음으로 스트립쇼가 공연되었다. 1989년에 검열법이 폐지되어 하드코어 포르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구로부터 수입되던 포르노그래피가 거의 즉각적으로 국내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한편 낙태를 제한 하려는 계획은 추진중에 있었다.⁷⁶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은 어간이를 착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했다. 기민당의 한

원리는 "포르노그래피는 민주주의의 일부"이라고 주장했다.⁷⁷ 헝가리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9년에 헝가리에서 실시되었던 여론 조사에서 73퍼센트가 매춘의 합법화에 찬성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부의 허가 아래 성 산업이 운영되고 있던 서독으로부터 여성 매매업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통곡에서 매매춘은 서알 방문대(이들은 매매로 범죄의 원인이었다)를 위해 운영되던 국영 호텔 몇 군데만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었다.⁷⁸ 라이프치히(Liepsa)는 시장 개방을 위해 서독에서 들어온 사업가들에게 매춘을 제공하기 위해 아폴로 주택 구역을 세운 서독의 포르노그래피업자와 알선업자로 남았다.⁷⁹

성 산업과 조직 범죄, 서유럽의 알선업자들이 동유럽의 여성과 소녀들의 가난 속에서 번성할 때, 서구의 방송 매체는 구 공산주의 국가에서 매매춘의 확산을 흔히 공산주의 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되자 사치를 소비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했다. 만일 수입이 x만큼 증가했다면, 매춘과 같은 풍속에 대한 지출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처음에는 사치품을 사는 데 소독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제법으로 개인적 만족과 권력을 위해 여성을 사는 데 돈을 쓴다.

산업화된 성 착취

역사적으로 매춘의 확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시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

82) *New York Times*, May 12, 1990.
83) *New York Times*, June 11, 1991.
87) *New York Times*, May 12, 1990.

82) *Los Angeles Times*, November 11, 1991.
83) *Los Angeles Times*, July 1, 1988.
84)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July 12, 1990.

었다. 산업화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 경제로 밀려들어 시장의 변동을 만들어 내는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함께 전형적으로 대규모의 이농 현상을 야기시킨다.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자에게 유리한 임금 노동으로부터 주변화된다. 일부 여성들이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노동력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들 대부분은 저임금의 하찮은 직업에 배치되며 그 결과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다. 산업 노동력은 전(前)산업 사회의 여성 격차(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와 가족의 사회적 영역에서의 위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는 빈곤의 성별 구조를 영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EZFA)은 외국 기업의 수출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 내에 만들어진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주최국은 저비용으로 집중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원료와 자본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기료와 주택 임대료, 세금 삭감 혜택도 받는다.⁸⁹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주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출 자유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력이 쉽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모집한다. 수출 자유 지역은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진다.

이들 과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수출 자유 지역의 생산을 위해 모집되며, 이들의 노동력은 생산과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과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 지역이 여성들에게 시골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현명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지는 않는다. 알선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매매춘의 정상화는 타이에서 내국인 구매자들

89) Katherine Hanna, *Matrimonial, Technical, and Industrialization* (Cambridge, Mass.: Cambridge, 1986), p. 42.

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했다. 약 73퍼센트의 타이 남성들이 매춘 여성과 섹스를 한 적이 있다.⁹⁰ 타이의 성 산업은 충분히 발전하여 제조업 임금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여성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여성들을 사들이 매춘에 종사하게 만들 수 있다. 1990년에 하루에 8-12시간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40-80달러인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200-320달러를 번다. 마숙한 고층의 저소속 계층의 경우 하루에 12-18시간 일하는 가사 노동자는 한 달에 12-20달러를 번는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살롱 매춘 여성은 한 달에 40-80달러를 번다.⁹¹

매춘 여성에 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는 매춘이 어느 정도로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되는가가 드러났다.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고함인 타이 북서 지방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계 부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모든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집에 돈을 부쳤다. 약 23퍼센트가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족에게 말했다고 한다.⁹² "소녀들 중 8명이 이미 부모를 위해 고향에 집을 차여 드렸다고 말했고, 대다수의 소녀들은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 소녀는 집을 두 세 지었다. 하나는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2년 안에 은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파상실을 얻기 위해 여전히 자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린다."⁹³

전통적으로 매매춘은 우선적으로 남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90) Min Hsin Poo, "SEX and Prostitution in Thailand: A Case Study of Economic Prostitution in Bangkok," *Asian May* 1992.

91) Minimization Ratan, "Prostitu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in Thailand: A Case Study of Aliveness in A Chiangmai Village in Norther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Advances in Women in Development Conference*, Washington, D.C., November 1990, p. 2.

92) Phongsakdi, *op. cit.*, p. 22.

93) *Ibid.*, p. 24.

개발 계획에 의해 산업화가 시작된 후에 확산된다.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여성이 더 나은 직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매매춘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타이와 같은 신흥 개발도상 국가에서 매매춘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⁹⁴ 다시 말하면 매매춘은 산업화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매매춘도 산업화된다. 다국적 성 산업 기업은 자율적인 경제 세력이 되었다.

전형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설명, 즉 '남성 구매자'(the customer idea), '그 것'(it)과 같은 말은 여성의 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수세대에 걸쳐 수백 년이 지나지만 매매춘의 원인과 결과는 여성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없는 매매춘은 있을 수 없듯이, 상품에 대한 소비가 없는 성화 산업화란 있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매매춘 시장은 외국 남성들이기에 주목해 보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 군대 매춘이 번성할 때와 그 이후에 섹스 관광을 지속시키는 사업가들, 섹스 관광을 즐기러 오는 남성 관광객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성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내국인 남성들에 의해 다국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 대규모 지역 매매춘의 증가와 함께 성 산업, 다국적 기업은 국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매매하는 국제 매춘 시장은 조직 범죄에 의해 영속화되고 여행사, 호텔 체인점, 항공사, 국제적 매매업자를 통해 작동한다. 매매춘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매매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익을 만들어 내는 물적 기반을 확립해 가면서 매매춘은 결국 개발도상국의 내국인 남성에게 의해 유지된다.

94) *Angled Post*, January 1991.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이농 현상과 같은 중대한 사회의 전환과 함께 국가, 지역 사회, 가족 경제는 섹스 관광을 통한 피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발 경제의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춘 산업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매매춘의 합법화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매매춘과 성 산업이 합법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서구, 특히 유럽 국가의 모델들은 합법화를 조장하는 데 기여한다. 합법화는 문자 그대로 비참한 환경에 놓인 여성을 매춘에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적 영역뿐 아니라 공식적 영역에서 사회적 실체, 즉 법적 실체로 드러나야 한다. 매매춘은 여성을 경제적·법적 계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매매춘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산업 노동력 사이에서 여성들을 싸게 팔아치우는 토대이다.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받고 관광을 통한 피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매매춘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춘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안에서 여성은 주변화되고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러나 매매춘의 사회적 생산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 여성은 (선택하건 않건) 주변화되고 매춘에 귀속된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략이다. 계급으로서의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보장받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존엄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매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저당잡고 있다.

9장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경제가 국제화되고 여성 종속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세습일터에 의존화의 근본이 되는 만큼, 성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은 전지구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지배가 절망을 만들어 낼 때 자유를 위한 투쟁은 희망의 행동이 된다. 희망은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산산이 부서뜨리는데, 성 착취와 특히 그 중에서도 매매춘에 관한 확신을 산산조각 낸다.

내가 이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의자에 반해는 때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 여성 종속의 실재를 정치적 투쟁과 여성들을 위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의한) 개인적 치료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낙관주의의 근원이다. 성 착취의 잔혹한 현실을 초월하는 희망의 근원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희망은 몇몇 지역에서 성 착취를 폭행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이것을 영속시키는 사람들의 강력한 절망의 장벽을 무수는 단결된 페미니스트 집단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은 단합한 소리만을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전지구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 착취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를

의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 이들은 매대준에서 시작하여 성 착취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편제제가 성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물 같은 인식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전지구적 페미니즘의 기본 토대이다.

서구와 제3세계 여성들은 때로 일시적인 방식으로나마 남성들이 지배를 위해 여성들이 서로 싸우도록 대립시킨 가부장적 본리를 초월하여 공동 투쟁의 기초를 찾는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과 문화 그리고 각 나라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폭력에 대항하는 투쟁과 작전을 이해할 때, 성 착취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여성주의 행동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진정한 국제적 투쟁이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 착취에 대항하는 집단적 행동을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고 듣고 배우고 연대를 만드는 것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의무이다.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성적·경제적 착취모니를 통한 국제적인 여성의 산업화에 대항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투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서구의 지배는 남성 군인, 관료, 사업가, 외교관 그리고 정부 관료에 의해 수행되고 여성에 대한 성 착취, 특히 매대준에서 성 착취를 영속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즘은 이제까지 아이기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전지구적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고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저지당하는 곳, 특히 여성이 성 착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데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곳에서, 전지구적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억압에 의해 매달릴 수도 있는 이슈들에 국제적으로 존재성을 부여하고 있다.

망각의 침묵

페미니즘이 섹스에 대해서 말하고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섹스의 사회 정치

적 구조에 대해 말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잇따른 전문가 모임과 회의에서 나는 섹스 그 자체가 착취적이고 때롭고 파괴적일 때 섹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이 문제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직면해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 1991년 편성 페미니아 주에서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이라는 회의를 조직하였을 때, 나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섹스 그 자체가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으로서의 섹스는 토론되었다. 하지만 섹스 그 자체, 즉 여성성 안에서 재화되는 동안에 성 경험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의 조건은 심지어 이것을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가장 공헌하고 있다는 여성주의적인 맥락에서조차 침묵당하고 있었다. 섹스에 폭력을 덧붙이는 것은 성 착취를 말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은 성 착취의 조건을 생산하는 성적 권력 관계, 즉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조직화에 힘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대준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물리가 있진 않진 간에 우리는 섹스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과 언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그녀의 저서 『성교』(Sexual)에서 이 영역의 기본 토대를 부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¹¹

섹스 그 자체가 착취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침묵은 결혼 내의 섹스라는 개인화된 조건에서 시작하여 매대준의 공식적 정상화로 확대되는데, 특히 서구에서 이런 경향을 보인다. 매대준의 정상화는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제자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자아가 몸이,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정당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입힌 어떤 행동이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포르노그래피의 조장과 매대준의 합법화는 여성의

11 성 착취로서의 섹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를 보라. 한국어판은 『여성적 무력으로 싸우는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섹스』, 문학원, 1990—출간이.

망각을 유지시키고 성적 권력 관계를 정치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들이 마치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기도 전에 그들의 '보호자'인 남성 어른들에 의해 성예화된,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너무나도 착잡해서 인간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 속에 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군중 성 학대의 피해자인 여성 안구를 생각해 보자. 만약에 아무도 그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어느 누구도, 어떤 소녀도 이런 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성예화된 사회 속에 묻혀 있는 그 기억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포르노그래피를 조장하고 매대준을 옹호하거나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섹스를 착취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이 여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그들이 어렸어였을 때 삼촌, 아버지, 양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성예화되었던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아까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체계적으로 대상화된 섹스를 추구하고 변태적인 섹스를 조장하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하지만 드물게는 자신 스스로에) 매대준을 장려하고, 포르노그래피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여성들이 있기도 하다. 권력의 가부장적 관계라는 조건하에서, 그들이 마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들이 그들과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 작업이 학계의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검열당해 왔는지 더 어릴 줄 수조차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감히 그들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내게 개인적으로 드러냈지만 결코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렸어였을 때 또는 결혼 내에서도 매대준에서 겪은 성 학대의 경험은 침묵되고 감히 이러한 침묵을 깨는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검열을 부추긴다.

여성들의 성 착취 사실은 억압자들의 잘 알려진 전학인 '분리와 침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적인, 침묵되고 아이기되지 않은, 때로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때로는 분열된 성적 경험 속에서 소녀들과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요구에 속박되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그들의 이름 없는 억압자, 확인되지 않은 폭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적대적이 되게 한다.

몇몇 아주 소수파적인이 일가일 뿐만 여성들은 기억하기 시작한다. 보다 적은 수이지만 몇몇은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폭로하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살아 내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폭력의 자국을 통과하며 싸우고 있다. 이름이 때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하는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과거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이러한 기억하기와 투쟁, 기억 속에서 섹스를 성 착취로 명명한 결과로 우리 여성주의 운동은 거대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성적 권력 관계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적 권력 관계는 여성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 침해를 명목화시키는 억압이다.

성 착취는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몸 밖에서 일어나고, 이것의 가혹함은 사물화를 통해 인간의 통합성을 축소시키고 인간 기억에조차 남아 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벗어난' 경험을 만들면서 자아를 파괴시킨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폭력에 목소리와 말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체의 개별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정신적 손실의 결과 그 이상이다. 이를 붙이지 못한다는 것, 때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종속된 재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며 결과적으로 비인간화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섹스를 인간 경험의 일부에서 억압적 성 정치학의 조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전이에서 중요한 점은 일찍이 계급의 여성들, 즉 착취적인 섹스를 하고 이러한 섹스의 정당화로 상징되는 매대 여성이 앞섰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형태의 성 착취에도 폭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함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 하지만 폭력은 오직 억압의 한 측면일 뿐이며, 폭력 하나만을 반대하는 것은 해방 운동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폭력은 페미니즘을 재관성된 성 착취 안에 어무르게 하고, 때때론 불가피하다는 사고를 유지시킨다. 성 착취를 폭력으로 만드는 조건으로서 힘을 강조하는 것은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제를 통하지 않고 때문에 유입되어 깊은 상처를 입은 수백만의 여성들을 침묵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성 착취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성 착취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 착취 희생자들을 침묵시킨다.

기억하기, 치료하기, 의식화

만약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여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여성들은 반드시 충분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방해하는 성 상품화와 여타의 성 착취가 개인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폭로되어야 하며 맞서서 극복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출생군과 17단계 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개인적 치료와 집단적 투쟁에서 여성주의 의식화의 효과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성적 박탈로부터 여성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이다. 여성주의 의식은 비판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투쟁 모두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지배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저항을 유지시키고, 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을 창조한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착취를 넘어서 삶의 가능성을 알아 가는 열쇠이다.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화에 기반한 개인 치료는 성 착취,

특히 때때론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반대와 함께 시작된다. 수년에 걸친 성적 태러뿐 아니라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여성의 조건과 남편 여성의 경험처럼 폭력이 다층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의식이 성적 권력의 자각을 지연시키며 정치적 고문으로부터 안전의 추구는 안전이 성적·신체적으로 통합된 개인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인식에 앞선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인 여성이 성 착취를 겪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그들은 자신이 성적 종속과 타협하는 것보다 자녀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착취당하면서 가장 나중에 치료받는 존재이다.

개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몇몇 여성들을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로 이끌 수 있을지라도, 나는 '의식화'처럼 성적 종속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개인적 치료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를 통해 부과된 고통을 하면서 집단적인 투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해악을 낳는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해 먼저 '알지' 못한다면, 성 착취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성 권력에 대해 아는 것은 성 착취를 거부하고,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항하고, 남성 지배의 근원에 도전하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투쟁의 외부에서 기억하고 아는 것은 여성을 가해자에게서 보호자에게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여성은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은 개인적 치료와 정치적 투쟁 둘 다에서 중요하다. 아는 것은 올바른 정치적 분석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분한 지식은 상처에 직면하고 고통의 근원에 맞서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배의 유산은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거나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다른 여성에게 적대감이나 화를 품거나 원초적인 해악에서 발생한 자기 혐오를 계속하는 형태로 다른 인간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성주의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그것이 직면하는 한계를 입증하기 위해 나는 스페인의 때때론노동집단(Promiscuous Group), 미국의 때때론연합회, 필리핀의 부클로드(Buklod)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부클로드는 '유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필리핀의 술집 여성들이 그들을 함께 모이게 했던 세미나에 붙인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자아를 주장하고, 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토대를 의식화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약 30만 명 규모의 도시인 스페인의 과테부르(Gabarró)에 있는 때때론노동집단은 4명의 사회 복지사 2명은 여성, 2명은 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매일 저녁 때때론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거기로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하라고 때때론 여성들을 초대한다. 이곳의 사회 복지사들은 1만 3천~2만 3천 명의 때때론 구매자가 있는 도시에서 1년에 350~500명의 때때론 여성들을 만난다. 1982년에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일해 왔던 엘리자베트 페리온(Elizabeth Perrión)이 때때론 떠나는 여성들과 함께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이예요. 착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착해서 그들은 손님들에게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한 여성이 거리를 떠나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성은 특별한 사회 복지사와 작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여성들을 돌보겠다는 특별한 감정을 가진 집단의 일원이다. 때때론노동집단은 사회 복지사가 때때론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 복지사는 상담은 물론 직업 훈련과 사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활동에 관여한다.

마셜인 소녀들은(스페인에서는 20세 미만)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때때론에서 해방될 수 있다. 때때론노동집단은 소녀들을 때때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권위를 이용하는데, 심지어 처음에 소녀들이 떠나기를 주저할 때도 이들은 강제를 사용한다. 엘리자베트 보고라였듯이, 때때론노동집단에서 나온 사람은 그 시대 소녀들에게 '안 돼'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 소녀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던 가족이나 어느 누구도 "안 돼, 넌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던 곳 출신인 경우가 많다. 확고한 발언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보살피며 그들의 아이기를 경청하는 것은 이 소녀들을 때때론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올롱가포의 부클로드 세미나는 술집에 나가는 여성들을 위해 열린다. 세미나는 술집 주인이나 '파파살'(papa-sal)이 그들의 존재 조건을 지시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여성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클로드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술집 여성과 전직 때때론 둘은 내게 자신들이 처음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술집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에 그저 "네"라고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미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그들은 조금씩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기 시작했고, 술집에서 그들이 기꺼이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가난이 허용하는 직관적인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 모임의 코디네이터인 에벨라 카마론(Elvira Camaron)이 설명했다. 부클로드 세미나는 거처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의 '인생의 강'을 만들도록 항상 요구해요. 그리고 모든 여성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부클로드에 온 필리(Philipe)는 세미나에 나오면 "당신은 술집에서 일하던 과거를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세미나에서 그들의 삶을

3. 에스나이트 중앙위원회(Esnaite Central Committee) 회원이자 필리핀에 3년 이상 살면서 올롱가포의 술집 여성들과 함께 활동해 온 브루나 스텔조부스(Bruna Stelejos)가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조직하였다.

함께 담구할 때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들에 대해 기억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술집에서 일하기 전의 시절을 되돌아보며 많은 눈물을 흘린다. 어릴 적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근원적 성 학대의 공포스러운 예기도 나오게 된다. 필립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왜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과거를 연결시키고 기억하고 얘기하고 울고 농담하는 것은 모두 동시에 이뤄지며 그와 함께 치료가 시작된다. "치료는 과정 안에 있다"고 에델라는 말한다. 왜냐하면 필립이 말했듯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 30-75명 정도의 여성들이 각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는 새로운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계속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공동체 조직화가 그곳에서 이뤄지며, 여성들이 건강을 돌고 농담하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문제해결에 따라 술집에서 그들의 상호 관계는 변하기 시작한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치료 과정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부클로드 모임에서 술집으로 돌아간다. 부클로드에서는 여성들에게 마느질과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작업들은 아직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부클로드 세미나 참석 후 무언가가 변화한다. 의식화는 무언가를 휘저어 놓고, 여성들은 매춘을 넘어서는 관계와 삶, 시간 속에 역사를 가진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 술집 생활에서의 대상화를 넘어선다. 그들은 매춘이 만들어 낼 모습이 그들 모습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록 비참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가끔 몇몇 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살아요"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과파살은 나한테 바둑을 닦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죠?' 하고 대답했죠."

과파살은 나한테 무척 화를 냈어요" 또 다른 시점에서 한 여성은 새벽 전날 술집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날은 쉬어야 하는 날이잖아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는, 즉 자신이 '혹식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때는 일어날 수조차 없던 결정이자 선택이며 자기 지향적 행동이다.

술집 지배인들은 여자들의 그러한 시나움에 익숙하지 않다. "전에 나와 있다는 말은 미국 남자들하고 나갔어요"라고 필립은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후 그들은 그러기를 중단하였다. "최소한 당신은 지배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성들은 이제 손님과 나가는 대신에 술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술집에 남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여성들은 지친다. 이러한 구분들은 여성들이 다시 주장하는 자아의 고요으로부터 추방되고 성세하게 조절된다.

스태퍼의 매매춘운동집단과 달리, "우리는 여성들에게 매춘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 없어요"라고 에델라는 설명했다. 왜냐하면 부클로드에서는 그 여성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문제가 과파되고 해체되고 탈인격화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을 여성에게 주고 있다. 이들에게 매춘의 탈레마는 복잡하게 다층화되어 있다. 그들은 끔찍한 가난에서부터 급속한 산업화 속에 생겨나는 새로운 물질적 이익의 한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들은 어릴 적에 성 학대를 당했거나 십대에 결혼해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버려진 사람들이다. 저개발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자신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여기며, 떠돌아다니게 되면 실 산업 하에는 다른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과 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불가피성은 부클로드의 소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개별 여성들에게 매춘을 떠나도록 강요하거나 돕는 것은 문제를

다루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술집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자포자기는 성 산업이 기대하는 것이며, 매춘 유포 문화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복지 혹은 사회적 지원은 어떤가? 많은 여성들은 "정부는 우리에게 신경도 쓰지 않아요"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유포가포 지역이 산업 발전을 위해 재형성되는 동안 여성들은 미군 기지와 미군을 위해 존재했던 매춘 지역의 유포도 변경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거부되고 무시되고 비가시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매춘 지역에서처럼 남성 여행객들이 군인을 대신한다면, 여성들은 계속해서 성적 서비스에 갇힐 것이다.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술집 여성과 살기 위해 '술집에 요금을 내고' 여성을 데리고 나간 미군 병사를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을 위해서는 식량과 집, 그리고 어떠한 복지 제도도 없다. 술집의 요금 체계에서, 미군은 술집 여성을 데리고 나가는 시간만큼 술집에 요금을 계산한다. 술집은 주별, 월별 등으로 할인 비율을 정한다. 이 제도는 인간적 삶을 성적 자산으로 변화시킨다. 술집에 돈을 내고 생활하는 남성들은 항상 이 여성을 여자친구로 취급한다. 이 여성들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

내가 1993년 그곳을 방문했을 때 미군은 이미 철수한 후였다. 아무도 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 매달려 있었다. 매춘 안에서 성 착취의 불가피성은 결혼의 불가피함 그리고 여성 종속의 영속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군 기지가 주둔한 이래로 여성들에게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한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에게 필리핀 여성들은 단순히 그들이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나는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그는 나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지 않아요", "나는 가끔 형사를 만나요 아마도 6개월에 한 번……"이라는 말을 들었다. '돈이 좋은 여성들은' 도움이 되는 약간의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낼 방법도 없어 관지도 없는 빈 봉투에 들어 있는 돈만 받는 것은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현실을 잊고 애쓰지 않는다. 술집 체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긴장 상태는 여성들이 독립적인 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미군의 아내로서 미국에 가는 꿈을 계속 꾸도록 한다. 유포가포의 술집 여성들 사이에서 "사람은 다 헛소리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¹¹

부클로드 이외에도, 여성 착취에 대항하는 제3세계 운동(the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의 지도자인 솔레도 페르페난 수니(Solado Perpetua)에 의해 조직된 몇 개의 센터가 있다. 그녀는 수빅과 마닐라, 앙헬레스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드롭아웃(drop-out) 센터십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교육,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있는 센터—술집에, 일터 등을 세웠는데 이 시설들은 이전의 팔라르 문군 기지에 인접해 있다. 센터들은 일터, 장기간의 생활 준비, 직업 재훈련, 재봉, 타이핑, 비누 만들기 등의 자원 자활 훈련을 제공한다. 솔 수니(Solado)가 최근 마닐라에 문을 연 새로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집의 스페인식 안뜰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곳에 양초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작은 활동들 속에서 매춘 여성들은 매춘에서 벗어난 것보다 많이 벌어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들 스스로의 자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성들이 가난한 사람들 떠나 새로운 공장 체제의 착취받는 노동자가 되고 결국에는 매춘으로 보다 많은 돈을 벌 때, 각각의

11. Brenda Brubaker, Kate Bowler, and Sarah Williams, "Thighs/What Price? The U.S. Army in Subic Bay and the Women's Respons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1996, 30, 1-20.

단체에서 그들은 권리와 함께 그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그들이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런 작은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보다 큰 활동들이 개발될 것이다. 필요한 작업은 벌써 계획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부족한 오직 한 가지는 경제적 지원이다. 현재 매춘 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온통 매매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전략이기는 해도 매매만을 계속 영속화시킨다. 매춘이 불가피한 것, 자연스러운 것, 여성의 선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만이 여성들은 협동 산업과 같이 일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선택을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더 매춘을 단지 노동의 또 다른 형태라고 취급하는 것은 노예제 역시 노예가 아닌 노예 주인과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체제에서는 노동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당신은 결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학대를 받을 만했던 적이 없다." 이 말은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매춘대안협회가 내세운 최초의 그리고 가장 일관된 메시지이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수잔 헨터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매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춘의 문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너무나 학대에 관대한 나머지 스스로를 그것에 맞추기 때문이다."

매춘대안협회의 프로그램은 의식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매춘을 재구성하기 위해 여성들이 "그들 삶의 모든 측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무정화하는 매춘대안협회의 상황은 부클로드와 비교해 볼 때는 부유한 편이지만, 미국의 생활 수준에 비교해서는 열악한 편에 속한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을 떠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15~20세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부양 아동 원조 기금(Aid to Dependent Children)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독신 매춘 여성들이 사용한다.

매춘대안협회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복지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들이 최초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복지 기관에서 매춘을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라 직업의 하나로 대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복지 제도에서 아들에 대한 복지 수당의 지급을 삭감할 수도 있고 매춘에서의 수입을 근거로 연금 지급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필리핀의 필리핀 여법리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수잔 헨터는 "만약에 보다 많은 서비스가 이 여성들에게 제공된다면 그들은 매각어 매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부클로드가 여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보장 자원에 의지할 수 없는 반면, 매춘대안협회는 이 단체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들어온 여성들에게 할당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매춘의 세계와 단절 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의 안과 밖을 계속 오가는 여성들과 작업하는 동시에, 정구적으로 매춘을 떠날 준비가 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물리칠 계획서를 작성한다.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알코올/마약 중독 문제가 있다면, 알코올/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계획을 만들고 나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⁴¹

의식화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작업 생활과 사회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할 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 계속된다.

©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Participation Agreement and Contract Provision, Portland, Oregon.

9장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343

지난 3년 동안 매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전세계에 확산되어 왔다. 브라질 북부에 있는 벨렌드라라의 매춘여성그룹(Women Prostitute of Belen de Para) 대표인 마리아 로레스 파레토는 "우리는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자율성과 토론할 권리와 그들의 문제를 풀 권리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가를 원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⁴² 그녀는 현재 매춘 여성들의 시민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에서 매춘 여성들로부터 발전된 비판적 페미니스트 의식화는 에블리나 기요르가 WISPER라는 조직을 창립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WISPER는 현재 미네소타에 근거지를 두고 매매매에 대한 교육 포럼과 매춘 여성들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십 년간 이뤄진 성취와 직업 재훈련을 통해 매춘 여성이 매춘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매춘 반대 행동 모임(Equipe d'Action Contre le Prostitution)과 동지(Le Nô) 그리고 외향(Le Co)은 개별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매매매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제 하에 매매매에 대항하는 운동적인 국제제거주의연합(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의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제3세계에서는 여성들이 매춘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중에서도 타이의 EMPOWER와 페루의 엘 포스(El Pazo)가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여름 레누 레이반다리(Renu Rajbansari) 박사는 네팔의 카부만두에서 전직 매춘부 여성들을 대나무 기능공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레누 박사가 조직한 여성재활 센터(Women's Rehabilitation Centre)에서는 여성들에게 AIDS와 성병에 대한 교육

를 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도 가르쳤다. 40일간의 훈련 후에, "그들 중 몇몇은 시가벤사(Sigabansa)의 월급 수준으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몇몇은 훈련 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⁴³

지난 십 년간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들에 의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을 사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작업을 하는 남성적인 남성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행동을 위해 기초를 닦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EMERGE는 남성들에게 의해 조직된 보스턴 지역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남성의 여성 구타를 막기 위해 활동한다. Common Purpose는 주로 보스턴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남성들과 함께 작업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안전한 행동 계획(Safe Behavior plan)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구타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사회 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둔 성 차별에 반대하는 남성들을 위한 전국 조직의 남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Ending Men's Violence Task Group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Men Against Sexism)는 "전제미니스(Super-dominant) 프로젝트들과 남성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는 남성들과 함께 하는 개인들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남성 구타자, 강간범, 포르노그래피를 사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브루클린에 본부를 둔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하는 남성들(Men Against Pornography)은 "포르노그래피와 매매매 운동론을 반대하는 전제미니스 시각을 가진 남성 활동"의 책임을 제기하여 왔다. 야요리 마츠야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남성들은 일본인 남성들의 엑스 척허자 이미지, 특히 엑스 환경에서의 그러한 이미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아시아의 매매매에 반대하는 남성 조직'(Men's Group Against Prostitution in Asia)은 남성들의 의식화를 위해

41) Maria Lourdes Barreto, "Everybody Shuts Up, We Speak Up," in Women Watched and Fought Back, From Latin American Grassroots for the Defense of Women's Rights, 1995, p. 285.

42) Rajbansari (Rajbansari, Nepal), September 2, 1992.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회보를 발간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시아의 페미니즘과 일본인 남성'에 대한 슬라이드쇼를 만들었다. 1991년 남성태방연구집단(Men's Lib Study Group)이 오사카에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남성의 책임질리티와 태대론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었다.⁷⁾

이러한 남성들의 연대장은 지난 십 년간 발전하고 확장되었으며, 비록 작은 수지만 이 모임들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서 남성들이 개인적·집단적으로 얻는 편익을 의식적으로 가져이 떠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다.

심리 치료 개인적 접근

페미니즘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폭력과 학대로부터 여성들을 위한 탈출과 출구와 대안을 주장하는 태도를 향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운동이다. 25년 동안 페미니즘은 두 가지 상호 의존적인 프로젝트(변화를 지향하는 사회 행동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참여라는 의미에서) 즉 의식화와 안전 공간의 확보를 선도에 왔다. 의식화는 개인을 개별적 고통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정치적으로 다성하도록 그리고 억압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안전 공간은 위기 프로그램이나 센터, 그 밖에 여성들이 학대에서 피할 수 있거나 또는 단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탐구하고 가부장적 지배가 여성의 삶에 야기시켰던 고통이 현재질에 도달했을 때 의식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집단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한다. 나아가 의식화와 안전 공간은 여성을 가장 직접적인 억압 경험의 밖에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위한 다른 가능성들을 개인적·집단적으로 고려

7) Yumi Maeda, "Trafficking in Women and Prostitution in Japan," Japanese essay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 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4.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축한다.

의식화와 안전 공간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 프로젝트들은 특별히 성 착취가 여성에게 미친 해악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심리 치료로 개별화되고 있다. 근친 강간 피해자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치료 사회 행동은 태대를 떠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의식화와 상담에서 보다 공식적이고 치료적이며 개별화된 접근이다. 이러한 이중적 여성주의 프로젝트는 쉽게 의식화에서 개인적 치료로 전환할 수 있고 사회 서비스가 억압의 조건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서구 사회 여성들, 특히 개인주의를 강하게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중후군'의 증식과 다양한 12단계 프로그램들은, 비록 이것들이 비가시적이었던 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그 변화가 가해자, 즉 여성의 성 착취를 영속시키는 개인들과 제도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피해자 비난하기'의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착취 경험을 중후군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비난하기는 궁극적으로 착취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귀속시킨다. 의식화와 안전 공간이 탈정치화될 때, 그 목표와 효과는 여성의 자율성과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발달시키는 것에서 여성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만약 거기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의 개발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분노를 다른 여성들에게 물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차적인 치료가 어떻게 성 착취 피해에 야기된 여성간의 분리를 영속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은 페미니스트 의식화와 안전 공간 확보 작업에 토대를 둔 치료법 개발로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연결을 유지시키고 있는 여성주의 심리학자이다. 허먼의 작업은 개인적 치료가 성 정치 의식화에서부터 형성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여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제주의적 통제와 지배'에 종속되는 상황을 포함시키기 위해 과잉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개념을 확장시켰다.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그녀의 작업은 여성들이 결혼, 가족, 태대에서 직면하고 있는 조건들에 이름을 붙인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허먼에 의해 확인된 안전함, 기억과 애도, 재연결이라는 회복의 세 단계에서 분명해진다. 그녀의 작업은 다중 인격 장애가, 특히 그것이 근친 성 학대의 산물인 경우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19세기의 디스토피아 회복의 단계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전쟁 중독에 대한 보다 최근의 작업, 그리고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결론으로 발전해왔다.⁸⁾

첫 단계, 안전함은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안전한 곳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억과 애도의 단계에서 "생존자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 경험을 심도 깊고 세부적으로 완전히 말한다. 재구성 작업은 충격적인 기억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그럼으로써 이것은 생존자의 삶으로 통합될 수 있다."⁹⁾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지지받는 맥락의 언어로 진술, 표현하는 것은 "충격적인 기억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정 안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¹⁰⁾ 수많은 근친 성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이것은 인간의 기억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실제로 기억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먼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인 활동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생존자는 사고의 혼란만으로 의미에 대한 의식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치료는 역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생존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¹¹⁾

8) Judith Herman, *Father-Daughter incest: The aftermath of incest: how women survive in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1981), p. 174.

9) Ibid., p. 175.

10) Ibid., p. 183.

허먼의 세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그녀 자신의 세계를 다시 주장한다."¹²⁾ 근친 강간의 생존자에게 있어 이것은 가족 관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을 얻는 것을 배운다. 그녀의 욕구와 창의력이 활동하기 시작한다.¹³⁾ 그녀는 근친 성 학대나 다른 성 착취에 종속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근친 성 학대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치료는 성 착취가 여성에게 야기시키는 해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 착취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삶에 설정해 놓은 한계를 뛰어넘어 자율성을 획득하고 실제 개인적인 욕망을 느끼고 진정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능하게 한 선도적인 접근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근친 강간 피해자의 생존에서 배운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태운 여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보다 분명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태대론은 성 착취의 가부장적 모델이라는 전제하에서, 여가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성 착취의 광범위한 해악을 목도한다. 태대를 떠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는 태대를 하었다고 그녀를 비난하거나 태대를 노동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녀가 성 착취로 인한 충격을 충격으로서 직면할 수 있었는가? 살아 남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운 여성들은 사회가 인정하기를 거부해 온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반드시 태대론 그 자체가 학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대론인형화는 "장기간의 안정화와 여성들이 태대론을 학대의 경험으로 재구성화하는 것을 배우는 데

11) Ibid., p. 178.

12) Ibid., p. 196.

13) Ibid., p. 202.

교육, 그리고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에게 관여해 왔다.¹⁴ 매춘 여성에게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경험과 그녀가 매춘 세계에서 살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완전히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근원 공간 피해자가 아버지와 헤어지, 기타 친밀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과 달리, 매춘 여성은 그녀가 다시 매춘으로 돌아가지 않을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사회 세계와의 모든 유대를 끊어야 한다. 더구나 아무런 수입원도 없이 매춘을 그만두는 여성은 매매춘이 불법인 국가에서 아이도 매춘 그 자체에 대한 형사상의 고소 또는(그리고 매매춘과의 관계에 대한 고소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매춘대인협회는 매춘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주택과 지지 집단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고소에 대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⁵ 매춘을 그만두려는 여성들은, 법원과 사회 복지가 앞에 서서, 자비를 요구하는 범죄자로서나 합법화를 추구하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정의(justice)를 요구해야 한다.

성리 치료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개인 내부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경향을 반영한다. 페미니즘은 정치적 행동이 심원한 개인적·개별적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왔다.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개별적인 것에서 사회로, 개인적 변화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접근한다.

여성주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사회 운동은 치료 과정의 최고 단계이며 개인적·소그룹 상담보다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존자들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토대로서 자신의 비극을 다룸으로써 개인적 비극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허만은 지적한다. "사회 운동은

14) Ibid., p. 207.

15) Ibid., p. 211.

그녀 자신의 참여력과 힘, 자원의 풍부함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질들을 그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확대시킨다."¹⁶ 이것은 성 착취로부터의 회복에서 나아가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의 활동가나 상담가가 된 많은 여성들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사회 운동, 즉 여성주의 정치 투쟁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발견"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대감을 지속시키면서, 개별 상담으로 시작한 개인 치료가 '복잡한 거울에 비춰보기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주어야 하는 축복을 보다 잘 받아들이 수 있게 된다."¹⁷ 사회학적으로 사회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내부로, 사회에서 자아로의 사회학적 분석의 방향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주의 분석의 기초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페미니즘과 성 착취, 특히 매매춘에서 여성의 개인적 생존을 연결한다. 전지구적인 페미니즘이 사회 운동과 함께 시작될 때,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성 착취 경험에 직면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에서 성 착취의 제도화에 직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저절로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성리 치료로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 의식화와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급진적 개혁

역설적이게도 여성에게 개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성적 학대 특히 근원

16) Council for Postmodern Alternatives Annual Report, July 1995-June 1996, Portland, Oregon, p. 1.
17) Council for Postmodern Alternatives Handbook, Portland, Oregon, p. 20.

공간으로부터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교환에서 여성들의 성적 대상을 합법화시키며 매춘을 여성의 선택으로 취급하는 바로 그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낙관적이거나 전지구적인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의 정상화, 즉 집에서, 대학에서, 매춘업소에서, 거리에서 여성을 장녀로 취급하는 관계제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매매춘의 전지구적인 정상화 속에서, 성 산업은 정부가 여성들이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가장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매매춘을 위한 거대한 여성 산업화를 볼 때, 변화는 오직 개인적 치료를 통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사회 운동을 이끌 것이라는 가정은 변화의 가능성에 불길한 기운을 드리운다. 이러한 전망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매춘 여성의 삶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성 산업이 너무나 거대하고 매매춘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매춘을 떠날 수 많은 매춘여성들뿐 아니라 인권과 여성 권리의 옹호자들도 점점 더 매춘을 '성 노동' 또는 '성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성 노동'은 매춘 그 자체가 정상적·합법적 활동으로서 수용되지 않는 한 매춘 여성이 결코 어떠한 존엄성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매춘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용어이다. 이것은 또한 매춘을 하나의 노동으로서 추구하거나 성적 학대로서의 매춘에서 회복되기 위해 개인적 심리 치료를 찾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까지 동일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의 언어이다.

떠날 수만 있다면 매춘을 떠날 매춘 여성이 매춘을 '성 노동'이라고 지칭할

때, 그 용어는 그들의 절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성 노동'은 이 여성들이 매춘을 장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착취를 정상화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매춘 여성들의 존엄성과 존중을 인식시키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한 용어로 채택되고 있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이러한 희망 없음과 절망은 그 국가의 사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서구의 제제모니는 여성들의 빈곤을 착취하면서 매춘을 장려한다. 서구 국가들이 제3세계 여성에게 돈을 제공을 지원하는 것은 매매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된다. 서구의 성 자유주의와 '성 노동'으로서의 매춘 합리화는, 여성들이 매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기금을 오히려 여성을 매춘에 가둠으로써 매춘 여성의 성 착취를 더욱 악화시키는, 서구의 제3세계 매춘 여성 지원의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설명해 준다. 대조적으로 여성들이 자주 요청한다고 알려진,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매춘 여성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매춘 여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 나오는 기금들은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한으로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춘 말고는 여성들이 가난에 대응할 어떤 대안도 없다는 절망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의해 유지된다.

페미니즘은 매춘에서 개별 여성의 경험이 낮은, 그리고 거대한 성 산업화에 의해 무파괴되어 필멸히 불거려 보이는 매춘의 결과물인 여성들의 절망을 재구성한다. 이 새로운 여성주의 작업은 지난 십 년간 매춘 여성들이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의 목소리이고 새로운 운동의 근원이다. 그들은 매춘을 떠나고 삶을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매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의 경험을 폭로하고 매춘의 착취성에 맞섰으며 다른 여성들이 매춘을 떠나도록 도왔다.

1980년 프랑스의 그레노블에서는 4명의 매춘 여성들이 17명의 포주들로 이뤄진 강단을 해체시키는 재판에서 용감하게 포주들과 맞섰으며 유리한 판결을 얻어 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프로젝트들은 매춘 여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미국에서 에블리나 기요르는 매춘 그 자체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1973년을 창설했다. 성 산업을 반대하는 전지구적 여성주의 운동의 첫걸음은 여성들과 매춘부, 자아와 타자라는 구분법을 여성들이 해체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구 여성들의 진정한 국제적 페미니스트 투쟁은 반드시 서구에서의 여성 착취와 제3세계에서 서구에 의한 여성의 성적 식민주의 해체모니에 대응해야 한다. 서구는 매춘을 통해 여성의 착취를 조정했을 뿐 아니라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서야 할 지원을 거의 남지 않게 했음으로써 그들의 자원을 약탈한다. 매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성 착취는 관대히 여겨져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유지될 수 없다는 확신은 급진적 개혁의 토대이다.

1970년대 후반 여성 운동이 매춘에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여성 성 노예제'를 쓰면서 여성의 성적 노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전략으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했다. 매춘이 범죄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경찰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와 매춘에서 여성을 노예화하고 있는 포주 범죄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그러나 반리투주의자들처럼 매춘을 조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매춘 여성에게서 법을 빼어내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 당시 매춘의 비범죄화에 대한 나의 주장은 암묵적으로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도 의미하였다. 비범죄화를 둘러싼 이 제안에서의 오류는 이것이 매춘 여성들뿐 아니라 매춘 구매자들, 단순히 구매자 이상인 성 착취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비범죄화하며 실질적으로 인가한다는 것이다.

1986년 유네스코가 소집한 한 회의에서 매춘을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모델로 상징하면서 나는 매춘 여성들이 비범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매자에 의한 성 착취의 피해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구매자가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제재되고 벌금을 물고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여성의 물려가 있던 없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공적의 행위로서 간주될 것이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모든 매춘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지만 매춘부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금지주의자의 것도 페미니주의자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매춘을 여타의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분리시키지 않는 여성주의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이다.

필요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여성주의 기준 설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착취의 경험들과 세련된 현실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춘 여성들의 수입은 감소하거나 소멸된다. 매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사회 복지 지원을 받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서구에서 여성들의 매춘 수입이 막히는 것은 사회 복지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원이 없는 국가들에서 매춘 여성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과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광범하게 기록한 빈곤의 여성화 속에서 매춘은 많은 여성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일 것이다. 이 말은 곧 매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개발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경제적 대안 전략과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들을 법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매춘이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구매자들을 범죄화하는 법적 제안은 반드시 사회적 서비스 건강과 상담, 작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만약 구매자들이 범죄자가 되면 국가는 매춘업소들을 폐쇄할 것이고 이전에 매

춘 지역에 쫓겨 부어지던 경제적 자원들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향할 것이다. 매춘의 미래에 대한 상상론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1993년 1월 29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매춘의 비합당한 사회적 결과와 해로운 영향력"을 인식하여 매춘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10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베트남에서의 매춘 금지와 예방 결의안 (Decision 1 on the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을 발표하였다.¹⁸⁾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매춘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근절될 수 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위해 언론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마약 반대 언론 캠페인이나 스페인의 알코올 프로젝트에서 매춘을 다루면서 성공적으로 언론 캠페인을 사용한 것과 같다.) 기업이 포주들과 인신 매매법, 그리고 "모든 종류의 매춘업소 주인들"을 처벌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정부는 특별히 "공무원들 중에서 매춘 여성을 상대한 남성은 반드시 처벌하고 그들의 이름을 관련 당국에 알리며 언론 매체에 신문을 공표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매춘 여성을 구매하는 어느 누구라도 지역 당국에 보고될 것이다.

매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식의 수단은 이제까지 정부 기관에 의해 검토되어 왔던 어떤 것보다도 획기적이었다. 매춘 소멸 전략은 베트남 전쟁 후, 그리고 1994년에서야 미로소 태계된 미국의 통상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 19년간 매우 극심한 가난의 한가운데서 개척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전략은 소마에르 열람전 내의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가게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끌고자 원하는 매춘부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기업이라도(만약에거나 공공 기업이거나) 매춘부들에게 고용을 제안하는 기업들은 모든 구직의 사례마다 그에 맞는 기금을 할당받을 것이다.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혁 전략에는 신용 대부금을 줄 수 있다.

나이가 상병에 감염된 매춘부들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음식과 숙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생필품이 부족한 가난한 가족 출신의 매춘부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생계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¹⁹⁾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조차 모든 여성이 가난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은 종전 후 여성들에게 유용한 '계교육'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의 금지나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원과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춘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최소 6개월 동안 특별 개혁 센터에 수감된다."

매춘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과 함께 빈곤이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화는 직접적으로 이 새로운 사회적 정책 개발을 이끌었다.²⁰⁾ 매춘 근절을 위한 이 계획은 매춘 여성들의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두지 않고 매춘 여성들의 미래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주의 정부에 두었다. 1994년 초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18) Le Thi Qu, "Social Policy on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 Vietnam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Confere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 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1-4, 1993, pp. 3-4.

19) A Swedish seminar in Hanoi introduced gender theory in 1993. From Jean Sorenson on Women and the Family, 1993.

약속하였지만 이와 함께 태세준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3'을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태세준 여성들은 위한 새로운 교육과 훈련 센터를 개설하였다. '태세준을 근절시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만약 태세준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마련이 태세준을 조장하는 구매자와 성 산업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산업화 속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태세준 여성들에 대한 혁신적 보호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꿈꾸지 못했던 최초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유엔: 여성 인권의 가능성

전자구적인 여성 성 착취에 맞서기 위해 나는 "인류의 양상에 어긋나는 야만적 행위로 여기되는 인권에 대한 열망"을 비난한 세계인권장전(Universal Bill of Human Rights)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은 성 착취가 인권에 대한 모욕이며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이라는 도구는 "모두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열원"이라고 여기는 "인간이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의 도래"라는 목표로 아직 전망에 기초를 둔다. 인권의 철학은 인간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 인간의 상황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어떠한 것도 야만적 행위로 여긴다는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도덕적 분노와 잘 어울린다.

정의와 평등에 대한 기계적인 고수를 넘어서, 유엔 협약(UN convention)에 표현되어 있는 인권 철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조건 두 가지 모두의 비인간화에 반대하는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억압도 포함한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인권을 자본주의의 개인주의 이해를 옹호한다고 비판해 왔다. 인권이 자유주의적 개인

주의의 틀 안에서,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협소하게 해석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권은 식민주의, 인종 차별주의 아래서 그리고 전체주의 정권 내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드러내고 대항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을 자각하고 보호하는 목적은 존엄성과 자유 속에서 풍부하고 완전한 삶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¹¹¹ "인권은 인간 삶의 법적 표현이다."¹¹² 세계인권선언(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인권선언은 노예제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어떤 인간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긍정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 구조와 제도의 현실, 계급적 조건과 분리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 인권은 집단적 조건과 개인의 비분리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 존재와 인간의 사회적 조건 모두에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에 남성과 여성, 큰 국가와 작은 국가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인권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국가 양쪽 모두에 있다.¹¹³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서 빼어낼 수 없는 것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 타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에 특권이 주어지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인권을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다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여성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

111 Eleanor Roosevel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lletin of Human Rights* 10, no. 1 (New York: United Nations, 1962), p. 16.

112 Ibid.

113 Erika-Lene Diers, "Freedom of the Individual under Law: An Analysis of Article 2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United Nations, 1965), p. 3.

적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은, 가부장제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성은 인간인가?"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를 존엄성에 응용하여, 인권의 보편성은 여성의 억압이라는 공통 영역을 기반으로 한 전자구적인 페미니스트 투쟁의 토대가 된다. 인권이 분리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존엄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은, 성 착취가 평등권의 위반과는 다르고 평등권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취급될 때 고려되는 법적 평등에 대한 투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가부장적 억압, 특히 성 착취가 지배의 일반적 조건일 때 페미니즘과 인권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어울린다. 페미니즘의 실재에 기반한 여성을 위한 국제적 인권과 여성의 해방을 위한 전자구적인 운동은 국경과 계급과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는 여성 생활의 공통성 위에 세워진다. 페미니즘은 아직까지 여성이 그들의 개인성이나 인종,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성을 하나의 일반화된 존재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양도 불가능성을 지지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성 착취에서 개별 남성이 얻는 권력은 오로지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득과 출세를 위한 계급적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만약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 개인과 집단에게 성 착취를 하지 않는다면 성 착취는 여성 개인에게는 해롭고 파괴적일 테지만 계급으로서의 여성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

나의 작업은 급진적 페미니즘 정치학과 인권의 기본적 원칙들을 결합시키

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것은 전자구적으로 거대한 태세준의 확산, 특히 여성 태세준의 극적인 증가에 대항하고 이러한 성 학대가 태세준과 포르노그래피의 철폐를 조장하는 성 산업에 의해 영속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1991년 여성해방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인간 기구의 대표로서, 나는 유네스코의 와실라 탈알리와의 협력 아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1989년의 인신 매매와 태세준에서 타인에 대한 착취 근절 협약을 분석하고 전자구적인 성 착취의 현대적 내용을 고려해 보기 위한 운동 단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운동 단체는 전세계적인 성 착취가 태세준, 포르노그래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폭력 안에서 이뤄지는 여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회의로부터 국제 인권 문서인 성 착취 반대 협약이 발전되었다.

이 회의를 이어서, 여성해방연맹과 유네스코는 새로운 인권 문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성 착취에 반대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공포하도록 유엔 상임이사국(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에 제안하기 위해 일련의 회의를 후원하였다(연문은 부록 참조). 여성해방연맹에서 도모된 라이프홀트와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는 문서를 정교히 다듬기 위한 상담, 정보 수집, 추천, 교정을 위해 물뿌리 여성 운동에 눈을 돌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협약이 각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회의에서 형성된 "새로운 협약의 내용"에서 성 착취가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간주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¹¹⁴ 또한 펜실베이니아 회의에서 우리는 성 착취를 "특정인들이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자율성, 정신적·육

114 *From Sex Abuse,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on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Gene College, Pennsylvania, April 1991), Report published by UNHCR and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p. 7.

적적 복지를 과기하는 성적 학대를 통해 성적 만족이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출세를 얻는 행위'로 규정하였다.23 영국 버킹엄 대학의 수잔 에드워즈(Susan Edwards) 교수에 의해 구성된 이 개념은, 성적 권력의 토대를 경제적 이익처럼 명확하게 물질적이고 성적 만족처럼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규정한다. 이 협약은 "어떤 여성에 대한 성 착취라도 이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며, 성 착취가 여성에게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성적 테러리즘의 조건을 발생시킨다고 선언하면서 계급 조건이자 개인적 목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성 착취는 전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몇 달에 걸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 협약은 발전되었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여성 단체를 비롯한 여성주의 프로젝트와 유엔 민간기구의 협의를 통해 정교화되었다. 전세계 물뿌리 페미니즘의 성과로서, 이 협약은 성 착취가 어떤 식으로 현존하는 불평등의 피해를 악화시키며 때로 성적 노예제나 고문, 절단, 죽음의 형태를 띠게 되는지 밝히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안된 협약은 성 착취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아류파부 살해, 여성 구타, 포르노그래피, 매매춘, 생식기 절단, 여성 폭리, 지참금, 신부교, 성희롱, 장간, 성 학대, 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학적·회손적 행위와 여아 살해, 여성 살인을 통해 생명을 부정하는 형태를 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은 모든 성 착취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민·형사상, 노동법과 행정상의 승인을 통해 잘못 처리된 피해자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참여를 요청한다. 성 착취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그것이 악화된 상황이며 가해자가 남편, 아버지, 다른 친척 또는 피해자의 고용주라고 해서 성 착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제안된 협약은 매매춘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가치에 위배된다"고 밝힌

1948년 유엔협약의 국제인권법에 기초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제30조, "이 선언의 어떤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서 규정한 어떠한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닌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매춘부를 위한 권리'도 없다.

제안된 협약은 매매춘을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 매매춘과 '강제된' 매매춘의 구분을 거부함으로써, 매매춘이라는 행위를 매매업소, 군대 매춘, 포르노그래피, 섹스 관광, 우편 주문 신부 시장뿐 아니라 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비롯하여 항상 돈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성의 몸을 사고 팔고 교환되는 상품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로 인시한다. 협약은 매춘 여성을 어떠한 형태로도 처벌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구매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정부들에 요청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 소위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어떤 매춘이라도 합법화시키는 법과 정책, 그리고 자유 매매춘과 강제 매매춘을 구분하고 매매춘을 하나의 작업으로 관리하거나 인정하는 법과 정책을 거부하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포르노그래피 산업이 성 착취에 대한 요구를 조장하고 확대시키며, 사실상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 정부는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자와 매입자를 처리할 규제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전지구적인 매매춘 산업화는 성 차별적인 경제 발전 정책의 결과이자 몇몇 지역의 비공식적 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협약은 이제까지 존재해 온 여성들의 전통적 경제 기반을 침식시키면서 여성을 성 착취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제 개발 정책과 관습들을 거부하라고 정부들에 요청한다.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은 성 착취 특히 매매춘을 통해 경제적 발전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여성들을 박탈당한 경제 수준의 임금 노동에 포함함으로써 여성들의 풍부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섹스 관광을 금지시켜야 하고,

8장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181

관광객의 나라와 섹스 관광이 이뤄지는 나라 모두에서 섹스 관광을 조직하는 중개인, 소개인, 포주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편 주문으로 외국에 여성을 결혼시키는 사업, 우편 주문 신부 매매와 관련되었거나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을 금지해야 한다. 군 기지 안과 그 주변의 매매춘에서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군속들은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의 매매춘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피난민 캠프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성 착취를 막기 위해 특별 감시단이 선정될 것이고, 민족간 전쟁, 내란, 외국의 침입 등을 포함한 전시 성 착취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특별 계획이 고안될 것이다.

이민 과정에는 가사 노동이나 할라업처럼 특정한 형태의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들은 성 착취에 이바지하고 여성들을 매춘으로 이끈다. 조약은 정부 당국에 매매춘과 임신 매매 피해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고, 본국 송환을 원하는 여성들을 송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민 과정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지야 할 것이다.

성 착취에 종속된 여성들은 대부분 탈출해도 돌아갈 길이 없거나 무국적 상태이다. 그들은 가부장제의 '방랑자들'로서 남편에 대해서도 매매업소에 대해서도 통제받지 않으며 집도 국적도 없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권은 그들이 팔려간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하에서는, 도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갔건 불법적으로 들어갔건 모두 성 착취의 피해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된 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보장하고 이 계약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제안된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매춘으로 팔리거나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여행 서류들과 자신의 여권을 지닌 모든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성 착취가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여성 건강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들은 특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며, 자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매춘 대안 센터에 대한 기금 지원, STDs와 HIV 등 질병 검진과 치료 제공, 마약 남용 재활 센터, 상담, 학사 사설, 주택, 경제적 지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우호적인 신용 대출,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여성들이 착취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 제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팀이 물에 대한 지원이 매매춘을 포함한 성 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마련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유엔에 의해 어떤 협약이 채택될 때, 각 국가들은 그 비준을 권고받는다. 비준에는 앞으로 그들이 자국 내의 모든 법과 관행에서 이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진언이 따른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은 성 착취 반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데, 이 위원회는 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체계적인 성 착취에 대해 확실히 보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등법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을 것이다. 위원회는 성 착취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인 불만 사항들을 접수·검토하여 관련 국가의 주목을 끌어낼 것이다. 해당 국가는 6개월 안에 제기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성은 인간인가?

협약은 국제 조약이다. 이면에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명백하게 여성의 권리를 다룬 최초의 유엔 협약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이 1952년에 채택되었고, 그 이전에

에대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stitution, 1949)이 모본되었다. 이들 이후에도 몇몇 협약들이 채택되었고, 일본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유엔 선언문(1957)과 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문(1974)이 뒤따랐다.

나아가 1960년대 중반의 국제 조약들은 유럽의 시민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제3세계의 투쟁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향한 인간 권리 증진 규약(Advance the 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이 공포되었다. 이 두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신념,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이나 재산, 출생이나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명백하게 강압적 위치에 있는 한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식한다.

여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문화권 권리에 여성을 참가하는 것, 곧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권리로 보호받고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여성의 권리를 성문화시키려는 길고도 험난했지만 대부분 유엔에 의해 무시되었던 역사와 함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1979년에 채택되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어 1980년부터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그토록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률이 간혹 여성들을 향해 물아살 때는 무엇인가 잃는 것이 있다. 이러한 상실과 첫 번째 증거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도덕적 분노의 결여에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오랜 성적 착취와 성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식민화의 옹호, 성 산업에 의한 그 제도화의 결과로 많은 여성들이 성적 착취 간화에 대해 우리의 권리인 분노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다. 유엔이 여성들에게 시선을 돌릴 때, 인권에 대한 강조는 형소해지고 인권의 수행은 어이없이

물나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 수행의 맥락에서 CEDAW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제지를 다루는 강력한 국제 협약에 필적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인종 차별을 다루는 협약은 "인종적 차별의 존재는 이상적인 인간 사회성에 모순"되며, 따라서 "인종 차별에 기반한 어떠한 정책의 수립성도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과학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어느 곳에서도 인종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 차별주의는 "성에 기반한 구분, 배제, 제한을 의미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일 뿐이다(제1조). 억압에 대항하는 여타의 투쟁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화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없는 이유는 성 차별주의가 억압이 아니라 불평등의 조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더욱 불투명하고 미묘하고 깊이 있는 인권의 의미는, 제초장이 필요한 법적 차별이나 경제적 인종차별 등으로 축소된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대한 집단적 차별의 맥락이 제거될 때, 여성의 상황이나 착취에 대한 도덕적 분노는 가라앉고 개인적인 폭력의 문제로 축소된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착취가 "성에 기반한 어떤 구분, 배제, 제한"에 관한 경제적 활동의 문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법위를 넘쳐 인권의 일반적 "인간"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여성들을 위해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협약은 인권의 풍부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것도 없지만, 유엔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과는 다른 위치 속에서 전혀 별개의 내용을 가진 동떨어진 영역으로 다뤄진다.

성폭력과 성 착취를 주된 이유로 제기했던 세계 여성 운동의 흐름 속에 채택된 CEDAW에서 여성들이 잃은 것은, 이 협약이 성 착취와 관련하여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다루거나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1890년에 공포되었다면 유용했겠지만 19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산업과 매대문의 정상화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1949년 때

문에 대한 협약을 단순히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롭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1990년대의 작업인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이끌었는데, 이 선언은 CEDAW의 제한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를 "여성에게 신체적·성적 또는 정신적 해를 주거나 고통을 낳는,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 어떠한 행위"로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다(제1조).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적 억압의 맥락에서 발생하며, 성폭력은 넓은 의미에서 성 착취의 한 형태이다. 이 새로운 선언에 대한 글과 보도 중에는 남성 권리와 여성 종속에 관한 급진적인 선언이 있지만, 이것을 공식적 유엔 선언문에 포함시킬 필요는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포르노그래피와 매대문이 포함된 광범위한 성 착취 개념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수탈이 아니라 수배된 여성들이 전쟁에 걸려 매일 매순간 성 착취에 종속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선언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이 선언의 초고를 승인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 모비 활동, 특히 내일란드 정부 대표단의 강도 높은 모비 활동은 매대문과 포르노그래피를 성 착취의 형태로 삼입하는 것을 방해했고 심지어 후에 이것이 비정부 기구 단체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도 방해하였다.

이 누락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성 착취 반대 협약의 내용이 만들어진 이후에 초안된 것으로 유엔 인권 비정부 기구(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소개되어 1993년 6월 빈에서 열린 예정이던 세계 인권 회의에서 검토하기 위해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로 미리 보내져 1991년 유네스코와 연합으로 출판되었던 것이다. 몇 달 후 판슬레비니아 주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성 착취 반대 협약의 내용이 발표된 후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의 초안 작성을 위한 모임이 빈에서 열렸다. 유엔 여성발전국(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이 논의된 초기에는 유네스코 대표단도 비정부 기구 단체들도 개입하지 않았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실수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빈 회의 직후에 나는 제안되었던 협약과 선언문 초안에서 발생한 누락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빈 회의에 참여했던 몇 명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인권 기구 담당자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매대문은 인권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매대문이 여성 행동의 기본 모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매대문과 성 착취의 정상화가 인권 침해라는 것이 잊혀진 것은 유엔 내에서 비단 여성발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미 이 기구의 매대문과 에이즈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매대문 옹호론자들의 모비 활동으로 인해 전매제를 정책이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이 매대문에서의 에이즈 문제를 관통해 매대문을 통해서만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매대문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새로운 유럽공동체를 위해 1991년 열린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는 내일란드의 매대문 옹호 정책에 호의적으로 계획된 안전을 다루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의 이러한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유엔 세계 인권 회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고 없이는 불완전하다.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인권 센터는 1993년 세계 회의에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가 최종적으로 비정부 기구 단체들과 인권 변호사들에게 세계 회의의 참가를 허가하였을 때,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이 세계 인권 회의의 결과물을 결정 짓는 데 어떤 식으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부 대표단 회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여성들, 모작인들, 여타의 억압받는 사람들이 비정부 기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허가될 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침묵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국제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고마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공식적인 정부 회의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은 채 안전으로조차 채택되고 있지 않다. 이런저런 유엔 세계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나는, 과거에는 유엔 자문 기관의 위치로서 정부 대표단의 회의에도 일부 참가하고 개입할 수 있었던 비정부 기구 단체들에 대한 유엔의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언하게 모작하였다. 이런과는 달리 꼭 짜여진 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세계 회의의 최종 보고서 초안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성되었다.

성 착취 반대 협약은 유엔 회의에 수차례나 제출되었고 비정부 기구 자문단은 이것을 세계 인권 회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선언에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배제되었다. 사실상 전지구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학대에 대해 참가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비정부 기구의 내용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형태의 보호나 추가적인 보호가 유엔에 청원되지 않았다. 유엔이 우리의 인권 침해 현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허락한 것은 대대적으로 대중 매체의 보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여성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이 유엔의 조약에 포함되어 회원국들에게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행동과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법화하려는 교육 캠페인은 유엔 여성발전국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993년 유엔 여성발전국의 창고 자료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불법화를 바라보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가족 내에서의 폭력과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을 구분하면서 법으로써 가족 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정부가 가족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지 혹은 삼가야 할지 여부에 있어 한 것인 지, 합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책인지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76 따라서

개인화된 권력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근친 장간자나 아내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저면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분공 영역에서의 폭력과 성희롱도 다뤄진다. 공동체 내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의 처벌은 폭력의 불법성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선호하는 가운데 거부되는데, 이것은 성 학대나 성희롱의 입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건에 관련된 양자의 인식 차이는 사건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저렇게 말하는' 문제는 이쪽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의의 없는 농담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판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론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때와 똑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보다도 아예 대한 교육과 민감성을 기르는 일이 요구된다." 77 마찬가지로 형법만큼이나 민법도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호의를 얻지 못한다.

1970년대 초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강간법에 대해 보다 기록한 처벌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요구하였을 때나, 그리고 그 이후로 성 착취에 반대하는 개별 캠페인을 펼칠 때나, 이러한 반(反)처벌주의가 미국에서 여성 운동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때로, 포노노그라피, 장간, 아내 구타 가해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을 이용하는 것은 "권력을 국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는 경고가 수반된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국가의 손에 쥐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때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그들을 보호하는 데 쓰라고 국가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복되고 반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은 오랜 투쟁에서 어떻게 권력이 재정의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76 "Progress on Violence Against Women,"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Un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for Policy Coordin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MAY/NOVEMBER 1, 20 September, 1993, p. 8.
77 Ibid., p. 9.

한 가지 예로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침묵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도 국제 인권 단체들도 흑인 인종 차별 정책 또는 식민주의나 인종 차별의 피해자들에게 법원에 정의와 보상을 구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법의 손을 강제로 이끌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것이 현재 유엔이 여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여성에게 적대적인 범죄에 대한 반(反)처벌주의적 접근은 타이 여성의 목소리(Voice of Thai Women)의 연합 행동, 그리고 아틀로 하이글 때때론에서 여성만을 비난하는 때때론금지법(Promiscuous Suppression Act)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도록 연합 행동을 이끈 여성재단(Foundation for Women)과 매우 대조적이다. "만약 남성 구제자들이 없다면 배운부들이 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 매매의 지지자인 배운부소 단속법"을 저지하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다. 다른 여러 보호 조치 중에서도 이것이 성 착취 반대 협약이 전지구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유엔 선언의 이면에는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을 벌이는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남성의 권력·특권·통제'라는 호전적 수사학에 가려진 전지구적인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냉담한 무시가 있다. 최종 분석에서 수사학의 열매가 제거되었을 때 남는 것이라곤 아마도 하나 내지는 몇 안 되는 국가에서 남성들에게 권력과 특권, 이득을 얻는 일을 그만두라고 교육하여 여성에 대한 구타, 장간, 성 착취를 막겠다는 시도에 불과한, 아무런 재정 자원도 없는 교육 캠페인뿐이다.

폭력과 착취에 대한 누구의 정의가 유력할지 결정하는 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것은 서구,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여성·인권 단체들과 유엔, 특히 여성발전국 사이의 그럴듯한 공모이다. 이것은 여성들, 특히 제3세계 여성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새로운 세계모니이다. 이 세계모니는 세계 경제에서 자신의 지배를 위하여 전지구적 인권을 교묘히 조작하는 미국에 의해 매개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제 인권을

사용하는 것은 카터 대통령 때 시작되었지만, 레이건 시기에 그 전력이 강화되었다. 레이건은 전지구적으로 인권을 조작하면서 독재권을 후퇴시키고, 식량 배급과 적극적 조직, 시민권을 후퇴시키고, 인간 특히 미국 여성들의 인권함을 더욱 악화시킨 데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제 인권의 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며, '일할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 특별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에서 인권 강령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들(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주장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보호조차 되지 않는 개인적 권리와 수사학으로 이루어진 교육 캠페인을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는 CEDAW를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이유이며 미국에 기반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하는 이유이다.

인권 제인원 성 착취 반대 협약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승인·지지를 요구하면서 개인적·집단적 여성들을 대표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것이다.

참을 수 없음

때때론이 없는 세상……

때때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1820년대에 노예제 없는 미국을 상상하는 일과 같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만장일치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제1차 중에서는 소수는 단호하고 열렬한 노예 폐지주의자였고, 대다수는 노예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만연한 이데올로기의 인정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이었다. 그들은 노예제가 역사 초기부터 있어 왔다는 주장에 포섭되거나 때때로

기를 거부했다. 노예 폐지주의는 어떤 시기에는 전례적인 운동으로 여겨졌고 또 다른 시기에는 사회의 다른 곳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과감한 사람들과 노예제를 합리화하는 신실한 미국 헌법에 합의하는 기이한 사람들로 구성된 최후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단호한 폐지주의 핵심 그룹은 그들의 주장이 대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 나갔다.

이것은 전지구적인 양상이 되어 갔다. 1927년에 노예 제도에 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Slavery Convention)은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인 노예 매매를 문명내리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매매를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근절을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장간 위기 센터 활동과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단지 내가 '에비알 해결법'이라고 부르는, 즉 가혹으로 고통받는 시골에 에비알 물 한 상자를 보내는 일처럼 우리의 활동을 물 한 양동이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새로운 법들은 극단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은 여성의 자유를 위한 기반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법적인 변화는 항상 페미니스트 요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이 지구상에서 성 착취와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행동주의는 반드시 지면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화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매매를 없는 모든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공격받기 쉽게 만들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취약하다는 것은 "상처받고, 부상당하고, 다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공식적으로 성 착취를

제도화시킨다. 성 착취는 결혼에서 개인적으로 제도화된다.

요점은 성 착취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이 제도화된 사회 체계라는 것이다. 거의 두기에서 분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을 독립적인, 독특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체화시키는 경계를 잃는다. 대신에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분열시켜야 하고 자신의 내부에 인간의 자아를 파괴시키는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다중 인격 장애가 발생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아라고 인식하는 인간이 취약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아 파괴 세계로 영입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성 심리학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 무엇이 여성을 '관계적'으로 만드는지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경계가 없는 자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무발미 상태로 노출되어 아무런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행동한 경험이 박탈당하고 그 결과로서의 선택은 비인간화된 상황에서 생존을 그럭저럭 무려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축소된다.

여성들의 취약성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 안의 포스트노그라피와 여성의 성애화는 집단적인 것이며, 여성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성적으로 상처받거나 부상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여성 취약성의 사회-계급적 상황이다.

취약성은 억압의 조건, 즉 여성에 대한 성 착취로 촉진되는 여성 자아 파괴의 극단적 상태로 이동되어 왔다. 억압자들은 (다들하더라도) 결국엔 하나의 계급으로서 취약성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보호된다.

매일의 성적 관계 경험에서 '연약하다'는 것이 긍정적인 맥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말보다 훨씬 더 나쁘다. '성 혁명'과 '성적 굴복'이 가진 힘, *(The Power of Sexual Surrender)*과 같은 1960년대의 저술자들은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서 기대되는 것인 양 만들고 있다. '약한 존재가 되기'

는 '취약성'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해로운이라는 정신을 제거해 버리고, 약한 인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일련 의식 없이 개방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의 도전은, 여성의 학함과 공격에 대한 무방비를 유지하려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 폭스가 복시함으로써 취급되는 성 착취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 안에서 세스는 비인간화되고 세스의 사용은 인권을 침해한다.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은 언론이 삼진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시적인 성 착취 이미지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익명의 장부 이미지가 아닌 인간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페미니스트의 도전은 매매, 그리고 개인화된 가정·커뮤니티·결혼 안에 있다고 알려진 모든 제도화된 성 착취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만약 성적 관계의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성 평등인가? 개방성이 인간 경험으로서의 세스를 이끌고 상호 작용이 성생활을 자란 열정으로 여겨지게 하는 성적 간섭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조건은 바로 성 평등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일 수 있는 가장 심도 깊은 이 지점에 여성들은 기준을 둔 것이다.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할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 개발될 수 있고 개발될 것이며, 그 기준을 통해 자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욕망을 가진 성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내가 상상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현재의 불행한 상태를 계속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최후의 변화를 가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마지막 혁명으로 끝날 그런 정치적 무장이 아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가 수차례 반복되면 집단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질 것이라는 거짓된 추측 속에 개인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통해 나아간다는 심리적 변화의 연속으로 그 '과정'을 축소시켜 버리는 혁명도 아니다.

나에게 있어 비타협적이며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을 남겨서는 현실을 상상하는 것은,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 세계에 발을 딛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히이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들의 (집단적) 경험 안에 존재해야 한다. 이 가능성은 전세계적인 여성주의 운동과 수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충분히 깨달은 것 이상으로는 변화의 잠재력을 획득하지 못한 가능성으로, 지면에 대항하고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페미니스트의 투쟁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또는 소녀에게 분별력 매매와 근친 장간, 강간, 결혼 안의 성 착취하는 다른 세상,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주체와 같이 물질적인 것과 건강 관리, 돈, 직업, 상담과 집단 의식 개발, 그리고 사람을 계몽해 주는 일들은 이미 다른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5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 1986-98

정희진*

1. 들어가며

1978년 한 일간 신문은 당시 우리나라의 매춘여성이 3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그 중 내국인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이 40.9%,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소위 '알공주'가 59.1%를 차지하고 있다(경향신문, 1978. 8. 11).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외국군 상대 매춘여성의 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주둔한 지 30년이 넘는 지금 기지촌은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기지촌여성과 기지촌여성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방 이후 가혹법 개정 투쟁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차별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성의 고충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성별(gender)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체들이 1980년대 초, 중반에 창립되었다(1983년 여성

의전화/여성평우회, 1984년 또 하나의 문화 장편) 한국 사회에서, 전체 사회운동의 구도 속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은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본질 혹은 기궤해야 전체 운동의 부분이며, 부차적인 사회 문제. 여성운동은 중산층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게다가 민주화운동(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과, 전체 운동도 하고 여성 운동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은 여성운동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춘여성운동은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주변적이다. 그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매춘 문제에 대한 관심,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춘여성운동은 '주변부의 주변부'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 책 제4장 민경자의 매춘여성운동사 참조. 어느 여성운동가의 고백대로,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면서 가장 여성, 이른 여성, 성폭의 피해 여성일 수는 있어도 매춘여성일 수는 없었다."¹⁾

이 글에서 기지촌여성이란 주현미군 주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말하며(뒤에 상술), 기지촌여성운동이란 현장출신 여성운동가들을 포함하여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기지촌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매춘업 산업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허락되는 매춘이라는 뜻인 '탁상 업장'의 기지촌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반(국·도) 매춘여성들조차 우월감(?)을 갖는다. 외국 군대에 몸을 파는 '알공주'로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성문화)를 가질 수 없었던 기지촌여성의 삶은 그래서 더욱 오랜 기간 정치적, 사회운동화되지 못했다. 사실 기지촌에서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업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해결의 어려움, 외국 군의 주둔, 분단, 군축, 인종, 지역, 계급 문제, 사회운동권의 무관심이라

* 이 책의 기획, 편집자로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여성리전과에서 3년간 일하였다. 현재는 이화여대 여성학과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기지촌여성운동에 새롭게 참여하길 원하는 여성과인권연구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사, 특히, 여성성당론, 여성학 방법론에 관심이 많다.

1)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내지 연구 동아리 '매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소지자 장근희(1996, 여론).

는 집결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기지촌은 군사주의와 매매술, 외국 군대의 주둔과 분단의 핵심 코드이다. 분단 상황은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부장적 성별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1998년 추경(追加)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3%(96년에는 22%)였다. 국가 예산의 1/3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관련부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92년-0.02%, 93-95년에 불확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군사주의, 전쟁과 같은 분단은 여성 억압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다. 군사주의는 폭력적인 남성성을 미화하며 성적인 이미지(sexual image)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지촌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억압을 응축한 공간이다. 기지촌여성운동은 인권과 평화라는 새로운 세기의 화두를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여성인권에 대한 성찰 없이 인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일깨워 준다.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이 대부분 남성들의 주도, 지도로 이루어진 반면, 기지촌지역 운동의 경우는 여성들의 여성들의 주도로 시작되어 기지촌여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났다. 기지촌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무려발이 개원한 1986년으로 본다면, 전두환 정권시절인 86년 당시 우리 사회에서 빈이나 비군기지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 남성중심적인 반미운동은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지촌운동은 여성운동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지촌운동은 곧 기지촌여성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기지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매매를 지역이라는 성차별적(gender)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기지촌 지역운동을 하는 남성운동가들은 대체로 자신을 기지촌 활동가라기보다는 반미운동가, 지역운동가라고 정체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매매촌(국내 매매) 현장 중에서 가장 열악한 기지촌에서 매매여성을

들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소위 민족민주운동과 맺는 관계를 설명해준 다위에 윤금이 사건에서 살았, 남매를 불문하고 기지촌여성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기지촌 문제를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반미 문제로서 인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지촌여성운동이 조직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1986년부터 현재(1999년 4월)까지의 운동사이다. 미군행 원고를 제제하면,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에 관한 글은 주로 윤금이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남성 시민운동가 이교경(1993), 재마在勤 페미니스트 김현숙(1998)과 문형선(개더린 문, 1998)의 연구가 있다. 기지촌여성을 소재로 한 소설로는 안철순의 『벚꽃』(1993)이 있다. 안철순은 1992년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주의 작가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시, 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고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안철순은 기지촌여성운동가 김연자와 함께 군사주의와 여성, 군대와 매매촌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교경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억압이 심한 사회에서는 시민운동조차 민족민주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예로 『윤금이 사건』을 두루전시 시민운동과 같이 언급했다. 김현숙은 기지촌여성운동에서 기지촌여성, 중간층 페미니스트, 남성 민족주의자의 정치력이 갖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기지촌여성의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지촌여성운동가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현장매매여성 출신 운동가들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986년부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여성운동가들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로서 현장에 투신한 경우이다. 이 글은 이들 여성운동가의 관점에서 이들의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때문에 기지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매매여성 출신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이 글은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들은 인터뷰, 논평, 필자와 회화, 토론, 영타, 아이디어와 자료제공, 수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이 글이 완성되는 데 전적으로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공동창작이며 필자는 대표 집필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현장 운동가들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밝히겠다. 유영남(무려발 현장), 윤영애(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전 한소리회 회장, 서울여대 생활관장), 김현선(전 무려발 사무국장, 서울여대 대표), 정유진(전 무려방 간사,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진아(전 참사관 협회 간사, 서울여대 전문상담원, 한국여성성취전환협 정책부장), 장선영(전 무려방 간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학사과장), 서민숙(전 서울여대 간사, 협상매전 무려방, 서울여대 간사, 한소리회 간사), 이지영(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시온성교회 담임 전도사), 남종자(전 한국여성성취전환 협보부 차장), 최희실(전 민주주의인권통일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경희대 연구원), 서울여대 상근자 여러분(김주영, 김미숙, 강옥경, 정장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소모임 퍼스 메이킹(Peer making), 이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여성과인권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진, 유인물, 해외인쇄물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공해주신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의 정유진 사무국장과 수 차례에 걸친 인터뷰에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응해주신 서울여대 김현선 대표, 훌륭한 아이디어와 의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준 박진아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2. 기지촌,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어느 곳에 몇 개인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힘들다. 19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문대리

위원회'가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와, '우리 땅 미군 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조차 미군기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부나 주한미군 관계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현재 이남의 미군 기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와 충남 당진에 당일산, 경기도 화성, 제주도 송악산 등 총 96여 곳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축(減縮)으로 지금은 36,430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고 미군 기지와 기지 시설 면적은 총 8,034만 평에 이른다(정유진·김동실, 1997). 이는 1997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가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것이다. 1990년 동아일보 특별취재단의 자료로는, 남한의 미군기지 면적은 약 1억만 평으로서 이는 일약, 전담을 제외한 대지 면적으로만 보면 전체 남한 땅의 17.7%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한국인의 주거 면적(1억 2, 800만 평)에 비한다면 땅을 한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 아래 미군이 무상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부산민족민주연합 회, 1991). 1960년대부터 미국의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국 내 반전운동, 소련 혁 전혁의 등장,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등의 영향으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왔다. 1969년 7월 25일 당시 미국의 니슨 대통령은 '갑 독트린'(니슨 독트린)을 발표, 박정희 정권을 불안에 몰아넣었다. '아사아의 땅리는 아사아인의 힘으로'라는 말로 일축되는 갑 독트린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에 약 6만 2천 명이던 주한미군은 71년 3월, 2만여 명이 철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과 보강(1980년대 레이건 정권 때)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강성철, 1988).

어느 시대 사회에나 매매촌과 매매촌 집결지는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매매촌이 구조화, 정책적으로 변형하게 된 것은 일제 시대와 식민지 정권과 한국 전쟁, 미군의 주둔 때문이다. 외국 군대의 주둔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매매촌 지역을 만들고 관리하게 되는

게기가 된다. 근대 한국 매춘의 역사적 뿌리와 대중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작(公作) 정책이다. 일본은 조선을 침입하면서 자국의 매춘여성들을 대러와 조선사회에 유곽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시켰다. 이어 국가는 1910년 '유곽법 장기 취제 규정'이라는 매춘에 관한 법률 만들어 불쌍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16년 일제는 경부총감부령으로 '유곽법 장기 단속 규정'을 실시하였다(강영수, 1988). 일본의 대(對)조선 공작제도의 핵심은, 매춘업 국가화(公娼化)와 매춘여성에 대한 생명감사제도 실시이다. 일제는 자국 내와 조선 내 일본인 거주지에는 따로 유곽을 설치했지만, 조선에는 주책가에 산재한 매춘업소를 공인함으로써 결국 조선사회 전반에 매춘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아사다 일, 1992).

공장제도 확립과정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생명 감사가 일관되게 중요시된 것은 생명 예방이나 매춘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적 도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통제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현재 기지촌여성에 대한 생명 감사 제도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성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생명 감사를 하지 않고 파는 사람에게만 집권을 의무화, 강제하는 것은 실제 생명을 전혀 예방할 수 없다. 이같은 생명 정책의 이중성은 미국의 AIDS 예방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기지촌여성들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매춘(賣娼)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생명 감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가 기지촌여성의 에이즈 감사를 확인하듯이, 기지촌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집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방 후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으로 주둔하면서 기지촌에는 미군과 기지촌여성,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였다. 외국인 전술 술집,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을 거래하는 블랙마켓(black market), 입달라상, 로주,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복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 중개업 사무소, 번역소 등을 무대로 기지촌 문화가 정착하였다(김현선 외, 1997).

부산의 서면 일대의 소위 '히아라야 부대'(Camp Hidaray)와 해운대의 단막부대, 범일동의 미 33보급장, 초량동 지역과 군산의 히에라야 타운,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현재는 시), 부평 등은 대표적인 후방의 기지촌 도시였다. 포천, 동두천, 원정부의 뱃별, 파주의 송주골, 문산의 선유리, 서울 용산의 미 8군 기지, 이태원, 후삼동 등도 기지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뱃별은 기지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뱃별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화정부시 스턴리 부대(Camp Stanley) 주변의 기지촌 매춘 집결지를 말한다. 뱃별은 화정부 시내버스를 타면 정거장 이름으로도 표지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공식화된 지명이다. 현재 지방의 옛 기지촌들은 단속이 심한 서울을 피해내려온 국내 매춘 업자들이 정착하면서 국내 매춘 집결지로 유명해졌다. 매춘업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로주들은 매춘여성을 감시·통제하기 쉽고 행정당국은 단속하기 쉽기 때문이다. 매춘 집결지는 다른 사회와 구분되어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기지촌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통제는 1950, 60년대보다 70, 80년대가 더 심했다고 한다. 50, 60년대 한국 정부는 기지 내 매춘 문제를 일차적으로 미국의 문제로 보았다. 70년대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전후의 극심한 가난은 한국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춘여성을 비난했지만 일정 정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60년대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미국은 주한미군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Moon, 1998).

그러나 베트남과 아시아의 전쟁상황으로부터 미국의 이탈을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감소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소는 곧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위기를 의미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의 환경개선을 담당하게 요구할 수 있

게 되었다. 미군간의 폭력 갈등, 미군과 한국인 간의 인종적 갈등, 미군 병사들에게 민원한 생명, 기지촌 시설의 비위생적인 상태, 입수 등에 공동대책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군기지 평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71년 여름 미군들끼리 인종차별로 인종 싸움이 있을 때, 미군 당국이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기지촌 여자들이 매우 더럽다. 우리는 한국을 구하려는 VIP들인데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지촌여성들을 관리하게 된다. 기지촌마다 생명 진료소를 만들고 매주 정기적으로 생명 감사를 받게 하였다. 기지촌여성에게는 보건증이 주입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기지촌 매춘을 직접 관리, 단속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지촌여성을 대상으로 '연동 회의'와 같은 관제 가지기구를 조직한다(김현선, 1998).

정부가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군의 건강을 위해 기지촌여성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춘에 대한 이중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기지촌여성들을 '가장 더러운 여자들'로 낙인찍으면서도 동시에 '회화를 마는 애국자들', 심지어 '연간 피교관'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기지촌 매춘 여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지촌 매춘 여성 중 클럽에서 일하는 성인 여성들만 생명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뿐만 공식 통제가 포착된다. 일명 '뜨내기'(국내 매춘을 결하는 유동적인 매춘 여성), '전화말이'(여관 등에 대기하다가 전화로 호출받고 매춘하는 여성), 마성년 매춘여성, '히파리'(나이 들어 매춘업소에 고용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잡아 매춘하거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미군과 제각 동거하는 여성의 숫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다. 해방 후 기지촌 매춘 여성의 총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김현선, 1998). 현재는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들의 경우 최소 3,000여 명에서 최대 18,000명으로 추정하며 그 외 약 9,000명의 여성들이 클럽 바깥에서 매춘을 하고 있다고 본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Margo, 1997; Stenderen & Insulata, 1995;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의 연도별명 자료)

5. '현장' 출신 기지촌여성운동가들

조직적 차원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5년 3월 17일 화정부시 가봉동에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기지촌여성운동은 1970년대부터 송탄과 군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김연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김연자는 1964년부터 89년까지 25년간을 기지촌 매춘 여성으로 살았던 소위 '현장' 출신의 여성운동가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기지촌여성운동가이다. 그동안 각종 여성인론회, 학술대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증언하였다. 그녀는 그동안 한 번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기지촌 매춘의 실태와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세상에 알렸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기지촌여성관련 증언과 생애사(bio history)는 김연자의 증언과 두레방 활동에서 채록된 상당가목에 의한 것이다. 정신대 문제의 최초의 증언자가 고(故)김학순이었다면 '현대판 정신대'라는 기지촌에 있어서는 그녀가 최초의 증언자이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은 '증언자'적 존재를 넘어선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이 다루아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지촌여성을 '연간 어학'로 보는 것, 동정하는 것, 반미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큰 희생자로 보는 것에 모두 반대한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가부장제와 계급 문제를 비판한다. 사회운동권과 여성운동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고자 하고 기지촌여성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기지촌에서 25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그들(여성운동가) 찾아온

책이 없었어도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피부로 알고 어떻게 여성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운동을 나는 그것이 필자 모르지만 주연은 여성운동가고 조연 엑스트라는 현장여성들이었어. 그걸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개구리나 자포자기의 아니에요. 기지촌여성들을 연구 자료에 쓰려고만 하지 정작 중요한 개선책에는 알거나 노력해주었나요?」

그녀는 우연히 기지촌여성들에게도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여성 자치회가 실제 기지촌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형식적인 착취기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치회를 개조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 자치회는 일면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다. 직선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로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자금 지원하에 운영되어 지역 유지와 로주들이 기지촌여성들을 움직이게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조직구성원의 성격,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기지촌여성들의 진정한 자치기구가 될 수도 있었다. 70년대 중후반 지역의 자치회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조직화하기도 했고 기지촌여성자치회 전국회회가 열리기도 했다.²⁾

1971년 송탄에서 미군들이 화대와 기지촌 물가가 비싸다며 신발과 쇼트 타임(short time) 화대를 5분로, 롱 타임(long time) 화대를 10분로 인화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미군들의 화대 폐색기와 화대 인화요구에 대항하였다. 천 명이 넘는 동료 여운여성들을 조직하여 '우리는 신발이 아니라 인간이다(We are not shoes! We are human beings!)'를 외치며 미군부대 앞에서 대모를 벌였다. 살벌했던 유신시절, 기지촌여성들의 작은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조차 '북한과의 연계'로 몰려 그녀는 경찰서에 끌려갔다. 이때 당한 협박, 구타, 고문의 경험은 그녀에게 더욱 큰 화력과 출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로주와 미군들의 잔인한 폭력, 살인사건

2) 천영은, 「기지촌 생활 25년, 집안자 머리 본지 중인 내가 겪은 양궁주, 미군 병사의 세력」, <월> 1993. 12.

3) 이 내용은 기지촌여성운동가인 천영은의 증언이다.

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1976년부터 그녀는 군산의 아메리카타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군산은 송탄이나 동두천의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여성에 대한 통제가 심했던 곳이었다. 민간인과 기지촌여성이 한 동네에 살았던 다른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여성들을 땅 번호가 붙은 소위 '밭장 집'에 집단 수용해 놓고 집 근처에는 높은 담을 치고 경비가 지켰다. 일명 '살버 타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30%를 지원하고 로주가 30%를 투자한 실제 주식회사 형태의 '여자 파는 회사'였다. 그녀는 그때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그녀들이 따로 드러나지 않은 '숨김어'들이었다.

1977년 6월 12일 동료 이복순(당시 23세)은 폭에 한테나 들어 갇힌 상태에서 붙어 타 숨졌으며, 한달 뒤 열방에 살던 이영순(당시 28세)이 담에 떨어져 숨졌다. 당시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던 집안자는 이복순이 죽었을 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인을 못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영순의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때까지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범인은 미 공군 스티븐 워렌 타워먼(Steven Warren Towerman, 당시 20세) 일명으로 이복순과 이영순을 연이어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은 이영순 살해만 인정하고 이복순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였다. 그는 주한미군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타운 안의 여자들이 붙어 빠져죽고,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불에 타죽는 등 열 명 이상이 연달아 죽음을 맞이하였다.

동료들의 줄이든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연도날과 매주별로 자택을 앞삼인 흥선약가점, 당시 24세와 함께 있는 돈을 모두 털어 타운 근처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일종의 성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천막 안에 '혁명선교회'를 만들어 매일 밤 기지촌여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었다. 마음주변들이 여자들의 불복종이라 시끄럽다.

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끝까지 버텼다. 이후 그녀는 천복신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 1989년, 송탄에 '참사랑 선교관'이라는 기지촌여성 센터를 마련한다. 혼혈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어머니 영어교실과 한글교실, 선교 활동 등을 준비하다가, 92년 8월 학생운동가와 두레방 자원 활동가 출신들과 결합하여 '참사랑 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관하게 된다. 집안자는 앞으로도 기지촌여성과 혼혈아동을 위해 여생을 보내고자 하며 지금도 강연과 공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의정부 옛길 지역의 3층집에서 일하던 선영자(가명, 당시 20대 후반)의 활동은 기지촌여성들의 주체성과 눈물짓, 기지촌여성에 의한 기지촌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8월집은 의정부에서도 가장 혁명 높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주로 학력이 낮고 청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다른 클럽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주면서 이중 장부를 만들어 착취하였다. 서정이는 로주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동료들을 설득하여 이중 장부에 대해 로주에게 항의하였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뒷길기 계를 조직하였다. 기지촌여성들이 탈세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빚과 전장 문제이다. 자신은 빚을 짓을 아예가면서 돈을 모아 10명이 넘는 여성들의 빚을 갚아주었다. 이후 여성들이 전업(轉業)하거나 결혼할 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도와주었다(집안자 외, 1997).

일부에서는 집안자나 서정이의 활동을 기지촌여성들의 '자생적' 투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자생적인 투쟁을 '목적의식적' 투쟁과 대립·분리시키거나 혹은 목적의식적 투쟁의 전(前) 단계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한국 사회운동 일부에서는 사회운동을 자생적 투쟁과 목적의식적 투쟁으로 분리하여 목적의식적 투쟁의 우월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여성주의는 이러한 사회변혁 모델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의 참여를 봉쇄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해왔다.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운동이론은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주변인과 일상의 투쟁을 운동의 주요 영역에서 배제시켜왔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 중에는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면서 자신의 대우환경에 대해 일상적인 저항을 해가고 있는 제2, 제3의 집안자, 서정이가 많이 있다. 이들의 투쟁을 기존의 '주류' 여성운동권이 어떻게 평가, 연대, 지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4. 두레방의 시작

1986년 3월 17일, 두레방은 문혜림과 유복남에 의해 개관했다. 두레방은 '돌앗이, 두레'할 때의 두레로 여성들이 서로 돕는 곳, 샴타라는 의미이다(영어 명칭은 My Sister's Place). 문혜림은 원래 미국인으로 미국에 유학 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된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한중신학자 문종환 박사)이 민주화운동관련으로 구속되자, 아로바이트로 미 8군에서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상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레방을 열게 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여성으로서, 여성운동가로서 기지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외국교회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문혜림은 91년 12월 미국에 돌아가시기도,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여성들을 위해 일하였고 송중순 사건이 끝 제8경 '기지촌여성들의 아메리칸 드림: 송중순 사건' 발표)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종교한기독인으로서의 불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기지촌여성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문혜림은 같이 일할 상근자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알아보았다. 주위에서 모범생 스타일의 여성들을 추천했으나 문혜림은 이들 모두 물리치고 현장 여성들과 친화력이 뛰어난 유복남을 선택하였다. 유복남은 헌신대 출신으로 70년대 민주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활동가이자 뛰어난 여성운동가였다. 두 사람의 상근자를 갖춘 두레방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

장) 여선도의 전국연합회 산하에 특수선교팀으로 출발하게 된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교회여성들의 투쟁과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 여성들은 70년대부터 정신대, 매춘, 여성노동운동, 빈민운동, 반전·반핵 운동,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정신대, 매춘 문제는 교회여성들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확산된 경우다. 두레방 역시 교회여성운동의 힘으로 시작된 단체이다. 두레방은 기저촌 매춘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방하여, 하나님에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하였다(최지 창간호에서 인용). 초기 후원자들은 거의가 교회여성들이었다. 개별 교회, 지방 여선도회 회원들과 이우경, 이희호, 김경희, 박순금, 박용길 등 당시 교회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

여러 교단 중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민중신학의 근거지로서 전보적 교단으로 유명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매춘여성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 교회는 없었다. 기저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매춘여성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의식과 열등감을 심교하였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매춘여성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므로 가장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며 가난한 매춘여성들에게 삼일조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두레방을 최정부 지역에 세운 것은 최정부와 동무원이 대표적인 기저촌으로 기저촌여성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레방은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과 동시에 매춘여성운동, 제3세계 인권운동,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① 교회여성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1992」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회합 한국 여인 10년사, 1998」, 중 권이경, 임인자, 김미영의 「교회여성운동」과 한명숙의 「통일 평화운동」을 참고.

기저촌여성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여성의 문제 — 우리나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성들도 손발고 노력해야 — 한국과 미국의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3세계 인권 문제, 특히 매춘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제3세계의 운동가들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공동 대처하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도 현상출신의 실무자 양성을 위해 애씁니다. 자신의 제정한 경험을 통하여 피식화된 여성 실무자이랄로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두레방 회지 1호 중에서).

두레방의 주요 사업은 상담, 영어교실, 공동식사, 학식, 탈매춘을 위한 전업(轉業) 사업, 기저촌 활동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저촌여성들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만한 대화 상대자가 없었다. 이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지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저촌 여성들이 무시와 천대, 감시, 추방, 자기 학대, 자포자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여유와 공간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레방 활동 초기에는 두레방을 찾아오는 기저촌여성들을 포수들이 가두어 놓고 매리거나 협박했기 때문에 기저촌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두레방 활동가를 만나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도 하였다.

두레방의 프로그램 중 특히 상담은 기저촌여성들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와 교육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했다. 자신의 한 많고 기구한 인생이 순전히 자신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은 자기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도 타인에게 매정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두레방의 회원들은 일반 여성운동단체처럼 피리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이 아니라 두레방과 연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여성들이다.

영어교실은 영어를 몰라 이군들에게 회대를 매이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남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군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시도했으나 호응이 없었다. 공동식사는 생계

가 막연하거나 식사를 제대 못하는 기저촌여성들과 함께 식사 준비와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혼혈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놀이방 운영과 대학생들의 기저촌 활동, 전업 프로그램으로서 두레방 병 사업, 기저촌여성의 삶을 알리는 각종 강연과 회지 발간 등이 있었다.

3. 기저촌여성의 이야기

두레방은 상담을 통해 기저촌여성의 삶을 구술하거나 수기를 회자에 실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포수가 잡았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몇 때문에 포수에게 팔려있었고 있던 나는 포수를 따라 포항으로 내려갔다. 한 겨울이었는데 언덕에가서 한박을 켜 가건물에 들어가 하루 20-30명을 상대했다. 몇 날 된 출판(탈출)의 일을 해 그런 식으로 미군들의 혼란장소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했다. 나는 그 하루에 일상을 하고 자연유산을 해서 심하게 화를 냈지만 매춘을 계속했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김현진 회, 1997: 61-62).

내 어렸을 때의 첫번째 기억은 집례를 해서 먹던 일이에요. 나를 낳아주어 우리 친부모는 나를 고아원에 보내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보모들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먹이면 밤에 오줌을 권다나요. 내기 여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한 일은 갓난 유택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었어요. 보모들이 우유통을 주고 나가면 아기들이 울고 있던 우유 목지를 잃은 해서 내 입에 넣었지요. 나는 항상 배가 고프었어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전라도에서 어느 교장 선생님을 집으로 입양되었는데 오빠들만 낳긴 집안이였어요. 내가 그 집에 가지마자 일하던 가정부의 배움을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내게 시켰어요. 학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고아원 때 다닌 국민학교 3학년 1학기가 지금까지 내 학력의 전부예요. 남의 집 일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일을 할 때 이웃집 일손을 빌릴 수 있었어요. 뽕나무 희흔희로 수없이 받았어요. 나는 스물 일곱 먹은 지금까지 물을 세우처럼 꾸꾸하고 자요. 많이 많은 집이었는데 나에게는 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반듯하게 누우면 불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나는 (아버지에게 강간당했어요. 아버지가 눈치를 쏜 것 같

은데 저만 죽일 년 잡듯이 죽이는 바람에 서울로 와서 잡혀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월급 오빠가 세 월급에서 2,000원만 받고 다 가져갔어요. 나는 20살이 되어서야 월급을 했어요. 2,000원은 생리대 값이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한돈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아 자기 운전수당 절반시켜 주시. 그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장을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날자는 이미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하면 저를 두들겨 때고 뜨거운 국물을 얼굴에 붓고 — 저는 갈 곳이 없어 술기만 했어요. 남편은 때 돈을 벌어요. 아니야 성화에서 임신한 몸으로 학을 먹여가며 공장일을 했어요. 전업에 돌아와서 하나씩 너무 많이 해서 학을 많이 먹었는데 팔각아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때는 더욱 심해지고 병신 아이를 낳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두 달 동안 집에서 부엌만 켜 10만 원을 자기 집에 두고 부엌을 열어 집을 나섰어요. 여성 월간지에서 본 광고에 광고 제하고도 월급도 후하게 다기에 전화하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저를 다른 남자에게 남기대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문신, 기저촌이었어요(두레방 회지 1호, '벌리 얼마 받았시 다, 중 발해).

원래 그녀는 방송대까지 다녔고 영어도 브로큰이 아니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졸업해서 미군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복했던 사고 당시 친오빠가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그녀를 강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버릇없는 자식을 숨길 수 있는 곳,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다가 기저촌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저촌에 하서는 클럽보다도 두레방 사람들이 더 친하게 지냈고 직접적인 매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군 병사를 만나 사랑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군은 부대를 그냥 나와서 불행 제복자 비슷하게 되었고, 돈도 벌지 않고 늘 그녀 없이는 못산다고 애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서울로 나와서 학작같이 돈을 벌었어요. 아무것도 생활책이 강했던 그녀는 어디다가는 평생 그 미군을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사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사어머니가 자갈밭에 걸렸다고 거짓말로 아들을 살려줘 귀국하도록 했어요. 그녀는 다시 청정원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알아 놓고 임아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아파도 본살을, 빚이 많아져 집안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더니 돈을 벌어요. 오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의 너는 그런 몸 아니냐'며 대방을 나가든지, 술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날도 집을 나와 다시 기저촌으로 들어가 매춘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미군 유부남을 만나 동태가 미움먹히도록 연애를 했는데 물론 그 미군은 미혼이었다고 늘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녀는 미군들 사이에서 누구의 여자도 매하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필요를 전한 거예요(기저촌 활동가들의 인터뷰에서).

14)
15)

물집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피임이다. 한 번은 8개월째 낙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서 두렵기 짝이 없었다. 나는 낙태를 해야겠던 정도였다. 하지만 낙태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임신중에는 물론이고 낙태한 다음 날에도 다시 배운을 하는 일이다. 김현정 정리, 『나리 살아온 이야기』,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정유진·유대희 공역, 미간출, 1993.

기지촌여성들의 낙태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877명) 기지촌여성 중 인공 임신중절 경험이 없는 경우는 23.3%, 1회가 40.9%, 2회가 29.1%, 3~4회가 20.3%, 5~10회가 7.6%, 10회 이상이 1.9%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어떤 여성은 무려 23회의 낙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위기'(기지촌에서는 혼혈아동을 'half-person'이라 부른다)을 이 세상에 태어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Margo, 1997).

혼혈아기였던 김신자 씨(가명, 38세)는 동두천의 D물집에서 18만 원의 월급을 받아 10만 원은 학아소에 내고 8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태운여성이다. 그녀는 1994년 5월 29일 4시에 미군 지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몇 분간 기절했는데 운전은 하던 미군은 그녀가 깨어나자 손에 약 50불(2만 원)을 쥐어주고 그냥 가버렸다. 그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손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지프 미군 차를 찾은 것을 포기했다. 두레방은 사고 난 미군을 찾아가 했으나 그녀는 거부하였다. 그동안 기지촌에서는 물집의 태운여성들이 미군 병사를 신고하면, 미군들이 신고한 여성들을 탈로 쫓거나 구타, 강간하고 물집의 장사가 한 적도 폭 보복하였다. 여성들이 탈로도 보복받은 여성들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망친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다른 기지촌에 팔아 버렸다. 김신자 씨는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두레방 회지> 13호, 『교통신고도 신고할 수 없다나...』 중 발췌.

30대 초반에 가출한 후 물집에서 일했다. 같은 물집의 여성들과 미군 손님들 서로 먹고 번기는 일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다가 술에 취한 호주제에 구타당한 다음날 도망쳤다. 몇 때문에 다른 집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상당한 기지촌 활동가와 함께 여관을 전전했다. 이후 재파견 등에서 일했으나 세로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달을 세우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한국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힘든 노동을 무척 무뎠다. 상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힘든 일 하지 않고도 놀면서 사는데 나는 왜 그럴 수 없느냐'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태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운을 통해 관계하는 미군들과 연인관계로 믿고 싶어 했다. 미군들은 이런 심리를 알고 확대를 자발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그녀를 이용했다. 끊임없이 상담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린다. '대학을 졸업했다. 부모가 부자였다' 등의 거짓말로 자신을 다른 기지촌여성들과 구별하고자 한다(1997년도 서울터 사업평가자료(미간출) 중에서는

그들의 인생 역정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억압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순의 총집약체였다. 그들의 삶은 기지촌여성운동이 여성운동이자 계층근절운동, 성폭력 반대운동, 지역운동, 빈민운동, 학사운동, 노동운동, 군축, 반미, 통일운동, 혼혈인의 인권운동이라는 다량하고 복잡한 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여성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고정된 여성의 역할(gender)과 이중적인 성(sexuality)을리가 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착취와 고통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6. '기활': 기지촌여성운동과 학생운동

기지촌여성운동의 기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적·조직적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 교회여성운동이라면, 사안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예) 학생운동과의 연대가 큰 역할을 했다. 두레방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기지촌 활동(야하 기활)과 탈배출을 위한 전입(轉入) 사업이다. 기활은 농활(농촌 활동), 빈민(빈민 활동), 공활(공장 활동)처럼 대학생들이 직접 기지촌을 방문, 기지촌여성단체(두레방, 서울터)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운동의 연대 사업을 말한다. 기활은 1990년 여름 이후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여, 92년부터는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서여대협)에서 '반미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참가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 동안 남녀학생 연인원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³⁾

기활은 기지촌 문제를 대학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기지촌여성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가시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두레방에는 대학생 상대의 원고 요청이나 강연 요청이 물집듯 들어왔다. 기활을 통해 기지촌여성운동은 두레방 밖 관대방과 자선 활동가, 후원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기지촌여성운동가들도 대부분 기활을 통해 기지촌여성운동을 결집하게 된 경우이다.

문혜원, 유복남에 이어 90년부터 기지촌여성운동을 해오고 있는 김현선(서울터 대표, 전 두레방 사무국장)은 87학번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전성기인 세대에 속하면서도 기존 학생운동권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4학년 때 저는 학생운동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3학년, 4학년 운동(을)을 할 때도 학생운동에 남아 두레방을 지도하거나 서울터, 전대협 등 상층 학생회에서 일하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4학년 시작하자마자 활동을 그만두니 굉장히 속았어요. 저는 선배들이 졸업 후에 할과 평등을 달리하면서 사는 데 많이 실망했어요. (노동)현상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금방 아무 생각 없이 사립가고...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카 카루에도 여대 다니다 보니, 여성운동이 어떻게 있었어요. 4학년 중에 우연히 <한겨레신문>에서 김미경 기자가 쓴 두레방에 관한 기사를 보았고, 억압받는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데 너무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두레방에 찾아가서 자원활동을 했고 그 때 처음으로 학생회 라인을 이용해서 복날 언니 할 때는 1주 동안 기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대생들도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성운동은)사시하다. 제 노동운동을

해서지 그런 걸 하려는 거죠. 학생운동하면서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운동권은 아니지만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주로 참가했고 호응이 대단했어요.

기활에 참가하게 된 학생들의 동기와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대학의 소재 지역, 과 대학 기활의 역사, 여성화식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기활에 참가하기 전에 학생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은 전반적으로 반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다. '송가하여 부러지도 미국 대문'이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자료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가인 반면에 실제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소위 일반 학우들인 경우가 많다.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은 자각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반미를 고민하는 학생은 참가를 자제도 과소수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시에 학생들은 반미의 차원에서 기활에 참여한다. 때문에 학생들은 깊은 배운운동단체지만 '한 소리'에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하지만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은 주류 학생운동권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하고 순한 '여성적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이다. 이들은 반미 문제 외에는 기지촌 배배출 현장에 접근할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활에 참가하는 이유를 제대로 정리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자대학과 기활 경험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기활을 바라보는 기지의 시각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것, 여성 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90년대 초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농활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기활은 참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청리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성(sexuality)이 기지촌에서는

3) 두레방과 서울터의 기활을 합한 수치이다.

적나라한 실상이 되고 공론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남녀 학생 모두 기지존여성들 앞에서 위선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성폭행(피해, 가해) 경험 등 이제까지 성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기지존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혹은 교육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여성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일종의 여성 인식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기왕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중운동이 되었다. 기왕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왕은 대학생들 중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반미운동, 민족주의운동에서 기지존이라는 현상은 별로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다. 미군 범죄에 대한 관심조차 '저서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80-90년대 대학가에서 그토록 차열하고 열정적으로 반미운동, 통일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의 성과가 기지존여성운동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사실 1980년대 학생운동세력은 두레방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래서 기지존여성운동의 한창은 반미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에도, 소위 '여성운동이 열다'는 90년대에도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관점은 여대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0년대 초 중반 들어 여학생운동을 학생운동이라기보다는 대학 내 '여성'운동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이지는 못하다.

여학생운동은 부분 계발 운동 — 43년 이후 미제가 남편을 강압하면서 지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할 통제를 고안했고, 이 중 하나가 여성을 구실로 하여 순종적이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 여학생들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알기 피곤문화의 부산물인 민선에게 성폭행자 취급에 노출되어...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가 미국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파괴되어 있다는 식민주의론을 잊고 되지만 기지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지존 사람

의 필자이신,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중성지역여성연구소편찬회로 옮기면, 1998.

에 대한 재평가된 논점에서 출발해 민족사상의 이용을 폐지 하고 주권미군들의 타당한 인행을 통해 미국인들의 본질과 반미가 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인식을 제쳐놓아야 전남대-조선대기지존학생단결대회(이하, 1994. 11.

이들처럼 아직도 일부 학생운동세력은 (여성이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90년대 후반에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인신매매, 성폭행이 '미 제국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92년 촛불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났다.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저명한 한국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1967년 평화봉사단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 남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한국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전유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그런 상황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였다(Cumings, 1993). 호텔에 투숙할 때, 영어강사 할 때, 미군 부대를 방문할 때,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 갈 때 뽕동 가는 곳마다 '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자를 불러다 주겠다'는 한국인, 미군들의 강연을 받았다. 그는 유교적 형식주의(Confucian formalism)가 강한 한국에서 왜 그토록 할라-파실 문화가 번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종속관계를 남녀의 성적 종속관계에 비유했다. 미군이 침수하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며 '언제든지 온만 주면 살 수 있는 한국 여성(available women)'을 놓고 미국과 일본의 남자들이 더 많은 화대를 지불하겠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았다. 강대국은 남성이고 약소국은 여성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평등해진다면 거래율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동양, 제3세계, 약소국을 여성화(feminize)하는 이같은 관점은 근본적 남성들이 기지존여성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그러나 기지존여성운동가, 기지존여성들의 증언은 위와 같은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민족 모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동일이 되면 이 여성들(기지존여성)들이 해피를 보냈느냐, 때문에 없어졌느냐입니다. 반미적인 초점을 맞춘 (남자)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도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지존여성들이 '매춘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존여성과 국내 매춘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팔리던 사람들이 미군기지연환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지가 없어진 대신 더 큰 할라파일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도 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군이 침수한다고 이 여성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요. 70년대 미군 침수한다 해도 기지존여성들이 발인 것도 당장에 이 여성들은 미군이 침수하면 생존의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기지존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매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기지존여성운동가까지 인터뷰에서...

그녀(김연희)는 반미 주장에 기지존여성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흥분한다. '미군은 나쁘고 할라파이는 불쌍하다' 그러한 단적으로 시각으로 미군 범죄를 보면 논리적으로 미군을 가져온다. — 공녀로, 대이신(피해), 맞지, 아이로, 피나로 여자들을 이면에게 버리는 동안 조선의 사대부들은 민방에서 처분을 거느리고 하녀를 데리러 갔었는데 자선들은 군대가기 전에 학지 편다고 사창가로 옮겨가면서 첫날밤 신부 처녀학을 피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열거니, 피춘에 동보신에 국성인 남자들, 팔리고 처제고 여원이고 가리치 않고 집합하는 그들의 정취... 조금 할라파에 처했다고 대국으로 함으로 국제에 춘의 대열에 신 남자들... 기지존을 매대시킨 구조적인 문제에 있지, 케네스 다윈(김연희) 살해당에게 몸을 던지기에 앞서 나는 이 나라 남자들이 언제는 뜨기 바란다?'

7. 방과 허브: 탈매춘전업사업

두레방은 1989년 10월부터 기지존여성들의 탈매춘을 위한 전업사업으로 방 사업을 시작한다. 매춘여성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매춘여성이 매춘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매춘업(賣春業) 자체를 피아시키고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면서

여성들을 강제수용하는 기존의 정책은 탈매춘정책이 아니라 매춘여성 처벌정책이었다. 『음력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 제목은 우리 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매춘업(賣春業)을 음력(陰曆)으로 표현, 도덕적 기준으로 기지존기화하면서 탈매춘을 사회복귀로 보고 있다. 매춘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는 이미 매춘을 지역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 지역은 사회가 아닌 것이다. 매춘 지역을 우리 사회로부터 단절하고 그러한 작업에 봉사하는 사람(여성들)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매춘 지역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도 '사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 여성들은 그런 걸 각오하고 사는 게 아니냐, '저기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지존여성운동가들은 탈매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비판한다. 두레방은 방 프로그램에 당시 40대 후반의 기지존여성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이후 현장여성 3명을 더 고용했다. 순우리말로 만든 무방부제 방과 과자를 교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우리 사회 최초의 매춘여성 전업(轉業) 프로그램이었다. 상근 실무자들은 공통의사, 상담, 공부방, 놀이방 등 일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 방을 들고 수요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판매장을 개척했다. 주로 교회에 판매했기 때문에 필요일도 없었다. 안정적인 판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매춘여성들이 만든 방이니까 더럽다고 안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두레방은 노동주 정권의 사찰과 상근자들에게 대한 구속위협, 어간수에 불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 표현적인 이유는 방공장이 불합치 불위생적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방 만드는 현장출신 여성에게 금품을 주어 정보를 캐내는 이른바 크마치 활동을 시켰다. 경찰은 '두레방 실무자들이 통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가'를 묻고, '대학생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이 여성은 두레방 상근자들과 신뢰가 생기면서 크마치

7) 안일은, '기지존 생활 23년 김연희 씨의 본래 중언 내가 겪은 양주주, 미군 범죄의 세계', <말> 1993, 12.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이같은 사람은 김형삼 정부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기지촌에서 매춘을 해온 여성들이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지촌 밖에서 이 여성들은 사회적 성원권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기지촌여성운동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다른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이 남자들에게 구타당할 때 아무리 기지촌여성단체의 공간이 좁아도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의 센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1998년 여름 경기도 북부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도 이 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15명 공간의 생활터 사무실에서 20명이 함께 지냈다. 매춘여성이 탈매춘하는 데 어려움은 빗과 모주로부터 물갈복, 폭력, 사회적 낙인, 경제적 자립기반 없음, 건강 문제 등이다. 혼혈 아들이 있을 때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혼이나 전직 등으로 탈매춘에 성공했을 경우라도 기지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과거의 '흔남'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국내 매춘여성들의 공포라면,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이 기지촌에 있었다는 것, 자신의 매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 한다. '기지촌' 자체가 너무나 큰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매춘 이후에도 늘 꼬라꼬라하게 자내게 된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남자와 결혼생활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비록 많은 수의 한창 여성들을 고용하지는 못했지만 두레방의 전업사업은 매춘여성정책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의 감시와 압박까지 받아가면서 민간 여성운동단체가 매춘여성 전업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1993년 경기도여자가슬학원의 평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이제까지 국가의 매춘여성정책은 강제수용, 처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두레방의 팻 프로그램은 매춘여성들에게 대안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탈매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어느 기지촌여성운동가의 표현대로 '만일 10년을 매춘했다면 그 경험을 극복하는 데에는 30년이 걸릴 정도'로 매춘 특히 기

지촌매춘은 극단적으로 소외된 노동이다. 그 만큼 탈매춘의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팻 프로그램은 최초의 전업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매춘여성운동과 국가의 매춘정책에 훌륭한 모델을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매춘여성에 대한 낙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단체의 전업사업은 상징적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전업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여성운동의 힘만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두레방은 의정부에 이어 1990년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무실을 내고 두 곳을 운영했으나 93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두천 두레방은 폐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레방의 활동 주체의 무 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여성 출신과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갈등을 빚게 된다. 이는 운동 노선상의 갈등을 포함하여 지도력 부재, 개별 활동가들의 경험과 개성, 사업 방식, 정서적 차이 때문이다. 크지 않은 조직에서 개인의 문제는 종종 조직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실무자들은 더 이상 두레방에서 기지촌여성을 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3년 12월부터 새로운 기지촌여성운동체 '새움터'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새움터는 두레방 활동가 중의 말의 이름인 '새움'이를 딴 것인데, '새움(새하)어 듣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새움터는 동두천에 사무실을 두고 몇 가지 운영원칙을 정했다. 기존의 일부 여성운동조직처럼 명명가나 소위 '어른'을 이름만 빌려대므로 하지 않는다. 실제 일하는 활동가를 대표로 두어 일하는 사람과 이름내는(?)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또 운영비를 확실히 내고 한창 여성운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일부 단체처럼 운영위원이 사업의 자원자이기보다는 실무자들의 업무만 가늠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당시 29세의 김현선을 대표로 하고, 참사당 센터, 두레방, 여성외전화 등 일선에서 일했던 젊은 활동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새움터는 1996년 가을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약 15명 정도의 가정집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밤 보육과 전업 프로그램인 허브(herb) 사업이다. 다른 취업여성들과 달리 기지촌 여성들은 주로 밤에 일하기 때문에 자녀주로 혼혈아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아이를 맡릴데 데리고 가거나, 문을 잠가놓고 가두거나, 아이를 옆에 재워두고 혹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매춘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밤 보육 프로그램은 기지촌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으나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잠시 운영을 멈춘 상태이다. 상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움터 상근자들은 급여는 월 20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복불이 많아서 새움터 근무를 하면서 서울과 동두천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와 알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밤 보육을 지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한계를 가져왔다.

새움터는 1998년 '시민운동지원기금'(300만 원)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탈매춘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금 300만 원을 받아 98년 9월 26일 동두천에 허브 가공 가게를 열고 현장출신 여성 1명을 고용하였다. 이 가게는 지역에서 '여성센터'라고 하는데 허브 화분, 종이꽃, 할기나는 주머니 등을 직접 만들어 팔고 전시한다. 이후 '살얼국목국한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로부터 '기지촌 지역 살얼이성 다시 서기 일 운동회'라는 프로젝트로 기금 61,462,500 원을 지원 받아 현장 여성 10명(상근 5명, 반상근 5명)을 고용하였다. 물론 위의 지원금은 새움터 활동가들의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브 가게를 지속적으로 꾸려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러나 어쨌든 새움터의 전업 프로그램이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지원 액수 1억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몇 년 전 정부로부터 사활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기지촌여성운동단체를 '반미 단체'보다는 '불우여성 복지시설'로 인식하고 지원금을 주거나, 여성특별위원회의 담

당사무관이 '수해 피해는 없었느냐'고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 정부나 학계는 기지촌여성,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전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여성운동의 성과를 배우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시적인 지원을 지급이 아니라 매춘여성에 대한 정책 자체가 기존의 처벌 위주에서 전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지촌여성운동에서 해왔던 전업사업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서울에 비해 정편이 따랐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으며, 기지촌여성운동단체는 여전히 지역 읍자주로 모주들과 긴장 관계에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가 인정한 단체라는 이미지는 지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을 원할하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새움터는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담은 기록영화 <이방의 여인들>(감독 박제정·J.T.다카PI/1993년 제작, 60분)과 <캠프 이리랑>(감독: 이윤경·다이아나 리/1993년 제작 한일, 23분)을 제작하는 데 같이 참여했고 현재 한국 상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방의 여인들>은 1996년 미국 공영 TV PBS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 1996년 제1회 서울인권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캠프 이리랑>은 1993년 카가넷 미드 다라멘타리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새움터는 흑인 혼혈 여성아미 시인 이영철의 시집 '나는 미보가 좋다'(개마서원, 1997)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새움터는 기지촌여성들의 삶의 기록과 활동 내역을 자료화하고 출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레방으로서는 그간 중심이 되어 일해왔던 젊은 활동가들이 그만두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합을 통해 확보되었던 자선 활동가와 학생운동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각종 활동 프로그램서 노하수가 활동가의 이동과 함께 모두 새움터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레방은 문혜림, 이영혜 원장에 이어 유복남의 언니 유영남이 수고하고 있다.

8.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송중순 사건

1992년은 송중순 사건과 윤금이 사건이 연이어 타지면서 기지촌여성 운동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해이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탈기하고, 존재의 혁명성이 보장되는 미국으로 (미국과 결혼하여) 가는 것은 많은 기지촌여성들의 꿈이지,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그러나 매춘여성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차별이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국제결혼한 기지촌여성들의 삶에서 그대로 존재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기지촌여성이 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게다가 미군이었던 남편이 아약중독이거나 생활무능력자, 구타자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연결망이 전혀 없는 아내의 약점을 잘 아는 미국인 남편들의 학대와 매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갈증은 다시 여성들을 매춘으로 몰아넣는다.¹⁰ 대부분 기지촌여성의 국제결혼은 이혼으로 결말을 맺고 미국에서 이혼당한 한국여성들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송중순 사건은 기지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송중순은 어려서 부모가 잇달아 사망하자, 오빠의 생계를 맡아주고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 기지촌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군과 결혼하여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영국군은 아이만 데리고 돌아갔다. 그후 광복 기지촌에서 만난 미군을 따라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미군과는 미국에 온 지 2년만에 이혼당했다. 이후 다른 미국인과 결혼하여 보세, 엑스더라는 이름의 두 남매를 낳았는데, 미국의 사회제도와 영어를 몰라서 아들을 몇 번 경향을 쫓던 그녀는 아이를 집에서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1987년 남편의 구타와 가난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10 <국민일보> "NYT지 보도, 미국 안아사출소 한국(韓人)여성고용 문제정립", 1993. 3. 30, <한국일보>, "한국여성 뉴욕에서 매춘 생활, 상당수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주한미군부인", 1993. 3. 30.

두 아이를 데리고 가솔하여 북부 캐롤라이나의 잭슨빌(Jacksonville)이라는 마을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맡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관방에 아이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소리를 못 들도록 TV를 크게 틀어놓고 출근하곤 했다. 그러기를 두 달여,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한 송중순은 세 살 짜리 아들 모세가 TV가 넘어져 깔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과 보도진이 여관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계경신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질문공세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그녀는, "내가 자식을 죽인 여미입니다. 모두 내 탓이요(Every body)"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한국의 희생적인 어머니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재판정에서 그 말은 '살인에 대한 자백'으로 처리되었다. 아국 땅에서 통역도 없이 3일 동안 속성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북부 캐롤라이나 탈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1990년부터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탈리 시카 뉴욕 시를 중심으로 후원회와 석방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무태방 장림자 문제림과 여금현 복사, 민경숙, 박혜정, 김혜선, 윤춘자 등은 거의 결사적으로 석방운동에 참가하였다.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의 억울함을 알릴 기회를 얻기 위해 전상조사회위원회 수차례 찾아가 상장을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92년 무태방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송중순 씨에게 편지 보내기, 상금모금3천 달러를 모금하여 송금, 주지사에게 편지 보내기, 한국후원회 조직,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언론홍보 등 구명운동을 펴게 된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당시 한창 인기 있었던 TV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¹¹ 그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도중 자신을 학대한 남편에게 "그 분이 저를 때리셨어요"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송중순(한 31세) 92년 12월 31일 오후 2시 수감된 지 6년만에 석방

11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북부의 참소,계엄으로 송중순 여인 아들 살인 사건"(1992년 8. 13 방영).

되었다. 무태 사건 운동을 벌였으나 가석방 조치로 풀려났다. 대책위가 뉴욕 시에 있는 여금현 복사씨가 운영하는 국제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모임 '무지개의 집' 보호 아래 2년 동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죄책감, 불안과 공포, 지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통역판도 없이 진행된 재판은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수없이 많았지만, 송중순 사건은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후 김문일 사건¹² 처리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9. 윤금이를 둘러싼 정치학

1) 처참한 죽음

일반인들도 기지촌여성 문제하면 윤금이를 떠올릴 정도로 윤금이 사건은 '희생자로서 기지촌여성',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서 윤금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 대중화시켰다. 윤금이는 자신의 죽음으로 '주한미군 범죄

피자의 전태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재판 후 거의 최초로 한국의 사회운동세력이 미군 범죄를 문제화·정치화한 사건이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유엔에 제출한 1998년 1월 26일자 '무력 갈등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보고서에서 아이티, 보스니아, 티벳, 로한다 등의 사례와 함께 윤금이 사건을 다루었다.¹³ '무태방'과 '새물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여성인권관련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윤금이 사건을 소개하고 연대를 호소하였다.¹⁴

그러나 윤금이 사건이 기지촌여성 문제, 매춘여성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와 미군 범죄의 문제로 일반화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12) 아래는 보고서의 원문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ase of Yoon Kwon E.(미국 윤금이 사건)

13. Kenneth Markle, a private in the United States Army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battered Yoon Kwon E. to death with a coke bottle and then stuffed it into her vagina, and shoved an umbrella into her anus. In order to eliminate evidence of her murder, he spotted soap powder over her body, lastly he stuffed matches her mouth. (주한미군 제대소 아군 이름은 윤금이를 코카콜라 병으로 구타하여 살해한 후 물리병을 그녀의 질 속에 주사하고 방문에는 후신을 덮어놓았다. 살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의 몸 위에는 세제 가루를 뿌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에 상냥을 꽂아놓았다)

14.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Private Markle to 15 years' imprisonment. Abuses committed by foreign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have raised some important issues. Questions arise as to which courts should try them and whether humanitarian law applies. There is a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this issue in a more systematic manner, especially if there continues to be a need for international peacekeepers. (한국의 대법원은 아군 이름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포함하여 외국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은 그 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각국의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인도주의적인 법칙을 어루가 문제점이다. 특히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좀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15) <동아일보> "아시아주권 미군 성범죄 동경서 청문회 열려", 1994. 3. 14, <조선일보> "아시아주권 미군 성범죄 동경서 청문회 열려", 1994. 3. 14, <한겨레신문> "미군 해외 기지 성범죄 장악", 1994. 3. 25.

10 여금현 복사의 활동은 <한겨레신문> '광로여성 법전 기술 사망으로 알려진다'(1994. 10. 25) 참조.

11) 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이민 간 김문일과 그녀의 두 남매가 1994년 6월 13일 오후 2시 20분경, 미국 콜로라도 주 포트 콜린스 소재 자택에서 화재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의 사인은 생인체적임 난자되어 있었고 3구의 시체는 선형이 남자하여 육소에 치박치 있었으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18년간의 근무 중 보아온 사건현장 중 가장 참혹하다고 표현했다. 집안에서는 병행도구라고 불리는 60센티 미터가 넘는 칼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 에드워드 사르레보스키 공문중사를 범인으로 기록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199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 씨는 진주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영어를 배우면서 서울로인 미군과 결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간 직후 바로 이혼하였고 사르레보스키를 만나 재혼하였다. 사르레보스키는 술과 마약중독자였으나 김 씨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다치고 김 씨에게 고압하는 태도를 자주 썼다고 한다. 정유진·김동일 공역, '우리의 편지를 되찾기 위하여: 주한미군 범죄 자료집'(비간행), 1997. 9-10쪽.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이 사건은 민족민주운동 중심의 사회운동에서 여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와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맺는 관계, 사회운동 내부의 거부장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92년 10월 11일, 자신의 생일 전날 윤금이는 동두천시 보산동 431-50번지 16호 집앞을 세 걸음으로 뛰어와 생방송을 얻었다. 월세 4만 원을 선불로 내고 2명 남짓한, 비슷한 처지의 '살려사' 14명이 함께 사는 '빌립'이었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28일 윤금이는 바로 이 집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1966년 전북 순창에서 3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7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 종계동장에 취직했으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미군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평택의 안정리 기지촌까지 흘러들게 되었다. 기지촌을 전전하다 동두천 보산동으로 온 그녀는 사건 발생 2년 전 동거하던 미군에게 비합당한 후 폭음상태에서 자살제를 복용하고 음주 행위를 부렸다. 그로 인해 미군 살해 음모죄로부터 피면당했고 곧 장사처리중의 허파라들이 하는 장사로서 연인처럼 보이는 데베른 남자에게 밤에 길거리에서 한 송이씩 꽃을 파는 것, 구걸, 허파리로 생계를 이어갔다.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클럽을 술에 취해 전전하다 미군 한 명과 불길한 따라 미 2사단 쪽으로 걸었다. 그는 미 2사단 제20보병연대 3대대 소속의 아들 케네스 리(Markle Kenneth Lee, 1972년 생, 당시 20세) 이 딸이었다. 길 앞에서 두 사람은 미군 제이슨 램버트(21세) 상병과 실랑이를 벌였다. 램버트의 공범 여부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전상규명 의지가 없었고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램버트는 전날 밤 윤금이라 했는데 그날 다른 기지촌 여성과 가격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젯밤 여자'가 다른 미군의 몸에 안긴 것을 보고 식미를 갈아왔다. 새벽 1시 30분 계속 귀찮게 하는 램버트와 한바탕 싸운 마름은 윤금이의 머리를 휘어잡고 발안으로 들어갔다. 마름은 불라멘으로 금이의 이마를 여러 차례 힘껏 후려쳤다. 지정부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발생사실확인서'에는 4회 가격하였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 피가 솟구치고 윤금이의 반항이 멈추자 마름은 방안에 있던 우산을 윤금이의 팔목으로 두서 넣어 직장 안으로 27cm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그녀의 몸에 뿌려진 세제는 '스파코'였다. 알뜰 상대로 피살된 그녀의 손톱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자궁 속에는 태주형 2개가, 질 밖으로는 폴라멘이 1개 박혀 있었다. 사체 부검 때 태주형에서 발견된 자문은 발인검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윤금이의 사인(死因)은 '전두부(前頭部) 열상(熱傷)에 의한 실혈(失血)'로 밝혀졌다. 사망 사건은 28일 새벽 2시로 판정되었고 10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주인 김성출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윤금이의 시신을 가족입회하에 10월 31일 화장하였으며 미 2사단 연대장은 위로금으로 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윤금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고 범인을 검거한 것은 동료 기지촌 여성이었다. 김성출 씨 외에 최초의 발견자는 김순자(가명, 당시 30대 초반) 씨로 윤금이가 사는 '빌립'에 놀러왔다가 경찰들이 몰려와서 사건을 듣고 충성거리는 것을 보고 동두천의 기지촌 여성, 아동들의 집체인 '다미라의 집' 전우실 복사에게 알렸다. 사건 발생 1주일 후에야 이 사실이 '동두천민주시민회'에 알려졌고 '동두천민주시민회'는 두레방으로 연락하였다. 경찰에 접수한 사건신고서에는 신고자가 집주인 김성출 씨로 되어있으나 실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강할'이라는 30대 초반의 기지촌 여성이었다. 자신이 '뱀뱀지 못한' 기지촌 여성이기 때문에 집주인 이름을 빌려 신고한 것이다.

기지촌 여성자치회 '민들레회'의 말단 직책을 모두 감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상서와 합쳐 '○강할'로 불렀다. 그녀는 오랜 기지촌 생활을 통해 대우 여성이 미군에게 죽어도 수사를 하거나 미군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 2사단¹⁴⁾ 앞에서 마름을 기다렸다.

14) 이 글에서 그녀의 살해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15) 주한미군의 주위 부대인 미 2사단은 미군 병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는 부대이다. 미 2사단이 포여는 중령은 주한 Lee by Chaeul, 사망한 장병 Lee by

마름의 편 반아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경비 헌병은 마름을 물어보내고 그녀를 막았다. 덩치가 컸던 그녀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마름의 목살을 잡고 나와 경찰에 넘겼다. 그녀는 전날 윤금이라 마름이 싸우는 것을 직접 보았고 마름이 범인이라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강할은 행방불명되고 만다. 경찰에서 '잡다루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포주와 연결된 당파들이 죽었다는 등 소문은 무성했는데 어쨌든 이후로 동두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는 오랜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연락을 두절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2) 18개월간의 투쟁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은 투쟁 주체들이 '자유한 영원한 감시의 대가'라는 말을 그대로 제정한 기간이었다.¹⁶⁾ 케네스 마름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94년 3월 17일 한국 정부가 마름의 신병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인도 받아 한한 소년교도소에 수감하여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 18개월 동안 싸우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이다.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 공동대책)는 대회 300~1,000명의 방청객을 조직하였다. '살해 미군 구속 처벌과 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사건발생 후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졌고, 사건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 한국 정부, 한국 경찰에 항의 편지 보내기, 전화, 단식 농성, 배상금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두천민주시민회를 중심으로 동두천시 택시기사들이 '미군 승차거부

운동', 상인들이 '미군 손님 안 받기 운동'을 벌였으며 11월 7일 윤금이 공동회 주최로 시민규탄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2,000여 명의 동두천 시민¹⁷⁾이 모인 가운데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지촌 여성, 전일, 혼혈아들 등 가릴 것 없이 참석한 이 시위는 동두천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날이었으며 오후 4시에 시작된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대중적인 호응과 분노가 큰 이유를 너무 참혹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한국 경찰의 비굴한 태도가 주원인이라고 보도하였다. 사건 관찰사였던 최정부경찰서는 피의자신문 조서도 받지 않은 채 마름을 미군범죄수사대(CID)로 인도하였다. 헌법 권리행정절차는 재판 종결 이전까지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 당국의 관할하에 두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 범죄자를 체포하면 한국 경찰이 먼저 피의자신문 조서작성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미군에게 범인의 신병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 경찰은 이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미군에 마름을 넘겨준 것이다.

당시의 신문보도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¹⁸⁾ 특히 1991년 부분적으로나마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외무부와 공역협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으로

17) 1990년도 11월 1일 당시 동두천시의 전체 인구는 71,448명이었다.

18) <국민일보> '피해사 한국여성 잔혹살해 과한 동두천 시민 분노 물결', '벌써 수사 재판권 행사 요구, 경찰조서도 안 받고 미군 측에 넘기자 말라', 1992. 11. 5; <한겨레신문> '미군 범죄 세 수사 못합니까', 1992. 11. 6; '개정 행정협정 발효될 때까지 미군 범죄 수사 미군법사관 관할하에 대한 정부 비판', 1992. 11. 7; '한겨레 논란 피지도 못하고 미군 측에 넘기자', 1992. 11. 7; <국민일보> '살해미군, 범정부속되나 안하냐', 1993. 3. 13; <조선일보> '윤금이 사건대법, 공개재판 요구', 1993. 2. 13; <한겨레신문> '법외 잔혹성 미주 적성 경찰, 공개재판, 민족 자존심 걸었다 공청회관 촉구', 1993. 2. 17; <중앙일보> '잔혹 범죄 증거 확보가 열쇠', 1993. 3. 23; <국민일보> '마름 빌려 오는 대법원선고 행정협정 '한미' 수감', 1994. 4. 29; <동아일보> '한국에 신병 넘겨주지 않자 미군 이렇 미 대법에 청원, 재판관청에서 생명회복 노린다', 1994. 5. 13.

Chaeul, 살인은 자살(Chaeul by Profusion)이다.

19) 사건의 자세한 전개과정은 정유진, 조계학 공역,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 사건 자료집'(미간행, 1994)을 참조.

로 한국 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해 조동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미군의 눈치를 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였다는 것이다. 사건발생에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18개월 동안 핵심적인 쟁점은 '공정한 수사'였고 이는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제3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갈라놓는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이같은 사태는 1993년 7월 1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절정에 달했는데, 윤금이 사건과 미국의 팔계방 압력이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났다.¹⁹⁾ 그러나 윤금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기지촌여성들이기슁, 장운경, 차혜선, 허주연, 정종자, 전지나, 박순녀, 황진삼, 신자금 씨 등) 미군에 의해 강간, 살해되었다.²⁰⁾

3) 윤금이, 양공주에서 민족의 상징으로

윤금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반미 운동으로서의 민족운동이 여성운동을 압도하여 여성 문제를 비가시화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지촌여성운동의 성과를 강조하는 시각이다. 즉 이제까지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의 성과로 인해 윤금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기존의 추상적인 반미운동을 '현장'으로 끌어내렸고, 남성 반미운동가들을 미군의 주권으로 가장 고통받는 구체적인 인생들의-기지촌여성-살해 직면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가들은 일반시민과 재야운동가들에게 기지촌여성운동과 기지촌 여성의 존재를 알렸고, 재야운동가들이 기지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 또한 윤금이 투쟁 때 학생들이 갑자기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기항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기지촌여성은

19) <한겨레신문>(1993, 7, 11), <중앙일보>(1993, 7, 10).

20) 이 중 박순녀, 신자금 씨의 경우는 법원이 미군인지 한국 남성인지 밝혀지지 않은 미해결 사건이다.

들이 학생운동을 견인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윤금이 사건은 기지촌여성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군 범죄, 민족 자존심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윤금이 사건에 참여한 운동주체들이 강조한 것은 예술평론 인권유린 문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중요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미군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의미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기지촌여성의 존재와 그들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간주되어 왔는가 아니라, 해당 이후 발생한 미군 범죄가 약 16만여 건이었다는 점,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1차 재판권 행사율이 0.7%에 불과(필리핀은 21%, 일본 32%, NATO는 52%)했다는 점이었다. 즉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결국 윤금이 투쟁은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미군기지 문제를 주권이나 영토침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그 안에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비가시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은 민족의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Robert, 1989). 기본적으로 기지촌은 성차별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공간이다. 군대와 기지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한 성의 정치가 필수적이다. 기지촌에 우연히 매대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매대춘 자체가 기지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에게 기지촌매대춘은 민족주권의 상실을 상징한다. 외국군에게 몸을 파는 여성들의 존재는, 그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지켜야 할 재산으로 간주하는 남성들의 경제성에 상처를 준다.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기지촌 문제를 매대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기지촌 매대춘의 가부장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다. 기지촌매대춘여성의 문제가 윤금이 사건에서는 '기지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매대춘의 인권유린 현실이 조명되거나, 이 사건이 여성인

권운동으로 인식될 여지는 매우 적었다. '화대'지불이라는 명목으로 기지촌여성들이 '남성 손님', 모주, 지역 정배, 경찰, 클럽 주인 등 한국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강간과 폭력은 전혀 문제화되지 않았다.

(절대) 여성운동을 할바가 아니라 솔직히 이 사건을 여성운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민족 문제거나 그나마 그렇게 대우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운동단체 일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 사건이 여성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질'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리하여 민족 문제라는 말이고), 그렇게 그것이 구체화된 '현상'이 윤금이를 통해 나타난 거죠. 거시적인 문제가 미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성운동가들라고 일한 것은 처음인데 빠른 게 많아요. 나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불쌍거든요. 당시 '윤금이 공대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재야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뷰에서,

민족 문제가 '본질'이고 여성 문제는 그 본질이 외화되는 형태일 뿐이라는 생각,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 활동가들의 사고방식은 당시 윤금이 사건에 참가했던 거의 모든 활동가들의 의식이었다. 몇몇 여성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성운동이 언제나 전체 운동의 부분 운동으로 취급되는 분단국가에서, 민족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자신의 정치학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우리는 이 사건 실무자를 무뎌 때 재야나 학생운동 대를 무로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앉았는지 우리 사무실로 먼저 찾아 왔더라구. 한아디로 '전수' 갔었다 이거지. 나는 경찰청 학생운동실인 남자에게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 꽤 일잖아. 아침에 늦게 나오면서 여러 형들이 간 거. 그런데 재대들이 실에 사람들이 다했고 '명박'이 되기 때문에, 21년 동안 전대할(1992년까지 전대할, 1993년부터 현충원-필자 주)에서 동원은 다했으니까, 일주일도 될 거고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 없으면 불가능이지. 우리(여성운동가)는 (동원에) 많이 안지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 나라 여자가 이렇게 당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윤금이 공대위'에 관련된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청년학생의 경우 반미 투쟁의 촉발점으로(그것도 참여학생과중심, 총학생회는 1992년 말 대통령 선거투쟁에 주력), 종교계는 인권, 민족주권의 문제로, 시민운동세력은 반미, 민족주권의 문제로 여성제는 여성인권, 성폭력죄 문제로 바라보았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전인한 살해에 대한 분노였다. 한편 공무원, 경찰, 보수적인 일부 시민들은 '양공주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꽤 이리 시끄럽냐. 화같은 여자 죽음으로 편이 관계에 굶어 가게 할 수 없다. 그런 여자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사는 것 아니냐. 창피한 일임으로 매명(명)하는 할 편다'는 반응을 보였다.²¹⁾

사회운동권의 민족주의의 시각과 '여자 하나 때문에 우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내용상으로는 상반되지만, 여성이 이 사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논리이다. 그럴수록 윤금이는 '순결한 희생자'로 자리매김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한 기지촌여성운동가는 매우 분개하면서, '그때까지 기지촌여성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사람들(재야운동가)과 일반시민이 평소 양공주라고 천시하던 기지촌여성을 민족의 딸이라고 사슴없이 호명하는 데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지촌여성은 민족과는 상관없는, 도저히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이 글의 제목대로 기지촌여성은 '양기'에게 살해당해야만, 죽어야만 비로소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있었다. 기지촌여성을 살아서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부정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부정된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민족주권의 상실로 상징화하려는 세력에 의해 성전자는 반대로 민족의 정수(精髓, essence)가 되었다. 죽어야만 사는 여성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대국 ○○ 시민여러분! 우리가 많이 차분하게 살게되었습니다. 법원은 미군

21) '여성과인권연구회'(대표 김은실, 김성배, 김한미)의 여성인권 세미나에서 정유진씨 발표문('미군 범죄와 여성')에서 발췌(1994, 3, 13).

별사합니다. ○○대학총학생회연합,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승인함 (제출).

우리의 말, 글씨는 이렇게 차갑게 죽어있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승인함.

누이의 주검이 민족의 가슴에 떨어져 간 현과 분노의 여정은 ... 음금이 누이의 한이 너무도 깊은 탓이다. — 30년 전 우리 누이들이 세상에 던진 당찬 수모를 잊을 수 없듯이 음금이 누이를 이대로 눈감게 할 수는 없다. ○○대 승인함.

음금이에 대한 '누이, 딸'이라는 호명은 이 사진의 주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재는 물론 때문에 내국인을 받는 기지촌유종업소(클럽)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클럽 출입문에는 '내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다.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내국인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국적을 할애(割愛)당한' 여성들이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사면이 하나였던 기지촌여성 음금이는 갑자기 순결한 딸, 강대국에 압박당하는 '조국의 큰 산딸', 우리 민족의 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재판에서 한국 당국이 '중정상'의 갖대들 '민족의 자존상'과 '국가의 자주권'에 맞추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복수를 다짐하는 민족 ○○대 학생장 박두태 ○○대 승인함(제출).

음금이에 강국에게 그들은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조국의 자존에는 미국 의 문화 불타병이 깊숙이 뒹굴고 조국의 버리는 — 시퍼렇게 핏물이 들어 있으며 —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의 큰 산딸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최후전 세대가 무찌져 있습니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승인함.

피해자 음금이의 사진은 너무도 클찍혔는데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공대위 내부에서 대립하였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 사건은 말로 설명해서는 곤란할 수 없으며,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꼭 사진이 필요하다.' 이철규(1989

년 조선대생 남치고문지사 사건에도 사진이 없었으면 안 될 싸움이였다'는 의견이었다.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은 '음가족도 살아 있는데 곤란하다. 그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너무 클찍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공개 안 해도 사안이 워낙 심각해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다. 결국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으나, 공개하지는 입장 안에서 고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까봐 우려했다. 남성운동가들에게 음금이의 사진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여성에 대한 욕, 살해당한 몸은 민족의 상처, 수치였기 때문이다. 자국 여성에 대한 외국 군대의 강간과 테러들은 남성의 민족주의적 동기를 부추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지촌여성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되어야 했다.

음금이 사건에서 여성은 주제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음금이 투쟁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실질적인 주제, 적극적인 참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제로 사고되기보다는 '피해자'로 간주되었다. 어떤 공동체가 외부의 침략에 노출되었을 때, 공동체 내부의 여성에 대한 압축적 감정들이 있다. 그것은 ① 여성은 공동체나 민족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며, ② 전체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수단이며, ③ 공동체의 미래 세대의 재생산자이고, ④ 억압적인 외부 통치자에 의한 폭행과 착취에 상처받기 쉬운 구성원이며, ⑤ 외부 세력에 흡수, 동화(同化)되기 쉬운 집단이라는 것이다(Enloe, 1989). 이같은 생각은 필연적으로 여성이 운동의 주제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운동의 대상인 여성은 운동 주제의 외주(外周)로 통제되어야 했다. 남성은 민족의 주체이지만 여성은 민족의 성원이 아니라, 단지 민족수난을 상징하는 표식이다. 여성이 특정 집단의 성원이 아니라 그 집단의 재산,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일들은 주변에 무수하다. 정신대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의 일부 남성들의 "우리도 당했으니 이제 일본여자들을 강간해야 한다"는 반응이나 음금이 3주기 추모제 때 모 대학 교정에 걸렸던 공

대카드 "주변이군 여러분, 범죄는 모국에서"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침해당한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간의 폭력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그 개인이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라 다르다. 남성과 남성 간의 폭력은 잘못된 무장이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은 언제나 성적인(sexual) 문제가 되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어쨌든 개인의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단적 폭력은 능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복자, 침략자는 남성성을 과시하여 영웅이 되고 그가 속한 집단의 자부심이 된다. 그러한 폭력은 '사람에 의한' 폭력이라기보다 집단에 의한 폭력으로 인식되고 책임은 분산되거나 없어진다. 무라에 의한 폭력은 익명성을 띠기 때문이다. 개인도 이기적이지만 집단은 더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기심보다 더 쉽게 합리화된다. 어느 사회에나 집단을 대표하는 논리는 언제나 남성중심적이다. 국가나 민족집단 내부의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은 드러나지 않고, 여성의 권리는 남성중심적으로 개념화한 '전제' 국가 억압(壓制)이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에게 모랄, 전유(專有)된다.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피해자와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채 여성인권집회가 집단간의 힘겨움으로 인식될 때 여성은 이중의 피해자가 된다. 인권은 사람개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녀가 속한 집단의 명예나 도덕에 관련된다면 피해자는 집단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 또 집단간의 보복에서 여성은 언제나 일차적인 희생자가 되기 쉽다. 여성을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집단의 권력 거를 대결하는 일종의 교환물, 재산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현재 보스니아, 보르나, 동티모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Van Boven, 1998).

이같은 관점에서 여성 문제는 언제나 민족모순으로 환원되고 우리 사회 내부의 성차별과 성폭력은 문제화되기 힘들다. 이 문제를 대안여성

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 운동에 참가한 가부장적인 남성들에게 자기 본질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음금이 공대위'보다 학생운동권에서 일했던 유인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4) 음금이 투쟁의 성별 분업

당시 음금이 공대위를 구성한 단체들은 모두 50여 개였고 인가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3개 정당의 여성위원회가 결합하였다. 이들은 크게 동두천시 대학위원회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단체로 나눌 수 있다. 여성단체는 총 23단체정당까지 합하면 26개로 전체 구성의 50%를 남겼다. 사무실은 종로 3가에 있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두었고 초기 공대위 실무자는 거의 여성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자영 간사, 한국여성외전회 남춘지 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성폭특) 박재현 간사였다. 당시 여연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던 중이어서 성폭특 간사를 실무자로 파견하였다. 여연 측 실무자는 1차 공문이 끝나면 서 공대위가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로 전환하자 참가단체에서

2) 가톨릭여성복지위원회, 가톨릭여성신학연구소, 메리노수녀회여성분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한국합작운동위원회, 인권위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울연), 여성교회, 이화여대민주운동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여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여성위원회, 인권위원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민주당여성대책위원회, 민주당여성특별위원회, 통일국민당여성위원회, 동두천대학위원회(동두천민주시연회), 동두천시대학생회, 전교총동맹추진위원회, 민족노동자사랑방, 전국학생노동쟁취본부(노동쟁취본부), 한겨레신문동맹추진지국본부노조, 동두천평안동맹본부, 민주연합정당노동자위원회의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북부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거창여성회, 광주여성외전회, 가톨릭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외전회, 장래후반지운회 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외전회, 한소리화두배임, 다비다비, 당지공동체, 향유신교회).

발표하였다.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실무진에 재야·학생운동세력으로 전국연합 최희집 부장, 여대협 대표로 당시 서울대 총여학생회장 이경희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장 이승아, 전대협 투쟁국장 김대오(가명), 서울연 반이특위장 조재학이 결합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윤금이 투쟁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최초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여성인권 문제로 조명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처음 이 사건이 두레방에 알려지고 두레방은 이를 한소리화배운동 활동가들의 모임에 알렸다. 한소리화에 참가하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당시 같은 전통(한국기독교연합회)에 있던 여성운동단체들을 모아 첫 모임을 가졌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정치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NCC여성위원회).

당시는 여성운동단체조차 매춘여성 문제, 더구나 기지촌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에 “매춘 문제를 들고다니노 편잡을까”, “혹시 그 여자(윤금)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니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등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할배와 대중성, 탄압에 대한 의정과 회의가 많았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매춘운동은 주변적이어서 처음에 어느 정도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운동 내의 갈등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이었다. 이는 여성운동, 매춘여성운동의 밀착한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정당화되었고 운동이 대중화,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학술훈을 합리화했다. 왜 두레방이 공대위 활동에서 주도적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당시 두레방 상근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그런 회에서는 어른이 가서 좀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우리는 그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그런 연대회의 같은 데 나가서 일하기보다 현장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서면 속죄한다는 그런 감화관념도 강했고 —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윤금이 공대의 활동으로 이후 두레방 일을 3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 때 일로 과로로 쓰러졌거든요. 아침에 두레방 가서 밥하고 땀 주운 받고 인 나들(기지촌여성)하고 매개(상임)하고 오후에 동무원에서 서울까지 내려와서 (공대위)사람들이랑 회의를 하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해야 하나?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서고 에스 톱 타고 경찰과 협상하고, 헌법(헌법통제)하고 그런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물론 그 사람들이 여성화하는 않았지만 어차피 윤금이 일이 여성화시킨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미군)병의 피해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 —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없으면 힘든 투쟁이었기 때문에 —. 남자들은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없고 그런 일만 하면 되니까, (학생운동가 같은 거요) 일종의 그렇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편지 공대위 받은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했고, 여대협에서 학생들이 오긴 했는데 남자들이 꼭잡았어요.

윤금이 사건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기지촌여성 살인사건이 나서 우리가 가면 경찰서에서 ‘이 고문 아가씨들이 왜 이러시냐’,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지지, 이런 형편 때는 올 곳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줘요. 농담 따먹거나 할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서면 이승화가 인화니까요. 사건이 불탄단 말이예요. 현재 기지촌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운동은 여성들이 하고 그것을 사건으로 사회문제화하는 일은 남성들이 해야 한다는 성별 분업논리는 노동환경, 가족, 지식생산 현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에도 있었다. 여성운동가가 외부회화나 연대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임금노동에서 진출한 기존 취업여성처럼 이중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협소한 매춘여성 운동의 입지와 기지촌운동의 밀착한 환경 속에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여성운동가 스스로 찾아라지하는 일에 익숙하고 제도자가 되거나 ‘나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도 문제였

2) 남성 지식인은 전체 문제만 연구해도 되지만, 여성 지식인은 여성 문제로 연구하고 전체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과 여성 의 이중무역을 말한다. 조순경(1992) 참조.

다. ‘현장’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그것이 정치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남자들의 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윤금이 공대위 활동에서 빠지게 되었다.

사실, 윤금이 사건에 대한 당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관심은 ‘매춘여성’의 현상을 옹호하거나, 기지촌여성의 현실을 알려지’에 있지 않았다. 당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어찌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처럼 이 사건이 묻혀버리는 것이었다. 기지촌여성들이 당하는 폭력과 죽음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은, 이후에도 계속 미군들에게 살인 면허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사건을 드러내는 것 자체, 반프시 미군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투쟁 목표였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나 매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힘은 너무 약했고, 윤금이 운동에 남성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제할 수 없었다.

윤금이 투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교회운동세력이다. 당시 교회운동세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은 윤금이 유가족이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중요한 대의 협상력을 발휘했다. 1993년 8월 미국 정부는 윤금이 씨 유족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 자체는 미군 범죄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교회운동세력은 ‘과격화’ 재야, 학생운동에 대한 압력의 발파력이 역할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김경남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윤영애 총무가 특히 세를 썼다. 언론 중에서도 기독교계인 <국민일보>가 가장 많은 기면을 할애했다. 윤금이 사건을 기사화하였다.

윤금이가 죽은 지 1주기가 되는 1993년 10월 26일, 이자열, 조재학 등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회계, 재야지도자의 주도로, ‘윤금이 공대위’는 미군 범죄에 대처할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로 전환하게 된다.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지촌여성운동 출신의 여성 실무자와 학생

운동 출신의 남성 실무자가 같이 일하게 되었다. 미군기지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운동본부’ 활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운동본부’ 산하에 여성인권위원회를 두는 문제와 사업의 방향을 미군기지 반란, 한미행방 개정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된다. 여성에 대한 미군의 폭력을 둘러싼 성별차(性別差)인 갈등은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군기지에서조차 똑같이 나타났다.

오키나와 현은 일본 전국토의 0.6%밖에 안되지만 일본 내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1993년 3명의 미군이 오키나와 소녀를 강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분노하자, 남성들은 ‘이 사건을 여성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의 문제’라고 이유화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이 사건은 여성인권 문제인 동시에 안보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들에게는 정치의 문제나, 여성인권의 문제나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여성 문제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다케시마 사요코, 1998).

10. 기지촌여성운동의 미래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대부분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거리가 소위 민족해방계열(NLI)의 학생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족해방 계열이 반미와 분단 문제를 주요 이슈로 했기 때문에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이다. 반미운동을 하려고, 학생운동관련으로 수배생활 중에 있는 두레방 회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성운동을 ‘현장’에서 가장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보다 더 최악인 여성들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등 기지촌여성운동에 진입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대학 재학중

정형화된 기법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의 가장 전진기지'인 기지촌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반미운동이 남성중심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지촌여성운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1~2명을 빼고 대부분 현장에서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나의 인권과 그 여성들의 인권이 대립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 내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럴 모두 알아야 하고... ○○언니가 계속 버티는 이유는 그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예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2년 근무 현장 활동가.

맨 처음 처음은 대단했지만 너무 피곤하고 누구랑 피곤할 사람도 없고 (사회로 부딪고 고립되었다는 생각... 같이 자라는 사람과 문화가 없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같이 ○○동이었을 때 동무들까지 뺀다고 6시간 걸렸어요. 매일같이요. 힘같은 자제로 다니려고... 1년 5개월 근무 활동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운동인가 싶었어요. 신문 볼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하는 게 설거지, 식사 준비, 공동 식사당당이었던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운동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1~2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운동의 본질이 어떤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1년 6개월 근무 활동가.

학생운동 출신이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모델은 '일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역동성을 보이는 변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사회운동론이 정리한 보편적인 사회운동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지촌에 들어와서 기지촌여성의 삶은 다른 사회운동과 같은 경로를 밟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상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 아니 일상을 전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운동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기지촌여성운동

은 기존 사회운동의 틀에서 보았을 때는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운동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운동처럼 운동을 계속하여 조직이 확대되고 '명장가'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급여와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 장시간 노동, 자기 중전이 안 되는 소도전과 파로, 무보상, 일상노동의 지겨움은 '나(활동가)'와 '언니들'(기지촌여성)의 안전이 대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한다.

다른 여성운동은 운동의 주체가 대상이 일치한다. 나를 위한 여성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은 아무리 누구를 위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기지촌 활동가가 기지촌여성여성을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대해 현재 9년에 기지촌 현장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일반적인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방법, 목표, 미션트를 가지고 기지촌여성운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종교사업 같다고 해요. 우리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이미지-정확 모나타되고 이슈 화이랄 하는 것-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기지촌여성들을 '도아문다'와 '같이 한다' 사이에 활동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들과 신뢰를 맺는 것 자체가 성과라기가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지촌은 변하고 있다. 기지촌매춘과 일반 매춘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생계형 매춘에서 전파발, 맞사지 걸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을 감행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미군과 즐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제발로' 기지촌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지속적인 군과 밀파매매, 탈러와 학력으로 인해 88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해외기지에 머글을 배치하고 가족과 불만하여 거주하게 하는 등 미군 주둔한

24) <경향신문> '유한 미군 클럽 매춘업 종결 술집 애국 분위기 만드', 1999. 2. 10; <조선일보> '동두천 기지촌에서 무도지 매춘업', 1999. 7. 28; <한겨레신문> '조지타운 매춘업' 지속 상환 할당금 그날만 살 노정', '소셜 부대 '동두천' 매춘업기 종결 없어', 1999. 8. 20.

경 자체가 변모했다.

최근 기지촌의 가장 큰 변화는 중남아 동지에서 온 외국 매춘여성들의 등장이다.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거나 '한국특수관광업협회' 주도로 중남아 동지에서 여성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여성보다 대체로 더 젊고(어리고) 영어가 유창하여 무엇보다 통제가 쉽다.

1998년 2월 초 군산 아메리카 타운의 한국 기지촌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군산대학교 학생과 택시 기사들에게 직접 배포하면서 집단적인 '태도'를 밝혔다.

학생여러분! 이 글을 쓴 우리는 바로 학생들 되면서 상주하여 외국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편을 쓴 이유는 한국인으로서는 분노를 느끼는 일이 있어 학생여러분이 도움을 주실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업주들은 알뜰한 상술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한 문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여성에게 선물로 주어 우리 내국여성에게는 선물 아저씨를 받는 편을 제한합니다. (말하를 영어) 애국하겠다는 우리에게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지화를 만들어주는 업주들의 행태는 애국입니까? 애국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여성들 때문에 애국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탄압사다. 부작합니다.25)

외국인 매춘여성과 경쟁을 벌이면서 '애국'의 차원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이들을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성주의는 이제까지 매춘은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악이라고 반대해왔다. 매춘에 대한 이러한 기본 입장과 매춘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어떠한 연관을 가질까? 이 문제에 관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견해는 앞으로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중요한 전말을 시사한다.

저는 그들이 논리가 옳고 그들을 떠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25) 오연호, '유한 미군 클럽 매춘업 종결 술집 애국 분위기 만드', 1999. 2월호, <한겨레신문> '미군 기지촌여성들의 태도 호소', 1998. 2. 21.

해요. 그들이 생존권을 호소한다는 것과 매춘을 호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들 스스로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매춘 폐지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매춘여성의 자기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우습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할까요? 두려움이랄 새을 타기 해왔던 기지촌여성운동은 현재 기지촌여성운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그룹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토론하고 충돌하기를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후 기지촌여성운동의 전명일 것이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여성운동의 중요한 모델이다.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매춘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 점, 철저하게 현장 여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방식, 전업사업 프로그램 제시, 군대와 매춘 문제 등 우리 사회 운동의 소중할 이슈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은 이들이 실제 어둠한 성과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평가되거나 드러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탈매춘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과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의 전문성은 정부, 학계, 다른 매춘운동세력이 그들로부터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은 새로운 세기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절실한 가치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은 이 화두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일지도 모른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 자체의 근절과 함께 군속, 통일, 평화, 반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요구한다. 이제까지 평화는 전통적으로 전쟁 개념과 함께 존재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거나 평화는 전쟁 전후(前後)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평화는 정적(靜的)이고 고정화된 상태로 이미지화되어 왔다. 전쟁이 능동적, 영웅적, 남성적인 이미지라면 평화는 이런 자국적인 것들이 부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난다. 여성주의자들에게 평화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Enloe, 1993).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의 당국적인 목표도 이와 같다.

참고문헌

- 강성철 1988, 『주한미군』, 일송당.
 강영수 1988, 『한국 사회의 매춘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은실 1994,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3집.
 ——— 1996, 『시민 사회와 여성운동』, 한국학술단체협의회 주최 심포지엄 발표문(미간행).
 김현진 1998, 『기지촌 매춘의 분석과 가능한 정책의 대안』,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작문> 14호.
 김현진 외 1997, 『기지촌, 기지촌여성, 혼혈 아들, 실패와 사회』, 미간행.
 다케시마 사요코 1998,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인권』, 제주 4·3 제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미간행).
 동아일보 특별취재단 1990, 『철저 태부 구한 미군』 99년 한국기자상 수상작, 동아일보사.
 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1996, <매춘의 소식> 1호(미간행).
 박지훈·박은봉 1994, 『윤금이 현대판 '정신대'로 자라』, 『인물여성』, 한국권, 대남.
 박종성 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반 보련 1998, 『군사적 통제시 여성의 인권』, 한국여성학회지 외, 『아시아의 여성인권 무역 갈등과 성폭력』, 미간행.
 박재희·장금나 1997, 『관광학부 지정을 통해서 본 국가정책의 여성적합적 성격』, 경기도 동두천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매춘의 소식> 2호,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매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미간행).
 부산민족민주연합 외 1991, 『너희가 몰라나아 우리가 산다』, 힘.
 이마사다 양에 1992, 『한국 근대 공창제도 성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 1989, 『최세의 성 침탈과 매춘』, 미간행.
 인질은 1997, 3, 『기지촌 문제, 한국은 왜 침묵하나』, 르포르타주 제미니즘 여성

- 성대의 정권기, <말>.
 ——— 1993, 『땀땀』, 공간이다어.
 ——— 1996, 『물길 10달이짜리 여자의 인권』, <여성의 눈으로> 7호, 한국여성학회.
 3기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기지촌활동추진위원회 1996, 『3기 기지촌 활동 자료집』, 미간행.
 오연호 1990, 『대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 백산서당.
 ——— 1989, 『식민지의 아들에게』, 백산서당.
 유복남연도 마산, 『기지촌 매춘여성들 문단 조국의 속죄일』.
 유영남 1998, 『이브라함의 하나님, 사탄의 하나님』, 한국기독교교향교회여성회 전국연합회, <여성도회> 104호.
 유은자 1993, 『송중순 씨의 서당과 그를 위해 활동한 대학원생들의 고백』, <한국여성학> 제13호, 한국여성학회.
 유정인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32호.
 윤영애 1996, 『한소리외와 매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함께 가는 교회여성』.
 원미혜 1997, 『한국 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문제와 학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교경 1993, 『전북의 시민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동두천 민주시민회의 심원정찰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이상성 1998, 『20세기의 문명과 어둠』, 한길사.
 ——— 1992, 『미국의 대한민국도 정복』, 한국 정보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이석우 1993,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이현숙 199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3년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장필화·조영 1992,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의 길> 제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전남대·조선대기독교학생대표자협의회 1996, 『기지촌 잠정단 자료집, 너희가 몰라나아 우리가 산다』, 미간행.
 정유진 1998, 『미군 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30주년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연변 제년.
 정유진·조재학 공역 1994,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자료집』, 미간행.

- 정유진 1997, 6, 『오кина와 미군기지 주변은 출산율도 낮다』, 여성, 군국주의, 인권 오кина와 국제회의 정권기, <말>.
 정유진·김동실 공역 1997,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주한미군 범죄 자료집, 미간행.
 조순경 1992, 『여성학의 발전과 한국 사회학의 변화』, <여성학의 길> 제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조순경·김복숙 1993, 『민족민주운동과 거부장제』, 광복 50주년기념논문집 8, 『여성』,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중대책위원회 1993, 『우리들의 글씨』, 미간행.
 장사랑 열타 1994, 『94 솔탄 여름 기지촌 활동 자료집』, 미간행.
 권길부 권 1989, 『최세의 성 침탈과 AIDS』, 『사랑의 불꽃이 그 때국된 성』, 동에.
 필자미상 1998, 『자주적 여성성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충청지역여성신문사 편지자료집(미간행).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7, 『매춘 문제와 여성운동』.
 ——— 1996,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의 자료집』.
 ——— 1996, 매춘과 윤리행위통제지침.
 한국여성개발원 1992, 『한국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열린 희망, 한국 여성 10년사』,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1998, 『수업이 편한 보양된 제이츠』, <민주여성> 활동호 중 <민주여성> 3호.
 한국여성학회지 1983,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홍순희 1998, 『주한미군 기지촌여성들의 '매국'과 '매국'에 관하여』, 미간행, <경향신문> 1998, 8, 11.
 ——— 1993, 2, 10.
 <국민일보> 1992, 11, 3.
 ——— 1993, 2, 13.
 ——— 1994, 4, 29.
 ——— 1995, 5, 10.
 <동아일보> 1994, 5, 14.
 ——— 1994, 5, 3.

- 1993, 2, 10.
 <말> 1993, 12.
 ——— 1997, 5, 6.
 ——— 1998, 3.
 <사상저널> 1999, 1, 7, 『기지촌여성과 허브가 만났을 때』.
 <여성신문> 1998, 12, 23,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6 김현진 서울대 대표』.
 <조선일보> 1993, 2, 13.
 ——— 1998, 7, 28.
 <중앙일보> 1993, 3, 23.
 ——— 1993, 7, 10.
 <한겨레신문> 1992, 11, 6.
 ——— 1992, 11, 7.
 ——— 1993, 2, 17.
 ——— 1993, 7, 11.
 ——— 1994, 8, 31.
 ——— 1995, 10, 23.
 ——— 1998, 2, 21.
 <한국일보> 1993, 5, 30.
 SBS TV 1992, <그것이 알고 싶다>, 『최후의 참수 재야교로 송중순 여인』, 1월 13일 11992, 9, 13 방영.
 <두레방> 1991, 『91 기지촌 활동 자료집 기지촌의 조국』, 미간행.
 <두레방 회지> 1-19호.
 <새올리 회지> 1-16호.
 서울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Camings, Bruce 1997, "Silent But Deadly: Sexual Subordination in The U.S.-Korean Relationship,"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 정유진·유대희 공역(미간행).
 Cho, H. J. 1993, "The Women Question in the Minjok Minju Movement: A Discourse Analysis of A New Women's Movement in 1980's Korea," Hyung Cho & Pil-Wha Chang(eds.), Gender Division of Labor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osen.
 Chomsky, Noam & Edward S. Herman 1973, The Washing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미국대외정책론』, 제1세계 정복을 중심으로, 임재

정 윤갑(1983). 일평서다.

Coomaraswamy, Radhika. 1998. *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Enloe, C. 1989. *Bananas Beaches & Bum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 1993. *The Morning After: Sexual Politics at the End of the Cold War*, Univ. of California Press.

Kim, H. S. 1998. "Yanggongju as an Allegory of the Nation: Images of Working-Class Women in Popular and Radical Texts," Elaine Kim & C. M. Choimed.,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Moon, H. S. Kacharize. 1998. "Feminist Bodies and Gendered Spaces in U.S.-Korea Relations", Elaine Kim & C. M. Choimed.,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Margo, Okazawa-Rey. 1997. "American Children of GI Towns: A Legacy of U. S. Militarism in South Korea", *A/PJ* vol.3 no.1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Scoler, L. A. 1997. "Carnal Knowledge and Imperial Power: Gender, Race and Modernity in Colonial Asia", Laurence & Leanne(ed.), *The Gender/ Sexuality Reader: Culture, History, Political Economy*, Routledge.

Scordernan, Sandra & Brenda Stolzfus, 1993. "Tongpuchun: The Bar System,"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 정유진 유대회 공판미간행).

1

매매춘의 파트너들

는 한가운데 눈에 띄는 도로 표지는 영어로 '아메리칸 타운'을 알려 준다. 아메리칸 타운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다. 1992년 봄, 나는 벌써감지 팔어진 논에서 그곳을 처음 보았다. 나는 언덕 위에서 타운의 한쪽편 풍경을 바라보아야 했다. 달으로 둘러싸인 군 주둔지 주변을 따라 영어로 써져 있는 기계 간판들이 보였다. 그곳은 사람의 마을이라기보다 상업 활동의 요새처럼 보였다. 그곳은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고립된 영토이다. 미국 병사의 군복은 그가 초대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며, 한국인 매춘 여성은 등록증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준다. 군인들과 매춘 여성들은 함께 마시고 춤추고 섹스를 한다. 군인들에게 이것은 휴식이요 오락이지만, 여성들에게 이것은 노동이다.

아메리칸 타운은 남한 내 주요 미군 기지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수많은 기지촌들과 비슷하다. 한국의 어느 장소들과는 달리,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섞여 기지촌의 주민을 구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 모든 비즈니스는 미국 병사들과 그들에게 성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 욕구를 만족시킨다. 군인들이 군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마차 클럽은 맥주를 마시며 건강을 돌고 여자를 고르는 곳으로 기지촌 생활의 중심부이다. 클

업 업주들은 술과 음식 판매, 그리고 여성들의 성 노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이 지역의 식료품가게, 술가게, 구멍가게 등 또한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한" 미용실, 화장품가게, 옷가게 등처럼 바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사정관, 기념품 노점, 그리고 소위 결혼상담소들"이라 일컫는 곳 또한 넘쳐난다. 1970년대 초 이전에는 사설 성병 진료소를 또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내은 불빛, 울며 퍼지는 미국 음악, 담배 연기, 폭음, 어두운 조명과 바, 그리고 풍갈리시를 알리는 서로 다른 인종간 카를, 이것들은 모두 기지촌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아메리칸 타운이 다른 기지촌과 구별되는 것은 물리적 격차— 그곳은 완전히 담으로 막혀 있고, 경호병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와 그곳의 결합된 자취 때문이다. 아메리칸 타운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거기에 살며 일하는 모든 사람과 사업을 관리는 회장과 이사회를 가진 자치 단체이자 일종의 주식회사이다. 자치 본부는 담으로 둘러싸인 우물지 내에 작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타운은 지방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으로 1970년대 초·중반에 건설되었다." 이 자치체는 페니스스 관행을 감독할 뿐 아니라 타운을 기록 배우고 있는 수많은 아파로 건물과 하숙장을 소유하고 관리한다. 바에서 일하는 매춘 여성들은 거기에 살면서 자치 단체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건물은 거주지이자 그들의 매춘 장소로 쓰인다. 아메리칸 타운은 기지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메리칸 타운은 매매춘 위해 그리고 매매춘을 위해 세워진 타운인 것이다."

매춘 여성과 그들의 생활 방식

기지촌 매춘 여성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북권 여성과 동북권이

은, 소위 거리 여자들이 그들이다. 이 책은 동북권 여성들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에 의해 특수 엔터테인먼트로 인가받은 여성들이다. 동북권 여성들은 기지촌 클럽에서 음료를 팔고, 미군과 춤을 추고, 손님을 받는다. 이들은 거리 여자들보다는 좀더 나은 보수를 받는데, 그들은 몸을 팔아도 된다는 공식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손님을 끌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거리 여자들과는 달리 허가증이 무효가 아닌 한 매춘을 이유로 감옥에 연행되지 않는다.

클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앞으로 일하게 될 클럽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지역 성병 진료소에 가서 산부인과 검사와 함께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을 받아야 한다. 건강한 호스티스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 주일에 한 번의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건증에 진료소로부터 건강함이라는 도장도 받아야 한다. 건강함은 성병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클럽 여성은 진료소를 방문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 단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클럽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진료소에서 건강함을 보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클럽 여성은 항상 동북권과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보건사회부는 1960년대 초·중반 이후 이러한 규제들의 공식화와 시행을 감독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 이러한 조치는 기지촌 곳곳에서 매우 모순적으로 시행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 위생병들이 여성들의 성병 검사를 행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도 한국 당국자들의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는 이 기지촌이 매춘 여성들을 계속해서 검사했다.

일단 클럽 여성들의 삶은 지역 미군들의 스케줄과 포주 역할을 하는 클럽 업주/매니저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형적으로 주중에는 "하루(일)을 팔내고(기제) 출입은 확으로 열어져 나오는" 미군들을 맞이

정오부터 퇴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는다. 보통 오후 4시나 5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자정이나 새벽 2시까지 음료를 팔고, 남자와 어울려 춤을 추고, 엑스로 돈을 벌기 위해 손님을 유혹한다. 주말에는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늦게 일이 끝난다. 클럽 업주/매니저는 미군들에게 가능한 더 많은 음료— 남자들을 위한 술과 여성 자신을 위한 '레이디 음료(보통 성병 음료)—를 팔도록 여성에게 요구한다. 레이디 음료는 다른 음료보다 약간더 작은 잔 하나에 약 3달러이다. 이는 미군들이 더 많은 음료를 사도록 함으로써 클럽의 수입을 늘리려는 속셈이다. 관례적으로 여성들은 그들이 판 음료의 수입에서 10~20퍼센트를 받는다." 많은 클럽이 여성들에게 음료 할당액을 부여하는데 단일 한 달에 최소 150잔의 음료를 팔지 못하면 수입에서 자기 몫을 받지 못한다. 어떤 클럽에서는 한 달에 600잔 이상을 판 여성에게 금반지를 주기도 한다. 한 달에 1천 잔 이상을 판다면 그 여성은 특별 보너스"를 받는다. 군인들에게 음료를 강매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도 계속해서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클럽 여성은 하룻밤 동안 20잔 정도의 성병 음료와 위스키를 마신다."

대부분이 음료를 팔기 위해 클럽 여성은 하룻밤에 여러 미군들과 어울리며 계속해서 그들을 배우라고 또 배우말아야 한다. 1990년대 중반 클럽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0달러를 호스티스에게 지불하였다." 그러나 음료를 파는 것은 여성들의 수입원이 되지 못했다. 음료를 팔고 받은 돈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고 게다가 많은 클럽이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 소득을 위해 미군들과 잠을 자야만 했다. 파정부에서는 1980년대 중반 '폴리암(비)'은 20달러였고, '솔타임(시간당)'은 10달러였다." 일반적으로 업주들과 포주들은 80퍼센트를 취했고 매춘 여성에게 전달 소득의 20퍼센트를 주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호스티스 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그리고 미군들과

살을 뒤를 생각할 하지 못한 채 클럽에 들어온다. 클럽 환경이 낯선 여성들에게 초보들이 겪는 입문 과정이 종종 벌어진다. 어떤 여성들은 포주/매니저에게 강간당하기도 하고, 클럽 업주에게 특정 군인과 자도록 명령받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 스스로 바를거리며 미군과 함께 침대로 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경험 있는 매춘 여성에게 피해야 할 남자 유형(예를 들어 폭력적인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얻는다. 복명 은 오산의 미군 클럽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혼란, 걱정,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록 기지촌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 남자들에게 몸을 팔았지만, 기지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녀는 이전에 미국인이자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큰 체구를 다루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 폭인 남자는 더욱 생소했다. 첫 폭인 손님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그의 페니스가 얼마나 곱았는지 "단일 내가 그와 관계한다면 내 피부가 바뀌는 게 아닐까?" 하고 일러하기까지 했다. 미국인과의 첫 성 관계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강요된" 클럽 업주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손님들과의 성 노동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라고 술이나 약물에 취한다."

가끔 여성들이 손님을 고르기도 한다. 하지만 미군들이 특별 여성에 대한 요구를 클럽 업주/매니저에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업주/매니저는 그 여성에게 그 군인과 잠을 자라고 명령한다. 미군은 클럽 여성과 함께 그녀의 방으로 가는데, 그 방은 보통 클럽에 딸려 있거나 가까운 데 있다. 방은 매우 작은 벽돌로 나누어져 있어 한 줄로 즉 늘어선 밀집처럼 보인다. 다른 매춘 여성들도 그러한 방에 살고 있다. 밀집은 보통 클럽 업주의 소유이다. 업주는 누가 드나드는지 감시하기 위해, 엑스 ROOM을 팔기 위해, 그리고 여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업주에 경비원을 세워둔다. 일부 오래된 밀집에서는 방에 잘어다보는 구멍을 만들어서 여성들

이 성을 파는 동안 포수가 감시할 수 있다. 미군과 함께 살아남 굴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보기 행위들은 미군의 자물 회피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미군들은 여성들이 합쳐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미군 여성이 자발하게 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를 쓰곤 한다.

미군 여성들과 미군 관계자들은 클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손님을 구해 오는 것을 지켜봐 왔다. '점프 아이들'에서 김연자 씨는 자신이나 다른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남자들을 유혹했는지 회상한다. 어떤 미군 군복은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미군 여성 때문에 망한다'고 썼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한 육군 대위는 결코 경험 없는 지원병들이 '온 때문에 그 아이들을 착취'하려는 미군 여성들에게 속아 쉽게 상당한 관계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미군 여성들이 가지는 환경에서 신체적·재정적·감정적으로 어떻게 자존하나 하는 것은 특정 클럽 업주/매니저와 그들이 접하는 미군 손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난희가 말하듯이, 어떤 미군들은 친절하고 여가운데,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친절하고 정중한 이들도 있다. 최악의 경우, 1992년 10월에 일어난 손님이 씨의 사건에서처럼 자신을 구타하고 살해하는 미군을 만난다. 케네스 마클(Kenneth Mark)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뒤, 그녀의 사신은 하숙집 주인한테 발견되었다. 그녀는 '빌거먹은 채로 피범벅이 된 몸은 타박상과 멍투성이였는데, 밑저 항아리는 새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게다가 볼라방이 손잡이의 자궁 안에 주어져 있었고, 우산대가 그녀의 직장 안으로 27센티미터까지 박혀 있었다.' 가장 흔히 좋은 경우는 미군이 돈과 다른 필수품들을 제공해 주고, 정상적 돌보아 주며, 마지막으로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다. '꽤' 결혼한 '혼경'은 그런 평론가 중 한 명이다. 그는 '혼경을 클럽에서

배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을 본인이 모아 계속'했다. 나중에 '그는 결혼하기 전 그녀가 미군 여성으로 일할 때 했던 남자와 함께 일했다.'"

나와 아이미 나는 클럽 여성 중 그 누구도 클럽 업주/매니저에 대해 편 좋거나 친절하거나 정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일부는 미 여성들을 구타하고 강간하는 이들에게 학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업주/매니저가 그 여성들의 할당적 착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양은 '업주들은 보통 음모와 섹스로 번 수입에서 여성들의 돈을 돌려 주지 않는 식으로 이익을 취한다'고 말한다. 성 노동의 위치에서 수직 이동한 여성들은 클럽의 매니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갖고 미군 여성들을 대하지는 않는다. 김연자 씨는 군산에서 매달로 일했는데, 자신도 호스티스들에게 몸서 거칠게 대했다고 회상하였다. 마를 위해 돈벌이를 하려고 간소리를 피우며 그녀들을 버림했다. 전직 미군 이자 성병 관리자(그는 성병을 전염시킨 것으로 알려진 미군 여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군대를 도파아 했다)였던 토마스 벨리는 이단들이 '클럽 빚을' 갚지 않은 소녀들을 손보기 위해 '학살한 소년들'을 보내준 뱀이 말 해 주었다."

재무 속박 제제는 착취의 가장 두드러진 방식이다. 여성의 빚은 치료 를 받으려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고, 급한 일을 막으려고, 경찰과 상병 간로소 직원에게 뇌물로 주려고 업주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계속 늘어나 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빚을 진 상태로 새로운 클럽으로 옮겨 일을 시작하 는데, 그 빚은 보통 '소개비'와 선불에서 생겨난 것이다. 전형적으로, 바와 매대춘을 전문으로 하는 (클럽적인) 직업 소개소들은 여성을 클럽에 소개 하면서 클럽 업주에게 수수료를 물린다. 업주는 그 수수료를 고금리로 새 클럽원의 '계산서'로 옮겨 버린다. 박양은 어떤 클럽 업주는 10퍼센트미 이자를 부과한다고 말한다. 종종 여성들은 이전의 다른 클럽 빚을 갚

위해 업주에게 선물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무의 손님은 계속된 다. 또한 업주들은 새 클럽원에게 가구, 스테레오 장비, 옷, 화장품 등 미군 손님들 끌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을 갖추게 하고 이 비용에 이자를 붙여 계산서에 첨부한다. 1988년 '업주는 평균적으로 미군 여성 들의 클럽 빚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할이면 할마다 가능한 많은 미군을 낚으려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저대로 매대춘을 떠날 수도 없다. 난희는 빚에 눌린 상황 을 이렇게 요약했다.

어떤 거지는 클럽에 빚이 없더라도, 그들은 이미 망상이 일어 났다고 여 간다. 만일 정말 아무런 빚도 없다면, 더 나은 다른 클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곳을 떠날 수 없다. 클럽에서 도망 치는 것은 쉽지 않다. 망상적인 여성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클럽에 머물면서 일한다."

가치촌 매대춘에 들어오는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미 심각한 학대와 학대—빈곤, 강간, 연인이나 남편에 의한 반복적인 구타—를 경험한 사 람들이다. 전쟁시 기지를 따라다녔던 이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전쟁 시기를 거치며 살아온 한국인 가치촌 관계자들은 1992년 인터뷰에서 초기 세대 미군 여성들에 대해 '그 당시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매웠거나 못 매웠거나 간에 지독하게 가난했다. 우 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고, 살아 남기 위해 존엄성을 던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그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했다.

낮은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빈곤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들이 가치촌 매대춘에 들어오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였다. 땅 한 켠 없

이, 농사 지어 보더라도 안고 자라는 이야기, 여덟, 아홉이나 되는 형제들 속에서 굶주렸던 이야기, 학교 교육이라곤 몇 년밖에 받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병든 부모를 돌보던 이야기들은 가치촌 여성이라면 누구나 처한 상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여성들 대다수는 1960년대 이후 로를을 타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도시에서는 '정글길' 기차가 만 반이라고 믿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일자리, 특히 자신 과 사물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보수를 받는 일을 구하기란 쉽 지 않았다. 미군의 보고서는 여성들이 가치촌 매대춘에 들어오게 된 요 인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1965년 서울에 살고 있던 18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가운데 60퍼센트가 실업 상태였다고 적고 있다. 여성들이 경공업 에 종사하며 남편의 경제 거족의 곤란으로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여 성이 일자리를 얻는 평등을 가진 건 아니었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이라곤 받지 못한, 아이 말린 중년의 이혼녀였던 '형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 군 매대춘 여성이 되었다. 공장 일은 대개 젊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져서 연가 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인신 매매단이나 포주들에 이끌려 강제로 매대춘에 투입된 다. 인신 매매단과 포주들은 기차역과 버스 정거장을 거문거리다가 일차 라나 말을 얻어 준다거나 학숙을 얻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사물에서 올라 온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강간하고 그들을 성 산업에 팔아 놓거나 미군 업소에 권다. 또 어떤 여성들은 에이프리스, 창고 관리자, 가수, 엔터테이 너와 같은 일자리를 약속하는 가짜 광고에 속아 매대춘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광고들은 '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한 여성은 자신이 가치촌의 바로 할라 풍습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보 라 있는 디제스와 뱀뱀즈를 입어야 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구타당하

고, 미군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했다.' 이것은 억압과 학대의 역사적 정황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한국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소년 네 명을 돌보는 노예로 생각하였고, 양아버지는 그녀를 강간하기까지 했으며, 그 아들들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후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사장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한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다가 갖 태어난 아들과 함께 버려졌다."

거의 모든 미군 여성들이 기지촌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빈곤, 낮은 사회적 지위, 신체적·성적·감정적 학대가 심한 생활을 경험했다. 그들은 이미 '타락한 여성'이었다. 처녀성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연제도 거의 끊어지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이 여성들은 종종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답어놓는다. 그들은 아이 '도마뱀의 꼬리'였다. 김연자 씨는 1950년대 후반 다른 여성들과 달리 고등학교까지 마쳤는데, 그녀는 자신이 기지촌 세계로 들어온 이유로 11살 때 사촌에게 강간당했던 일을 종종 이야기한다. 강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까닭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항상 일을 해야만 했다.

기지촌 생활로 떨어진 여성들은 공식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나이도 어려서 입주와 포주에 학대와 착취에 더욱 취약했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다수의 미군 여성은 초등학교를 거의 마치지 못했다. 1992년 봄 내가 만난 몇 명의 나이가 어린 여성은, 미군 여성으로 일했거나 아담으로 일했던 이들이었는데 모두 문맹이었다. 기지촌에 새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십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으로 연령이 점점 어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보건사회부는 1977년 등록된 3만 6,924명의 미군 여

성 가운데 2만 1,505명이 20~24세이고, 7,669명이 15~19세라고 보고 하였다." 난희는 29세라는 너무 높은 나이에 "이런 종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소녀들이나 젊은 여성을 살당수는 자신들한테 부모/손어른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을 훈련도 시키고 (젊은 이자의) 재정적 압박에서도 자신들을 구해 주는 포주나 입주와 함께 끝자 그대로 기지촌에서 자라났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미군 여성들은 어머니나 큰언니 역할을 하면서 입신을 막고 경찰과의 마찰을 피하여 학대하는 입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여성들의 미숙한 영어 실력은 학대와 굴욕감을 증폭시킨다. 그들은 미군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적 서비스의 거래이러든지 시간을 헛살릴 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느낀다. 난희는 기지촌 클럽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이 (미군인들) 내 이름을 묻는데도 나는 그냥 '네스' 라고 말했다. 그들이 바웃으며 나를 놀리는데 나는 매우 당황했다." 이와 유사하게 영화 '엘프 이리탈'에서 진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녀를 '여리석은' 지도 대하는 미군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표현한다. 만일 어떤 여성이 'ABC'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무례방의 사업 중 하나는 영어 공부를 원하는 클럽 여성에게 기본적인 영어 수업을 제공, 그들이 미국인 손님과 더 원활하게 의사 소통을 하고 또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대부분의 기지촌에는 '자치회'가 있었다. 이들 자치회는 최상의 환경에서 입주, 미군, 지역 당국자들과 관계에서 클럽 미군 여성을 위한 지원 집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대원의 자치회는 장미회, 송단은 꽃별회, 동두천은 민들레회라고 불렀다. 일부 기지촌들은 클럽 호스티

스로 일하기 위해 허가증뿐 아니라 자치회 회원 자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 회원들은 자치회에 월 회비를 내는데(1992년 군산은 한 달에 1천 원). 이것은 작은 회원의 강제 비용이나 병든 회원의 치료비 보조와 같이 긴급 사태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자치회가 회원들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는 그 조직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최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92년 나와 이야기를 나눈 기지촌 주민들은 영향력 있는 회장으로서 1970년대 군산과 송탄의 김연자 씨와 안정희의 이정자 씨를 언급했다. 두 여성 모두 미군 여성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섰으며, 사실 상행 권요소의 착취(농장)에 대항하여 여성들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회가 결코 자율적이었던 적은 없다. 지역 경찰과 정부 당국자들이 자치회 대표를 선정하여 여성들의 활동을 감시하게 했으며, 각 경찰서는 자치회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었다. 다른 여성들에 비해 영어를 좀 잘하거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있는 미군 여성이 보통 회장으로 선출된다. 경찰이나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치회의 목적은 상행 규제와 '사업 수행' 등의 문제에서 여성들이 시도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회 회원들이 성병에 관한 규제를 따르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여성들을 혼혹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치회들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거리 여자들(종혹하지 않은 여성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회원들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대표들은 경찰과 당국을 위한 허수아비로 봉사하였다. 자치회와 관련한 1963년 10월군 기록은 자치회 회장이 한국 정부와 미 군대를 위한 정보원으로 일했음을 말해 준다.

한국 경찰 정보기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제108정밀대도 회장을 가운데 찍스

미군 활동을 목적으로 추정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보 부대는 정보 수집 활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거나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유사망을 유지한다."

기지촌 미군 여성들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세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론 여성들은 거리 여자들과 달리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회를 때루에 두고 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은 나이 들고 덜 매력적인 여성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클럽에서 일할 수 있다. 기지촌의 나이를 '배데랑'들의 상황은 최악이다. 그들은 클럽에서 일하는 데 필수 조건인 젊음도 없고, 노년을 생계 줄 가족이나 재정적 지원도 없다. 최정부에서 영어를 하는 아들이나 딸은 돈의 달러를 벌기 위해 63세의 나이에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군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기지촌 사회라는 사다리의 꼭대기를 차지한다. 여성들은 대부분 이 자리를 열정하는데, 미군의 아내가 아들이거나 라는 정상적 여성의 역할과 가장 유사하고 더 이상 클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보통 결혼 과정의 첫 단계로 여자 친구/대론이의 클럽 몇을 잡아 준다. 미군 수장은 부대 인의 매점과 PX를 이용할 수 있고, 미국에도 갈 수 있는데, 이는 기지촌 미군 여성으로 일한 특권이 다. 결혼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이 '계막 동거'인데, 이는 미군 여성과 미군이 합의된 기간(군인의 근무 기간과 훈련 스케줄에 따라) 동안 함께 살기로 하는 것이다. 미군 여성이 '배데' 역할을 하는 한편 미군 남성은 그녀의 클럽 몇을 갖고 재정적으로 부양해 준다.

기지촌에서 내가 만난 모든 여성은 미군과 결혼함으로써 미군을 떠나 가족과 가정을 꾸리며 정상적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였다. 어떤 이들은 기지촌 미군을 떠나기 위해 직업 기술을 배우고 공장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

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심리적으로 '정상적' 세계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웠. 대부분 기지촌으로 되돌아온다. 어떤 경우에는, 난민의 경우처럼, 고용주가 여성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떨어질인 소속으로 가족을 부양한다. 부모의 치료비나 남자 형제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돈을 벌려는 것이 그들에게 공통된 동기이다. 미군군의 1965년 연구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165명의 미군 여성 모두가 3명에서 8명까지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남자 형제들의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위해, 혹은 부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기지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 이야기는 아직도 한국에 자고 남는다." 박상은 기지촌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에게 성을 팔았는데, 남자 형제들의 미래를 위해 미국인에게 성을 팔기로 선택한 경우이다.

만약 내가 한국 남자와 이 일을 한다면, 언젠가 내 남자 형제들의 임금을 받게 할지도 모르잖아. 만일 내 남자 형제들이 결혼하게 될 때, 신부측 가족이나 삼촌, 사촌 중 누군가가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할지도 모르잖아? 여기는 좋은 세상이야. 나는 내 남자 형제들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남자와 세스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차라리 미국인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미군 여성들은 미군과 결혼할 때조차 "고향 가족을 잊지 않는다. 1988년 『월』지는 이 대사를 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1명의 전직 미군 여성을 따라 15명의 친척이 미국으로 간다고 보도하였다." 일레인 김(Elaine Kim)은 이를 두고 "정체 없는 이민"이라 부른다. 가족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 없는 여성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돈을 보낸다.

기지촌의 정치 경제

한·미 관계에서 기지촌과 기지촌 미군들의 영구적 정착은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대검역스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을 38선 위로 다시 밀어붙인 것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역사적 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지촌 미군들이 무슨 전쟁의 영웅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전쟁에 관해 다른 수많은 무거운 책들 속에 기록된 역사가 한결같이 이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 군대와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그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세스, 미군, 아메리카인 아이, 여성에 대한 신체적 구타, 성행 정책, 마이프하기, 국제 결혼, 그리고 미군과의 결혼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물이 미현실적인 "전쟁 박물관"이라 불리는 내용을 구성한다. 전쟁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그것들로 인해 들어갈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세슈얼리티를 식재하고 그것을 전쟁실 바닥에 남겨둔 박물관 큐레이터—혹은 기자, 소설가, 혹은 정치 평론가—는 청중에게 어떤 종류의 신화, 분노, 불평등이 전쟁과 군사화된 형태의 평화 유지에 연루되었는지를 곡해시키고 결국은 무기력한 설명만을 줄 뿐이다."

한국전쟁 이전에, 기지촌 따라다녔던 이들의 성 노동은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문제되지 않았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미 점령군에게 성을 판 여성들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기지촌들처럼 세력들을 팔아 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돈·음식·담배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세스를 제공하면서 부대를 따라다녔다. 미군 점령 초기 시기(1945~1948)의 미군들은 미군의 역사와 관습이라 불리는 초라한 임시 변통의 거주지에서 행해졌다. 점령기 후기(1947~1949)까지는 여인숙 같은 곳이 성을 교환하는 장

소가 되었다." 그때까지 미군들은 지금처럼 무수한 성적 환상과 수없이 많은 형태의 엔터테인먼트—필름(peep show), 스트립쇼, 질(911)로 동전 걸기, "술타입/풍타입" 등—을 만족시키는 휴식과 유흥 제제로 공식적으로 조직되지는 않았다. 1960년대와 같이 피로를 덜어내기 위한 탈 육스럽고 확고한 경제적 이해가 없었다. 또한 오늘날의 기지촌 지역들이 경험하는 '미국화'—맥도날드, 인스턴 도너츠, KFC(켄터키 푸라이드 치킨), 햄 음악, 저음로 된 디스코장—의 한 부분도 아니었다.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11월 발효)은 기지촌의 휴식과 유흥 제제를 위한 원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전쟁은 빈곤, 사회적·정치적 혼란, 가족간의 이별, 수백만 명의 어린 고아와 과부를 양산하여, 가정이 나 생계 수단이 없는 소녀들과 여성들을 대량 생인된 미군 여성들로 만들었다." 폭력과 모욕을 피해 그리고 식량과 피난처의 일을 찾아, 기지촌 군자들은 유엔군(미군이 양행하는 지역에 모여들었다. 대부분의 전라북 지역들(북한과의 경계에 가까움)은 1950년대 중반에 휴식과 유흥을 위한 신흥 도시로 발전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원래 임금이 드문 농촌이었다. 눈 덮힌이던 동무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4개의 보병 사단(제3, 제7, 제7, 제2)이 들어오면서 가장 악명 높은 기지촌 중 하나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황금기' 동안 동무원은 대략 7천 명의 미군 여성을 과사했다." 숭탄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 농촌이었지만, 1950년대 초반 이후 미 공군 기지촌의 '현인' 이 되었다. 1953년 7월 9일 제417비행중대가 비행장을 짓기 위해 불모지를 가지고 숭탄에 들어왔으며, 1천 명의 가족 혹은 5천 명의 사람들이 집과 땅을 잃었다." 또한 미 정부의 지원과 경제는 전쟁과 미군 부대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월간월보』는 1962년 7월 22일자에, 전쟁 이전 화정부는 그 지역의 대표적 산업이었던 비단 제작에 종사하는 인구 1만 명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전쟁과 함께 전멸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실업자와 미군이 모여들어 지옥처럼 되었다고 보도했다.

상호방위조약은 공통으로 인지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맹 괴뢰로서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함께 이행하는 것으로(군사 행동은 자국의 입법 자문에 따라 행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1955년 초반 전쟁 당시 행태의 불수가 원료된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제7, 제2 두 개의 보병 사단에 대하여 지원 부대들과 몇몇 공군 비행 중대들이 한국에서 미국 말리 노력의 군단을 이루었다. 말리 조직과 함께 생겨난 부대들은 미군들의 수요자로 일조했다.

표면적으로, 단순한 시장 경제학—"소년들이 있는 곳"—은 미군 여성들의 수와 군대 미군들의 고밀도 지역들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기처럼, 여성과 다른 기지촌 주민은 부대가 철수하거나 이동할 때, 자기 물건들을 챙겨 들고 군인들이 재배치된 지역으로 따라간다.(9장) 1990년 이후 숭탄에서는 휴식과 유흥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미군의 한국 내 영구 주둔 이후 서울에 있던 미군 본부가 이리도 옮겨올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1992년 봄 숭탄을 방문할 때이다. 나는 활기로 고동치는 이 기지촌이 실장 박물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은 한낮에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요란하고 살거리가 번창하는 유일한 기지촌이다. 그곳의 나이트클럽 클럽, 식당, 기념품 가게 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반면, 과주 지역의 기지촌들은—1953년부터 1971년 사이 미군 부대의 집중으로 인해 세워진 곳으로서 '미군들의 황국'이라 불렸다—"낮에는 잡지는 빈민굴처럼 보이다가 밤에만 사사히 개어났다. 오션과 군인의 아메리카 다른 지역 동무원과 최정부는 휴식과 유흥의 중심 지역으로 남아 있다. 동무원과 최정부는 1971년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을 만족시켜 주는 곳이다. 기지촌 주민들과 전직 미군 여성들은 미군 부대 규모의 중요성

을 깨달아 있다. 그들은 나에게, 남한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를 완전히 철수시키겠다는 카터 행정부의 강력한 계획 정책의 결과로 1970년대 후반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들려 주었다. 그러나 1984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 부대 수를 늘리자 매춘 여성들의 수도 다시 늘어났다.”

미군 기지들은 합법적 고용(정원, 봉역사, 환경 미화원 등)과 비합법적 고용의 주요 근원으로 기능했다. 기지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거의 전적으로 군대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외정부의 한국인 인구중 60퍼센트가 어떤 형태로든 미군을 위한 일에 종사했다.” 출판에서는 1970년 후반, 약 2,500명의 매춘 여성을 비롯해 6만 명 주민의 80퍼센트가 이 군대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미군들이 기지촌 내에서 재현하고 행사하는 경제력은 한국인 기지촌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성적 영향력으로도 쉽게 전환된다. 1960년대에 남한은 ‘미군들의 천국’이 되었다. 그때는 ‘미 육군 장병들을 위해 세워지고 번성하고 지속되는’”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미군이 정착할 수 있었으며, 미국인, 특히 달리가 무한한 힘을 가졌다. 남성과 여성들은 춤추고 취락에서 깊은 술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마음을 채워 나갔다. 1960년대 후반까지 2만 명 이상의 등록된 매춘 여성들이 약 6만 2천 명의 미군들을 ‘서비스’하는 데 이용되었다. 시간당(술마신) 2달러 이하 혹은 ‘파워업’에 5달러에서 10달러의 돈으로” 군인들은 매춘 여성과 섹스를 즐길 수 있었다. 군인들은 섹스 상대를 아내, 하녀, 신발대어, 상부를 소년, 그리고 저역 사탕들을 쉽게 구입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1960년대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그때는 “노포크(Norfolk, 미국 버마나 주 남동부의 항구 도시—올건)의 무일푼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20년 후 한

국에서 전유리 생활을처럼 살 수 있던 때이며, 가장 높은 한국인도 환경적으로 결국 가장 낮은 미국인보다 못할 때였다.”

신사아 인물은 “군 기지라는 소우주 안에서 군인 손님들은 남성성—그리고 그들이 재현하는 국가의 역할—을 기지 근처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지배를 통해 보도록 배운다”고 말한다.” 나는 한국에서 미군의 성적 능력에 대한 매춘 여성들의 인식이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밀려 있음을 깨달았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기지촌에서 영입중인 매춘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적 기적으로 생겨난 자신감과 오만함이 때인 일부로 이어가한다. 1991년과 1992년에 나와 아이기 나는 모든 여성—젊거나 나이 들었거나—은 미국이 (이전 세대가 가졌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잘못된 경제 관리, 높은 실업률, 공립 학교의 낮은 교육 수준, 인종 차별, 개발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행위를 비판했다. 막대한 기지촌 경험에 관해 들려 준 두 명의 한국인 여성 중 한 명인데, 그러한 감정을 동경스럽게 내뿜었다. 그녀는 미군에 대해 “한국에 있는 당신들은 돈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여성들은 ‘미군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고용가와 한국인의 높은 소비 생활을 따라갈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몇몇 여성은 독한 술을 살 행방이 못 되어 ‘매주 한두 명으로 종일 몰려드는’ 미군들을 비웃었다. 그들은 미군의 경제력과 현재 한국 남성의 과소비 생활을 비교한다. 공통된 의견은 “한국 남성들은 마에 앉으면 수레 달이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미국 경제력에 대한 그러한 낮은 평가는 미군들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일부 여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한번은 내가 외정부에 있는 두레방을 방문했을 때, (군인이나 다른 매춘 여성이 보기에) 시체를 부르기에는 너

무 나이 물어 보려는 한 중년 여성이 젊은 군인이 자신에게 간청하더라며 비슷한 일부로 그의 제안이 ‘허무나없고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기지촌 매춘 여성들이 말하는 미국, 특히 한국 내 미군 부대들에 대한 비판은 사회의 비판을 그대로 반영한다. 남한 사회는 “잘고 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몇몇 지역 중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퍼지고, 1980년 이후 학생 운동가들은 점차 반미주의자가 되어 갔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전기와 물을 아끼라고 말할 때”에도 미국 군대는 “전기나 물을 필요한 만큼 맘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불만”은 한국인들의 피생으로 누리는 미국의 남성과 특연이라는 공통된 주제의 한 부분이다. 한국인 중 미군 기지의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자 종종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 미군 본부가 도시의 부동산 중 가장 값나가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도시에서 바깥 집값 때문에 경쟁하고 과밀 인구로 슬럼화 할 때, 미국인들은 넓은 주둔지에 머물며 용산에 18개 층을 가진 아파트를 짓는다고 불평했다. 1992년 나와 아이기 나는 몇몇 학생 운동가들은 미 주둔지와 그곳의 기계 설비들 때문에, 용산 지역은 서울의 저하철 노선에서 밀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미군 기지를 지원하는 지하 파이프망과 인프라 구조는 저하철 건설을 불가능하게 했고, 따라서 서울에 사는 많은 한국인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기지촌 생활에서 미국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민감함과 저항감은 1992년 가을 기지촌 매춘 여성 윤금이 커피 살해 사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기지촌 지역 약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춘 여성과 다른 기지촌 주민들과 연합하여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범죄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주한 미군의 윤금이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제2사단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1992년 11월 7일) ‘이 범죄는 한 개인 병

사에 의해 저질러진 우발적 살인으로, 희생자와 범행자간의 ‘사적인 범죄’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미군이 한국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또한 “미군 부대는 40년 이상 한국에 주둔해 오고 있다. 그리고 최군의 현실은 미군에 의한 상간, 강도, 절도, 폭력 범죄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시기 이전에도 매춘 여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미군의 폭력, 특히 살인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들을 열었으나, 대중적 관심이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기지촌 주민들, 특히 매춘 여성들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험했던 경제력과 정치학에서의 현재의 불평등은 점차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자라는 반미주의의 감정적 발로가 되었다.

기지촌 내 미군의 지배에 대한 이러한 감정과 저항은 필리핀과 오키나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에 노렸던 적노”가 1995년 9월에 세 명의 미 해군이 12살의 일본인 소녀를 유괴해서 강간한 사건 이후 폭발했다. 그 남자들은 1996년 3월 일본 법정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의 감정은 미·일 동맹에 따른 공적 지원이 수년 사이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미국에 대한 지지 가는 반감으로 대체되었다.” 일본인도 한국인들처럼 점차 미국인을 악마를 과몰리는 불감제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미 군대 대대촌

군대 대대촌의 한·미간 역사는 다른 곳, 특히 아시아에서 해외 미군 기지들에 존재하는 특징과 긴장들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기지촌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남한에만 있는 독특한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에서

정치 활동가인 타카자토 스즈오(Takazato Susuo)는 오키나와가 베트남에 있는 미 부대들의 휴식과 유흥 자적으로 기능하면서 달아내 의존하여 살았다고 보고했다.

한창 때에는 '전가환' 박, 나이트클럽, 음식점이 오키나와에 1,200개가 넘었고, 군인들은 돈을 자유롭게 썼다. 3~52 목욕기들은 거의 매일 카레나 [미 공군] 기지에서 북베트남을 목욕하기 위해 이동했고, 베트남에서 돌아온 군인들과 오키나와에는 달이 지게가 부족했는데, 때로는 화장실에 그 돈을 다 써 버리기도 했다."

미군의 수백 해군 기지와 팔라코 공군 기지가 위치해 있는(1992년 미군 철수시까지) 필리핀의 올롱가포(Olongapo)와 앙헬레스(Angeles)에는, '약 5만 5천 명의 문목 혹은 미문목 미군 여성과 총 2,182개의 휴식 및 유흥 업소들로 이루어진 '유흥' 업을 빼고는 사실상 아무 산업도 없었다.' 미 군대는 1985년까지 4만 명의 필리핀 사람을 고용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였다.…… 그들의 월급 총계를 합산하면 1년에 거의 8천 500만 달러가 되었다."

인종과 국적을 불리한 이대음모기들은 아시아에 있는 미 기지촌 지역 사회에서, 특히 미군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에 기여했다. 인모는 "계급과 인종 차별이 미 군대와 주둔국 지역 사회간의 모순 사회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미군의 인종 차별적 표현은 잘 기록되어 있다. 로이드 루이스(Lloyd Lewis)는 "군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군대의 모든 지부에서 '색은 불쌍한이고 열등하다'라는 동일한 교화를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말한다. 베트남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용어들(suck, slant, slope, disk 혹은 a

half a dozen local variations)"은 "모두 이전에 미국인들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인에 대해 그리고 한국전쟁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사 용한] 황인종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들이다."

맥스 해스팅스(Max Hastings)는 한국전쟁에 대한 자사에서, 1951년 여름 "미군은 주민들을 겁주고 한국인을 길로 몰아 도랑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는 군인들을 지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명령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는 정복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친구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스팅스는 해병 설원 핸들러(Behyn Handler)의 말을 인용한다. "한국인들은 꼭 한 무리의 존재기를 잡았다. 누가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관심이라도 있었는가? 우리는 그 당시 매우 자부심 강한 미국인들이었다." 부로스 커윅스는 1960년대 후반 미국인 군인, 외교관 가운데 퍼져 있는 인종주의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그들이 가진 인종주의로 인해, 그들은 내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오줌에서 발효시킨 것이 사실이나 따위를 묻곤 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한국의 경제는 거의 개발되지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 차별과 뒤섞여 아시아에서 미국인들이 기지촌 매춘을 하도록 조장한다. 군대 신문인 '성조기'(Star and Stripes)는 군인들이 한국의 '밤 시간대 활동', 특히 기생 매력을 '최고의 경험'으로 말하며 보라고 고무시켰다.

하나님이 이제껏 무조한 죄를 준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당신을 죄로부터, 미, 노략하고, 총주고, 학대 주고, 죽구나 매수로 당신을 만들고, 항상 '당신이 죄고요'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듣고 열망하던 사랑이다."

1993년 4월에 인터뷰한 한 미 육군 군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인들이 피육에 도착하기 전에 읽고 들은 것이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타이 여성들이 아름답고 순종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어일 것들이다.…… 미국 남성은 한국 여성에 대한 욕망에 빠진다. 인종, 사물, 노예…… 인종 차별주의, 성 차별주의 이것들이 모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남성은 그 여성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형오스라온, 단지 버려야 할 것들이다. 그들은 그 여성들에 대해 시소한 것을 다루듯 이야기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카레나 공군 기지에서 나온 미군들이 '갈색의 작은 섹스 기계 (dark brown sex machine)'란 의미의 LBSM 이 찍힌 '교육적 인 디스크를 읽고 있는 것을 카레나에서 볼 수' 있다. 갈색은 오키나와 군대 미군 여성의 대다수를 이루는 필리핀과 타이 여성을 지칭한다." 아이다 산토스(Aida Santos)는 올롱가포에는 "갈로 힘내는 갈색의 작은 섹스 기계"란 내용'이 찍힌 다양한 종류의 디스크를 판다고 말한다. 그녀는 필리핀에서의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은 이제 국가 주권 문제로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은 아시아 주둔국 사회와 태평양 건너 미국 사회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변화를 초래한다. 탄담 트롱(Thanh-dam Truong)은 미 군대가 베트남에서 이루는 미군들을 위한 주요 휴식과 유흥 기지로 타이틀 이용함으로써 현재 부활하는 섹스 관광 산업을 나라 전체로 퍼뜨렸다" 타이가 아시아의 매춘굴이라는 수식어를 이름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군이 AIDS와 HIV(현재 연례 감염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나라로 들여 왔다고 비난한다. 올롱가포에 있는 미군 여성들은 필리핀의 벨레미니스트 조직인 가보리엘라

(GABRIELA)를 비롯한 보전 조직들과 함께 "필리핀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이 HIV 검사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1988년 필리핀 입국 감독관은 필리핀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에게 그들이 AIDS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대륙의 미국인 남성과 아시아 미군 여성의 성 관계는 혼혈이라는 살아있는 유산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 사회와 아버지 사회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필리핀 기지 반대 운동의 리더인 마리아(Maria Socorro 'Cookie' Dickson)는 미군과 아시아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아메라시언 기념품 아기'라고 표현했다. ABC의 '프라이머 타임(Prime Time, 1993년 5월 13일)'은 군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곤궁해진 살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파견과 쓰레기(타이에서 막을 것을 찾아 헤매는 필리핀의 아메라시언 아이들에 관해 썼다. 인모는 "제마다 필리핀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거리의 아이들이 되어, 대다수는 미국인 소아 성욕(pedophilia,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음란)—을 만족시키는 아동 매춘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다. 인모는 "많은 어린이들이 팔리고 있는데, 백인처럼 보이는 어린이들은 50~200달러에 팔리는 반면, 흑인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은 겨우 25~50달러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숭환에 있는 콘스본의 엄마는 자기 딸을 포기한 후에도 아들을 모한 포기하고 입양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결국 미군 생활로 되돌아갔다." 영화 '영고 아리랑'에서, 숭환의 한 마을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의 아프리카계 혼혈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애써 하고 있다. 흑인 아메라시언 아이들은 한국 사회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교육 기회와 미래를 위해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자 한다. 그녀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아이 모조리 찢어 버렸다. 감정이 북받쳐 울아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그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편할 것이다."

1992년 필리핀에서의 미 해군 기지 철수로 필리핀에 대략 5만 명의 아메리칸 아이들이 유산으로 남겨졌는데, 그들 중 1만 명은 미 수석 해군 기지가 있었던 술롱가코에 살고 있다. 필리핀이나 버릴게임에 있는 한 빌 코치(Coachen, Bacon & Fare)는 필리핀에 남겨진 아메리칸 아이들을 대신하여 1993년 3월 미국 정부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치료비를 위해 이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해군이 그 비용을 책임질 것을 명령하도록 연방 법정에 요구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해군 여성들과 가브라일라와 같은 몇몇 주도의 필리핀 시민 단체 및 교회 협회들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돌원했다."

아시아 사회도 군사화된 해태촌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어 왔지만, 미국 사회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 남편과 이혼한(한국인-미군 결혼의 80퍼센트가 이혼으로 끝난다) 해군 여성 중 많은 이들이 미국에 있는 군 기지 지역 주변의 해군 생활로 되돌아간다. 영화 '아파트의 여인들'에서, 필리핀에서 온 관계자들은 일부 미군들이 한국에서 여성과 결혼한 후 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인아 사슴소나 해군에게 넘기고 대신 임신 해태자들에게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미 군대의 정책과 관행

성적 접촉이라는 개별적 순간들은 미국인과 한국인에게 개인적 상처(breath)와 도전일 뿐 아니라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변화들을 실행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 군대의 정책과 관행을 분석하지 않은 채 개인적 행위에서 해태촌의 결과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 미국 밖에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성적으로 진행되는 질명의 예방과 관리, 지역민과의 친교, 언어와 문화 지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그리고 파견 근무 기간은 군인들의 해군 참여와 지역 해태촌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세계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 가운데 국무성이 군인과 동반하는 가족의 여행 경비와 생계비를 지불하지 않는 파견지"로 분류되는 두 나라 중 하나이다. 1991년 한국에 주둔해 있던 4만 명의 부대원 중 약 10퍼센트만이 가족을 동반하였다. 한국은 또한 "고성스런 파견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전쟁 자태로서의 위치 때문이며, 생활 질서, 언어, 문화의 차이들이 미국인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또한 단기 파견지"로 보통 1년 반 정도 머물다, 더욱이 한국에 보내지는 입대병들은 대체로 매우 젊은데, 대개 십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다. 그들은 가족이 없으며 (기술적인) 전투 지대에서 직접 경험들을 쌓는다. 이것은 미군 정책이 1980년대 이후 서독에 가족이 있는 기존 남성들을 보내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국과 독일 군대 생활을 잘 아는 한 미군 관계자는 해태촌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독일 누른베르크 주변에 주로 독선 남성들이 배치된 시기와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0년대 서독의 기존 군인 주둔 움직임으로 해태촌 감소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독일은 고성스러운 파견지

라는 반대로, 질서를 주는 주둔지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가족없이 유럽 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 군대 생활을 잘 아는 미국인과 한국인 물론 한결같이 내게 동반 가족에게 경제적 풍요 지불되지 않고 근무 기간도 짧은 이러한 조건이 미군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뿌리를 내리 안정적 생활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다고 하였다. 지원병들이 한국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파묻고 "고립되어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1년 안에 이혼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들을 실제 경제적 "해운주의 손님"이 되게 만든다.

사령부 정책들은 해태촌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령부는 군인들에게 새로운 주둔지를 소개하는 브리핑을 통해 그들에게 건강상 특별히 위험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려 준다. 또한 군인들은 생애와 에이즈에 관한 성 교육을 받는다. 아시아의 각 주둔지에서 상관들은 지역 기지촌 환경과 해태촌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과 브리핑보다는 지역 사령관과 중간 상관의 태도와 행동이 해태촌에서 군인들이 해태촌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나와 이야기한 두 명의 군인은 "여성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의 상호 작용이란 측면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사령부가 결정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제프사라 캠프)에서 그것은 분명히 '그대 하지 말지나라 (Thou shalt not)'였다"고 강조했다. 다른 육군 군인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군인들이 지역 여성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리고 아랍인에게 잡히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붙잡았다. 우리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른다"며 이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국에 있는 군대는 "예이, 이게 문화인 걸 아라고 말하며, 계속 논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1991년 봄에 내가 만난 한 성원은 자기가 한 해가 필리핀이나 한국의 부두에 달기 전 군관들의 보건 주의를 관한 브리핑 시간에 남자들을 모아 놓고 "여치 보충 카드라도 되는 양 콘돔들을 던

져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장교들은 "아시아인에게 해태촌을 싫어한 참이며, 아시아인들은 해태촌을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인들은 ABC의 '프라이 타임'(1993년 3월 13일자)에서, 군대 장교들이 필리핀에서 해태촌을 "결정적으로 조장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클럽을 가지고 여자들을 소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태촌은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미군에게 일상의 경험이고 일과의 한 부분이다. 전직 요인 연구 (Human Factors Research)(1982년)에 참여한 자자들은 1965년 조사에서 약 84퍼센트의 남성들이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목적으로 파견된 한 번은 해운 여성과 "관계를 가졌거나 같이 외출하였다"고 확인했다. "종교의 압력이 주범이었다. '대부분 남성들은 도착 직후 그들에게 '해운 여성을 찾으라' 행사하는 압력 중 하나가 다른 미군과 고무적인 태도이다'라고 말한다. 1980년대 초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한 육군 대위는 "집단한 남성들 사이에는 해운 여성을 찾으라는 상당한 문화적 압력"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해태촌의 피학에 대해 권소리 치는 도덕 개혁자들조차 결국에는 해운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도덕적 실각군처럼 해태촌과 생활을 막으며 한 산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의 사회·도덕적 개혁 노력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기록도 잘 되어 있다. 해태촌과 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전쟁과 전쟁 준비를 위해 그에 대체되는 다른 모든 목적과 활동을 억누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국화" 실험의 한 부분이었다. "여성들에게 이것은 '거리와 여성들에 대한 시민권의 전적인 폐지를 공인한 최초의 국가 조정 정책'을 의미했다." "해운 여성은 국내 전선에서의 제2로 분류되었다. 전쟁 선전은 해운 여성을 전장에서 싸우는 남성들에게 독일의 어떤 전투 편대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악랄적이고 전염적인 존재로 표

현했다.” 군대는 군인을 사이에서 높은 생명 발생물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알란 브랜트(Alan M. Brand)는 “전쟁 동안 국내외에서, 현재 근무 기간 중 거의 700만 일(日)을 설명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감기이다”라고 지적하고, “게다가 전쟁 동안 설명은 정부에 거의 5천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전쟁 속군 중 감염자의 76.6퍼센트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군대는 진보적인 사회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인 매매춘과 성적 자유를 막는 법적·사회적 법안을 함께 추진했다. 설명에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강제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시키고 피리를 행하는 등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태우에도 불구하고, “사회 개혁가, 특히 진보적인 사회 페미니스트들은” 억압과 관련한 활동에 연루된 소녀 및 여성의 복지와 보호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쳐 나아갔다. “다육이 개혁자들은 법과 교육을 통해 진보주의적 언어, 즉 자기 결정,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통제라는 용어들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

“전쟁 정책 입안자들은 남자다움이라든지 스타르파치의 국가를 요구하는 혼란 영국의 규율을 통해 남성의 동성(urgency)에 대해 만연한 부정적 태도들을 살피시키고자 했다.”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퍼싱(Pershing) 장군에게 “공식적 국가”(프랑스 공화국 장관실의 장관인 시모넬(Simonet)이 부른)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현했는데, 퍼싱 장군은 프랑스에 있는 유럽 파견 미군을 위해 매매춘 ‘특수 하우스’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 당시 육군성에서 “성병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단정하고 자유로운 기지”를 만드는 책임자였던 레이몬드 포스티(Raymond Postick)는 육군성 장관 뉴턴 디 베이커(Newton D. Baker)에

게 이 사실을 알렸고, 후에 “여러분 레이몬드, 이것을 대통령에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그랬다간 전쟁을 그만둘 것임에”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한 노력들은, 군대가 계속일리피와 관련한 사회 움직임과 지리적 가치에 부응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에게 용맹으로서의 ‘군대 남성성’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부 군 관계자들은 군인들이 ‘불법적 성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했다. “미군에 인적 요인 연구(1963년)는 미 사령부가 매매춘 문제를 ‘매우 걱정하여’ ‘미군의 전체 규모의 윤리 연구(이것은 자료화되지 않았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속일리피에 대해 강한 기독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의 매춘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 기지촌 경제 운동의 미국측 주요 제안자 중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선교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매춘이 그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무도덕하다고 믿었다. 게다가 사령관들은 매매춘에 참여한 남성들이 한국에서 미군의 이미지를 해칠까봐 걱정하였다. 그러나 후에 한국에서 매춘 여성들을 징회하고 기지촌 매매춘을 점차 줄여 나가기 위해 첫 번째 법안을 제정한 기간 동안, 개인의 도덕성과 자기 통제에 공식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 군인이나 매춘 여성의 도덕적 자질이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 1970년대 미 군대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근본적인 관심사는 미군의 건강과 안락함이었다.

매매춘과 한국 사회

이러한 공식적 한국인의 눈에, 매춘 여성은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기능이란 한국 사회에 미칠 미국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들을 견제하고, “군중들을 위한 소녀와 여성들이 미군

에 의해 매매춘과 강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1965년 미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매매춘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억압적인 법안들은…… 한국인 중 일부가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인과 가깝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여성(매춘 여성을 포함-옮긴이)이 “순수한 한국인” 거주 지역까지 침입할 정도로 장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점차 기지촌 매매춘이 ‘필요악’이라고 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이나 포주와 일주보다 여성들을 더 비난했다.

한국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들과 그들의 계속일리피를 이용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려 시대(18~1392) 초부터 기생이라는 전문적 여성 엔터테인먼트가 왕실과 학자—관리 계층의 남성 구성원—들에게 음악, 춤, 시, 대화의 기술로 봉사했다. 정부는 기생이라 불리는 기관에서 이 여성들을 공식적으로 훈련시켰는데, 이 여성들은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인 천민 출신으로 정부 관아에 속해 있었다. 비록 기생은 공식 교육(중국 고전들)을 받고(조선 왕조 시기 동안 다른 모든 여성과 낮은 계층의 남성 구성원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었다) 공개적인 화술도 할 수 있었지만(반면 상류층 여성들은 집 안에 갇혀 있었다), 모든 여성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현란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도덕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조선 통치자들의 심리학적 정책은 여성들의 순결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법적 강조로 이어졌다. ‘여성에게 순결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 되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순결을 여성의 가장 큰 덕목으로 칭송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런 이상에 감화하는 유일한 유교주의 국가이

다. 김재은에 따르면 조선과 달리 중국, 일본, 몽고에 퍼져 있는 민간 설화들은 순결을 모티브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한 사회에서 기생 여성은 조선 후반기까지 고갈 됐네. 매춘 여성과 통하러가 되었고, 상류층 가운데 이산화된 절속한 아들/도덕적 어머니 세력다임의 반대 극을 대표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생을 아무 남자나 할 수 있는 길가에 편 꽃’으로 인식했다.”

기생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 또한 정부를 위해 집단적으로 희생을 겪었다. 고려 왕조 중국에 원(元) 왕조를 세운 몽고로부터 인간 공물로서 기생들, 환관과 아울러 수천 명의 여인들을 바치도록 요구받았다.(1231년에는 1천 명의 여성을 바쳤다.)

저술 고리는 상류층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지 않고, 불교 수도승의 부인, 속한 것이 없는 여성들을 끌고 그 수를 채우고자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녀들을 특별히 모아 달라는 몽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후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 모든 집안에서 딸을 출가하거나 이른 나이에 결혼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정부는 또한 정부에 등록하기 전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소녀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하였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 연령이 더욱 높아졌다. 이 시기의 역사 기록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심한 처벌을 받은 고려 관리들과 일반인들의 예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조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순결과 삶을 희생한 여성들은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는 논개 이야기가 일본 지배에 대항한 역사에서 한국 여성의 개인적 헌신의 예로 찬양되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논개는 16세기 후반 전주 지역의 통치자인 최경희 장군의 첩으로서, 1592년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와 전주를 포위

하자 일본 지휘관 케다니무라 모루스케를 죽이기 위해 그를 유혹했다고 한다. 함께 술을 주면서 논쟁은 그를 점점 가장자리 쪽으로 끌고 가 강을 아래로 함께 몰아 던졌다. 때때 음력 6월 29일이면, 전주시 당국에서 세운 사당에 기생과 일반인이 논쟁에게 존경의 마음을 바치곤 한다.

기생 전통과 남성을 위한 연예인/학인으로 여성들의 역할은 오늘날 남한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다. 고급 기생집/음식점으로 기능하는 요정은 장작인, 사업가, 학자 등을 포함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을 계속해서 만족시키고 있다. 매춘과 여성 복지에 관한 법률들을 통과시킬 권력을 가진 그들이 바로 성적 서비스의 이용자들이었다. 1950년대 국회의 사정 위원회에 속한 한 전직 위원은 "사실상 고급 요정의 아들들은 자음당(그 당시 집권당) 실력가들의 후원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찰 장장이 감히 그 현관문을 엿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⁷²

이에 대한 문화적 설명들은 그 출발점은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성적 서비스의 형태와 정교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은 되지 않는다. 첫째, 거의 모든 문화들이 어떤 형태로는 매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화들이 정부가 인가하고 후원하는 성 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둘째, 매춘 문화는 사람들과 그들의 성적 활동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점을 가질한다. 세 한국인들이 여성과 매춘을 바라하는가라는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이유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커널스는 "북한에는 매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변화지 않는 한국의 경찰 양식 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946년 남한 정부는 매춘과 축첩을 불법화하고 여성에 대해 법적으로 형식적인 평등을 확립하였다.⁷³

문화보다는 국가 건설, 국가 안보, 경제 발전을 여성의 사회 복지와 사회의 도덕적 질서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시하는 남한 정부의 우선 순위가

매춘과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했다. 우예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1961년 11월 음력행위방지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행정 조치였다. 1961년의 법은 기본적으로 매춘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손님과 호주)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성은 가벼운 혼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매춘 여성은 처벌을 받았다. 여성들은 즉결 재판에 기소되어 구류 판결을 받고 구속되거나 강제로 직업 훈련소에 보내졌다.⁷⁴ 그 법은 이용하여 경제적 매춘 여성 ('호박 여성'), 즉 가난하고 병든 여성, 복신모, 기술 소녀 그리고 다른 부랑자 등을 수용소와 직업 학교에 수용하도록 했다.⁷⁵ 본질적으로 그 법은 매춘을 처벌하고 금지하는 두 개의 낱을 가진 잡이였다.⁷⁶ 처벌 기능은 경찰에 의해 실행된 반면 보호 기능은 보건사회부 부내국의 일이었다.⁷⁷

음력행위방지법이 실행되는 때는 8년이 걸렸으며(1969), 그 법을 강화하는 세부 규칙들이 덧붙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⁷⁸ 그 법은 박정희의 전일자 이순안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리더와 사회적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박 정권의 정치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매춘 단속을 통해 박정희는 자신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 지도자로 위치 지어 자신을 반대측과 구별하고자 했다.⁷⁹ 그러나 1년도 채 못 되어 정부의 입장은 매춘 금지에서 금제로 바뀌었다. 1962년 6월에 법무부, 내무부, 복지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 조치로, 104개의 매춘 특별 구역 을 제정했다. 1964년까지 그 수는 145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60퍼센트 (89개 지역)가—미군 부대를 만족시키는 약 1만 3천 명의 매춘 여성들과 함께—경기도에 위치했는데, 경기도는 미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⁸⁰ 1972년 이후 약 70개의 구역이 여전히 영업중이다.

비록 그러한 특수 구역들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었지만 한국 정부는 다 음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했다. ① 일반 시민의 문화와 교육에 매춘의 부

정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 호주의 학위에 대항하여 매춘 여성들의 집단적 방어 정신을 조성하기 위해, ③ 성병 전염을 확립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⁸¹ 정부가 공언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한국 페미니스트 학자인 조형과 장영희는 이 기지촌 지역에 번창하는 매춘의 현실이 1961년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1962년 집행을 타협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한다.⁸² 게다가 박 정권이 음력행위방지법 공포식 달 전날 1961년 8월에 관방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매춘 종식이 정부의 진정할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 한국 관방 산업은 세스 산업과 손잡고 전성기를 이루었다.

국단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화와 소박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 매춘을 적극 지원했다. 1973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은 호박을 방문했을 때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소녀들의 충정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내 여성 단체들과 반목을 맺고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었다.⁸³ 여성 단체인 한국교과여성연합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관광공사를 통해 외국 남성들을 위해 매춘 여성으로 일할 여성을 인가하고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⁸⁴ 한국국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매춘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화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외국인 손님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일 후 일본 소녀들이 국가 건설 시기에 매춘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유명한 인사 및 교수"의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⁸⁵ 한국국제관광공사는 유혹업 서비스 중사 허가증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매춘과 호텔 출입을 위한 허가증으로 사용된다.⁸⁶ 신혜수는 한국의 경제 개발과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성장은 서로간에 특정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조형과 장영희는 1990년 연구는 한국 국회가 매춘에 반대 지난 40년 동안 벌인 논의에 관한 것으로, 기지촌 매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실용주의적 관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지들은 1948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매춘 가운데서 미군 매춘에 반대했다고 설명한다.⁸⁷ 지원들은 국내 중심의 매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 혹은 제재를 주장하는 반면 미군 중심의 기지촌 매춘은 지지하는 등 국내외 외국인 중심의 매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⁸⁸ 1959년 10월에 한 의원은 불명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미국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국내 군인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과 미군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을 구분해야 하며, 외국인을 만족시키는 여성에게 미국 관습, (오직) 세수 혹은 언어와 여러 것들을 교육시켜야 한다.⁸⁹

한국의 입법자들은 남성의 본성 때문에 매춘은 군대 내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한다.

미국이 한국에 계속해서 머무는 한, 우리는 군인이 대다수가 독신이고 인간 본성은 욕망(세스)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매춘 여성들의 문제를 다룬 논하기보다 그들에게 특별한 시선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남성들에게 (유식과 욕망을 위해) 일본에 잘 필요가 없도록 서울 주변에 아주 저렴한 숙박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⁹⁰

조형과 장영희는 입법자들이 미국 기지촌 매춘을 "국가 방어와/혹은 GNP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한) 그 보상으로 매춘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지원하였다고 결론 지었다."

기지촌 매춘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경제에도 기여했다. 1963년 미군 감할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매춘과 관련한 활동들로부터 국민총생산에 상당한 양을 얻고 있는 정부가 중요한 소득원을 감소시키는 법안을 시행하는 데 열정적이고 진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건사회부의 한 한국인 관계자는 "남산 미국인들은 정부에 아무런 기금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에게 경제를 제공하는 수입원을 지프라고 호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의 한 정보 장교는 군대가 1960년대 남한 GNP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987년 미군은 남한 경제에 10억 달러를 기여했으며, 이것은 전체 GNP의 약 1퍼센트에 해당한다." 1964년에 미군 감할국은 이제 기지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매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저의 사회 수준에서 상대적으 경제에 타격을 미칠 만큼 충분히 큰 소득원으로 여겨진다." 이와 유사하게 1992년 월성탄에서 매춘 여성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느 한국 개신교 목사는 매춘과 관련한 산업들이 연간 경제의 60퍼센트를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 정부는 성 상품화의 성장을 성물 산업으로 부추기고 승인한 책임이 있다. 1973년 가을 이후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에 기반한 적극적인 관광 개발 정책을 추진 하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본 남성 관광객들이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1972년 일본과 중국의 외교 정상회담(일본은 타이완과의 우대를 단절했다)가 주된 원안이라고 지적한다. 즉 일본 남성들은 더 이

상 쉽게 타이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일본인 관광객들—그들의 85퍼센트가 아내나 여자 친구 없이 여행하였는데—의 수는 1971년 9만 6,531명에서 1972년 21만 7,287명으로 1973년에는 43만 6,405명으로 상승 하였다. 1979년에 그 수는 64만 9,707명이었다. "1978년 한국 경제는 매춘을 통해 일본인으로부터 7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교통부에 의해 주도된 한국 관광 산업이 "일본으로의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응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약진하는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었다"고 덧붙인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1961년 1만 1,108명에서 1978년에는 100만 명 이상으로,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해에는 23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호텔의 숫자도 1967년 42개에서 1978년 150개로, 그리고 1988년에는 276개로 늘었다."

1989년까지 할라 산업—나이프클럽, 바, 매춘의 세계—은 전체 내수 4조 원 이상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GNP의 5퍼센트를 차지했다. "서울 YMCA는 일반적인 유흥 산업, 특히 세스 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1989년 연구에 따르면, 40만 개 이상의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고, 120만 명 내지 150만 명 사이의 한국인 여성(15~29세)이 남한 여성 전체 숫자의 5분의 1이 성을 팔았다." 성적 서비스의 다양성 또한 엄청나다. "물살통"은 남성들이 사정을 위해 혹은 술과 음담패설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과 여성을 빌리는 곳인데—여성들은 때로 세스에 이용되기도 한다—오늘날 남한에 있는 할라 업소의 일반적인 흐름을 이루는 곳이다. 물살통은 여고 초라한 곳부터 매우 화려하고 터무니없이 바쁜 곳까지 여러 가지다. 더욱이 아랍스, 한마소, 바, 다방 그리고 호텔—지방 여관숙부터 서울의 화려한 숙박 시설까지—성적 서비스를 위한 여성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상업적인 물과 함께 대낮에 인산 매춘에 남지한 여성들에 관한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1980년대 중반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대중의 압력이 생겨났다. 이의 반응으로,

정부는 일련의 행정상의 조치들—물시 단속, 외계적인 것이 발견되면 영입 허가 취소, 무리가 경찰들의 강제 제재, 의심스런 영입소의 세무 조사, 그리고 1990년 1월 최후의 일격으로 가장 이후 유흥업 금지—를 내놓았다."

신혜수는 외국인들을 위한 업소와 관광 호텔 안에 있는 업소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고, (외화를 위해) 관광객들을 다루게 다루는 정부 정책을 다시 반영하여 정소처럼 세계 4사까지 영입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일 남한에 매춘은 문화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성장과 관광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관광을 통해 높여주는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있을 뿐이다. 성을 파는 일이 너무 흔해서 고상한 매춘업이 이런 식으로 유흥을 한다는 얘기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회자된다. 1992년 봄, 이따원에서 매춘 여성 공동체를 운영하는 가톨릭 선교사 루치아 정은 몇몇 미군 매춘 여성들은 돈 많은 여대생들이 미군을 낚기 위해 이따원 클럽에 자주 온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전한다. 어떤 이들은 성적 만남을 갖기 위해 미군에게 가족 재킷, 보석 등의 선물을 준다. 이런 일은 매춘 여성들의 불만을 많이 사는 것인데, "부유한 소녀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손님들을 가져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섹스를 하고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돈을 주고 섹스를 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올림픽 이후 남한에는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prostitution of sexuality)라고 부른 것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성적 탈녀의 반영", 그리고 "여성들—그것을 얻고 취하는—과 동일시되는" 사회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후 세대의 개입은 오늘날의 매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6년, 일본 식민 정부는 한국을 통치하는 일본인 엘리트들을 위해 일본인 매춘 여성들을 처음 들여오도록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했다. "일본인 매춘 여성들은 1906년 2,947명이었고, 1908년에는 4,253명, 그리고 1910년에는 4,417명이었다." 결국 한국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들도 이 합법화된 매춘에 참여했다. 몇몇 한국인 연구자들은 "[남한에서] 현재의 풍습가 대부분은 이때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국 여성들의 세속열리피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직과 관리의 대략 20만 명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오늘날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정전대의 일원으로 모집하고 배치한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후에 이 일본군 성 노예들은 한국에서 미국 중심의 매춘의 역사적 원형으로 기능한다. 두레말의 일부 간사들은 나이 든 매춘 여성들의 개인적 역사를 종합해 본 결과, 일부 전직 위안부들이 기지촌 성 노동자의 첫 세대로서 미군 매춘 여성으로 일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한다."

연합군에 의한 일본의 패배와 연이은 한국의 해방은 후에 남한 정부에 의한 매춘의 금지이라는 상태로 나아갔다. 미 군정(1945~1948)은 1946년 보건사회부에 여성분과를 처음으로 만들어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여성 복지 정책을 제정했다. "미국 군정 당국자들은 1946년 5월에 여성 대에 및 매춘을 위한 여성들의 제약을 금지하였지만, 매춘을 불법화하지는 않았다. 미 군정의 민정국장인 아처 러치(Archer Litch) 장군은 정부가 매춘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47년 11월(또는 1948년)에 매춘에 연루된 손님들 관건가 모두에게 2년 이하 그리고/혹은 5만 원 이하의 처벌을 부과하여 최가난한 매춘을 금지

시켰다.” 그러나 1948년 선거 후 한국측으로의 정부 이양과 미국 지지 주면에 있어 남치나는 미군 때에순은 이 법의 시행을 가로막았다.

한국인들은 점차 한국에서의 매매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섹스 관광의 역사를 한국에 대한 외국 지배의 한 표현이라고 보기에 이르렀다. 신채우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들의 성 노동을 끌어들이는 것은 남한의 풍속의 개발 상태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생생하게 한국 여성들은 1970년대 초·중반 일본 남성의 기성 관광 활동을 1910~1945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로 간주했다. 남한의 대표적인 여성 고등 교육 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은 기성 관광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저항을 공론화했다.

“우리 나라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으로서의 본관 전통 이런 명분하에 많은 여성이 35억 달러의 피해 상황을 돕기 위해 경제 침수들에게 먹이로 팔리고 있다. 일본인들의 나쁜 소리가 이제 그들의 문화 소리로 대체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또다시 이 땅에 우리의 보스로 오고 있다.”

미군 지지 반대 활동가들과 한국인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정치 가지는 매춘 여성을 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

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여성과 판매에 관해 침묵한다. 대부분의 안보 연구는 국가의 자원이자 후원자로서의 경제성 외에 일반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쉘링(Thomas Schelling)은 일반인의 주된 역할이 고통과 고난의 경제적 혹은 실재적 수용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주의 사고 방식 속에 궁극적 내소를 숨기고 있다. 그는 이것을 “해를 가하는 권력”이라 하여 권력의 한 형태로 보았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과 전쟁에 관한 지식의 공백을 채워 남보다 많은 글을 써 왔다.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정치 이론가의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에 얽힌 여성의 관계와 남성의 관계의 성별화된 도덕적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전쟁에 대한 최초의 개관적 관점을 제공했다.” 스페이크 피터슨(Spike Peterson)은 여성의 진정한 보호자이기보다 억압자로서 “협박적 폭력”을 행사하는 군대 국가의 성별화된 특성을 도발적으로 비판했다.” 진느 빅커스(Jeanne Vickers)와 츠하이 엘렌느-알라시(Tschi Bernabe-Schane)는 엄청난 군대 예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복지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저자들은 여성이 희생자로서 경험하는 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 냈다. 전쟁을 강간에 관한 수문 브라운밀러(Susan Brownmiller)의 설명은 고전적 예이다.” 일반자들은 모른다와 모른다의 여성 난민 기사를 통해 오늘날 전쟁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극악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것과 다른 기사들을 통해 총과 폭탄 그리고 여성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이 있고, 그 관계가 대부분 성적인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과 전쟁에 관한 수많은 글은 국가간 관계에서의 권력 불평등이 어떻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글들은 성별화된 전쟁

그동안 안보와 관련한 연구들은 국제 관계에서 총과 폭탄에만 초점을 맞춰 왔을 뿐 국가간 관계와 여성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오래 전 현실주의 전통—오늘날 안보 연구는 이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의 대부인 투키다데스(Thucydides)가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에 보낸 아테네 사절단의 앞에서 국가 사이의 정치학과 여성간의 관련성을 잘 요약한 것이 보인다. “강자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약자들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한다.” 그는 선택이나 정책이나를 통해 아테네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약자로 펠로폰네소스를 언급하고 있다. 펠로폰네소스 지도자들은 독립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값어치 있는 댓가를 치렀다. 아테네 해군은 그 섬을 무력으로 정복해 젊은 남성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을 노예로 데려갔다.” 여성들은 전쟁의 희생양이자 전승물이었다.

전통적인 안보 연구는 동맹 관계를 언급하고 국제 체제와 국가 사이의 상호 작용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여성과 판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조직 행동(조직 정치학)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화 외교 정책 행위에서, 엘리트들의 이해 관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단일체로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며 국민들이 의사 결정의 책임을 묻는

들과 국제 정치학의 결과에만 초점을 둔 한 설명화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활동가들은 투키다데스가 국가를 혹은 정부들간의 권력 불균형을 여성의 몸을 통해 제한했던 점에 주목한다. 그 주장은 약소국의 상대적 약함이 자국 여성들을 강대국과 강대국 행위자들의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취약하게 남겨 둔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은 자국의 여성에 대한 외국에 의해(경제적·정치적·성적)를 물려들인다. 예를 들어 마에스(Maria Mies)는 “제국주의 산업 자본은 제국주의 군대의 뒤를 따르고 이 물은 성 산업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좌파 한국인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기지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폭력의 책임이 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두레방의 몸을 상징자인 유봉림 또한 이런 관점을 공론화한다. 전직 기지는 매춘 여성인 최씨는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의 힘을 기지는 여성들 자신의 무력함과 연결시켰다. “한국은 마보불만 사는 땅이었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이해를 보호할 수조차 없었어.” 25년 동안 매춘 여성이었던 김연자씨는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기지는 매춘 여성들은 정복 문화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보와 다른 정부 정책에서] 이해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전쟁으로 있는가? 아니면 있는가? ”

정복하는 국가와 식민지를 둔 국가들이 식민지 여성에게 성적 요구들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20만 명의 한국인 여

성에게 행한 강제 매춘은 최근에 일어난 부지탁지한 사례이다. 루퍼(Fredrick Cooper)와 스틀러(Ann L. Stoler)는 식민지의 7종적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밤에 하는 일에 대해 환상을 가지면서 매춘을 축적, 건강한 부부의 성을 식민지 권리를 지켜 주거나 회복할 수 없이 손상시킬 보대라 하여 암묵적으로 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미 기지촌 매춘에 대한 역사적 조망은 여기에 역설을 제기하고, 강대국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와 권리를 지배당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약함과 완전히 동일시 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남한에서 미 군대는 1960년대 초에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초에야 비로소 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 미1군단 사령관인 육군 중장 던(C. W. Dunn)은 미8군 총사령관인 해밀턴 하우스(Hamilton Hous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매춘과 성병에 관해 광범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에서 미군에 대한 비참한 서비스 조건들을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수습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여성과 성병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의 협조 부족에 관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불거져온 지역들로부터 대개 일어나 인위적일 뿐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불평했다.

1960년대 초 주한 미군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설득할 수 없었다. 미8군 국제관계국의 한 관계자는 미8군 보좌관보에게 보낸 비공식 서한에서, "우리의 협상 자세가 약해 보인다. 이는 한국이 그들의 노력을 개선하도록 제압할 지렛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게 성병 문제는 주변적이다"라고 소견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 매춘과 성병을 미국의 문제로 여겼고, 따라서 미 군대 당국자들에게 아무런 혹은 별다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1971년 한국 정부가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어렵고 불법적인 행동

들에 대한 주한 미군의 불평에 즉각적이고 무효적으로 반응한 것은 한·미 군사 관계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 정부는 미군 관제를 다루며 이전의 자세를 버리고 미군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시작하였다. 1971년 이전 한국 정부는 기지촌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어 합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유일하게 언급되었던 1968년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불평은 사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당시 합동위원회 이 대표는 오산 지역의 무법으로 인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국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대표는 미국 측의 상황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국이 암보하고 한국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1968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전에 관한 공산주의자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한 미군의 평가를 한국 정부는 위험이 아닌 것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3년 후 한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미국이 내부 문제(국제 인권 차별과 부대 훈련의 부족)로 묘사한 것을 한국 문제로 인정했다. 분명히 한국 정부는 1968년부터 1971년에 미국의 요구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고 느꼈고, 한·미 안보 관계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기지·지촌 관계의 중요성을 훨씬 중요시했다.

내가 만난 몇몇 전직 매춘 여성은 1960년대를 그들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로 회상했다. 그때만 해도 미군들과 공개적으로 술을 마시며 싸우고 멧대로 나들이다녔다고 한다. 또 파격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를 맹렬히 저주하며 머리통에다 유리병을 내리치기도 했다. 그들은 뽀뽀하고 정부와 권위에도 어랑곳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경찰조차 자신들을 무시위하여 내버려둘 정도였다고 자랑했다." 1960년대 초에는 그 여성들이 두려워할 정부의 권위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활동을 비롯해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광범위한 정의를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 초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1970년대보다 훨씬 취약했기 때문에 미국에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1961년 남한의 1인당 GNP는 62달러에 불과했지만, 1971년에는 285달러로 "한국전쟁 후 10년이 채 못 되어 복원을 달성했다. 또한 1970년대 초에는 10년 전보다 기술적으로 더 훈련된 군대를 보유했다." 그런 때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매춘 여성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70년대 초이다. 1970년대에 중대한 한국과 경제적·문화적—논리적으로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지체가 약해져야 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의 축소는 한국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확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한국의 정부는 여성에 대한 미국의 통제와 지체가 가변적이며, 국가간 관계와 여성 억압 사이의 마르크스주의적 상관 관계가 이런 가변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상관 관계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호 작용 사이에 제로섬(zero-sum) 관계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제도적 행위, 큰 권력-작은 권력 관계 "종속적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의 실제적인 교섭 활동이 권력상의 불균형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이해 관계와 몰약(commitment)이라는 특정 맥락하에서, 약한 권력이 강한 권력 앞에서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묘사한다. 이때 강대국-약소국 관계를 상호 작용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국가간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질문과 역할에 대해 보다 개방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이 국가간의 권력 관계를 정적인 이분법으로만 보는 것, 즉 약소국의 여성은 언제나 강대국의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고 보는 것은 착취와 학대의 내용과 정도를 분리해서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 권력 관계와 군대 매춘이라는 측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는가? 상태에의 원인과 특성은? 여러 군 기지를 가운데

매춘을 관할의 변수는? 시대에 따른 체계 변화는? 또한 우리는 매춘이 세 계 속에 놓인 개별 여성들이 직면한 빈곤, 사회적 지위의 하락, '선택'의 종류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책에서 내가 취하는 것은, 국제 관계와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확립된 접근들을 끌어 옴으로써, 국가간 관계와 여성의 삶 사이의 상호 교차를 이해하기 위한 틀의 윤곽을 그려 내는 것이다. 특히 국가간 관계의 표현으로서, 기지촌 여성들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곤경의 일반적인 면보다 그들의 특수한 측면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막달당한 여성들임지라도 세계 정치학의 '행위자(actor)'로 볼 필요가 있다. 자기 행위성과 희생자성이라는 양극단을 오가지 않고 중간 지대를 발견해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확실히 자율적인 행위자들은 아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달당한 자들이다. 더욱이 그들은 종종 신체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도주, 불법 이민자 혹은 미군 손님에게 성적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정부 조직의 단순한 수동자이지만은 않다. 그 사실은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 모두 이 여성들을 성과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자로 인정하고 대우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특정 기지촌 프로젝트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행태인의 성품은 이 여성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었다. 여성들의 참여는 자유로운 협력은 아니었지만, 모든 여성이 자신의 삶에 미친 이 최고 정책 변화의 결과에 대해 복종이나 침묵으로 응하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그들 삶에 대한 미군의 지배에 대항하여 스스로 기지촌 주인의 감정을 조성하도록 복종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태인의 억압적인 정책 중 일부를 이용하기도 했다.(8장)

여기에서 초국적 정치학에 대한 케오렌스(Robert Keohane)와 니에(Nye)의 초기 개념(세계 정치학의 주된 현상은 다양한 자율적 혹은 반자율적 행

위 주체들(단기 정부만이 아니라) 사이의 교섭이라는 세계 정치학의 개념'이 도출이 된다. 그러나 비록 초국적주의가 무국적 행위 주체들을 포함하는 국제 공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세계 여성의 거의 대다수가 포함될 수는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케오헨노와 나예가 초국적 행위 주체의 정좌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 영역들에 대한 중요한 자원 혹은 실질적 통제 불가능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초국적주의자들에게는 여전히 엘리트와 다국적 기업, 적십자, 국제 암네스티 같은 강력한 초국적 조직이 그들 정치학의 자원이고 초점이다. 만일 우리가 국제 행위 주체의 그러한 특성화에 따르면, 중요한 자원과 통제가 결핍되어 있는 한국의 기저층 여성들이 어떻게 기저층 문제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자원의 내용을 단지 돈, 총, 외교적 영향력, 여론뿐만 아니라 세스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사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때론 여성들의 몸이 기저층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일종의 절충체로 기능하는 한, 기저층 정치학에서 역할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무언할 수 없다.

케오헨노와 나예가 처음 공식화한 비정부 행위 주체라는 개념은 약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의미 있게 확장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행위 주체'의 정의를 가장 가난하고 박탈당한 여성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996년 웨이스(Tomas G. Weiss)와 골덴커(Leon Goldenker)는 미국이 행위 주체의 특징을 정치함에 있어, 조직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상'을 강조한다. 그들은 무엇을 미국이 행위 주체라고 부르는 간에 "그 조직들이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 내라는 목적화에 개인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제한적이며 자발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다시 이 제한은 세계의 여성들 대부분을 인지면 정치 과정 영역 바깥에 두고, 희생자 혹은 양권자로 남겨둔다. 가난한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일매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지 제한적인 지속성이 아니며, 특별한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기술을 통해서가 아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어떤 물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한다. 그들이 경제를 가로지르는 정치학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즉 생존, 적응, 조장, 비판, 저항한다는 관점에서 원한 없는 여성들을 세계 정치 속의 역할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초국적 조직들이 하듯이 국가의 주권을 누그러뜨리지도 않으며, NGO처럼 경제를 가로질러 이해 관계와 제휴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여성들은 '이전에 비정치적이었던 것을 정치화하고 자제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결합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물론, 국가간 관계의 역동성과 여성들의 삶에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강대국, 강대, 심지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다. 1989년 11월 발행된 '아메리칸 에스놀로지스트'(American Ethnologist)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한 지역 내에서도 식민지 개척지와 식민지 주민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경쟁하는 식민주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와 마찬가지로 이 군대가 늘 동일하며 변함없는 전력과 조직 이해를 전지하지도 않으며, 이 이해가 백인권이나 피피와 연루나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군대는 지역 여성과의 권고와 성적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다른 해외 기지 지역에서 살았던 규범과 관행을 보여준다. 조직의 연구는 우리가 이러한 구별을 전지하도록 도우며, 여성과 관련한 특별 정책 결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 기록본을 가진 집단 사이의 경쟁과 교섭 활동을 보도록 권고한다."

관료 정책 모델 또한 초국적 연구서면, 정책 결정에 있어 엘리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근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이 조직의 고위직에 올라 여성 자향의 정책을 만들도록 도우며 따라, 우리에게 조직 문화가 실행 중립적

이 아니며 따라서 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도 가치 중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카르담(Nuket Kardam)과 워트워스(Sandra Whitworth)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여성 진화적 직무와 프로젝트 조직 개발과 여성 노동의 차이, 맥락, 목표에 대한 성별화된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의 예를 보여준다." 카르담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율'과 '효과'에 대한 세계은행의 편견이 개발도상국 여성의 사회 복지 요구와 형평성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인로와 다른 사람들도 군대 기관들이 그들의 조직 구조와 문화에 있어 심각하게 성별화되었다고 소견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인로는 "훈련 교관은 반항하는 청년의 얼굴에 대고 교육적으로 '여자 같으니' 전투 태세를 갖추려면, 순인이 되려면, 남자는 모든 '여성적' 속성들을 벗어야만 한다고 외치며 그를 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 군대가 여성성을 비하하고 남성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직 위계와 성별화된 이해를 만들기 위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개척지적인 연구들도 이 조직들이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① 그들이 후원받거나 기금 받는 국가(들)와 그들이 도우려 하는 국가(들) 사이의 더 큰 연력 불균형, ② 주권국 국가와 지역민의 이해 관계와 능력, 더욱이 조직과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관료 정치와 가장 가난하고 무의한 여성들의 상호 작용에 관해 별로 얘기에 주지 않으며, 조직들의 성별화된 이해들로부터 초점을 둔 연구들은 여성을 그러한 이해들로부터 가난한 행동의 수용자요인 설정한다.

종속성과 종속적 개발을 연구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국제 경제 체제와 그 체제에 대한 개발 국가 정부의 제한적 통제와의 연관성, 성별화된 이해들로부터 기반하여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는 것과의 연관성, 여성들의 노동 선택과 생계 조건과의 연관성을 그려 왔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세스 관광 산업들 아시아 정부와 국제 조직들 그리고 부유한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간의 이해 관계와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연구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도 성 산업에 참여하여 매일 운영을 감독하는 특수 지역 주민과 탐욕자 들을 세스 관광 건설 과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교섭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수용자일 뿐이다. 다른 종류의 연구에서, 워드(Ladryn Ward)는 종속성(상호 의존과 국제 무역 규모)과 여성들의 지위 및 생식의 통제적 상관 관계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행위자들과 그들의 이해 관계 그리고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얻지 못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넓게 정의된 국제 행위자들, 그들의 이해 관계와 자원들, 그들의 성별 이해들, 그리고 그들의 상호 작용 과정에 우리의 질문을 맞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성과 종속적 개발 접근들은 정부와 비정부 엘리트들이 국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계급과 집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이것이 한 나라의 모든 여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간 관계의 역동성에 포함되거나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계급, 지역 문화, 인종은 특정 외교 정책 문제와 정부의 이해 관계 그리고 능력을 조정한다. 관건은 어느 때 어떤 성별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이 외교 정책 문제라는 정치학과 통일시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계급, 교육 수준, 그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점에서 비단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한국의 기저층 매춘 여성들의 지위와, 그들의 자향인 세스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그들의 주된 역할은, 기저층 정치 운동들 통해 그 여성들을 외교 정책을 위한 공동 정부의 도구로 쉽게 변형시켰다.

다음의 장들은 편력 불균형이 국가간 관계를—1970년대 초반 한·미

관계를 파악한 다음 독립변인-의 일관적인 흐름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관계, 교섭 도구,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 사이의 제도에 관한 현한 역할들이 국가간 관계와 여성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www.pearsoned.com



출처: 한국은행, 2014년 12월 15일 기준



기아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어떤 정교함을 부족하고 있다. 그는 일하는 환경이 일할 에너지에 의해 움직인
주인 특성은 못 지닌 선비 같은 일하기 전에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 내적인 힘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
—한지옥수신문화재단대표장

1994 1995 1996 1997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로 8~16자리 이내로, 0과 00의 차를 구별



이정현·김민호·김민준·김민준·김민준

— 2000 —

[illegible]

출판사: 도서출판 창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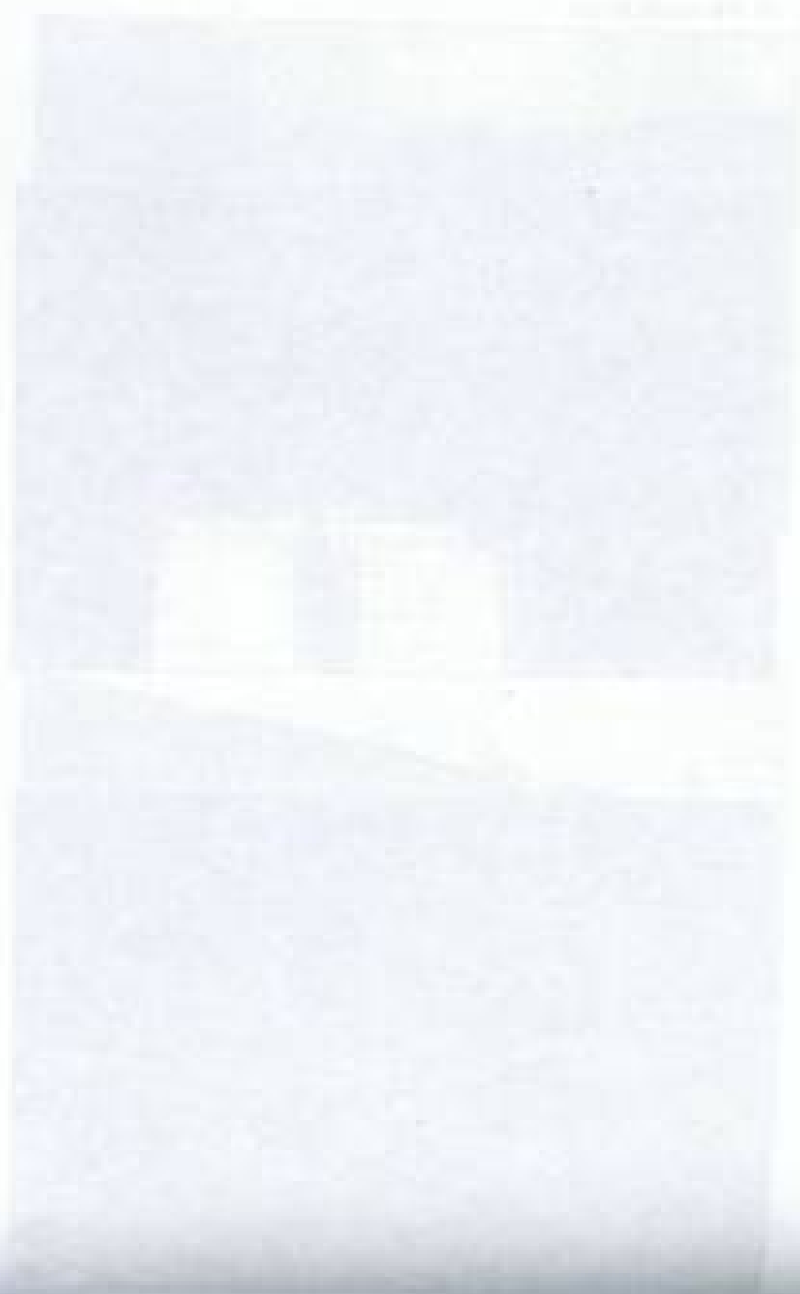
[illegible]



시정후의 무덤



묘지에서의 묘지 표시. 기지중에서 죽거나 아픈데 의해 일어난 기지중 사람들이 세기에 묻히므로 기지중들은 일어난다. 대부분의 무덤에는 아무 표시도 없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한이희

“꼭 하필 늑대야? 세상에 타고 다닐 게 얼마나 많은데?” 평소 문학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종종 숨기며 살고 있는 나는 클라리사 에스페스의 소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을 보면서, 여성적 때문지 않은 야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이 제목을 뻔지 뚫 못 마땅해 하며 궁시령거렸다. 시와 소설에서 흔용으로 등장하는 늑대나 뱀자루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보다는 ‘엘미와 루이스’에서처럼 잘 짜진 ‘오른 키’를 타고 달리는 여성에 대한 통일시가 내겐 훨씬 익숙한 것이고 제법 그럴싸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짐승도 아닌 늑대를 타고 다니다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비유가 그동안의 내 작업을 설명하는 데 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성들이 그 위험스런 늑대의 등에서 어서 빨리 내려서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늑대들이 무갈거리고 세상에서 늑대를 타는 것은 가장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풍사에 고달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늑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하여 나는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성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늑대들에게 물릴 뻔한 적도 있으며, 늑대로부터 여성을 구

출하는 여성이나 독대를 좀더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 주는 여성들과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지치면 주차장은 새 독대를 타지 않고도 달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고안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알아들이 아 했던 것은 독대를 탄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스포츠카를 타거나 달구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자신을 만주해 볼 시간이 없어, 나는 달리는 여성들과 함께 달리는 데 급급해 있었다. 열심히 따라 달리지 않으면 저탄을 받아지기 때문이다. 외계인을 관찰하듯이 그들이 달루, 들어하는 움직임에서 결국 같은 내면의 역사까지 함께 달리면서 받아 적고 엿보고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그들을 관찰하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골드너(Gouldner)의 말대로 어떤 현상이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최적 발견이나 관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결국 나의 인식 속에 거주하고 있는 술한 편견들과 직면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삶과 삶의 처리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과 '만나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만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안의 경험과 편견들, 그리고 내 인의 힘과 무기력 등과 끊임없이 만나고 싸우고 소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인 내가 나의 인식과 고인의 과정들을 열어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관찰과 연구 방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 대상뿐 아니라 연구자의 인식 과정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성매매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일인칭인 '나'를 중심으로 써졌다. 성매매 연구자로서 나의 경험, 내가 직면해야 했던 고인들과 그 동안 헤어지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낼 것이다. 성매매 연구자로서의 경험은 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다시 쓰고 반복하게 되었던가의 과정과 우물라는 과정에 해당된다. 여기에 써지는 이야기들은 1993년부터 최근까지, 혹은 더 오래된 기억들을 소재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은 고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재적인 시점을 갖는 나로부터 재해석한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과 만나다: 성매매 연구로의 유입 동기

한남의 술집 친구 예진

그날은 내가 대학원에서 첫 수업을 맡기 전 날, 일요일이었다. 친구 결혼식에서 중학교 동창인 예진을 만났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간혹 예진이가 가을을 했다. 술집에 나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동창들에게서 소문처럼 들은 것을 뿐이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는데, 예진이 카페에서 일하 이야기하기를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후미진 여관방에서 계속 되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티켓 다방과 나이트 클럽에서 일을 했었던가 보다. 그리고 보도방이나 티켓 다방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살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남매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사춘기였던

11 조순경, 『여성학의 발전과 한국 사회학의 변화』, 『여성학 논집』 제9집, (2002) 서울에서 재인용.

12 이 글을 집필하는 때에는 이 책의 글을 지어놓은 아니다. 김지혜, 김예영, 윤혜진, 장우주와의 모든 자문에 답장은 하지 않다.

예진에게는 힘이 들었나 보다. 오갈 곳 없었던 친구는 가을 이후에 재산을 전전하며 귀계 된 이야기의 글을 '피를다'는 표현으로 귀결시키곤 했다.

예진이는 그날 결혼식을 치른 친구 선영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예진이의 말대로 결혼식장에 또래친구로 온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다.

나의 친구 예진이는 시를 쓴다.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 지금도 시를 쓰고 있다. 예진이네는 오화실을 경영했었는데, 여름 방학 동안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조립 공장 앞에 예진이네 오화실이 있어서 점심 시간과 퇴근 시간에 끝까지 '컬러그 (일명 뽕뽕)'를 하게 해준 인연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오화실을 너무 못해서 낙심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컬러그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도 예진이가 내가 있을 계엄가를 미리 쉽게 조작해 놓았던 것 같다. 덕분에 내 계엄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하루 열 시간 조립 공장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나이를 겨루는 고단함을 성취감으로꿀 수 있었다. 중학교 때 나는 반장이었지만 머리가 워 좋지는 않았던 반면, 그는 전교에서 아이유가 두 번째로 좋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예진이는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머리 좋은 녀석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연구 대상'이라며 출석부표 머리를 얻어맞기 일췌였다. 우리는 국어 선생님을 무자무치로 경쟁하듯이 해사장했고, 서로의 시작(創作) 노트를 들여보기도 했다. 나는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은 '모범생'으로, 내 친구는 머리가 좋은 문제 학생으로 함께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예진이를 다시 만난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다. 예진이와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그가 경험했던 일을 무엇이냐 부를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그 애준부들이? 그러니까 그 애준 여성들이? 그 술집 여자들이? 그 음향사들이? 그 길보들이? 그 장녀들이?' 그와, 그의 친구들

을 지칭할 때 무슨 명칭을 달 수 있을까? 당시 법적 용어에 따르자면, 나의 친구를 '음란녀'라고 해야 할 관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역사에서 어느 한 부분을 함께했던 나로서는 '스스로 타락해서 몸을 팔친 여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부를 수 없었다. 나로서는 그런 도덕적 관점만으로는 읽을 수 없는 내 친구의 삶이 있었다. 그런 이를 풀이하는 내 친구의 현재에 또는 총체적인 삶에 다가서는 데 어떤 도구도 제공하지 못했다. 한편 나는 괴로웠다.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무기력과의 싸움

누굴가와 만나다라는 것은 그 만남으로 하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이 자극되고 꺼내지고 그것과 직면하게 되는,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과정인가 보다. 내게 있어 예진이와의 만남은 그러했다. 만남의 과정은 내 안에 다른 세계를 들여오는 것이었고 그 공간에서 나는 표류하고 있는 내 인의 관념들과 감각들을 만나야 했다.

예진이와의 만남이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것은 무력감이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심지어는 질감할 수조차 없는, 무언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느낌들로 만들어진 벽, 소통되지 않는 공간. 예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수록 더욱 강한 무력감이 밀려들었다. 내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내면의 공간은 더 확대되고 있었다. 내게는 조금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소통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것은 예진이와 내가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있었다.

우리가 만나는 동안 예진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이미 그러한 시도와 실패들을 증명하듯 그는 온갖처럼 밟히는 몇 개의 자라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장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취직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영업을 꿈꾸며 이동 도서관, 한화 가게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다 다시 예전이는 보도방이나 티넷 다방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사실, 당시 내가 예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몇 기억들을 더듬으며 예전이에게 있는 또 다른 힘과 가능성을 자극하는 정도였다. 누군가의 곁에서 지켜만 보는 존재, 별로 할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였다.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전이가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단절'되길 원했다. 기대가 크면 몰수록 나의 무력감은 더욱 커졌다. 가족이나 사회적 기반이 없는 20대 후반의 여자들이 자신의 생계와 성취를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패턴을 바꾸기 어렵듯이 말이다. 예전이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대학원생으로 있는 나의 위치가 매우 불편했다. 예전이의 삶이 바뀌어지길 기대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살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형태의 삶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가진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예전이에게 있어 다른 방식의 삶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더 큰 무력감은 예전이의 경험을 느낄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었다. 예전이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슬직한 실정이었다. 사건과 사실 이전의 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나로서는 예전이의 경험을 짐작할 수 없었다. '예 예전이와 그 친구들은 제 팔각을 갖고 자제를 할까, 예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약을 먹나, 예 남자에게 목을 매나……'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

대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다. 저 멀리 끌어놓은 라디오 소리가 귀를 스쳐 가듯이 말이다. 존재하는 경험, 고통, 즐거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고 싶은 내게 참으로 큰 숙제였다.

예 라는 질문으로 입속지는 존재 첫 그물길

나는 알고 싶었다.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그 마음으로 나는 예전이에게 끊임없이 '예?'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함께 술을 마시다기도 전화를 하다기도 나는 '예?'를 물어 왔다. 예 그 일을 그만두기 힘든 거야? 예 자살을 하려고 해? 예 그렇게 술을 먹어? 예 도박을 해? 예 돈을 못 모아? 예 남자 없진 못 살아? 예 그게 재밌었어? 예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어?……예? 타인에게 여과 없이 발사되는 예 라는 물음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고 당황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질문 방식이다. 예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다. 나의 거친 질문들은 당시 예전이나 그의 동료들에게는 차가운 이물질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예전이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비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이도 거리감을 느꼈는지 연락이 뜸해졌다.

그들은 아마도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예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예 유입되었는지, 예 그 일을 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삶 등에 대해…… 후에 안 사실이지만 신기하리만큼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과거에 대해 잘 물어봐 하지 않는다. 결국의 삶, 누군가 자신의 삶이 태도에 대해 꼬치꼬치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시는 예 그렇게 많은 질문과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예 라는 질문은 사유의 출발이고 다가서기 위해 알고자 하는 것은 피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친 화살처럼 타인에게 향하는 물음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예?'라는 질문을 난사하고 있는 나를 향해 예 그런 질문을 하는가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예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형편을 두기보다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의심했다. 그것은 내 이해가 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라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빈 그물을 갈아올리는 듯 기대를 세워 주지 못했다. 답답함이 빈 바다의 수평선까지 차올랐다. '예'라는 경험의 장벽을 넘기 위해 나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다: 금 밭고 들어가 보기

"공간에 대해서도 안 되고, 바깥에서도 안 되고, 혐오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스피노자

첫 번째를 읽기: 공포와 인류

존재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나는 알고 싶었다. 몇 개월 동안 친구 예전이와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 나는 일종의 '존적'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을 뿐이다. 내가 알고 싶은, 아니 알고 있는 상태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역동적인 삶에서 대상화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경험과 함께 작인되어 있는 문제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조합하여 대상화된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다면적인 한 개인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무엇이 좋고 간 존적인지 더욱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과 삶이 하나 지는 여성학이라는 슬로건은 무엇을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나에게 무겁고 버거운 것

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알아볼 일이었다. 예전이에게 친구로서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내 '길'을 되찾기 위해서도 일단은 '일'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태와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수업 시간에 던져지는 질문들에 상태에 문제를 투영시켜 고민해 보았지만 지감(知感)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상태에 지역을 탐사하겠다는 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내가 상태에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상태에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태에 지역에는 인신 매매와 조직 폭력배가 즐비하다는 풍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내 발목을 잡으려고 인간질을 했다. 책을 통해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이 가려면 남자와 함께 동행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나는 좀 실망스러웠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시도를, 사람들은 "그 위험스러움에 비해 쓸데없는 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라는 가르치 주지 않고,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고 있었다.

예전이와 그의 친구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우려와 필요한 실록은 나를 점점 더 큰 공포로 몰아갔다. 상태에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과학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나는 종종 폭력배들에게 쫓기거나 감금되거나 매대되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다. 나는 조금씩 위축되어 갔다. 자연스러운 일이 점점 더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로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어머니의 태도는 달랐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모르는 나를 어떻게 해야 하겠니? 그 대신 항상 조심해. 경찰사에 먼저 알리고 돌아다니든지, 혼자 다니진 말고……' 하시는 나를 독려해 주지마지 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정말 아상한 엄마야' 내 편이 생긴 것이 기뻐다.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준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너에게 이 경험은 내가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실컷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가는 데 도는 앞으로 살아갈 나에 꼭 필요한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어질 뻔……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너는 어떤 경험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친구는 밤새 나를 위해 고민하며 이 영화 같은 대사를 머리 속에서 되풀이하고 가슴으로 되뇌었다. '아, 할말 몰라. 너 영화 봐나? 내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간호원이냐?' 흑스리온에 한마디로 일속에 버릴지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고,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렇고 자급도 내 삶에서 큰 힘이 되었다. '그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전입을 위해 해야 할 일: '우리, 꼭 이렇게 써서해야 하나?'

주변의 반류 또는 멋진 지지를 받으며 조금은 호들갑스럽게 답사를 결정하고 나니,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난감한 문제로 다가왔다. 1993년 당시 나는 연구물을 보내야 하는 연구자도 아니었으며, 생애에 현장과 꼭 만나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 출발은 막연했다. 게다가 당시까지 대부분의 생애 연구자들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손님으로 접근이 가능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연구자로서 전입했던 앞선 여러 경험이나 지향도를 얻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답사지로 택한 S 기지촌은 대학을 다니면서 잠시 자원 활동을 한 지역아에서 조금은 익숙했다. 대학 동창 세 명과 함께 나갔다. 우리는 여관방 하나를 잡아 낮에는 지역 활동가, 경찰과 관공사를 방문하여 S 지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었고, 캠프 주변 클럽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도 그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서 업소로 전입하기 위해 분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



그들은 아마도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왜 나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왜 유입되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삶 등에 대해……'

군 전용 클럽에 한국인은 어군 동반 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반면, 여자들은 어느 정도 출입이 허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입의 허용은 성적 대상으로서 가능한 지위와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여성들에게 나와 같은 이방인의 존재는 동물원을 구경 온 사람처럼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을 팔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서 생애에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분장, 그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옷 입기, 화장하기 등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처럼 보이는 지장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할 때, 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장미'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긴장한다. 이러한 경계 속에서 오랜 동안 살아온 내가 숨기시파어 왔던 경계 밖의 여성으로 변장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비화적인 존재, 낙인찍히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였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아파서 입거나 착장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서툴렀고 어색함을 느꼈으며, 한 친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며 무얼거리기도 했다.

마침내 이렇게 지장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다고 느꼈다. 그것이 꽤 우습게 느껴졌을까? 우리의 옷을 속에는 분명 비화적인 코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비하나 낙인은 심각하고 지우스러운 취급을 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어'라는 서술 중심적인 기준이 지역 사투리, 북한 말이나 연변 풍자 발음을 비화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 여성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입는 옷과 지장이 우스꽝스러울까와는 있지 않거나, 음식점에서 일

치아를 두른 남자 요리사처럼, 아무도 웃을 일지 않는 복욕당에서 때밀이 아줌마의 독특한 속웃 과선처럼 말이다. 그것은 어떤 공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입지 않아야 할 사회적 제약을 내면화한 우리들(여성들)이 그렇게 입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옷을 내면에는 마치 서술처럼 사투리를 흉내 내면서 깔깔거리는 비화적인 측면과 더불어, 어떤 면에서 여성들의 몸기와 이분법적인 태부를 깨는 일종의 해방감을 포함하기도 했던 것 같다.

여성이 여성에게 입을 건다는 것: '게즈라언은 여자라!'

몇 군데 클럽에서 제재를 당하기도 했지만, 미군 없이 우리끼리 클럽에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클럽에 갔다. 댄스들의 춤을 아주 유심히 보았다. 아니, 거의 뺨을 놓고 돌아서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넌니 얘기 좀 해요' 하고 우리의 테이블로 불러 이야기를 했다. 클럽에서 댄스들은 손님들이 시켜 주는 우스나 술을 마시며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먼저 친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대화는 이방인의 티가 나지 않는 일상적인 주제로 이탈해 갔다. 우리는 그 여성들이 우리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애들 정도로 파악할 기대했던 것 같다. 오전에는 무엇을 하면서 자내는지, 집은 어디지 등을 여러 농담과 함께 물었고, 친해지고 싶다는 타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었지만, 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애를 썼고, 지나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탐색하는 행동은 자제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예의주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가시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숙한 지장을 때문이었는데, 화장은 촌스러웠

고, 우리 만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세사한 옷이 그곳에서는 눈에 띄게 광범한 자림에 불과했다. 가발은 자꾸 벗겨지기 일쑤였으며, 걸을 때마다 굽이 높은 구두는 자꾸 옆으로 제멋대로 휘둘러져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클럽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가장 뛰었다.

제다가 우리는 이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미군들이 말을 붙이거나 부킹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고, 두 번째로 말을 걸면 바쁜 데 일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노력해보았고, 계속 다가오면 매우 화를 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댄서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했다. 우리의 눈동자는 진지했고 유난히 반짝거렸다. 반짝거림은 긴장과 호기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남성을 위한 공간인 클럽에서 여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여자들이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미군들의 눈초리가 살벌해지더니, 어떤 미군은 화장실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레즈비언은 자지라!' 욕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I am not a……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What made you…… (사적 동사가 들어간 4형식 문장으로)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살생하기만 했던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대답할 양어 문장을 연습하는 동안 성질 급한 미군은 가 버리고 있었지만, 당시 내가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논점은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그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공간에서 지각이 할 습기를 낸 여성들을 주먹 시집 근처였을 뿐이다.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여성이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말을 거는 것, 그것이 위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실제로 미국의 현장 활동가 중에는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치라리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럽에서 친해진 몇몇 여성들 덕분에 낮 시간에 클럽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클럽의 낙서장에 미군들이 그려 놓은 작은 한반도 지도 위에 성조기를 단 큰 달나라가 오름을 누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알몸의 남녀, 여성 비하적인 그림과 글…… 등, 그리고 일만쯤 돈을 벌고 업소 주인과 논쟁하는지, 요즘 손님들은 어떤지, 상영 집진은 어떤지, 미군 비상 근무사에 담요 부대 이야기 등도 물을 수 있었다. 아이도 당시 클럽의 언니들은 내가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 은 몇날만큼 돈벌이가 안 돼' 하면서 내가 가지곤에 흘러들어 오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것저것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나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상호 작용이 요구되는 심층 인터뷰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피상적인 관찰만을 가능하게 했다. 클럽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내가 업소에 취직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아무리 세어도 내 자신이 그곳에서 뛰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물론 언어부터 달랐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많은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 나는 일단 얼굴, 손, 차아 등이 너무 깨끗했다. 많은 여성들의 몸이나 손에는 문신이나 자살 칼집 몇 개는 그려져 있고, 술·담배·약물로 인해 얼굴색이나 차아의 색도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당시 내 얼굴은 너무 상실했다.

그렇게 5 지역에서 세 번 정도의 탐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신문을 밝히지 않은 상태의 접근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내 생일 파티를 해준 정도로 몇몇 여성들과는 친해지기도 하였지만,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그를

안에 있는 아이기를 묻고 하고 싶어하는지를 밝히지 않는 한, 그들 내면에 있는 아이기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나는 그들의 일상적 체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한시적인 방법으로는 표면적인 그들의 일상을 엿보고 표면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다시 돌아가다: 기동서방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였고, 본격적으로 연구 할 수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상태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현장 활동가를 알게 되었지만, 현장 활동가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미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인터뷰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일로 현장 활동가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원 동료와 함께 5 가지촌으로 다시 갔다. 두 번째 시도가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분을 노출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임을 밝히고 인터뷰 대상을 구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어디서 부터 출발해야 할지 역시 난감한 문제였다. 낮 시간 동안 한산한 거리를 거닐었다. 5 지역의 노점들은 휘집을 파는 곳이 많은데, 보통 휘집 크기의 3분의 1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소금을 뿌려 준다. 크기가 작아서 길에 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고 무정한 양에 가격도 싸서 5 지역에 올 때마다 휘집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었다. 우리는 좀 노련해 보이는 휘집 노점상에게 다가가 휘집을 사 먹으며 장사가 잘 되는지, 요즘 여기 경기는 어떤지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와 내 동료를 소개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절실한 눈빛으로 물었다. 노점 상인은 거리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자에게 우리를 데리고 갔다. 우리의 옷차림과 말

투는 아주 순진한 대학생들였다. '대학생들인데 알고 싶은 게 있다. 자기가 여기 대방 아니야? 좀 도와줘. 몇 시간에 길거리를 해보고 다녔다……' 노점 상인은 약간 열광해 보이는 그를 설득하였다. 그는 지금은 바쁜 일이 있어 조금 곤란하지만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여자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기로 했고, 나와 동료는 기차승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를 기다리며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별로 학의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젊은 남성은 틀림없이 이 지역의 조직 폭력배 내지는 기동서방일 것이 분명했다. 그런 사람에게 '만남의 운명'을 알자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었다. '그 사람이 폭력배거나 기동서방이면 그 사람에게 대어 있는 여자는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어?' 어떤 대개자를 통해 만나는 것은 연구 대상과 연구자 사이에 한계를 갖게 하기 때문에 만남을 최소로 비밀까를 결정해야 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자. 그 사람 자체를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만' 우리는 예기치 않은 대상에게 물어야 할 질문 내용을 열심히 작성했고, 그는 클럽이 하나 둘 문을 여는 밤이 되어야 나타났었다.

우리는 그와 거의 여섯 시간 정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소개시켜 준 여자 친구들이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근데, 대학생들이 이런 곳의 얘기를 해 알고 싶어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거리며, 우리의 질문에 간략하게만 대답했다. 언제나 긴장감을 푸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특히 우리의 신분을 노출시켰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우리가 앉대있는 수다와 농담을 늘어놓고, 공부하기 싫어 죽었다는 등, 무모함이 자꾸 속을 쾅한다는 등 우리 아이기를 진작 풀어놓으며, '술집(야영)까지 경우는 어때요?' 하며 조언을 구하곤 했더니, 그는 약간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승일의 가족사를 통해 그의 누나들의 클럽 생활과 결혼, 미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을 수 있었다. 그의 누나들은 모두 가시촌의 클럽 여성들이었으며, 두명 모두 동거하던 미군과 만나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한국 남자들은 이런 데서 생활하던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 누나들도 여기 출신이어서 다 이해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여자들하고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제 동거를 하느냐고 물었다. "그거야, 개가 하도 잘해 주니깐. 그냥 사는 거죠. 제가 여자를 다쳐서 좀 아프거든요. 그래도 미자(가명)는 남자가 가족이면 안 된다고 빗을 얹어서 용돈을 주고 그래요. 근데 미자랑고도 저는 여자 친구가 아주 많거든요." 그는 자신이 여자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

그날 밤 그의 소개로 만난 세 명의 클럽 여성과 늦은 식사와 술을 마시며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이후의 인터뷰를 허락하였다.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반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과 첫 만남 이후, 낮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클럽으로 찾아갔다. 클럽은 한가했다. 우리가 클럽에 들어섰을 때 여자는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그 책은 '푸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였다. 우리는 먼저 식사를 하여, 수다를 떨다가 클럽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먼저 학생증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답사 여자는 달리 그들의 삶을 진정성을 가지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인터뷰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인터뷰는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세 사람이 자신의 자지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몇 가지 문제들: 신뢰와 개입

인터뷰는 되도록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이나 카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를 하는 동안 녹음이나 기록은 되도록 자제하였다. 녹음이 필요할 때는 잠깐이나 이야기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가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나치게 연구자를 의식하면 그들은 연구자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면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느 경우에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 되기도 한다. 나의 경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일하는 클럽에 놀러 가거나 그들이 바편인 낯선 다른 클럽에 가서 노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속한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은 지나치게 과장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여성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속어를 곧잘 구사할 줄도 알았고, 언제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으며, 먹고 싶었던 가게(종류) 그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 문장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문질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말을 했다. 그것은 내가 집에 돌아와 열심히 연습한 덕분이었지만, 나의 태도는 그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한 것 같다. 함께 클럽에 놀러 가면 즐겁게 놀다가도 "솔직히 얘기해 봐요? 대학생생 아니죠? 이렇게 술 잘 마시고, 잘 노는 대학생은 처음 봐요"라는 말을 듣곤 하였다.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농담이기보다는 학간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족사, 성폭력 경험, 과결과 개인적인 성생활 등 하기 어

려운 이야기를 털리고자 했던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생각하면 당시 나는 '그들의 방식으로 친해지기'라는 '그들의 방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나치게 경직하기보다는 가볍게 다가서기, 그들이 내게서 '다름'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대가 나의 신분을 과장하게 했던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들은 나보다 삶에 대해 더욱 진지한 사람일이고, 더 건강하고 더 수줍은 사람일이었다. 이미 '그들의 방식대로 행동하라는 나의 태도'에는 편견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개입**의 문제였다.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승일과 미자를 각각 만나면서 서로 다른 상황을 접했다. 미자는 동거남인 승일과 곧 결혼할 것이라고 불확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잘 나가는 덴서로 일하던 클럽 생활을 정리하고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가질 주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동거남인 승일을 위해 계속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당시 이야기했듯이 승일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게다가 그에게는 또 다른 여자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동료와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혹은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가.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연애 문제야. 갑 자라 대주 바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 이 일이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그 남자가 미자의 돈을 가로채고 계속 빚을 지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관계가 한 둘이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또 그럴 텐데, 미자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여기 여자들이 제 좌절하는데, 좌절하고 제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는 데?" 그는 악덕 포주보다 더한 철거머리 같은 존재야.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

의 문제야? 그런 구조적인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제 아무런 간섭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 대상자의 말을 옮길 수는 없어." 우리는 토론과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극적인 개입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승일에게는 제 일을 하지 않는지, 미자와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들 추궁했으며, 그런 식으로 미자에게 접근하면 거만해 안 된다는 압박(?) 섞인 충고도 했다. 그러나 미자에게는 기대하는 결혼이 파기될 경우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후회적인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도였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맞아요? 제가 판단하는데,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아요." 나와 내 동료는 미자가 좀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질들을 꺼내 보려 노력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해야 혹시라도 딱치게 될 좌절을 위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였다. 그는 듣는 듯 아는 듯했지만 말이다.

나는 인터뷰 과정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개입의 문제들과 직면해야 했다. 상호 작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연구자가 지나치게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령 실태 여성들과 만날 때 그들에게 안전한 성관계나 성 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과도적으로 토론을 벌일 수도 있고, 연구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자료 수집은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측면 중 한 단면을 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일 것이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험 속에서 성매매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나는 그들의 경험이 성매매를 알게 준 것이라고 확신했고 있었다. 이러한 고정된 확신으로 인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차적으로 그것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놓쳐 버리곤 했다. 내 고정 관념대로라면 그것은 '사실'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현재,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었다. 인터뷰에서 물어와 이야기를 물어보면 도무지 파악 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았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여성들과 성매매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에서 매우 다른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내가 그들의 경험이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야기로부터 어떤 사실에 근접하고자 했다면 나는 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는 것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갔다. 첫 만남에서부터 나는 나와 연구 대상자 사이에 흐르는 침묵을 못 견디 했으며, 필ately 경주하듯이 말꼬리를 잡으며 질문을 해댔다. 침묵을 견디는 방법을 알았다더라면, 완벽한 질문지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가지 않았더라면, 더 풍부하게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해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듯이, 연구자인 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하는가에 따라 보이는 것을 다르게 만든다. 가령 내가 기지촌에 갔을 때 한 클럽 여성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읽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시선에 들어왔음에도 나는 그 사실을 중

요하게 보려 하지 않았다. 그 소설을 여대생이나 사무직 여성들이 읽고 있었다면 나를 그것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여성들의 경험에서 억압적 측면만을 듣고자 했었고, 그들의 기대와 자신에 대한 인식들은 대부분 하위라고 해석해 버리는 폭력을 저질렀다.

남성적으로 입어났던 어떤 경험이 너무나 억압적이었거나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는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냉랭고 평고처럼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맥락을 읽어안 하여,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의 상황뿐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해석하는 연구자 또한 자신의 가족 관계, 대인 관계, 경제 상태 등의 경험과 상충하는 자신의 연애 상태, 자신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나 연극 등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관찰과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에 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상자의 목소리를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언제나 자신을 의심해야 하며, 연구 대상뿐 아니라 연구자 자신 그리고 이 둘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통찰과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계속됨 시도를

성매매에 관심을 갖게 한 유인 물기는 예전이와이 만남을 통한 것이었지만, 이 문제를 나의 연구 주제로 가져가게 된 직접적인 원동력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으로 40여 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채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이었다.

나는 기지촌인 S 지역을 사람별로 D 지역, 서울의 성매매 밀집 지역인 C 지역, CH 지역, M 지역, W 지역, 풍물동, 단란주점 등으로 연구 공간을



인터뷰 대상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듯이, 연구자인 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차 확대해 갔다. 성매매 밀집 지역의 포장마차와 간이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담들하고도 낯을 익힐 수 있다. 덕분에 업소 안의 폭력에 들어가 보거나 님부터 밤까지 벌어지는 그 지역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도 현재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린 여성, 감금되었다가 탈출한 여성, 성매매로부터 벗어나 결혼한 여성, 포구가 된 여성, 현지처가 된 여성, 단체 활동가가 된 여성 등으로 다양해졌다. 대상이 다양해진 만큼 그들이 기술하는 성매매의 어떤 부분은 더욱 선명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더욱 복잡해지고 잡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나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삶을 찾기보다는 성매매 문제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만으로 성매매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더 구조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 결혼 상담소, 주변 가게, 업소 주인, 포구, 마담, 이웃 주민, 남성 손님, 경찰, 정치가, 보건소장, 모로노 영화 감독 등과 만나게 되었고, 성매매 지역 질서를 위한 지역 정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탈(脫) 성매매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에 대한 지평도를 그려 주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실어 주었다. 성매매 영역에 더 넓게 다가서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여유 있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초조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과도적인 노력을 만들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연구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연구비가 확보될 수 있었다면, 동료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전국 성매매 지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기대도 품게 되었다.

내가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예전이와 나는 오히려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때때로 내가 직면한 연구 과정상의 문제들에 대해, 친구 예전이와 기나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처럼 선배처럼 나의 무모했던 행동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소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면서 내 행동들의 강도를 조절해 주었다. 내가 어떻게 공물에 수집한 인터뷰 자료들에 대해서도 예민하는 기질없이 간섭을 하기도 했다. "그 여자가 말한 건 순 거짓말이야? 그것도 몰라?" "그게 왜 거짓말이란 거야?" 때론 싸울 정도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예민이어서 대화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의 구석구석까지 나를 안 내며 주었다. 그런 완충적인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에 감사나 인타원에서 돌아오면 나는 며칠씩 앓곤 하였다.

내가 취급되는 방식: 경계 안으로 또는 밖으로

선배에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피도라든 피도하지 않은 간에 사람들의 비난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글들은 굳고 확실한 단언이기보다는 그래프 움직처럼 다양한 양과 같아서, 나는 어떤 점령에서는 상을 파는 여성들과 동일시되어 취급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점령도 갖지 못하고 그 물로부터 분리되어 취급되기도 하였다. 복잡한 함수 그래프의 경계 인원을 어떻게 오가면서 내가 정지된 자장에 머물러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제감할 수 없었던, 나와 여성들이 놓인 지점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파출소에서와 같이 토론회

선배에 지역 답사를 마치고 나올 때면, 가끔씩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충동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본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배에 공간에서 쫓

거나지 않고 관찰자로 머물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니로운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그곳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통쳐 보기를 하다가 일반한 이 시는 대로변으로 나올 때면 무언가가 울리 치벌 어 오르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선배에 밀집지인 M 지역 답사를 마치고 돌아 오다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렇게 몸싸움을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 그 덕분에 연명되어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파출소에서 나를 새웠다.

시비를 건 것은 상대방이었지만, 상대 남성이 다친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무탈 할 나위도 없이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경찰로부터 여자들이 때 그 늦은 시간에 선배에 지역에 들어갔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당시 나와 동행한 미라(M)라는 한 여성은 M 지역 근처에서 선배 때로부터 벗어난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달라고 적혀하게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고, 싸움이 있었던 그 날도 나의 답사에 동행해 주었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파출소 파출에서는 미아리처럼 들어갔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여자들 모반 폭해지는 듯이 보였다. 처음에 나는 그 여성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취급되길 원했기 때문에 내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형사 입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자, 피해자와 타협책을 마련해야 했다.

신문 사회는 아니지만 신문은 매우 중요한 보조 장치였다. 그 동안 M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시/구 의원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친분을 가진 탓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파출소로 왔다. 내가 모 대학원생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경찰들의 태도는 매우 공손해졌다. 특히 인터뷰라는 용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경찰들은 자신들도 인터뷰에 달라고 요구했다. 일선 경찰로서 선배에 대한 의견 한 말씀, 내가 먹고 있던 비디오에 그들이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경찰은 M 지

역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홍보를 쏟아내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는 자발적인 선배에밖에 없다. 외국인의 관찰지로 유명하다. 어느 문화의 담대로 선배에는 필요악이다 등…… 낯은 파자에 앉아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한 마디씩 가담하기 시작했다. 정지를 하는 사회원으로서 외국인을 상대해야 할 때 제형하게 되는 선배에의 필요성, 외국인 수녀(형장 활동가)의 반박 논리, 다른 피목으로 불리며 말을 새고 있는 사람까지 함께해 토론은 새벽이 되도록 계속되었고, 그대로 온 경찰은 자연스럽게 아침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한밤의 포크쇼에 초대된 게스트처럼,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경찰인지,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다들 모여 있는지를 잊어버린 듯이, 모두들 선배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늘어놓았다.

우리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풀려났다. 그날의 자료는 예상하지 못한 훌륭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토론은 너무나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주 아픈한 기분이 들었다. 파출소에서 벗어나면 서부터 나는 조금씩 떨고 있었다. 주변 다방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게 될 때까지 엉망진 상태이 머릿속을 기록 해왔다. '결혼하고 싶다. 누구라도 좋다.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결혼을 하고 말 때다. 아니, 아무라고는 아니고, 신분이 가장 확실한 사람과……' 처음으로 결혼이란 단어를 내 몸에 부착시켜 생각해 보았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전날 밤의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다. 나는 좀 떨고 있었고 물먹물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웃기만 하였다. '에이, 왜 그 사람만 다치게 했니. 너 두 줄 상처를 낼 걸 그랬나 보다. 앞으로는 싸울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웠겠지?' 아무 상처 없이 돌아온 나에 대해 안심을 하겠는지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조금씩 쇼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에도 나는 며칠

을 앓았다.

어머니가 내가 겪은 일들을 심각한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해냈다면 소의 없이 위로해 준 덕분에 나는 정말 만화에서처럼 다시 일어났고, 다시 유지할만하겠으며, 인터뷰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불미스러운 상황에 놓일 뻔한 적은 있었지만, 꼭어도 파출소에 잡혀가는 일은 없었다. 나는 나를 통제하는 법,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나를 방어하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내가 왜 그때 리스페리컬하게 결혼에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경찰에게서 조여 오는 '신문 없음'에 대한 추궁과 그에 대한 전말이었으리라. 우리에게 쏟아진 경찰들의 질책은 폭력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적령기가 지난 여자가 남편 없음으로 하여 보호자 없는 '거리버 여자'로 취급되었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 수년간을 학생 신분으로만 살아온 내게 그러한 대우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일종의 쇼크를 유발시키는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취조가 끝난 뒤로는 인터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풀려나면서 뒤늦게 위약금을 먹은 것이었다.

우리의 당당함은 무력했고 조라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화일을 부여하든지 간에 나를 규정하는 사회의 벽은 높았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당당한 레크리언이라 할지라도 언제는 남성들에게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상태에서는 더욱이 그러했다. 게다가 나는 그 시간에 달리해서 손을 써 줄 맹맹한 가족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동행했던 여성 또한 그러했다. 무기력함이 선명하게 나를 찌르고 자극했다. 그러나 시장 출신의 경찰, 사회원이 오고, 동네 유지가 오고, 함께 동행했던 청년의 가족들이 오고, 외국인 수녀가 오면서 경찰들의 태도는 때로

게 변해 갔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다. '없음과 있음.' 그리고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겪고 잊부딪치야 하는 '진본 없음'에 대한 확인. 거리의 여자로 취급된다는 것은 그런 것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존재인 그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이 경험으로 하여 나는 실 편에 여성들이 왜 그토록 남자에게 폭습을 거는지, 왜 착취적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포주나 기동서방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질. 여자, 택시: '내가 술집 이가려면 아가씨지, 아자씨한테 왜 돈을 더 내야 해요?'

서울 성대에 집결지 주변, 자정이 넘으면 택시가 줄마하게 손님들 기다리는 곳이 많다. 새벽이 되어 그 자락에서 택시를 타고 오게 되는데, 자정 몸으로 택시에 오르면 새로운 주경의 시간 이 시작되는 했다. 거기서 택시를 탈 때마다 나는 부당하게 돈을 더 요구받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미터기에 끼어 있는 대로 요금을 지불하면 기사들은 일그러진 표정 혹은 피사식 웃는 얼굴로 '아가씨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아는 차자인데……' 하면서 웃돈을 요구했다. 어떤 기사에 경우에는 아예 미터기를 꺼지 않고 주경하려는 경우도 있었고, 요금을 가늠려 주려 하지 않는 택시 기사들도 있었다. 어떤 기사들은 나를 태우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여성들에 대해 이라문저러를 욕을 하면서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요금 어디가 물어 좋다 어느 업소에 돈 있는 손님들이 모인다 등의 정보를 주면서 술책 수작을 걸기도 했다.

처음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술집 이가려면 아가씨지, 아자씨한테 왜 돈을 더 내야 해요? 새벽이라서 합금로 더 내잖아요?' 하여 따지고 차 번호를 적어 신고를 하기도 했다. 질차 그들의 반응 또한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 무척대로 대들기보다는 그들이 실컷 어

나. 유망한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누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이 함께 나

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일단 택시를 내리고 나서 따지거나 택시비를 흥정하고 신고하는 순서를 밟는 '야간택시 타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대에 집결지뿐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임대료와 물가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 도둑이 많아진다면지 자녀 교육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유를 대지만, 구멍가게의 라면 값까지 비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오버 차지는 금기를 폭입한 대가 같은 것이다. 내가 경험한 부당한 택시 요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우리 (나를 포함한 그런 여자)를 쓰레기같이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성에게 부과된 값, 밥값을 다내고 아한 옷차림을 한 공공의 성적 대상에게 술과 서비스를 제공한 자신의 '원죄'와 자존심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러한 취급을 받을 때 나는 똑똑한 착하면서 약삭같이 따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평소엔 소심한 편이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시때때를 따지는 것을 너무나 귀찮아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있어 꼭고도 중요한 '실천' 영역이기 때문이다. 착취는 포주나 업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상적인 구체구속까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오버 차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여성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세세하게 따지는 것을 적당하고 모자란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경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다시는 잘못 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나는 이 제재하고도 모자란 부당에 나섰던 했다.

질. 김 대신 카메라 기록한 교육장에서 '찍지 마세요'

2000년 어느 날 나는 성을 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가자로 초대되었다. 약 50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강단 앞에 이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할 내빈식 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나를 초대할 경찰 관계자는 내빈식에 앉을 것을 기대했지만, 내가 그곳에 앉을 이유는 없었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날도 아한 차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짐을 나설 때부터 그리고 전철과 거리에서 나를 경멸하지 않은 여자로 쳐다보는 시선을 받았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그 여성들의 자리에 함께 줄지어 앉았다. 그곳에 앉아 있는 여성들처럼 나도 어깨와 고개를 똑 숙이고 마치 사술에 유인 노예가 가톨릭 미사를 보는 것처럼 공백하지 않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장처럼 뒤에는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온 기자들의 카메라와 비디오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그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이고, 카메라는 취약이나 취약과 같은 것이다. 그나마 교육 내용은 그 여성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성대로 인한 채무 관계는 무효라는 정보를 인식 때에된 적이 있는 여성의 글과 변호사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릇없이 K 방송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나와 장면으로 여성들을 찍으려 했고, 별을 서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했다. 여자들은 더욱 깊어 고개를 가슴까지 웅크린 채 신을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찍지 말라고 바리 고함을 쳤다. 우르르 여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강단 앞까지 나온 기자는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여성들을 향해 달당하게 소리를 쳤다. '뭐 이단 게 다 있어,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다 변한 인간들 아니냐구? (이런 사람들) 찍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면 기자는 왜 왔어요, 왜?' 강단에 선 여

44 유망한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성 변호사가 계속 찍을 경우 초상권 침해 소송을 하겠다고 단호히 말하자 그는 물러났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밝아온 '종교'를 보았다. 마치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처럼 그는 한치의 회심도 없이 너무나 순수하고 정열적으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혐오, 물론 나를 포함하여 택시의 별레같이 푸그리고 앉아 있는 인간들에 대한 것이었지만, 강단에 속한 나를 누가 저렇게까지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놀라움이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총과 칼을 겨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카메라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과민처럼 몸을 굳히고 있지 않았을 편에 말이다. 기자들은 흥분한 병사를 같았고, 택시에 앉아 있는 '우리'는 집단 강간을 위협받는 시간에 갇힌 포로를 같았다. 그 기자는 어쩌면 몰살용이나 사살가에서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만 유죄였을 것이다. 개인적 유희와 집단의 혐오의 대상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쟁쟁한 힘이 넘는 청중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저주스런 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기자들은 무례하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을 앞에서 '그렇구 그런 인간들……'을 운운하며 그런 행동을 보일 리는 만무하다.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볼 걸 그랬나 보다. '당신이 람껏 우리를 혐오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와 내 동료들은 K 방송국에 합의를 준비했다.

괴로움과 분열: 갈등과 다름 사이에서

성대에 연구 경험은 내게 있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대상화된 문제에 피와 살을 붙이고 제온을 부여하게 한 경험이었다. 만남은 내 삶과 그들의 삶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현' 여성으로 그리고 학생

누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이 함께 나

산본으로 수십 년을 살았던 자기 정체성의 분열 과정이었고, 보이지 않던 경계를 질감하는 과정이었다. 한때 나는 이러한 분열을 어떤 원칙이나 당위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칙만으로 내 분열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으며, 원칙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 내곤 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글을 읽어 보니 별거 아니었다. 들어가 보니 다들 것도 없었다. 우리 시대의 여성의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어떤 날은 이렇게도 썼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 지명적으로 다른 경험이다." 성매매 기억 담사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 본질적인 느낌 때문에 며칠 동안 평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성을 팔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제기되는 '왜 굳이 성을 파는가?'라는 질문과 성을 팔고 있는 세계에서 '왜 팔면 안 되는가?'의 반문 사이에서 만들어진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 있는 듯했다. 어느 세계에서도 시원스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들면 고민들은 끝없이 언어로 다시 개입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성매매 여성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으로 들어가니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온통 공장 지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소의 아가씨들이 강의문을 채우고 있고, 강의실 문 앞마다 간이용 의자에 앉아 다리를 쓴 채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대학 안에 더 이상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안 나는 일방스럽고 놀란 얼굴로 그 여성들이 앉아 있는 복이 좁은 통로를 지나차이 했는데, 나는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꿈은 강간 신화의 전형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어떤 여자가 전복 집을 박은 채 발길을 걷고 있었다. 뒤를 따라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므로 여자는 더욱 속력을 냈다. 소나기처럼 더욱 빠르게 걷지만 조여 오는 어둠 속의 두려움으로 몸은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갑자기 여자를 뒤따르던 남자의 손이

48 충남한 여성들, 독대를 하고 말리는

그저 어깨를 덮었다. 아홉 차면 전형적인 성폭력의 한 장면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은 영정 영영 일 초 사이에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빨린 주인공은 클로즈업된 세 화면 가득 한 한 미소를 보내며 이렇게 말한다. "어어, 미아리가 있잖아요!" (미아리, 미아리 예로 음향 가독) 잠시 후 남자 성우의 목소리, "미아리로 오세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여자 성우는 "밤길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CF는 끝난다.

이러한 꿈들을 통해 나는 내가 성매매에 대해 매우 통상적인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안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성 노동을 인정하는 것은 강간 신화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더 많은 여성이 성적 착취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과장적인 두려움이다. 강간 신화가 지배한 사회에서 이를 대신할 어떤 종류의 대상화와 착취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와 착취는 동가물이 아니며 반드시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성매매를 연구하고 여성들의 삶과 조우한다는 것은 내 주변과 그 여성들의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들'의 이해 관계와 알아만큼 밀착되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는 늘 속에도 남았다. 이것은 성매매 반대를 목적으로 구상한 논문을 쓰고 난 뒤 깊은 괴짜감 같은 것을 만들어 냈다. 어떤 경우 결단이나 당위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이해나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처음에 시작한 성매매 연구는 예전이하의 만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고, 나는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부과된 낙인이나 여성들을 이분화

독대를 하고 말리는 여자들과 함께 49

하는 이중 규범을 탈피하고자 여성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심 강조했었다.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내가 만난 여성들의 문제는 다른 여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시각에서 다름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취급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선명한 것이었고 단선적으로 보였다. 여성을 이중 규범으로 이분화하지 않는다는 것, 갈등, 동일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내게 있어 일종의 '결단'의 문제였으며, 그러한 결단은 내게 에너지와 주고 분열적인 상황을 헤쳐 나가고 관계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갈등과 다름, 동일성과 분리의 지평은 혼재되어 있고 다만 교차점에서의 만남이 있을 뿐이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러한 결단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었고, 이런 측면들은 담화의 시작에서는 골고르게 독해되기 힘들었다. 성매매 공간에서조차 여성의 경험은 동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듯이 보였다. 그들은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이었다가, 조직 폭력배의 애인이었다가, 모우었다가, 마담이었다가, 순정파였다가, 외리파였다가, 속임수에 놀란 사기꾼이었다가…… 그들의 생애에 여러 가지의 입장이 삽입되어 나타나곤 했다. 어떤 지점의 특수한 경험만을 기리며 '이것이 성을 파는 여성의 경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성매매에 투입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동일성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모두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흔(傷痕)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제다가 정치적으로 갈등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들이 사소한 차이에 기반한 경험들에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르지 않다는 당위가 차별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갈등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들의 선택과 경험을 존중한다는 것은 너무

48 충남한 여성들, 독대를 하고 말리는

나 어려운 과제였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가난하고 많이 보이지 않는 '계급'의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 것이었다. 성매매에 오래 남아 있는 여성들은 너무나 열악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들 앞에 올바른 성, 인격적 성을 논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 성매매는 경제적인 일이었다. 착취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필'이었다. 내가 아무리 성매매로부터 그들이 단절되길 갈망한다 해도, 오늘 하루 돈 많이 벌기를, 전성기를 만나지 않기를,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본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나의 분열은 해석과 감별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나는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는 즐거움들을 해석해 내기 힘들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성매매를 '재미있는 일'로 묘사하기도 하고, 남성이나 포수를 잘 다루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단순히 '허위'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이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통제와 착취 구조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인터뷰한 성 산업 종사자 누구에게도 내 논문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논문을 썼을까?" 연구 과정에서의 진밀한 상호성에도 불구하고 내 논문이 어떻게 연구 대상을 소외시킨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어떤 글도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나는 '내준제'를 떠나기로 작심하고 한동안 장독대 있었다.

불행하게도 논문을 쓰고 난 몇 년 후에야 나는 다시 묻는 일, 나의 경험을 뒤집어 보는 일, 확산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는 일을 저울질 하지 말아야 할 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연구가 내 삶의 일부이며, 결과라기보다는 리나 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들을 반추할 수 있게 되고

독대를 하고 말리는 여자들과 함께 49

다른 차원에서 성 산업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상을 판매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피로연스를 하고, 현장 활동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해 가면서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성매매는 자연스러운 주제가 되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번거거리고 본업적인 삶이 지질들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균형을 잡아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때로 '저는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 그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다. 교회나 입타에서뿐 아니라 여행중에도 카페에서도, 작은 모임이나, 심지어는 콘서트에서도 나는 우연치 않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이도 여성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2002년 2월 일본 여행중에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다. '네 우리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여기(일본 술집) 있는 애들 다 애국자들이야, 정말 애국자들이야. IMF 때 자들은 다 빚지고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달러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냈어. 다 효녀들이야. 자들 못 먹으면서 못 일하면서 집에 돈 보내는 애들이야. 좋은 음식집, 술집에 한번 못 와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는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다. 지금도 성매매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 이야기를 자면에 채우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록되고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 안의 기억들을 들여다보게 되다: 내가 만난 힘과 즐거움

내 인생의 화두에도 같은 '장벽'로부터 도망치고 난 후에야 나는 나의 기억과 경험,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50 후강한 여성들, 누대를 하고 달리는



어머니는 어른이 된 여자는 모두 다 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게 피부 속 깊이 숨겨져 있다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나 얼굴에 불꽃 나타나는 것뿐인데, 그럴 때는 절대 말할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52 후강한 여성들, 누대를 하고 달리는

나를 반추해 볼 시간도 없이 무작정 '그들'을 파악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내가, 진작에 내 안의 경험을 되짚는 일을 중요시했다면 성매매 공간에서 더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쉽게 지쳐 버리지 않았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있는 울분을 통하고 울려서라는 본업들을 보다 더 편안하고 함있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만남 '히, 그때 그랬었지……'

여행을 적 어머니는 서울에서 마장원을 경영하고 계셨다. 어머니의 손님 중 일부는 '술집 여자'들이었던 것 같다. 마장원에 놀러 가면 그 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언니들은 내게 철대로 어려운 것을 묻거나 무슨 사치적인 질문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언니들 중에는 얼마 못다 내게 딱 핀 차를 몇 번 쥐어 주는 이도 있었는데, 무척 내성적인 내게도 그것은 상냥한 일이었다. 그 시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잘 웃는 낮과 저녁의 목소리의 언니들도 있었고, 원샷같이 어떤 언니들도 있었다. 유난히 음침이 작았던 나는 마장원 구석에 앉아 그 이런 언니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 중 한 언니에게는 내가 그런 그림이나 쓴 동시를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인가 나는 어떤 언니의 하얀 팔에 팔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너무 놀라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어른이 된 여자는 모두 다 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길거리로 걸어가는 아줌마들도……. 어른이 된 모든 여자들은 다 속에 파란 자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게 피부 속 깊이 숨겨져 있다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나 얼굴에 불꽃 나타나는 것뿐인데, 그럴 때는 절대 말할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당황하게 되면 온몸에 파란 망이 퍼

누대를 하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51

진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물어지게 적다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다.

한 언니는 지하에 있는 살롱(그 언니가 일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요구르트를 주기도 했다. 어떤 언니라는 영화를 보러 간 기억도 난다. 어머니는 내성적인 내가 그 언니들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셨다. 동네 뒷골목에 집장 집장을 돌릴 때면 나는 엄마를 따라 그 언니들에게 찾아가곤 했다. 아직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경험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현재적인 상대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단절되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하는 것 같다. 살롱 언니들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아득히 없어졌으니 말이다. 예고생 시절, 우리 집에는 나이프 클럽에 다니는 언니들이 자취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언니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는 케이크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눈이 마주칠 때면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쏘아보곤 했다. 순결 이데올로기가 부여해 준 내 순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남류 소설에서 얻은 지식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나는 그 언니들이 더럽다고 느꼈다. 그들의 옷차림과 (사실, 일상적으로 그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음에도) 행동 모두는 내 자신과 비교 대상이 되었다. 나는 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 내가 가진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가출한 사춘언니를 찾기 위해 우리 집에 머물던 사춘과 우리 가족은 사창가를 전전하던 사춘언니의 행장에 대해 '위해' 하는 공포스러운 정목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나의 순결은 내성 더욱 빛을 발했다.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등 우리는 가까이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과 만나 왔

누대를 하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51

다. 「별들의 고향」을 보며 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오는 적대식하거나 경쟁하면서 말이다. 나의 어릴 적 경험들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한동안 나는 고등학교 시절 보았던 태도들에 대해 일종의 죄책감을 갖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나 담사를 나설 때 나에게서는 마상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상을 파는 여성들이 나를 지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주술(呪術)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그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 그 여성들과 맺은 관계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장원 주안: 「내 논문에 의하면 있다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학이 사술이야!」

미장원을 했던 어머니의 경험을 나는 것은 애석하게도 내가 성매매 논문을 쓴 뒤였다. 어머니의 무용담은 나를 흥분시키고 격려하였다. 어머니는 그 슬픈 아가씨들이 도망치는 것을 여러 차례 도와주기도 하였고, 다시 잡혀 온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구출 작전을 펴기도 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가장 주부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머리를 했기 때문에 미장원의 손님은 대부분 슬픈 아가씨였다고 한다. 한뼘은 몇원 아이 물이 주면 업소의 감시 속에서 어머니의 미장원을 찾아왔다. 업소측의 요구는 할당할당 한 단발머리 소녀들을 나이 먹어 보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미용사가(후카시 물 많이 넣은) 머리를 해준 뒤 성인들이 입는 저고리를 입혔다. 그러자 소녀는 거울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몇 살이나고 물으니 열 여섯 살이라고 했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고, 시골에서 서울에 취직하려 무작정 올라와 직업 소개소에서 취직되기를 기다렸단다. 소개업자가 내일 당장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 곳 없는 그들은 직업 소개소에서 숙식을 하며 취직이 되기를 기다

렸다고 한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소개업자는 그들이 밥 값과 먹는 음식 값을 갚아야 하며, 그것은 빚을 얻어 빌려 준 것이므로 아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술집에서 경리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아가씨들이 모자란다는 평계를 대면서 술사장을 물게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열 여섯 살 여성은 계속 거울을 보며 울고 있었고, 업소에서 감시를 나온 사람들은 손님이 많은 관계로 감시 있다 오겠다고 먼저 나갔다. 어머니는 그 틈을 타 부엌에 있는 큰 고무다이에 소녀들을 숨겨 놓고, 다시 업소 사람들이 오자 「그 손님들은 바로 나갔는데요!」라고 물려냈다. 업소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 소녀들을 찾는 것이 보였고, 다시 몇 명의 미장원에 들어와 수색을 하기도 했다. 조어조어한 시간이 지나 밤이 되고 새벽이 되었다. 어머니는 피곤하지 못한 채 그들과 어두운 미장원에 남아 있었다. 그들이 지금 탈출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시 잡혀 올 것이 뻔했다. 업소측은 대안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지키는 사람들이 모진데 있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내가 최근에 인터뷰한 사례들의 스토리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가끔 그때 안나들이 일하는 곳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물어주기도 했다. 몇몇 포주와 업주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하루에 팔거는 20명 이상의 손님을 받아야 하는 그들로서는 약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어머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주로 말하며 주셨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여성들의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강조하였다. 어머니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곳곳에 등장하는 '버틸 수 없다'란 표현이 합쳐졌던 어머니 세대를 대표하는 경험인 것처럼 느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는 내가 성매매 지역에 가는 것을 별로 걱정하는 법이 없으셨다. 오히려 「확실히하는…… 거기서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곤 했다. 어머니가 겪은 사건들과 역사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내 몸에 직접 겪은 경험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는가 보다. 미장원에서 여러 여성을 만나 했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는 버틸 수 없이 불행하게 사는 여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다. 그런 경험 탓인지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면 여성 운동가가 되라, 여자로 태어났으니 여자들에게 봉사하며 살라고 하셨다. 아니면 「꼭 억하고 똑똑한」 수녀가 되든지.

나는 어머니의 세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엄마 그거 알어? 내 논문에서 말하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학이 사술이야. 결국 일단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거잖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목실한 종교인이며 봉사자인 어머니를 언제나 존경해 마지않는 내게 있어,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오히려 즐거운 과제였다. 나를 키우기 위해 상을 파는 여성들의 머리를 했던 어머니, 그들의 피와 말으로 내가 성장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 이후로 나는 많은 것들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관계성,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같은 일들이 우리가 가진 관계를 추적해 보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일 거다.

현장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여성이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는 이야기. 내가 처음 어떤 책자를 통해 만난 이야기는 8대 여학생들이 전국을 다니며 인신 매매된 여성들을 구출하는 장면이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정보 영화를 만들고 하는 구출 작전이 수십 년간 여성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기록되거나 해석되지 않았을 뿐 성매매의 역사와 함께 오래 전부터 그런 활동이 있어 왔는지도 모른다. 이 지점은 성매매를 다루는 데 있어 과충우충하는 나에게 역사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다. 그 여성들은 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사회에 얼굴을 내밀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의 고인의 과정을 풍부하게 해주어 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만난 몇몇 현장 활동가들은 정열적이고 편안하다고 그 느낌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대단한 기동력과 순발력 그리고 지속성과 인내를 껴서 있는 분노와 광장심을 동시에 요구한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곳에서, 번복거리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온갖 일에 관심과 정열을 집중시키기란 아무래도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십 년째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성들이 그 일을 시작하며 들어온다.

나는 종종 현장 활동가들의 말과 행동에서 '날개' 같은 것을 발견하곤 한다. 언어의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농담 한마디, 표정 하나가 때때로처럼 그 사람의 상처로 곧장 녹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에게 사뿐히 내려앉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친절하고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갖는 삶의 관점과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때 나는 그들을 '소모적인 것에 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해 있는 동안에도 개인은 계속해서 소외되지 마련이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만들 생각하게 되고, 그 부분의 통제가 완화되면 병을 다 고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다리가 아픈 내 친구에게 「다리는 어때?」라고 물

자 그 친구가 '내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픈 거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여성들을 구출하고 치유하는 선택의 활동가들에게 선택이라는 어휘는 작은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선택의 활동가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선택으로 인한 상처와 상흔이기보다는 개인이 총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선택에서 그들의 보살핌과 관심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 나는 놀랐다.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선택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이 세 자리를 담당하게 차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선택에서조차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한 개인에 대해 문제 중심적이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다가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태도는 언제나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사람들은 성을 파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들에 대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여전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관여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선택에선 모주와 업주도 인신 매매된 여성을 구출하는 일 등 크고 작은 선택 일을 돕는 데 힘을 쏟는다. 그들도 여성이며, 많은 경우 성매매를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어떤 여성은 코르탄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택에 공간으로 들어가 여성들을 만나고 이들의 탈출을 지원한다. 탈출시킨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상무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탈출한 선택에 생존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들은 선택에 공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퇴직 여경의 경우에는 퇴직 후 다른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동료 여경들을 도와 성 산업에서 여성들의 탈출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선택을 가족살아 살았던 전직 성 판매 여성 중에는 대학을 나와 꽤 유망한 직종의 최고 경영자(CEO)가 된 경우도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들의 과거를 노출시킬 만큼 허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담(Role

58 유망한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Model)이 드러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다른 여성들의 탈 선택매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을 몸감 양면으로 들고 있다.

몇몇 젊은 현장 활동가들은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고봉이나 질곡의 아이기들이지만 그들은 고통에만 전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절대 원칙에 매이지 않는 선택들의 경우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모습을 본다. 그것은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을 요구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성을 파는 여성들이 놓인 열악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손님이나 업주와 협상하는 방법, 보다 안전한 성 거래 방법,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돈 모으는 법, 마약이나 약물, 건강, 범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 특히 전직 성 판매 여성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선택 같은 데서는 그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형성되면서 그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한다. 그들에게 있어 성을 파는 여성들은 '불쌍한 여성'이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이해된다. 그들의 말대로 활동가나 후원자는 선생님이거나 교주가 아니라 그저 '이웃'일 따름이다. 함께 살아가겠다는 인식, 그것이 활동가나 후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티며 이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아닌가 한다.

처음에는 당위로서 시작했던 젊은 자원 봉사자들도 점차 그 태도가 변화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타인에게 중요하게 자신을 열어 가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나 역시도 전경으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삶에 태도를 보면서 변화되어 왔다. 가끔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선택의 여성이 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은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라는 말을 남겼다. 무엇이 여성들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나는 현장 활동가들이 가

누대를 타고 달리는 여성들의 삶에

진 힘을 늘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아이기를 전하고 있다.

내가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 오해를 견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기를 전해 주고 나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는 친구 예언자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나를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어머니와 현장 활동가들,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존재는 내 안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들은 모두 힘겨운 기부장서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용감한 여성들'이며, 그들 곁에 선 나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더 넓은 만남을 기대하며

광활한 우주 속에서 새로운 별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었을 터이고, 발견이란 행위로만 현재의 세상이 더 밝아졌거나 어두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자는 그 별이 움직이는 궤적을 찾기 위해 자세한 관찰의 과정에 몰두할 것이며, 어떤 연구자는 단순한 관찰이나 발견을 넘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세상의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대상을 저 멀리서 있고 그는 어쨌든 정복을 꿈꿀지도 모른다. 세상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로켓도 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조명을 설치하거나, 별을 폭파하거나, 아니면 도 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포기하거나, 그도 저도 안 되면 어쨌든 팔자를 등장시켜 별에 '나만의 꽃'을 심는 등 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구'라는 것이 '고정된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나 발견이라는 행위

30. '세로운 별이 발견됐다'는 말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 받아들이는 않는다.' 천문초소, 19. '모든 발견자가 있는 것은, 이해할 용인 (문학동네, 1997).

로 비유할 수 있거나 그와 유사한 관점으로 접근할 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성을 파는 여성의 이야기가 새로운 것은 없으며,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 온 별이 발견된 것처럼 세상이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 선택매 연구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관찰이나 발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상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의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 안에서 문제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세상은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밝아지기도 하였다.

어떤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한 '대상화'를 완벽하게 극복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특히 주연적 집단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할수록 대상과의 합성은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먼저 이해가 바탕되어야 한다. 이해가 바탕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은 종종 그 안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며, 어떤 특정한 이해충돌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세상과 연구 대상 사이에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이해'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개인과 그가 가진 문제를 100퍼센트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연구자 자신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총체적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을 언제나 의심하면서 접근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떤 특정한 정체성만으로 규정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취급되면서 차별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를 붙이는 '배운 여성'도 더 이상 사물기예만 머물지 않으며, 한 정체성으로만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대이기도 하고 업주나 모주이기도 하다. 가정 주부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며, 웨이트리스이고 연예인이자, 연사이고, 누구의 애인이자, 어

머니, 한 집안의 가장(家長)이기도 하다.

나는 성매매 연구를 통해 온갖 진실은 부분적이고 객관적이며 상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사실 힘들던 나는 '성매매를 반대해야 한다'라는 당위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여성학을 하는 사람이 성매매를 연구한다는 것은 특정한 밑줄을 증명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여성의 경험과 삶을 끼워 맞추거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실에서 보다 정교한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성매매 반대 논리를 세우는 데 급급하였고, 보고싶은 것만을 보려하였으며, 내 논리 밖의 현실은 '배타적인 것'으로 취급하려 했다. 그러한 당위와 관점이 전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당위가 놓쳐 버린 것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었다.

여성의 삶은 어느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결혼에서의 여성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듯이 성매매에서도 그러하다. 다양한 여성의 삶을 가늠해보는 교차질들이 있을 뿐이다. 사회 운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마다 어떤 이슈와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문제들을 쫓아다니고 실천의 세 관을 짜 나아간다. 거기서 다양한 차이들이 어떤 이슈나 전략에 맞춰 연대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삶에 토대를 둔 사회 운동이 그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현실과 조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의 지점들과 만날 수 있으며 또 삶의 여성학이 될 수 있겠는가? 삶의 여성학이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갈등과 다름의 만남과 부딪침 속에서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문제의 해결은 반복적인 부딪침을 통해 모색되는 것이지만 단언과 선언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매매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부분적 진실들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억압의 기제를 공격하는 것 또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금지법과 정책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합법화라고 해

서 성을 파는 여성의 지위를 완전히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일관적이고 단선적인 전략이 존재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상황적 전략들'만이 있을 뿐이다. 결론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듯이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연속성 역시 다양하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가 그 자체로 착취와 폭력의 불가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지향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성 판매자들에게 그것은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인 가치 지향이나 대의명분으로 인해 여성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수 없게 되고 어떤 현실적 해결책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억압적'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어떤 대의(大義)를 위해 어떤 종류의 여성을 역사 속에서 배제·누락시키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려 하지 않으면서 뒤로 미루려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과 즐거움, 그리고 억압과 절박을 겪어 내는 당당한 주체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어떤 면에서는 단일하고, 어떤 면에서는 단일하지 않은—직접 드러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치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그 만남을 기대한다. 이제 소외되어 온 그 여성들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적·외적 조건들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듯이 다른 여성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다양한 즐거움과 다양한 억압에 귀 기울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말이다.

82 통일된 여성들, 노래를 하고 달리는

노래를 하고 달리는 여성들의 힘이다

칼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김영미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눌 여성이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여성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살아온 언행이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많은 사람에게 한 여성이 배운 여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저 그런 실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당사자의 살아온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성매매를 이해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름의 생각에서이다. 또한 그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할 것이며, 그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나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기로 한다.

인권에 관심 많은 여자

나는 여러 번 망설임 끝에 그에게 피눈내고 싶은 게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딱 한 번 약속을 옮겼을 뿐, 피눈내고 싶은 게 있다는 나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한 약속을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지쳐 있는 듯했다. 실형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연주(가명, 47세, 이혼) 씨를 아주 대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제안을 십사리 거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색이 편한 때에 내게 다시 전화를 달라고 부탁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 술하게 많은 약속을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제남하는 버릇을 익혀온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모두가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라 만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고 몸을 통제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 파는 생활을 오래하며 익힌 습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여성들의 처지에서 그다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얻게 된 빛과 병을 비롯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향해 된 시간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성매매 세계 안에서 버티기 위해 그렇듯 자신을 길들여 가는 것에는 할부로 가능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단함이 배어 있다.

어느 날인가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다. 오늘은 생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과 약에 취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하루쯤 폭 먹고 싶은 날이라고 했다. 그런 날을 나뉘며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내왔다는 그의 마음뎡이 고압게 느껴졌다.

내가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굳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날 나는 이 작업을 함께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우리는 오롯이 이 작업만을 위한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만났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인터뷰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나라는 달리 아주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도 인권에 관심이 많지'

한편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연주는 단번에 그렇게 말했다. 하지

84 통일된 여성들, 노래를 하고 달리는

칼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85

만 얼굴은 약간 수줍음을 타고 있는 듯 보였다. 사실 나는 이 인터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혼자서 여러 번 생각을 했던 터였다. 그의 입을 통해 어떤 내기 이미 알고 있을 그의 이전 경험을 다시 듣고, 거기에 얹힌 그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 일은 그의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연주 씨가 그 시절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제안을 어뗌거리게 한 가장 큰 까닭 중의 하나였다.

마흔 일곱 살의 연주 씨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다른 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때론 어눌한 어프로 때론 속사포처럼 빠른 말투로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그렇다고 나서거나 말에 사욕을 달지도 않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말투새가 참 소박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한다. 연주 씨는 말할 때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며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이 있는데 마치 수줍게 동의를 구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한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말버릇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의 얘기만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다.

몸에 남겨지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전호동 사망가 여자들이 안전원가 여성간가에 물러가서 막 뒤 하더라. 어떻게 마스크 쓰고 뛰사나, 그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나는 그게 보고 어머 가슴이 뼉뼉뼉 뛰는 자야. 눈이 안 들어지더라고.”

연주 씨는 서울의 전호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성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은 오래 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지금은 그 규모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오래된 성매매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 지역 여성들은 지난 1월, 단속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

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호동 여성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다. 나는 연주 씨에게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그게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지. 우리 같은 여자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 전에는 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보고 손가락질하고 역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나 할 수 있었다? 난 그게 보고 참 흥분했어. 내가 막 전호동에 가 보고 싶더라고.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야.”

전호동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주 씨의 질문을 엿다. 전호동 여성들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나는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터였다. 이들은 모두 경찰들이 향한 성희롱 여부보다도 당시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였다는 것에 우선 큰 관심을 보였다. 어떤 과정으로 그 여성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했다. 누구로부터 그 집단 행동이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의문 속에는 그것이 어쩌면 여성들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 또 다른 권력에 의해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엄사리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보도를 본,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누구에 대해서건 자신을 안에서만 회자되던 부당한 일들이 그 여성들의 입을 통해 표출되고 알려졌다는 점에 큰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연주 씨는 내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을 꺼내 놓았다.

“나도 단속 자주 걸려잖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전에는 단속 걸려서 구류 살면 편찮은 사람들은 몰래몰래 달래도 피우게 해주고 그랬거든. 거기 있을 때 가만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 문을 열고 나오면 거기서 담배 넣

새가 화 밑에 나오곤 해. 그래서 거기 담배 피우는 댕가 보구나. 하고 말 좋아 보이는 경찰한테, 아예(아저씨) 나 담배 하나 피우게 해줄래요? 그러면 선뜻 그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한 사십대쯤 되어 보이는 남한테, 나한테 담배 주고 불도 붙여 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피우고 나가. 웬? 하면서 내 것 가슴을 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기분이 좋지 않지.”

나는 연주 씨의 이야기를 들던 중 성희롱이라는 낱말을 쓰잖아 냈다.

“그래, 그게 보니까, 그런 게 성희롱이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성희롱이라는 걸 요즘에야 알았어. 뭐 언제는 작업에서 상사가 어떻게 해도 그게 성희롱이라며 교육도 시키고 그런대?”

물론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주 씨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경찰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갖고 있는 경우는 무척 많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굴욕감이나 수치심 따위의 느낌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낱말로 정의되는 것인지를 몰랐으며, 심령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히 나서서 여쭙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쉽고 굳게 책념해 왔을 뿐이다.

“나? 그냥 만지나 보다,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연주 씨는 그때의 경험을 그의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만일 전호동 사건이 화제로 오르지 않았다면 떠올라지지 않았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듯 비취었다. 하지만 나는 경찰에게 당한 그런 정도의 성희롱은 쉽게 재념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남해 내면진 말 몇 마디는 무고무고 기억해 내는 걸 여러 번 보았다. 연주 씨의 경우도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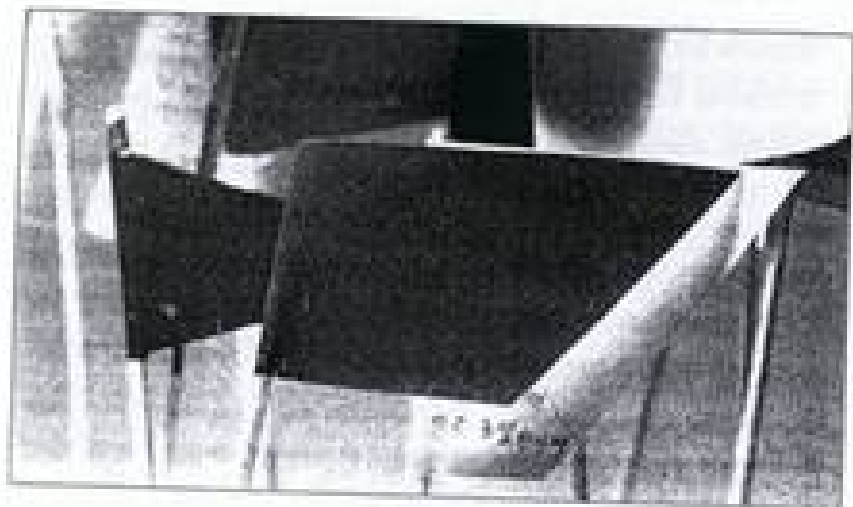
연주 씨는 영업을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을 정확히 구분해서 생활한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약(물리제)도 먹지 않으며 단골손님이 찾아와도 절대로 술하지 않는다. 요일을 정해서 쉬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몸

이나 기온 상태에 따라 쉬는 날을 정한다. 그 싸움이 벌어졌 날은 모처럼 큰 담 먹고 쉬기로 했던 날이었다.

여성들 사이에는 서로간의 구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선으로 그어 놓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가 영업을 하기로 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침범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의 ‘예의’이다. 이것을 여자 여성들 사이에 싸움으로까지 만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었다.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하는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자의 특징, 예를 들면 ‘깁’, ‘내어리’, ‘가팔’, ‘단정’,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 남자의 특징을 나름의 표현으로 공표 하면 어느덧 남자는 그같이 공표한 여성의 호객 행위 대상으로 삼아지며, 주변의 여성들은 그 남자를 자신의 호객 행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물리적 통용되고는 했다.

마흔 일곱 살의 연주 씨처럼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인근의 쇼윈도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 비해 더욱 편근에 자신의 몸을 내추었고, 쇼윈도의 젊은 여성들이 상대하기를 꺼리는 일어 보이는 허름한 손님들을 주로 상대했다. 연주 씨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은 대부분 그렇듯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서로간의 구역을 정해 영업을 했다.

영업을 하지 않던 어느 날, 누군가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던 연주 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판기 커피를 몰아 건넸다. 그러자 어떤 여성이 다가와 왜 자기 구역에 들어와 영업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내 시비가 붙었다. 그곳은 그 여성의 영업 구역으로서 연주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연주 씨는 영업을 하기 위해 사상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여성은 따무가대로 따지고 붙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연주 씨도 지지 않고 설명했지만 어느새 그 여성 주변에는 함에 생활하는 젊은 업소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사소한 시비는 어느새 싸움으로 이어졌고, 혼자 붙어있던 연주 씨가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를보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말 한아디나
할 수 있었다니? 난 그기 보고 쓸 흥분했어.
내가 딱 천호동에 가 보고 싶더라고

90 유감한 여성들, 누대를 하고 달리는

몸이 엉망이 된 연주 씨는 문을 닫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여성들은 업주를 끼고 영업을 하는 처지였는데, 이런 경우 혼자인 연
주 씨가 상대적으로 편해야 하는 심리적 위축감은 당연했다. 그런 처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
했다.

"그쪽은 주인까지 몰려와서 왔다갔다하고, 많이 다친 사람은 나였는데,
그때 내가 많이 맞아서 허리를 다쳤거든. 송? 근데 내가 경찰한테 그런 얘
기를 했더니 전부터 허리 디스크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이나 하고, 나
한테는 몇 미디만 물어보고, 송? 신고한 사람은 나였는데, 나보고 진단서
들어 오려면 물어 오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퍽 말하더라고. 내가 좀 울
분이 났었어."

업주가 있어서 좋은 점은 그럴 때였다. 단속이 시작될 때 미리 정보를 알
고 대처한다든가, 이웃과 싸움이 났을 때 용타리가 되어 준다든가. 하지만
연주 씨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연주 씨를 우울하게 했는
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오래도록 자위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을 그
렇게, 송,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뭐 남비, 송? 범람
이나 갈보 이런 말은 잘 안 쓰잖나. 송? 자라리 온락이나 매춘, 매춘 여성,
뭐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나. 근데, 역시 내가 매춘 여성인 건 맞아.
맞지만 민중의 지경이라는 경찰이 송? 자라리 역 앞에서 왔다든가, 그렇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데, 근데 경찰들이 나보고, 아침부터
갈보년들이 와서 지랄하더라고. 나 그때 정말 비참했어."

연주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종 전에 경찰사에서 당한 성희롱에 대해 이
야기할 때는 담담하게 그제 대수로운 것 없는 일상 중의 한 토막 정도로 얘

필요 혹은 필요성에 의거한 것

기하던 그였다. 그런 연주 씨가 골아 '갈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얘
기할 때는 눈물까지 흘렸었다. 30년 가까이 성을 팔아 온 여성이 그말 한
아디에 팔린 감정을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털어 내지 못하고 있었
던 것이다.

나는 그제 편안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몸과 말이 곧 상처의 자
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몸으로 당한 성희롱의 기
억보다 말로 당한 성희롱이 더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 것 같아. 우리들은 이렇게 송? 몸으로 송, 그러잖나. 그러니까 경찰
들이 내 것을 만지도 속으로는 그래도, 그냥, 아씨(아저씨) 왜 이래요, 하면
서 넘어갈 뿐이지. 한때 그때, 갈보라는 말 들었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 일
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런 일 있구 나서 누가 도와줘 가지고 내가 전정사까
자 있어. 그제 결국 뭐 혼자부지되고 말았지만, 하여튼 그때, 다른 것 같아,
다르더라고."

목소리여 힘을 주어 '다르다'고 말하는 연주 씨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결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연주 씨는 그 일을 '정말 많이 속상했던' 기억으로 떠올렸다. 그는 무언
가를 표현할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싫은 것은 싫은 것으로, 그리운 것
은 그리운 것으로 굳여다기 표현 없이 소탈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따라서
연주 씨가 '갈보'에 입힌 속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결코 그제 그런
일상 중의 한 토막에 지나지는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내가 아는 여성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구류 관장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던 일이 있다. 서울의 오래된 상가에 자리 잡은 한
곳인 C 지역에서 일하는 그는 당시 연행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건 폐
의 감아네'라는 말을 들었다. 경찰이 단속 나왔는데도 다른 여성들처럼 도
발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유치장에서 그 여성이 경찰에게 들었던

92 유감한 여성들, 누대를 하고 달리는

말은 폐렴의를 들먹이던 말보다 더 깊은 모욕감을 안겨 주었다. 경찰은 그
에게 '몸 파는 주세', '개한테 못한 인간'이라는 식의 말을 태웠고, 그 여성
은 '개한테 온 말아먹는 나네'도 게 같은 존재'라며 말했다.

그 여성에게는 경찰이 던진 바하의 말들이 단지 말로 그치지 않았다. 여
전히 혼돈스러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확인, 그로 인
한 좌절을 동반하기 때문이었다. 경찰로부터 주는 '우리 같은 여자들'에 대
한 바하는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그들의 실락을 파고들
어 그렇듯 자를 수 없는 기억으로 쌓여온 했다.

그 여성은 직원들이며 수감자들이 온통 남자뿐이던 그곳에서 문을 닫히
지 못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버린 채 항의를 했다.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을 남자들에게 조롱과 조악함을 동시에 받으며 이른바 나체 시위를 벌
인 것이다. 경찰 중 한 명이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한 증거로 남기겠다고면서 비
디오를 들고 나와 나체로 버티고 있는 그 여성을 촬영했다. 여성은 제 스스
로의 표현에 의하면 '꼭지'가 붙어 이런 사실을 기자와 여성 단체에 다 알
릴 테니 무고 보라며 끊임없이 더욱 악을 쓰고 질문을 무도했다. 그러자 경
찰들은 아내 사자를 하였고 여성은 독방으로 옮겨졌다. 혼자 남겨진 여성은
사흘 동안 단식을 하며 그 비디오 테이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여
성의 요구에 따라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는 지워졌다. 며칠 뒤 여성은 구류
기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에게 남겨진 모욕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
고 있다.

나는 자기 스스로의 장점을 잘 잊는 것 이라고 했던 연주 씨의 말이 떠
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나쁜 기억, 슬픈 기억들을 머리 속에서
잘 몰아낸다고 했다. 어느 해인가, 피정부에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나이
많은 여성 한 명은 '논넬'을 받을 때 당시 유행했던 코미디 배우의 대사를
떠올리고 있다 보면 남자들의 위력거리는 소리와 행위에 조곤은 무감해할

필요 혹은 필요성에 의거한 것

수 있다며 웃웃음을 흘려 보이곤 했던 것도 떠올랐다. 그와 처지가 크게 다를 것 없는 연주 씨는 결국 그 '길보'라는 말 한이다. 경찰사에서 들었던 자기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그 말 한마디를 지금껏 지워 내지 못하고 있었다.

몸에 남겨지는 상처와 마음에 남겨지는 상처는 분명 깊이가 다를 것이다. 물론 머로 말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연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지니고 있는 시간 탓에 몸에 남겨지는 상처에는 어느 정도 무감해지고, 더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길보, 날비, 범상, 오랜 세월 생애에 지역을 율리살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이면서도 또한 낯선 말이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에 때때로 적당함을 표출하는 것에는 필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몸은 제법했으나 마음은 아직도 그 낯말과 생각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 못한 그들 스스로의 마음에 고스란히 살아 있는 일종의 자존감일 수 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성 노동자', 그 낯말이 던져 준 자극

연주 씨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1월, 우연한 기회로 홍콩에서 열린 어느 국제 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국, 한국, 필리핀, 일본 등에서 생애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정확히 말하자면 '성 노동자'들과 관련 NGO 활동가들이 모였던 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하여 여기에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배운 근심'을 논하기 모인 것이 아니라 '성 노동자'의 권리를 논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다.

"그 회의는 나한테 충격을 줬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렇다고 그 일부러 내가 뛰 으르으르 하고 다니는 건 물론 아니었지만, 그, 그 성 노동자라는 말,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연주 씨는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존재함에도 그것이 성희롱인지 몰랐듯이, '성 노동자'라는 말, '성 노동'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하긴 사회에서는 수시로 성매매는 노동도 맞고 아닌 말스런 뉘즈라고 인식시켜 주었으므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 혹은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물어 물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우리 나라를 생각해 다 다르지만, 응? 그 여자들이 저기네 권리를 얘기하고, 토론하고, 난 있잖아, 우리? 우리 아니어도 알잖아. 사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고, 친호동 여자들이야 어렸을 자기를 목소리를 내기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냥 제법하는 거지, 응? 근데 그 여자들은 권리를 얘기하더라고. 우리도 일련의 노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 그런 것도 맞더라. 우리가 하는 게 노동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야."

그 말을 하는 연주 씨의 얼굴은 흥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시절의 연주 씨에 대해서 어렴풋 알고 있었다. 회의를 다녀온 뒤, 이곳에 사는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는 성 노동자야"라며 자신의 생각과 회의에서의 경험을 소위 넓어 얘기하곤 했다. 물론 여성들 중에는 '이 언니가 난데없이 무슨 소리인가'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더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하곤 했다. 심지어는 연주 씨가 갖고 온 회의 자료들을 복사해 읽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

나는 연주 씨가 스스로의 행위를 '성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에게는 생애제를 '성 노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반될

정치적 의미 혹은 사회적 파장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작어도 '길보'보다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온갖 사회의 더러움이란 더러움은 그 한 낯말에 다 응축해 놓은 듯한 '길보', '성 노동자'라는 낯말의 태생이야 학제론 아니론 간에 어렸을 그곳에 모인 여성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들의 언어로 다시 정의 내린 말인가에 연주 씨는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만일 연주 씨가 그 회의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아니라 학자이거나 유명한 활동가일 뿐이었다면 그 낯말을 받아들이는 데 모인 신뢰의 깊이는 분명 확실히 않았을 것이다.

"난 그 회의 때 거기 홍콩의 사장님에도 가 봤거든. 나 혼자 간 건 아니고 몇 명에서 같이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때 열 일곱 살 짜리 여자애를 만났잖아. 개는 혼자서 영입하면서 살고 있더라구. 근데 얼마나 불안하던지 내가 물어서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날 거기 반도 안 되는(자기 방을 물어보며) 방에서 매트리스 하나 깔아 놓고 영입을 하고 있는 거야."

연주 씨는 그 여성을 보고 '불쌍해서 울었다고 했다. 나는 뭐가 불쌍해서 울었느냐고 되물었다. 열 일곱 살의 여자애가 하고많은 일 부르고 결국에는 몸 파는 말까지 내뱉은 사연이 불쌍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가난하게 사는 게 불쌍했는지, 나는 이어진 연주 씨의 이야기에서 그가 '성 노동자'라는 낯말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자극에 흥분되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물리지 않는, 그가 당시 겪었을 혼돈스러움의 단서를 찾아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로겠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모르지, 그냥 영입하는 게만 그런 거였는지, 만 데 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모습은 너무 불쌍했어. 내가 일도 안 통하는데 그 애 손을 잡고 응? 내가, 응? 이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다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연주 씨가 느낀 감정이 아이도 통통 피식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자신과 그리 처지가 다르지 않은 낯선 타국의 어린 여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갖게 되는 통통 피식, '성 노동자'라는 낯말에서 느낀 회색은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는 모순의 또 다른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나는 몇 번이고 빙빙 돌려 가며 그것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연주 씨는 뉘즈가 '가난하니까 불쌍하다'는 말만 되물었다. 가난한 타국 여성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단순히 연민 그 자체의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에서 애써 무언가를 꼬집어 내기 위해, 논리를 관철시키려던 나의 초라한 코르함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연주 씨는 이 회의에서 한 가지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외국인 통역자 한 명과 NGO 활동가 한 명이 함께 통역했었는데, 국가별 보고 통역한 발표는 그 NGO 활동가가 준비했다. 출국 전에 통역을 맡은 외국인 여성과 몇 번이나 만나 서로의 의사 소통 방법과 정서 통을 직접 기도를 갖기도 했다. 그것은 더욱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그 통역자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연주 씨는 연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한국 상황에 관한 발표문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연주 씨는 그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보고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난 정말 참아 놓았어. 그 애가 왜 그렇게만 말할까. 다른 나라 여자들은 자기에 권리, 응?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걸 아니더라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난 거기 가서 처음 들어, 전에 그런 보고서를 같이 본 적도 없어. 숙소에 들어가서 그 애랑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했는지 모른다. 너."

연주 씨는 '도론'이라는 표현에 애써 힘주어 말했다. 그에게 익숙한 말이 아닌 토론이라는 생경스러운 말을 썼을 정도로 그에게 이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사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열리는 상대에 관한 회의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중언자', '현직 대순 여성', '전지 대순 여성'으로 참여해 왔을 뿐이다. 중언은 삶의 과정, 즉 얼마나 어려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어떻게 상대에로 유입되었으며 또한 현재는 어떤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곤 했다.

나는 가끔 이제 더 이상의 중언은 사족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언은 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해 서언지 중언하는 이의 지구력을 필요로 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제재 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더러는 중언하는 과정에서 중언자 스스로 모델감과 심리적 손상감을 입기도 했다. 또한 그들의 눈에는 중언의 대가로 보여져야 할 변화가 쉽게 감지되지 않기에 과정이 끝나면 중언자가 겪었던 감정들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으로 남을 뿐이었다. 2001년 가을 한 기자는 여성 운동 단체가 다른 몇몇 기관과 공동으로 상대에 법안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며 여성들이 중언자가 아니라 연구자로 참여하는 걸 보았다. 물론 참여의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스스로의 삶을 사회에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들이 그런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여자에게 보인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일종의 감내 정도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때때로 어떤 심리 기제가 작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제발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존재한다. 물론 각자의 바람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상대에

100 | 부당한 여성들, 누대를 하고 말라

현장에서 느끼는 부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며, 더러는 상대제가 아닌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를 일주에 본다. 하지만 세상은 가진 기구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듯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인생을 걸고 하는 중언의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바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자니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와 바람은 또한 자국히 사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중언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있는 통로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들 스스로의 욕구이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자제인 것이다.

연주 씨는 다른 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중언자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참여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잘 이상했어, 한국 여자들은 다 불쌍하고, 다 성 노예로 팔려 다니고, 병 들고, 죽은 여자가 있다 그러고, 물론 죽은 여자가 세 없잖아? 불쌍한 여자도 있고, 장애, 병? 팔려 다니는 여자도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모든 경찰이 다 나쁜 거 아니고,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거 아니고, 모든 포수가 다 나쁜 거 아니야. 난 저글이야 이렇게 혼자서 프, 프, 프리랜서, 용?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전에 주인 밑에서 일했을 때도 그런 거 없었어. 밥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손님 나가면 정해진 대로 갈라서 갖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난 그거 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자리에서 연주 씨는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 내용을 처음으로 들으며 이해할 수 없음과 수치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수긍할 수 없었고, 다른 나라 여자들은 당당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라만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데서 오는 수치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런 까닭으로 연주 씨는 그 NGO 활동가와 그토록 한참 동안이나

101 | 부당한 여성들, 누대를 하고 말라

토론을 벌였던 것이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경찰에 의한 성희롱 기억을 떠올리며 자기 같은 저지의 여성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제는 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연주 씨의 편견 없는 마음이기도 하며, 또는 스스로 정리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과정의 표출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편견 없는 마음이란 혼란의 표출이란 간에, 지금껏 우리가 상대제를 논할 때 그렇듯 한 가지 시작만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기자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중언해 온 한 여성은 이처럼 여성들의 상황을 확인화된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것에 거의 분노에 가까운 표출을 보였던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거친 기질에 하나, 잘못 있는 감정 변화에 한 토막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는 당시 관련 NGO 단체를 속에 편입해 있던 '여군은 나쁘다', '기자는 여성은 불쌍하다'는 이분법적인 기존의 시각에 제동을 걸었다. 어쩌면 연주 씨 역시 당시 그 여성의 문제 제기와 비슷한 의견이었으나 그것이 여지 언어로 정리되어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제에 대한 논의가 '법률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있다. 연주 씨의 국제 회의 참여 경험은 비공개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했지만, 설령 그 회의에서 논의된 '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사회 일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행위로 치부될지 모른다.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여지없이 논쟁에 입하는 어느 한 부류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모순은 연주 씨 역시 회의에서 보고된 한국 상황에 대해 무엇이 반문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부류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상실당한 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 역시 모르지 않고 있었다.

1퍼센트의 절망과 희망

연주 씨는 스스로 밝혔듯이 업주의 힘을 밀리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며 일한다. 업주에게 속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기도 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종종 끼어드는 최후권에서 사소한 사이라도 불을 피우면 주인 없고 남편 없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주 씨는 최후권의 사소한 시비 끝에 휴면 무를 거 맞았던 적이 있다. 술과 약에 취한, 유독 작은 체구의 연주 씨가 몇 야다 대응하자 그 업주와 함께 살고 있던 젊은 남자가 나서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잘 잡지도 못했다고 했다. 연주 씨에게 그런 일은 가끔 벌어졌다.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어느 순간 그만뒀다지 벌어져 있고는 했다.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를 지키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누르고 있지 못하게 될 때도 더러 있었다. 또한 '존엄'의 처지로 '현재' 상대자가 되는 남자들에게서 당할지도 모를 폭력에 무장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연주 씨의 경우는 그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떠올리면 숨겨지는 기억을 머리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그의 특징도 그 같은 두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허물어지고 만다.

2000년 9월 어느 날, 새벽 4시경에 연주 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업을 하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그 즈음 한 남자와 간단한 흥정을 마치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통장 기록은 4만 원이었다.

남자를 방으로 안내하자마자 남자는 무척다고 연주 씨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바다에 쓰러뜨렸다. 그러곤 문을 닫아 잠겼고, 옷부터 벗으라고 했다. 이런 경우 연주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 자라리 빨리 연애 마치고 돌아가라. 생각하며 일본 자리에서 일어나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남자는 연주 씨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상체에 이불을 뒤집어씌웠다. 남자는 연주 씨가 집 곳곳에 놓아 둔 남자 구두를 보고는 겁에 질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평소 연주 씨는 특이나 하는 마음에 부러 남자 구두를 몇 켤레 사다가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지냈다. 남자의 폭력과 전제질은 연주 씨의 벗겨진 이빨도라를 함께 취지 않고 이어졌다. 그런 상황은 아침 9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날 연주 씨가 겪은 사건은 이웃의 여생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연주 씨는 이 일로 오랫동안 명원 심세를 저야한 했다.

나는 당시, 연주 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치마 폭마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거의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 있는 연주 씨의 얼굴은 짓이겨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이 잘 보기 좋았던 그 연주 씨의 얼굴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남 그랬어,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 생각만 몰다라고, 그냥 그랬어, 내가 살았구나, 그 생각. 참 이살데, 몇날에는 용? 죽으려고 많이 그랬어, 알잖아. 그게 언제더라? 그 화투판에서 싸움 나고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이었을 거야. 아아, 내 괴물들, 통장들 여기 이 자리에(화투판을 가리키며) 다 모아 놓고, 여기 양쪽 주머니에 콩알(콩다레) 잔뜩 넣어 가지고 한강에 갔던 거. 난 그때 정말 절실하고 간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살고 죽는



‘내 몸한테 피가 많지, 학 먹는 거, 어떤 때는 내 위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먹지, 안 먹고도 나가 봤는데 못하잖아. 습관이 무서워, 그런 것도 피지.’

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죽으려고 한강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생긴 일인데, 딱 그 생각 몰다라, 내가 살았구나, 편 생각을 몰지도 않았어.”

연주 씨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그리 많이 얘기하지 않았다. 아니 거의 하지 않았다.

‘그날 그때 그러더라구. 나보고, 나중에 내가 병원에 물어 줄 테니까 오늘은 내가 나한테 좀 맞아라, 그러더라구.’

오늘은 내가 나한테 좀 맞아라. 연주 씨는 이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섯 시간 동안 남자가 내뿜은 말 중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욕설을 제외하고 그 말이 전부였다. 오늘은 내가 나한테 좀 맞아라.

연주 씨는 오히려 자신을 폭행한 그 남자에게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 여기 뭐 연애하고 싶어서, 그 성욕을 못 참으니까 오는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 좀, 내가 이런 생활하면서 느낀 건, 용? 이런 데 오면 우리 같은 여자를, 용?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용? 사회에서 그런 불만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같기도 하고.’

남자가 내뿜었다는 그 말에 대해 다시 질문했을 때, 연주 씨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갖게 된 생각 하나를 말했다. 나는 이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들의 무언가가 대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런 거, 잡어서는 못하는 그런 거,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 네, 뭐 속하기도 하고 기괴함? 이상한 사람 걸리면 용? 좀 살하게도 하고,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거야, 남자들은, 그 남자에게도 개미 아버지가 군안이라, 그러니까, 좀, 그랬을 거야, 용, 그런

것지.’

다섯 시간 동안 남자는 때리고, 욕하고, 연애하고, 또 때리고, 욕하고, 연애하기를 되풀이했다. 나는 연주 씨의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성폭행이라는 낱말이 떠올랐다. 그런 삶을 겪는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행인 게 분명했지만, 나는 그런 나의 생각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연주 씨는 그나마 자기 상체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기에 상처가 그만 났을 거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생활하는 방과 손님 받는 방을 엄격히 구분했는데, 그 방에는 전화기가 없었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아, 전화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휴,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출근할 때 안 됐나? 출근해야지, 그런, 출근은 해야지, 이렇게 고드렸어, 아침 9시가 남았을 거야, 그때가, 용? 그 남자가 언제 기다리고, 나는 그 남자가 가는 게 너무 고마워서 계단 입구까지 따라 나갔어, 그날 정신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용? 어떻게 딱? 아침 몇살이 조를 들어오는데, 끝로 나가는 그 남자가 그렇게 고맙더라구.’

남자는 나가면서 연주 씨의 얼굴을 보았다. 입그려진 그의 얼굴을 보고는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갔다 줄게’라는 말을 남긴 채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는 깊은 건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다. 다행히 그도 연주 씨를 보았다. 한눈에 연주 씨의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걸 알아본 그는 앞서 나가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큰소리로 ‘연주씨!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저 그 모양이야!’라고 다그쳐 물었다. 연주 씨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야 ‘오빠! 나 좀 살려 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랬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남자는 곧바로 철물점 아저씨의 손에 잡혔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인

근 지역의 직장에 다니고 있던 스물 여섯 살의 평범한 젊은이였다.

파출소에서 연주 씨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다. 연주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남자는 손님으로 들었던 사람이며, 그에게 다섯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조서로 꾸며졌다. 이웃의 아는 언니 한 명이 소식을 듣고 급히 파출소로 달려왔는데, 한산장이가 된 연주 씨의 얼굴을 보고 기가 막혔던지, '어떻게 악한 여자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고 남자에게 따졌다. 그러자 남자는 '제삼자는 참견하지 말라'며 버럭 화를 냈다. 그 말에 연주 씨와 일행은 더욱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정식으로 경찰서까지 올라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연주 씨는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며, 따라서 그 남자와 윤락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 남자는 문이 열려진 문을 타 들어와서서서 무작정 웃을 짓고 폭행한 것이다. 라는 새로운 말을 했다.

연주 씨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표현했다. 처음에 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들려 준 그 상황을 내가 '명확한 거짓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히하며 재차 설명해 주었다.

"그때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 응? 남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연주 지니어 고시고 때려갔으면서 윤락 행위 안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응? 그 남자가 폭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폭을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 아줌마가 거짓말한다, 응? 그럴 거 아니냐? 내 얘기를 적으로 쓰는 것은 자유지만 어쨌든 거짓말이야."

연주 씨는 거짓말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 거짓말의 배경은 이러했다.

"그때 한 여섯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코피까지 엄청나게 되고 머리는 깨졌지, 거기에 윤락행위법(윤락행위등방지법)까지 보태지면

화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문을 때렸고 들어가서 구류를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는 그 남자가 그냥 들어온 거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한 거지. 사실은 내가 때리고 들어간 건데, 내가 때리고 가기는 했고, 응? 일방적으로 맞기는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윤락행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단 연주 씨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들이 '존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폭행 등 치명적인 일을 당해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당장에 직면한 문제가 폭행이나 그에 얽힌 사건이라 해도 그것이 성매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남자와 여자를 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른바 '평별'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연주 씨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파출소에서의 진술 내용을 반복한 것이며,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도덕적으로 몇몇하지 못했다며 자조하곤 했다.

파출소에서의 내용이 반복되자 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은 더욱 길어졌다.

"경찰서에서 내가 하도 일관되게 말하니까, 응? 그럼 뭐 먹고 사냐고 묻더라고, 나는 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아가씨들을 데리고 있었다. 지금은 다 나가고 없어서 가끔 펌프 일을 하며 소강한 시키 줄 뿐이다. 먹고살라고 그러는 거다. 하지만 그날은 그날 아는 사람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들려왔어. 물론 펌프도 그 윤락행위법에 걸리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응? 내가 직접 윤락 행위를 했다고는 절대 안 했어."

경찰들도 연주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이나 주위의 몇몇 경찰은 이미 성매매 현장의 연주 씨를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뭐냐 연주 씨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기에' 사건

은 일단락될 기미가 보였다. 더욱이 그 남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제대로 확인해 내지 못했다. 결국 연주 씨의 집 앞에 제각각 사건을 첨부해 조사 과정은 일단락되었고, 연주 씨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할아를 통해 사건은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1년 뒤, 연주 씨는 같은 공간에서 낯모르는 남자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지난 번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새벽 4시쯤이었다. 이번에도 그날과 같은 상황이었다. 연주 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앞에 선 남자에게 4만 원의 휴대 값을 '약속' 받고 발로 밟아 갔다. 연주 씨 손에 이끌려 들어간 남자는 발로 들어서자마자 무작정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꼭 1년 전과 비슷했다. 폭행은 한 시간 남짓 계속 이어졌다. 그 순간 연주 씨는 '내가 이렇게 죽는 지구냐'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젠 좀 그렇더라고. 내가 병에 든 것도 아니고, 차 사고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건 너무 사납퍼. 그런, 난 있잖아. 1년 전에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응? 그 상황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깐 내가 안 죽고 살아 있더라고. 난 그게 고마운 거야."

이유 없는 재질이 이어지는 동안 연주 씨는 언뜻언뜻 스스로를 닮았다. 약에 질고, 흥얼거린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또다시 부주의했던 자신을.

남자가 때리기를 멈추고 뛰으로 나가자 비로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자는 곧 다시 돌아와 방금 전처럼 다시 한참을 때린 후에야 나갔다. 그때 연주 씨는 그가 1년 전의 그 남자라는 걸 느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다시 내려왔을 때, 거리의 불빛 몇 자라도 남자가 함께 밀치고 들어왔었다. 그때 남자의 모습이 얼핏 몇 사이로 비쳐졌다. 1년 전 그 남자 정도이기, 그 정도의 심부름이 느낌으로 살아오는 것 같았다. 연주 씨는 그가 1년

전의 그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러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무의식중에 주변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화식을 올렸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연주 씨의 전화를 받은 건 평소 그와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의 한 임주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경찰도 있고, 119도 있는데 말이야. 그치? 내가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도 그 언니를 제일 먼저 찾았더라고."

그 임주는 전화를 걸어야자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연주 씨의 집으로 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땀방 잡아 버렸다고 했다. 격박한데가 울려 떨어질 정도로 연주 씨가 쓰러져 있는 복도에는 온통 피투성이였다. 그래서 곧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 물론 연주 씨 가슴속에서는 '그 남자 같아요, 맞아요, 그 남자인가봐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연주 씨의 가슴은 터져 버릴 것 같았다. 경찰은 연주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1년 전의 남자를 소환해 심문을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 돌려보냈고, 결국 연주 씨를 폭행한 남자는 찾지 못한 채 호지부처되고 말았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주 씨는 경찰로부터 1년 전의 그 남자와 대담 심문을 해야 하니 급히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연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마주 대하고 있게 되었다.

"어휴, 가슴이 딱 일어나 울릴거였는지 몰라. 그래도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봤어. 그 남자는 어떻게 눈을 내리깔고 절대로 나한테 눈을 못 맞추더라

고 난 그 남자라고 99퍼센트 확신했어. 하지만, 난? 음? 1퍼센트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얼굴을 똑바로 봤던 것은 아니니까. 음? 내가 또 뒤에 취해 있었을 거고 난 지금도 그게 기억 나. 이렇게 불빛에 비춰진 그 남자의 채굴머, 느낌, 그런 걸, 많이 속상했지만, 그 1퍼센트 때문에 그가 아니면 엄청난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경찰한테 아닙니다, 100퍼센트 장담할 수가 없네요, 그러고 왔어. 그때 내가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 무심지, 다시 본다는 게.”

대질 심문을 마친 뒤 연주 씨는 그 일을 빨리 잊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또다시 누군가가 불췌 나타나 자신에게 이유 없는 대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 뒤 연주 씨는 혼자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연주 씨는 두 남자가 혹은 그 남자가 왜 자신을 폭행했는지 여전히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한 혹은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 놓고 표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사건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라며 씁쓸히 웃곤 했다. 그날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약속 한 상태였고, 제다가 술까지 마셨으며, 전에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못한 자신 탓으로 돌렸다. 연주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경솔하게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 설명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고, 실력과 이해라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연주 씨에게는 하지만 정말로 분노가 없을까. 그는 나와 만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지나가는 말로라도 원망을 하거나 분노를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 사고는 아무리 예를 써도 충격적 기억 속에서 자취지 지 않으리만큼 큰 충격으로 남았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정 노동자'라는 낱말을 처음 알게 되면서 느꼈던 화열과 위안이 연주 씨에

게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럼, 그 말은 나한테 안 잊혀져, 총격 같은 거, 음?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런 지금도 같애.”

연주 씨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했다. 이전까지 자기가 ‘몸 파는 여자’ 이기에 겪게 된 가슴 아픈 기억을 마음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 내던 그였다. 한 때 ‘정 노동자’라는 낱말을 알게 된 자신의 경험은 여전히 그 어떤 경우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다른 여성들과 달리 자신이 그 피해에 참여하게 된 것이나, 그런 계기를 통해 자신이 ‘정 노동자’로서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주 씨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족이나 업주라는 보호막이 없으며, 끝을 두기 삼아 한 세월 아깝으로 지내 보기에는 이미 중년의 나이가 버겁다. 연주 씨는 위에서 설명된 그 일련의 사건들처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어르고 보셔야 지켜지는 권리

나는 언젠가 연주 씨에게 인권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정작 나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인권, 사람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까이 실현 무제를 쉽게 펼쳐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 그래, 뉴스에 나왔던 천호동 여자들처럼 음? 이렇게 어리석게 두르고, 나는 나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건가? 이렇게 여자들이 똑똑이 된 것도 없고 오세오세 하는 거, 그런 거? 아휴, 난 때는 게 없어서 잘 모르

졌다. 하여튼 인권은……”

연주 씨는 내 질문을 어렵게 받아들였다.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하고, 입사의 말을 잊지 못한 채 다들처럼 그렇게 말했을까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질문했다. 연주 씨의 처지에서 어떤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 어려우면 성을 팔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으며, 그저 표현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유난히 작은 채굴머 그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고.

“음, 그런 거, 예를 들면, 음? 여자가 연애하면 이렇게 늙잖아. 근데 위해서 해달라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도 많이 해주고 그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난 번에 다리 다치고 난 뒤에 그렇게 못해 줘. 그래서 그런 남자 들어오면 다시 돈 4만 원이나 얼마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러니까 그거 못한다고, 만 집 가라고 돌려보내. 어떤 때는 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빠, 아저 하면서 살살 달래고 보셔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것도 권리인가?”

그 밖에도 경찰 단속이 걸려 연행되어 갈 때 제발 문단속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 중의 하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딱히 뭐라고 보잡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연주 씨의 얘기는 참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권이 있다면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주 씨는 이미 그 방법들을 세 가지나 얘기한 셈이다. “나는 나다”라고 목소리 내는 것,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돈 쥐서 돌려보내는 것, 갑당하기 힘든 손님은 살살 달래고 보셔서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 중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또한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도.

“나? 보시는 거, 허허허.”

연주 씨는 두 가지 물음에 한 가지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이 나왔을 때 대답한 어나 질문한 어나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연주 씨는 웃음기를 희미하게 간직한 채 또다시 천호동 여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비록 때는 게 적어 그럴 뿐이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었다.

나로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 연주 씨의 이야기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다. 대낮에 찾아오는 단골손님, 학에 취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 난폭한 손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 등 자신이 갑당하기 힘든 손님은 돈 쥐서 돌려보내는 것이나 살살 달래서 만 여자에게 보내는 것이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도무지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그 바닥에서 버티 낸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없는 연주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인권론을 풀어냈다.

“나 같은 여자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런 것도 인권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야. 뭐든지 그런 것 같아. 금방 바뀌는 것은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 그만두고, 어쩌면 계속할지도 모르지만, 음? 그래도 이런 아성을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로, 그 자로파라고나 할까. 이런 여자들 중에서 때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인권이다. 그러면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몰라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

연주 씨는 자신을 피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을 피 어떻게 키기 작게 낳았느냐고 부모님께 골통짓 부렸던 일, 마방년자 신분으로 상에게 지역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해 부모님에게 자기 있는 곳으로, 와 보게 했던 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할어놓은 비밀 얘기를 지켜 주지 못했던 일 등이

그 동안 자신이 지은 죄라고 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했다.

“나한테도 죄가 많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못 살았으면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여태 이르고 있는 건 내 합리화일 수도 있잖아. 이것도 죄지. 음?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한테 죄가 많지. 약 먹는 거, 어떤 때는 내 위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이제 약 좀 그만 주라고 제발 약 좀 그만 들여보내시오, 이라고 근데 나는 약 안 먹으면 뭘 정신에 영입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먹지, 안 먹고도 나가봤는데 못하잖아. 습관이 무서워. 그런 것도 죄지.”

정말 을 하지 않는 날 약간 무척무척해 보아기는 하지만 정말 세수를 마치고 요선을 탈라 댕글댕글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평화를 느낄 때가 있다. 정열 하는 날, 가끔은 술과 약에 취해 기만하 내 손을 쥐어 보여 적당없이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그를 보며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다.

약에 취하지 않고서는, 밥이 아니고서는 손님을 받아줄 수 없다는 그에게 ‘정 노동자’라는 말은 분명 요원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더욱더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름, 자신의 이름 말이다. 자칭함으로써 스스로도 문득 문득 떠올라지는 혼란스러운 의미들이 조금씩이나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나는, 연주 씨가 ‘정 노동자’라는 낱말을 알게 된 그 흥분의 여파를 몰아붙여 강제적 합법화 에 대한 현직 여성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스물 여섯 살 젊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의 그에게 그래서 성매매는 결국 근절되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냐며 교묘히 다그치고 그것의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도통 분노라고는 모르는 그에게 자신을 폭행한 남자와 우리 사회에 특기거리를 실컷 내뿜어 보라고 소리 높여 부추기고 싶

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연주 씨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연주 씨는 감당하기 힘든 손님들 삼삼 달래고 고서서 돌려보내거나, 선물로 받은 죄대를 사내의 손에 다시 건네 주는 것으로 그나마 자기 인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하기는 다른 여성들의 자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개의 여성들은 무모함을 알면서도 “나는 나다!”라고 외치거나, 내뿜어지지 않는 소리를 애써 욕 인으로 되받아 넣으며 삭혀 버리곤 한다.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제남하는 법을 배워 가기도 한다.

넌나들이 찾는 새로운 단서

나는 연주 씨에게 처음 이 인터뷰를 제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척하는 마음과 미안함으로 이 원고의 초안을 건넸다. 그에게 원고를 건넨 뒤 연세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경우, 내 마음이 그닥 편하지 않게 마련인데,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급 없이 왔으며 당사자가 느끼게 될 여러 감정들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연주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전화를 했는데, 내 열려자는 달리 무척 맑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원고 풍치를 들고 다시 만났다.

오히려 연주 씨는 자신이 예고롭게 말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마음속에 담긴 생각과 느낌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했다. 또한 내게 몇 가지에 대해 다시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주로 상황에 대한 사실상을 제자 언급함으로써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설명은 큰 도움이 되었다.

자신의 삶이 불행했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어떤 미사여구도 다는 법이 없던 그는 그 동안 함께 진행한 이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

했다.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하다가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음? 네 같은 사람이랄 하면 이 때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내 상황이 그래도 조금, 음? 어디에 남거든다면 나중에 이런 생활하는 여자들한테, 음? 음…… 아이고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잖아. 그래, 내 생각은.”

연주 씨는 특히 남자에게 당한 폭행의 기억에 대해 지금껏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이 글로 인해 자신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말을 아주 어렵게,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폭행했던 남자가 혹시라도 복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젠가 내게 했던 그 말을 또다시 언급하며 자기 같은 처지의 여성들 중에서 복 잃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주 씨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되쳐었다.

오래 전 나는 그의 집 화장실 한칸에 최병희의 소설 『혼불 1』이 놓여져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고 2년쯤 지나 함께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다시 그 집을 들락거리며 이제는 그 자리에 『혼불 8』이 놓여져 있는 걸 보았다. 문밖도 없고, 있으면 꼭 차는 골다름은 화장실에 쏙그리고 앉아 연주 씨가 읽다 찾아둔 그 책을 뒤적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독 ‘갈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깊은 반응을 보게 내고 스스로 지은 죄가 많으며 씁쓸히 되쳐는 연주 씨. ‘갈보’ 혹은 ‘배운 여성’의 또 다른 이름에 눈리 없이 매료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만의 반증이 아닐까? 지난 시간 동안 ‘갈보’로 살며 슬한 삶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연주 씨가 ‘정 노동자’라는 낱말에 유달리 취안을 삼는 까닭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어쨌든 제 삶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희미한 그만의 의지일

지도 모른다.

연주 씨와의 이 작업은 무척 진지했고 나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먼저 주는 경험이었다. 나는 성매매를 둘러싸고 지금껏 너무 많은 단서와 조건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을 겨냥하는 제언이 아니다. 이제는, 연주 씨가 내보이고 있는 그 희미한 의지에서 단서를 찾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지금껏 존재했던 성매매 제제 인과 밖의 새로운 넌나들을 시도하면 좋겠다. 한 발자국씩 내딛으며 파란색 모범 답안을 읽어 버리면 함께 돌려볼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시도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

성매매 지역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

김상미

개나리회를 찾아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지역의 여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자치 조직이 존재했다는 말을 들어 왔다.¹⁾ 하지만 그 조직은 사회 일반에 드러나지 않았고, 자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남긴 예도 극히 드물다. 다만 성매매와 연관된 삶이 길이가 제법 긴 여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만의 묻혀진 역사로 존재할 뿐이다.

오래 전부터 전국 곳곳에 존재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지 못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짧은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인연을 맺었던 여성들로부터 자치 조직에 관해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던 오래 전에는 나 스스로 그것이 자닌 파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는 주로 여성들 개개인의 생애사적 이야기에 비중을 두며 반박하나마 기록으로 남겨 왔을 뿐이다. 그 동안의 작업, 여성들의 살아온

1) 이 글 주문 지체인 지방부, 군산, 용인의 자치회와 특정 '369'로 불리는 성매매 지역에서 자치회 형태가 다르다. 거기론 성회 형태의 하나로 만들어진 거지촌 지역의 자치회는 20일 일회와 정기회 상설 회의를 대항하는 형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전통형으로 구분되는 오래된 성매매 지역에서의 자치회도 활동 양상이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는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그 안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해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여성들의 일상 자력에 의미를 두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다.

이 글은 서울 용산 지역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글을 쓰기 3년 전쯤부터이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취재하기로 하고 당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한 여성 네 명을 찾고 만나서 심의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물론 그들 중에는 마음과 달리 연이은 개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누구 하나 흔쾌히 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시절을 어떤 기억보다도 긍정적이고 당당한 시절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작업을 함께한 네 사람은 모두 40, 50대를 살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되어 일을 시작해 개나리회 조직에 참여했으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이 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나리회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간략한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 말고는 어떤 자료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허물며 사진 한 장, 신문 기사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록의 대부분을 인터뷰에 통해 준 여성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를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대략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터뷰 중 서로가 살아온 내력과 최근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삶보다도 개나리회의 결성 배경과 3년 동안 진행된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인터뷰에 통해 준 여성들의 이름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가명으로 쓴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

고 있던 여성들의 노력이다. 이것이 여성을 안에 존재했던,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스스로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껏 여러 연구와 NGO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러 대안이나 성매매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여성들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느꼈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런 여담으로 나는 여성들이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집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사회를 깨끗이 만든다는 의미의 '운동'이다. 하지만 사실 그 운동의 내부를 들여보면 단지 드러워 보이는 부분을 그렇게까지 잡우고 정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정권의 사회 정화 대상은 부랑인, 전담을 비롯해 성매매 지역의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시적인 '정소'의 의미가 강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 정화 운동의 정당성은 제대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축감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성매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당사자 여성이든 기동서방이든 '포주'³⁾ 든 간에 구분 없이 모두 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는 살형교육대 소문을 들

3) 일부 용어에 대해 약간의 용어변경이 있었음을 미리 쓰기로 한다. 이를테면 포주(당주), 기동서방, 이가씨, 정담(정가제) 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고 자신이 그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과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로 인한 소요는 용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1년 5월 무렵, 당시 도 성매매 밀집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던 용산 지역에서는 몇몇 유지를 주축으로 이른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었다. 주축이 된 유지를 대부분이 '이가씨 장사'를 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자처적 움직임은 정부에 의해 평가절하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정화위원회를 결성하여 내세웠던 활동 내용은 성매매 지역의 '질서 잡기'가 사실상의 핵심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용산의 성매매 거리에서도 '사회정화위원'이라는 한양을 한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었지, 돈 봉투 갖다 주면 일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단속하네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정화위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내 생각에는 정화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포주들이었다구. 그 사람들의 작업이나, 사생활, 태도 어느 모로 보나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지역 정화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 가정부터 정화해야 하는 거였어." (성은아, 기동, 당시 36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성은아 씨에 의하면 사회정화위원회의 자처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 위원직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거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회정화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을

3) 오래된 성매매 밀집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 많은 성을 파는 행위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경우에 따라 업주 차가운데만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순회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질서 잡기'를 위해 매년 모안이란, 여성들이 역 장강이나 큰 도로변까지 나가서 없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영업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는 영업에 나서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배부한 표를 만드느라 달도록 했으며, 그 표를 단 여성들에 한해서만 '히바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업소당 한 명씩 교대로 히바리를 하도록 했는데, 먼저 나가 있던 여성이 손님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른 여성이 교대로 나와 히바리 행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의 것들은 정화위원회에서 일종의 규정으로 만든 사항인데, 만일 가슴에 표를 달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면 이들이 정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의 실제 역할이란 자체 단속이었던 것인데, 이는 경찰과 협력된 과정을 거쳐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자체 단속을 위해서는 각 업소의 모든 여성이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사회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 등록하지 않는 여성도 더러 있었다.

"나는 절대로 본명을 쓰지 않았거든.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다 그런지. 근데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내 주민등록증이야 뭐든 다 갖다 내야 할 텐데, 하기 싫은 거야. 열에 아가씨들이나 포주들도 왜 나보고 등록 안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내 뽕 내가 파는데 지름이 무슨 상관이나 그랬지." (성은아)

여성들은 사회정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사실상 경찰들에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나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 단속을 통해 경찰로부터 달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지역 여성이나 업주의 차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정화위원회의 지침대로 그들이 배부한 표를 가슴에 달고 영

4) '불이익'은 지역의 일본어에서 파생된 말로, 거리에서 직접 상대 남성을 조롱하여 성을 파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업을 나가야 했다. 그 표에는 경찰들의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의미가 동시에 담겨지는 것이었다. 그 주홍 글씨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굴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로 여성들이 염려하는 단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지침이 시행된 첫 날, 표를 달고 영업을 나가 히바리를 하던 여성 중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은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어 가던 중 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정화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당연히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 말만 믿고 방심하다가 생긴 사고였지. 아가씨들이야 당연히했고, 특히 포주들까지 아우성을 쳤어." (성은아)

평소였다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만났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성은아 씨와 주변 여성들은 그 당시 경찰의 단속은 분명 사회정화위원회에 권고를 보여주는 일종의 함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경찰과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규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경찰의 큰 부수임이었을 '상업'의 밀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지역의 반응은 생각보다 거셌다. 특히 업주들은 사회정화위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처음부터 별다른 소명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던 정화위원들은 몇 명만 남겨두고 모두 사퇴했다. 남은 정화위원 중 누군가에 의해 치라리 여성들 스스로 자체적인 정화를 떠맡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한되었다.

"그래, 제일 먼저 아가씨 중에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의견을 했지. 조용히 물어먹으면 단속이 없을 거 아니냐, 그거였어. 한 여지방 나랑 둘이 좀 유령

했는데 저는 포주니까 제치려고 나한테 온 거지.”(고수희, 기행, 당시 36세)

1974년부터 울산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던 고수희 씨는 여성들 사이에서 골통 짓 부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골통 짓은 주로 업주나 경찰을 향한 것이었다. 정화위원들이 고수희 씨를 제일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여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얼마 후 그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각 골목을 대표할 만한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 살며 나간 여성들은 동네에서도 한 가닥 한다는, ‘민만지 않은’ 부류들이었다. 이 의미는 손님에게진 업주에게진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성을 뜻했다. 정화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주최한 의도를 얘기했다. 그들은 여성들끼리 자제적으로 정화를 위해 활동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그러려면 이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성은아를 추천했어. 나랑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제일 나았어. 그 당시 그 사람 말고 할 사람이 없었어.”(고수희)

고수희 씨가 말하는 ‘제일 나았다’는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르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이 화장이 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자치회 성적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벌, 마음 씀씀이, 인성, 똑똑하고, 세고 우선 세다는 거. 세지 않으면 못해. 전달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베풀 나냐. 그리고 고지식하고, 거짓이 없었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아깝게 나갔 것 같았어. 내 짐작이.”(고수희)

고수희 씨가 그를 처음 추천한 것은 정화위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였는데, 장작 성은아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모임에 참석했다.

난 처음에 내가 정화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나를 부르는 건 좀 알았

어, 그래서 속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랄하려면 어디 해봐라. 어디 한번 정면으로 부딪쳐서 얘기 해보자, 그런 상상이었지.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골목, 한 스무 명 정도가 먼저 와서 모여 있었는데, 아는 아가씨 얼굴도 있고, 정화위원 하던 남자 중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내서는 부탁이 있다고, 안간힘을 권인을 권해 함께 일해 보자 않겠냐는 거야. 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나서서 한다는 게 너무 무렵더라고.”(성은아)

1980년 초 삼청교육대에 소집될 것을 우려해 동료 몇 명과 인근 지역으로 도피한 경향이 있는 성은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늘상 골통 짓만 하던 자신의 ‘갑다구’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변 여성들에 의하면 성은아 씨는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내세우는 여성이었다. 다라는 업주나 펍트와의 마찰도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그런 경향이 거듭될수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여자 또 인식되었다. 하지만 업주들과는 반대로 동료 여성들이 보내는 성은아 씨에 대한 신뢰는 무척 깊었다.

성은아 씨는 그날의 분위기를 ‘무척 진지했다’고 표현했다. 제안을 받은 자신이나 제안을 한 주변 사람들, 정화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업주와 동료 여성 모두가 그러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지지 조직을 만들자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무슨 죄를 맡아 이끈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성은아 씨는 거기에 용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화위원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말이 오가더니 누군가가 무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피장단단같은 우리 손으로 직접 풀겠다’

는 의도였다. 극악에서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성은아 씨 외에도 다른 몇 명의 여성이 더 거명되었다. 성은아 씨는 깔깔대 거릴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달래나 한다는 아가씨들 스무 명이 모여서 무표를 했어. 그때 만 여자들도 피장으로 추천했는데 칠판에 장(正)자 세 개면서 뽑았어. 한 명씩 나서서 자기가 화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도 하고 나는 절대로 화장은 안 하겠다. 했으니까, 화장 한 명 뽑았고, 내가 다른 여자 한 명이랑 부회장을 하고, 총무 한 명, 각 구역 대표도 뽑았지.”(성은아)

그렇게 결성된 임원단은 그 자라에서 회의를 열어 자치회의 이름을 ‘개나리회’라고 짓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개나리회’라는 이름은 성은아 씨가 제안한 것이었다.

“개나리가 된 뜻이냐면, 겨울 지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잖아. 그러니까 희망 이런 것도 비유되지고,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피나가 잘 하기도 하고, 여자를 처지랄 바스웠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희망을 가져 보자는 거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가씨들의 자치회야.”(성은아)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자치회 역시 ‘민들레회’, ‘꽃길회’ 등 꽃과 관련된 이름이었던 게 떠올랐다. 고수희 씨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꽃! 이런 아가씨들의 화합아. 아가씨, 뭐, 여자, 그러면 꽃이잖아.”(고수희)

개나리회 회원의 자작은 이름이 표현한 것처럼 인간적 애제만 고초했다. 여기서 종종 표현되는 ‘아가씨’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저나 나 젊은 여자의 높임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며 직접 성을 푸는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에서 언급되었듯이 개나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주가 일부 있고 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펍트들도 있기는 했지만, 개나리회는 성매매 지역에

서 가장 당사자적인 여성들이 그 중심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특히 펍트와 여자 업주에게 연인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물론 모든 펍트와 포주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들처럼 긴 세월 아가씨 생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자신을 역시 더 나아가 물론 펍트가 될 수 있으며, 펍트가 된 젊은 이들 가운데는 중년의 나이를 무릅쓰고 다시 직접 몸을 푸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다면 아가씨들을 몇몇 두면서 자신이 직접 ‘포주’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포주, 펍트=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덕덕 포주=나쁜 사람’이라는 공식이 더 맞는 셈이었다.

개나리회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상담, 회원을 발굴 등과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정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대와 달리 여성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업주가 아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에 의해 구설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 배경에는 당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활이 가질 큰 폭을 차지했다. 인터넷에 통한 여성들은 자신들만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숙자(기행, 당시 34세) 씨는 ‘낙자’인 자신들의 처지에서 말해야 하는 불이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 먹고 싸우고,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경찰이나 파출소에 가다 보면 무조건 우리가 착자나까 우리만 나쁘다고 해서 수용소 같은 데 막 보내니까, 피해자는 우리한테도 일단 연행이 되면 별말을 들은가 수용소에 가야 했잖아. 별말도 그 당시 몇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이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했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었지.”(장숙자)

그 무렵 성매매 지역에서 일한 많은 여성들은 특히 단속과 수용소 경험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회상했다. 성온아 씨는 단속에 걸려서만이 아니라 잘못 짓을 부리는 중에 경찰들에게 입보여 수감소에 입소했던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부녀보호소에 입소시켜 작업 교육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 수용된 경험에 있는 여성들이 감옥 같은 곳이라 부를 만큼 그곳은 '내릴 보다는 수용'의 기분이 더 컸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차라리 경찰에게 돈을 주면 빨리 수감소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상황은 1980년대 내내 성을 파는 여성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도전

개나리회 임원진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회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갔다. 그러던 중 첫날 회장으로 선출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사퇴를 하자 부회장으로 참여하던 성온아 씨가 다시 회장 후보로 거명되었다. 결국 그는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임원 회의를 소집하면 목소리 큰 사람뿐만 중구난방으로 떠돌다가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제법 회의가 됐지. 그때 목적, 사업 내용 이런 걸 정했어. 내가 생각한 거 몇 가지를 적어 가서 함판에 적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첫째가 연식 운동을 위해 일을 해보자는 게 제일 있어."(성온아)

개나리회 임원들은 나름대로 회의 제계를 갖고 개나리회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했다. 거기에는 회장 성온아 씨가 제안한 내용들이 크게 중심을 이루었다.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당시 개나리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적힌 간단한 문서를 건네받았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첩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누군가 드문드문 판호를 치고 편지를 보충하느라 고적거리 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문서를 건네받고 직감이 놀랐다. 이 문서가 지금껏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 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20년 전에 그들이 자신을 자치 조직의 구상 목적과 활동 내용으로 명사해 놓은 사항을 때문이었다. 우선, 그 내용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나리회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

목적

1. 자체 정화: 정부의 사회 정화 사업에 동참
2. 회원의 권익 보장
—모주, 펄프, 기동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직업에서의 해방
3. 회원간의 친목 도모
—불우한 동료나 약한 자를 돕는다
4. 빠른 자립(직업 전환)
5. 건강 관리(생명, 주나인 훈련, 음주 또는 흡자에 복음에서 오는 정신 착란증)
6. 관(정부)으로부터의 폭언(보호나 인정이 아님)

활동 사항

1. 1인 1통장 갖기 운동(자립을 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
2. 건강 관리
3. 기동서방 없애기, 펄프 손님 안 받기
4. 상습 도박 퇴치 운동

5. 주나인 음주 또는 흡자에 복음 안 하기
6. 고운말 쓰기, 손님에 대한 서비스 개선

개나리회 홍보 활동

1. 월도 이동객 착수 제공(착수 사실이 없다. 3통 열자이기 때문에) (오후 1시~오후 4시까지 / 보호자)
2. 조기 청소(새벽 4시 역 광장과 7, 8통 전지역)
3. 불우 이웃 돕기

기타

불우 동료 돕기
위급 환자 병원 앞선 수술
결혼식 주선(동거 동료들)
장례식 위로(그의 동료 방문 및 위로)
정신질환자 또는 무작정 상경자 귀향, 인도
취업 알선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감찰 8명
후원: 울산구 보건소, 서울시 부녀청소년과, 울산 지역 사회정화위원회의
기타: 신상 카드 작성, 회원증 발급, 생일 감전 레스 발급

여기에 적힌 내용들은 거의 과거에 가아했다.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지칭, 이를테면 '모주', '기동서방', '펄프' 등의 말이 명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취', '억압', '해방' 등의 표현이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었다. 그런 용어들의 차용은 분명 그에 가입하는 배경, 즉

여성들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던 문제 의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놀랐던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내부적인,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 의식이 자치 조직 결성을 계기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그들만의 생각, 입장, 주장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살기한다면 얼마나 큰 파격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치회를 조직할 당시에 정화위원들 외에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혹이 들기도 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문서 작성을 도와 준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어쩌면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언어로 토론했을 조직 목적을 누군가가 또 다른 수준의 언어로 정리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 문서를 인터뷰에 응해 준 다른 두 명의 여성에게 보여주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정숙자 씨는 "그래, 맞아. 이거였어"라며 이 문서가 당시에 기록된 게 맞다고 했다.

자체 정화, 회원의 권익 보장, 회원간의 친목 도모, 빠른 자립, 건강 관리, 관(정부)으로부터의 폭언 등 개나리회가 목적으로 정한 이 여섯 가지 사항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그들 스스로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악덕 모주에 첩보에서 벗어나고, 기동서방을 없애고, 펄프가 데려다 주는 손님 안 받고, 뭐 그런 운동을 할이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일 년에 두 번 이상 자원 봉사도 하자고 했고, 회사에서 그런 걸 정하고 나오는데 옛날에 느껴 보지 못한 착취 같은 거, 부끄럽고 편가 충족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어. 뭐랄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앞으로 다칠 일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차피 내가 무슨 무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성온아)

당시 감찰이라는 직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정숙자 씨는 자신을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270 용산천 여성들, 녹대를 하고 말리는

과 여성, 여성과 손님, 여성과 기동서방, 여성과 지역 주민 관계에서 온갖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시장가이다. 하지만 그곳어가에 그나마 두려움을 줄여내며 생활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목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직면하기에는 너무도 무모한, 여성들이 차마 직면하기를 꺼려했던 수많은 경제선들이 높고 두텁게 쳐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특히 '퇴원의 권익 보장—업주, 펄프, 기동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였다. 더군다나 개나리회의 태생이 당시 정부의 정책에 뿌리를 두던 정화위원회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이 문구는 가히 파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도울을 준 업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로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종교 여성을 위한 활동 내용에 여러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치회가 이미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단지 앞선 위원회의 과업을 모방하기 위해, 정화위원회의 연강선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부류, 특히 업주들에게는 이 개나리회가 똥고 있던 목적과 활동 내용이 거의 도전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개나리회와 업주, 펄프, 기동서방 사이에서는 이미 적잖은 마찰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정한 개나리회는 1981년 7월 22일, 인근에 있는 용산기마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임원들은 개나리회를 상징하는 색노란 티셔츠를 단색로 맞춰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저게 많이 모였지. 그때는 업주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으니라 자기네 아가씨들 다 동원해서 오고 그랬어.”(성은이)

발족식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말과 개나리회의 취지 등이 발표되었다. 이때, 임원단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강연인으로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표를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 여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연을 알고

이 그와 같은 목적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까닭을 이렇게 표현했다.

“작업도 벌 띄고 뽕 띄는 현실이니까. 만약에 내가 손님에게 피임으로 한 원을 받으면 오원 원은 포주에게 줘야 돼. 포주는 집 제공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 생업하러니까, 여자는 온 사고, 집값 내고, 다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을 찾자는 거였지.”(정숙자)

정숙자 씨의 경우, 열 여덟 살에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된 이래로 전국 곳곳을 전전하다 용산에 정착한 지 1년 되던 해에 개나리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로서는 이미 십여 년 동안 성매매 제재 안에 살아온 셈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개나리회를 결성하여 남다른 호응을 보였던 배경을 업주와 경찰로부터의 불이익뿐 아니라 자신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상황에도 연결시켰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정말 이 현실이 내 현실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그게 비애였지. 우물쭈물 혼자서 술 안 먹으면 못 견디겠고,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라. 그 당시에는 꽤 그랬는지 몰라. 이 용산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대입이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지지도 않고 밤에 일들 하고 낮에 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상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나씩 뭔가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 취지는, 우리가 비록 열하게,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 생활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그게 취지지.”(정숙자)

정숙자 씨는 자신들이 용산역을 벗어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문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왜냐고 되묻는 내 질문에 “우리들의 온전한 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린 끝에 이른바 ‘사발가’에 모여든 여성들은 그곳에서 제남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함을 느낀다. 업주

여명 역사 271

있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막한 처지는 늘 허탈을 자게 할 정도로 만타로운 상황이었다. 임원단의 그 제안은 즉석에서 성금을 건어 함께 발족식에 참여해 있던 그 여성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데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이 날의 일은 이후 개나리회 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이 개나리회를 구성하며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업주, 경찰, 기동서방, 펄프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 여성을 돕고, 소외 계층을 위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전제와 대항

개나리회는 발족식을 가진 사흘 뒤인 7월 25일부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사업은 용산역 광장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역 이용자들에게 열을 넣은 시원한 보리차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 용산역은 식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던 터였다. 또한 오가는 여행객들이 남긴 쓰레기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쏟아낸 온갖 쓰레기로 늘상 지저분했다. 여성들은 새벽마다 용산역과 인근 거리 청소하는 일도 시작했다.

발원 영업을 한 여성들로서는 자신들의 수면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도 참여율이 무척 높았다. 용산역에는 개나리회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매달려있었다. 초창기 이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들에게 전 원의 걷은 것으로 충당했다. 이 일에는 업주들도 여럿 참여했는데, 여성들에게 수고한다면선서 음료수를 사 주기도 했다. 몇몇 업주의 참여는 여성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 주었다.

“너를 상급행글이었어. 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유나 요구르트

272 용산천 여성들, 녹대를 하고 말리는

여명 역사 273

트를 사 주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달이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정화위원들이었어. 먼저 탈퇴한 정화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롯어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개나리회를 도와 줬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성은아)

하지만 나는 좀 의아스러웠다. 일부 업주들의 풍에도 그랬지만, 그들이 초창기 사업 내용으로 장한 것이 왜 하필 대인 사업이었을까? 그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낯모름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갖춘 여성에게 금지 않은 눈길을 보내던 이들이 아닌가. 장숙자 씨와 인터뷰 도중 나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잠깐 시간 줄여 가며 음료를 나눠 주고 청소를 한 것은 당신들을 손가락질했던 사회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정작 당신들에게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느냐고 말이다.

“글쎄, 우리들의 발달들이었을까? 그다지 뭐 적대감일까 그런 건 별로. 평범한 일상 생활…… 축복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거지.” (장숙자)

이 적대된 질문에 장숙자 씨는 그저 나이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잘아닌다’는 건 다 그렇고 그런 것 이라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 적당한 제법과 적당한 관조, 적당한 편안함이 나는 그리 싫지 않게 느껴졌다.

어들은 자러만 타러만으로 자기가 속한 테두리 밖과의 단절을 ‘선택’한 여성들이었다. 향이나 자산을 알아보는 이가 있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거역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남겨질까와 거짓 이름을 사용했다. 그런 세월이 길면 갈수록 자신조차 제 본디 이름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이렇듯 그곳에서의 세월이 하루하루 보태질수록 제남이저도 뻔스롭지 않은 일로 넘겨 버릴 수 있게 된 그들이 그러한 활동을 계획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특정한 질문을 성은아 씨에게도 던졌다.

214. 후진한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그렇지 않았어. 누가 알아볼까봐 모자 꼭 눌러 쓰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어. 우리도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랄까 많이 했는데, 용산에 가면 우리처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아야. 택시 기사들도 우리가 사원한 음료를 나눠 주면 그게 알아 마시면서 아, 정말 수고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현수막보고 저 개나리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 보면 그냥 지역 봉사회라고 일러버리면 됐어.” (성은아)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런 여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을 가족과 지난 날 행방을 함께 장식했던,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까운 이들에게 향하는 심리는 낯모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였다. 그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바람은 그들 모두가 거의 비슷했다. (혹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지는 않으려나,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여섯살 상대했던 손님은 아닐까, 내 테두리가 ‘그런 여자’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어느덧 사회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도 했으며, 그 두려움의 두께만큼 사회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어떤 여성들이 스스로 행동가 가 아닌 또 다른 거리를 향해 나간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여자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발족식 때 어려운 처지와 동료 여성을 도왔던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자애는 발족식 이후에도 한결같이 지속되었다.

“아름 이가씨를 입원시키고, 집집마다 돈 잔치서 도와 주고, 이가씨를 아르면, 개나리회 회원 아니라도 아프면 다 했어. 또 이가씨 두들겨 때면 우리

여명 역사 217

가 거기 가서 막 뭐라고 하고, 업주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 누가 맞았다. 그러면 와서 얘기했어. 독한 업주들은 그래서 우리를 싫어했어. 수레 낫을 때 모금하러 다니면 돈도 안 내주고.” (고수희)

전에 없어 경조사를 챙기고, 서로간의 상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준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고수희 씨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처지를 돕는 것은 동료 의식의 가장 기본이기도 했다. 개나리회의 동료 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는데, 그것은 다분히 저항적이었으며 표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회가 생기고 나서 여자들이 단체에 걸리면 우리가 다 파출소에 쳐들어 가서 경관을 불러, 하아은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가 불뽕러 갔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잘 아는 여자는 아니어도 개나리회 회원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가서 말했기도 하고 오줌도 싸 놓고 똥도 싸 놓고 말도 아니었어. 그러면 경찰들이 갈구지를 못했어. 택자가 막 오지? 우리는 그 밑에 막 들어가 버려. 때리고 가려면 가라. 버티는 거야. 사람이 차 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요구 사항은 여자 풀어보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질극이지. 좋게 말하면 사위고 까놓고 말하면 인질극. 그게 상당한 적이 많아. 그렇게 실제로 여자를 빼낸 경향이 여러 번 있어.” (장숙자)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썼다.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던지고 있던 편견을 모르지 않았다. 게으르며 게질고 상소리를 잘한다는 등의 사소한 편견들. 그와 같은 인식에 쉽게 동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그동안의 익숙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편견을 조롱이라도 하듯 그대로 내보냈다. 이런 방법은 미단 경찰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다.

“잘하면 힘이 되잖아. 나 역시 자부심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215. 후진한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것 같아. 경찰뿐 아니라 손님이나 펄프, 기동, 업주와의 관계에서 그런 적도 많지. 손님들 중에 나쁜 놈이 좀 많아?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남자들이 들어오면 타임 값이 얼마나 된다고, 여자를 가지고 놀다가 자기네가 불타이려 스가 돼서 사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다시 달래. 남자들이 막 가지고 놀고 주머니 타드리면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짐승도 아닌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싸우게 된다고 사정 못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니까 안 싸울 수가 있나? 살인이라도 나야지. 그럼 신고가 들어가. 만만한 게 여자들이지. 몸종이 다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그럼 막 쳐들어가서 경관 놓은 적도 있어.” (장숙자)

이런 방법은 개나리회 동료들을 해내 오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동안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나리회라는 이름으로 단결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 표시와 타나이기도 했다. “그래, 나는 꼴통이다”라는 개인의 분노 외에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이 소속된 이 모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걸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꾸준히 지속되자 주변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물론 그들의 주된 견제 대상은 입원진이었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였다. 누구보다도 최장 성은아 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컸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업주와 경찰로부터 던져지는 비난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성태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지역 에서 실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영입 행위 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업주와 경찰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편견을 하고 있는 부류들이었다. 한때 개나리회가 집단 행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며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경제할 만한 일이

여명 역사 217

었다.

"맨 처음에는 많이 싸웠대. 하면서도 계속 많이 싸우고, 회장이 욕을 다 먹었지. 그러면서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실패하고. 진달이면 진달, 억주면 억주, 끝까지 실패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었지. 피리파니까." (손소영, 기행, 당시 29세)

손소영 씨는 이미 개나리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같은 업소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개나리회를 알게 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꽃에 동조 하였기에'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는 성운아 씨나 정숙자 씨와 달리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으며 활동 경력도 6개월로 무척 짧았다. 그의 평범한 회원으로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집에서 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었다. 손소영 씨는 업주들로부터 겪는 불편함 때문에 개나리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임원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여자들이 벌써 표정부터 막 달라져. 벌써 피레, 도망가. 같이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 업주들이 뭐라고 하고 못하게 했으니깐. 업주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아가씨들이 도망가고 숨고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초장가나 그루에도 거의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다고 봐. 근데 아가씨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 개나리회 잘한다고. 근데 임원들 얼굴만 보면 막 업에 그랬나며 안면 까. 업주들이 하도 그러니까." (손소영)

임원들이 겪는 불이익은 심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집도 아, 칼질 맞을 정도였어. 어지간했으면 밖에 나가는 게 다 무서웠겠어. 업주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오죽했으면 학바라라고 소문난 회장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한 적이 있었겠어. 하지만 도움을 준 업주도 있어. 인간적인 거지. 세상에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성격을 형성하잖아.

28 손소영 씨성물, 누대를 타고 달리는

모순이지. 학간 모순이 아니라 상당히 모순이지. 그런 업주들도 우리를 도와줬다가도 밤에는 아가씨를 거느리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을 악한 사람은 업주도 못해." (정숙자)

전체의 중심 대상이었던 회장 성운아 씨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들 불지른다. 욕을 비른다. 벽돌로 뒤뚱수를 건다. 수유소에 처넣는다. 뭐 별별 험박 소리가 다 들렸어. 애들이 막 앓고 돌아오기도 했어. 그러면서 물어봐서 누구네 집 업주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럴 내가 곧바로 찾아가지. 처음에는 폭압이 그랬지만 나중에는 나도 이게 그냥 부딪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맞을 하지." (성운아)

그와 같은 견제는 미단 업주나 기동사장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운아 씨는 관찰 구청과 파출소에 불려 가는 일도 종종 생겼다.

"온갖 여성들은 그런 단계를 조직할 수 없다며 나에게 혼계를 하이라고. 온갖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 모임의 뜻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헌법 사건을 몰래 보이며 업보를 놓는 거야." (성운아)

당시 구청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몰래 보았던 헌법 책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의 냉랭했던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주변의 경계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 상황에 감히 '낙엽으로부터의 해방', '작혀 땅지' 등의 문구를 내걸다니. 나는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나의 이런 생각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개나리회가 별강이 처럼 보였을 것이 당연했지만 자신들 통제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별강이 가 아니냐며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만일 이 조직이, 사실상 결실 배경에 결장적인 역할을 차지한 사회정화위원회 작품이라는 데 충실했다면 이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이나 견제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권리한 한수관제에

여편 책자 29

놓이거나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일종의 역할 분담 내지는 하청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자치회들이 이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여 나름의 권한을 배분받았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개나리회 역시 여성들에게 인식되기를 업주나 경찰보다는 약하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힘을 자랄하는 권력의 파면 조자 정도로 남았다면, 그러한 견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의 권리, 몸

개나리회에서는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개나리회 활동을 지지해 주던 당시 용산구 보건소 소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보건소 소장은 개나리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먼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성병 검진 실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를 사이에서 성병 검진에 대한 의논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병 감염 위험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최정부·홍두원 등 기지촌 지역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시행한 경험이 보건소 소장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성병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살아야 했으니깐 아주 조심했지. 그전 우선 여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처음부터 콘돔을 쓰게 했거든." (성운아)

"보건소 소장의 힘이 컸지. 당시에는 검진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곧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돌아가는 했지만 우리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았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는데, 어느 시기엔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보건소 소장으로서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 거지. 검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물론 거부

28 손소영 씨성물, 누대를 타고 달리는

반을 가진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안 가는 거고, 어쨌든 자발적이어. 다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숙자)

여성들이 먼저 성병 검진을 원하고 자제적으로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성병 검진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진행했으며, 검진이 있는 날이면 개나리회 임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홍보를 하고 다녔다.

"나도 그때 검진하러 다녔어. 그냥 가고 싶은 애들 가는 건데, 내 건강을 지켜 주는 거잖아. 나도 피도록 콘돔을 쓰려고 했지만 계층에 감당이 다르다고 해서 안 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콘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손소영)

보건소에서는 굳이 발견되면 약과 주사로 처방을 했다. 안타깝게도 용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용산은 성병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자신이 있을 만큼" 성병 발병률이 낮았다는 말을 했다. 성운아 씨의 말에 의하면 얼마 뒤 서울 한 남동에 성병검진소가 새로 개설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용산과 이태원 성병에 지역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다. 용산 지역 보건소에 있던 소장이 한 남동 성병검진소 업무를 보게 되자 자신들도 그곳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녔으며, 굳이 발견된 여성 중 특별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성은 그곳에서 머물러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클럽 풍자 여성들에게는 성병 검진이 의무였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무척 깊었다. 기지촌 지역에서의 성병 검진은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에 의한 기지촌 정화 정책에 그 맥을 두고 있었다. 이 정책은 미군들로 하여금 기지촌과 한국에 대해 더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정책인데 지나지 않는다.⁵⁴ 기지촌 생활을 즐

54 손소영 씨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낙엽지 수유소인계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성운아 씨는 낙엽지 수유소는 아니었다고 보건소 방문 용이라고 말했다.

55 기지촌 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과 문화 전파의 역할', 일제강점기·최정호 편, 『계몽한 여성』 (한신, 2001).

여편 책자 28

연한 여성 역시 이 캠페인에 대해 '비군에게 깨끗한 한국 여상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를 격렬히 비난했다.⁷⁾ 그 시기 미군 클럽에서 일하며 정기적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던 여성의 대부분은 섹스도 아니라 의무였던 그 제도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만일 성병 검진에서 보건자료로 관망이 나면 낙점자 수용에 보내져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관련 여성 단체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증언에서는 성병 검진 제도는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 역시 의무적인 성병 검진을 '몸 파는 여성으로 볼 수 없이 탈락해야 하는 수모'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개나리회가 자신들의 활동 내용 중 하나로 정한 성병 검진 사업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에 따르면 성병은 많은 여성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상적인 문제 중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콘돔을 써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지간한 여자들이 아니고서는 남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으며, 설명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하에 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란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성매매 밀집 지역 세 군대를 정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적이 있다.⁸⁾ 이때 우리가 행한 아웃리치는 성매매에 대

7) 내적 저음으로 여성들의 자위 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인 김사원(비출판물) 설명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이다.

해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은 별로 없었다. 의지를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여성 단체나 선교 단체와 관연을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폐타적인 인식으로 인해 근접 자체가 불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폐타 의식은 업주나 경찰, 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받아 성매매 밀집 지역의 여성들에게 여성용품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여성용품은 생리대와 콘돔 등이었는데,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관공서와 지역 내 업주 몇 명을 사전에 설득하여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벗어질지도 모를 약간의 마찰과 냉소적일 수도 있는 여성들의 반응에 대해 걱정이 엄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은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 중에서도 유독 콘돔에 관심을 보였다.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콘돔을 전해 주는 것이 으악스럽고 민망한 일이기도 했지만, 우선 콘돔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 유용성의 여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우선은 갖추어 두어야 할 물품이 아닐 수 없었다. 콘돔가의 소원도에 있는 젊은 여성에서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뒷골목에서 펌프나 리퍼리를 하는 나이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콘돔을 비롯 우리가 준비해 간 물품을 거부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더 줄 수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나눠 줄 수는

8) 개미촌 군집을 위한 한스리치가 주최하여 1999년에 이루어졌다.

없는지를 묻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지니고 있었을 우려에 대한 폐타적 심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일은 이미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 밖의 상담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서를 해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콘돔을 나눠 주는 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단지 성매매를 인정하는가 혹은 성매매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문턱 높은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날에 활용할 수 있는 콘돔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현실을 여성들의 이기성으로 받아들이어도 곤란하다. 그것은 지금껏 성을 파는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개념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나리회는 건강 관리 차원의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펼치는 한편, 손님들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자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개나리 회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눠 주며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남성 고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건소와 공동으로 바깥 거처인 '교양 강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성병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금씩 언급되곤 하던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성병 관리를 하는 것은 업주 차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들 표현을 빌자면 '깨끗한 냄비'를 공급하는 것이 고의 관리 차원에서든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나리회의 성병 검진 활동을 거역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아마도 성병 검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견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제는 개나리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확대

되었으며, 급기야는 성병 검진을 홍보하러 다니던 일원들에게 아유와 함께 폭행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언에서 일상으로

활동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필요한 문제들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여 화장과 성매매 거리를 떠나서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으며, 대항하고 부딪치는 것보다는 풍요 의식을 키우며 서로간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 정조사 생기기,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계산 앞에서 받기, 1인 1통장 갖기, 약 줄이기, 서비스 개선하기, 고운말 쓰기, 놀음 화투 줄이기" 등의 활동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순 절차구로 동원 여자들이었지만, 역전에서 보리자도 나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어, 이제 살아가는 이웃의 장이 요구나 했지, 초상 나면 열 일을 제쳐놓고 파 주고, 무슨 날 생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억압에 대한 대항 그런 거였지만 점점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 간 거야." (정숙자)

정숙자 씨의 표현처럼 개나리회 활동은 '억압에 대한 대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산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모해 갔다는 의미이다.

회원들의 정조사를 생기 주는 일은 계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런 여성

9)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는 '남성 고의 피해 보 명시되어 있다.

들에게 이해를 대접하며 생일을 기억하게 하고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은소영 씨는 이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활동을 주도하는 임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이가씨 씨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 서계 알고 세제 시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차와, 수건, 속옷, 비누 등 생활용품들 도매값에 싸이 다가 지역 내 각화점보다 훨씬 반 가격으로 여성들에게 팔았다. 이때 남은 이익은 개나리회의 재정으로 관리하며, 다시 여성들의 경조사 생기기과 같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에 개나리회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차와, 비누,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서계 팔았어. 빨래비누, 세숫비누 그런 건 꼭 필요하니까. 아니까 사기도 했지만 개나리회에서 파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싸움이, 도움되라고 그걸 샀지." (은소영)

상대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사창가' 지역은 물건값이 비싸다. 그 지역의 경제는 상대매로 인해 활성화되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물가는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그것은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교류할 수 없다는 점,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들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현상이기도 하다. 여성들 역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런 지역에는 으레 보따리 장수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파는 물건은 '홍복'을 비롯해 속옷, 신발 등 일상에 필요한 온갖 생활용품이다. 이 역시 여성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는(혹은 못하는) 악점을 이용한 것인데, 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보따리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품목이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

르겠으나 그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살해서 받기

개나리회는 특히 여성들이 '과대', 즉 상대매 대가로 받는 돈을 제대로 받기지 못하는 것에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재산 살해서 받기 운동을 펼친 것은 손님뿐 아니라 일부 업주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손님에게 애초에 흥정된 가격 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대수를 제한 뒤 생매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다. 생매 노리거나 자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흔했던 것이다. 여성들 중에는 개나리회에 그런 문제를 호소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 주로 주인하고 싸우고 과대 재산 안 해준 거, 그런 거 받아 주고 화장이 해졌지. 지금은 양반이지, 지금은 애들이 똑똑하잖아.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침묵이었던 한지. 사물에서 때우지도 못하고 억울 것도 없으니까 몸뚱어리나 팔고, 밥이나 먹고, 밭도 제대로 안 해왔어. 재산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았지. 그걸 어떻게 파졌겠나? 게다가 그때는 업주가 힘이 센데. 옛날에 수용소에 갇혀있어 버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나?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럴 거야 막 따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파졌다 하고, 화장이 앞장서서 했지.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어. 우리 개나리회가 해낸 거지." (고수희)

처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해당 업주를 찾아가 답답을 지어 재산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점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업주랑 한 달에 한 번씩 재산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업주가 일만물을 때어먹어도 이가씨들이 그걸 몰라, 재산 본 걸 말

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업주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업주가 만 데로 옮겨가면 말뚝 날리는 거야. 재산을 똑똑하게 하는 몇 명 애들 먹고는 팔아들 그랬어. 살것 고생해 놓고 물은 살하지, 수중에 남은 돈도 없지. 그래서 개나리회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재산을 보라고 거게야 다 다니면서 홍보했어. 아침마다 재산을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서도." (성은아)

재산 살해서 받기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자신들이 생매 노린 경우는 개나리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으며, 처음에는 마땅찮아 하던 업주들도 점점 일 주일 단위로 재산을 해주는 시작했다. 이 활동은 뒤에 1인 1통장 갖기 운동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1인 1통장 갖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특히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이 활동은 '자립을 준비하고, 업주와 기동서방으로부터의 착취에 반대하자'는 그들 스스로의 위치를 살린 운동이었다. 재산 살해서 받기와 함께 상대매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권리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여성들이 제 통장을 개설하고, '과대'를 고발코박 지급하는 것, 당시로서는 파장을 뒤엎는 시도이기도 했다.

장숙자 씨는 개나리회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 재정은 당시 기동서방들에 의한 착취에 있었다고 말했다.

"과하게 생활하는 여자들이 사지,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머리도 한자야 하고, 술이나 한잔으로 날벼치는 돈도 많지만, 기동서방에게 주는 애들도 많으니까, 애들 들어 지금 내가 내 상대라

면, 내가 기동이고 내가 이가씨면 이 기동은 일사직일 뿐이야. 지금은 꽃처럼 보이고 돈을 버니까 물어 있는 거야. 열업 장소에서 손님에게 폭력을 당할 때,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 남자가 지나가는데 놀다 가요, 이러면 이 씨 발단이 이러면서 뿌리치고 그러다가 이 개새끼 한 기면 한 가지 때 때려, 때들다 여자가 물어달라고. 그런 경우에 가랑이 도와주는 건 사할해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살해할지라고나 할까? 이가씨, 업주, 기동간의 삼위일체, 공생공존하는 거니까. 이가씨는 정말 자기네가 물 을 팔고 있음지라도 장에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저 씨발년아, 너 때 이가씨에 못 받았어, 내가 노려줬으면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런 경우도 있지. 그렇게 때리다가도 아플 때는 또 기동치게 잘 때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동이 모르게 자기 통장을 관리하는 거지. 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게." (장숙자)

처음에는 그다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장숙자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는 기동서방들이 경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그들만의 대책으로 나온 언어였던 까닭이다. 자연 이 과정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시작이 폭업주와 기동서방으로부터의 착취를 과소해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재산 살해서 받기 운동과 더불어 이 운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긴 여성들이 그 돈을 지급하고 계획을 세워 보는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통장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 극히 드물었어. 하루에 천 원이라든가, 한 달에 만 원이라든가 예금하고, 그때 통장은 활동 그만두면서 별로 안 하게 됐어. 만일 개나리회 활동을 계속 했다면 달라지기도 했겠지. 그때는 가경도 가만했으니까 내 통장 만든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집에 돈 갖다 주고, 내 동생 가르치면서 그랬으니까." (은소영)

은소영 씨 밑에 처하면 성별 집권을 받기 위해 나갔다가 임원들의 제안으로 대어나 성전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아들게 되었다고 했다. 비단 은소영 씨뿐만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이 비슷한 처지였다.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주로 매우 정기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성별 집권 일을 이용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지역 내에서 개나리회가 재산 갈라서 받기와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지역 마을 금고와 협회를 통해 일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예금일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개나리회 활동에 그다지 베타적이지 않았던 당시 사회정화위원 중 한 사람이 그 마을 금고의 이사였던 것도 한몫 차지했다. 마을 금고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개나리회 사무실로 직원을 파견했으며, 여성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금 활동을 했다. 비공개적이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집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준비해 보자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이다.

“모이는 덕수, 통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대단했지. 서로 보아줘 가면 서, 1인 1통장 갖기, 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 (장숙자)

그런 활동이 2001년 심대 성매매 근절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당시 서울중앙경찰서 서장 김강자 총경(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의해 미아리 지역에서 시도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얘기하자 장숙자 씨와 성은아 씨는 자신들도 몰라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했다고 말했다.”

김강자 씨가 미아리 성매매 밀집 지역 일대에서 그런 활동을 벌일 때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다루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김강자 씨는

당시 한 월간지와의 이슈 대답에서 ‘경찰 통장 만들어 주게 한 후 대릴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집권하게 하고, 그게 바로 내가 주장하는 공장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¹⁰ 하지만 비슷한 시기, 지방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탈출한 김성희(가명, 당시 26세)¹¹ 씨는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김강자 씨의 그런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자 자신이 속한 업소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서도 여성들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지만, 그 통장은 경찰들이 단속 나온 그날 단 하루만 자신을 손에 쥐어질 뿐이며 경찰들이 들어갔면 다시 업주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강자 씨가 중앙경찰서를 떠난 뒤, 미아리에서의 보여주기식 통장 관리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개나리회에서 주도했던 그 활동은 미아리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그들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그들 내부에서 제기되어 시도되었으며 또한 일상 속에서 관리되었던 까닭이다.

악물이기 운동

판다제를 줄여 보자는 활동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여성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지역 여성들의 경우 이른바 ‘꼴알’ 혹은 ‘복순이’ (곰타리들)로 불리는 판다제를 많이 복용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성매매 지역 내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도 댄 처음부터 약을 먹었지. 장려해서 일을 못하니까. 그 당시 우리 팀 아가씨 열 두 명이 다 약을 먹었어. 아가씨들이 댄날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물어 망가져나, 저녁에 나오면 다 이렇게 떨떨떨 떨고 있는 애들 뿐이었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었더니, 다 약에 떨어서, 그 당시 거기는

10. 월간 ‘여성동아’, 2001년 4월호.
11. 인터뷰 대상자 유이희(Ohyunhee) 기사 관련 인터뷰 내용, 2004년 7월.

사창 있고, 양아치들도 많았고, 고추엑스 타이널도 있었고, 거기에 한쌍 기차도 있어. 완전 시장통 같았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지. 새이는 게 손님이었고, 손님 한 서너명 하고 나면 일이 어르고 부어, 그런데도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약을 먹는 거야.” (은소영)

복용하지 않는 사람 수를 손에 꼽아도 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판다제를 이용했다. 영입 나갈 용기를 얻기 위해 한 알 두 알 먹던 ‘꼴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늘어갔다. 영입 준비를 위해 털어 넣고, 팔금 받은 손님이 합들게 해서 털어 넣고, 새 손님 받아야 하니까 털어 넣고, 배가 아파서 털어 넣고, 머리가 아파서 털어 넣고, 업주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털어 넣는 그런 식이었다.

“위안이 되는 거라곤 오직 꼴알뿐이었지 뭐. 약에 취해 있을 때는 저로써도 모르고 황폐한 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오십 개도 좋고 육십 개를 먹을 때도 있었어. 꼴알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 술 냄새는 손님이 싫어하니까 술 대신 약을 먹는 거야. 술 먹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때는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지. 논르면 손님 받고, 조금 한가하면 다시 꼴알 먹고, 약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또 손님 받고.” (성은아)

그렇게 털어 넣는 꼴알이 하룻밤에도 수십 알을 넣는 날이 허다했다. 중독성이 강한 판다제를 줄여보자는 것은 실제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었다. 그런 까닭에 겉으로 는 제안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으며, 만일 그런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다 약들이 들어있어. 누구였더라. 약을 하도 먹어서 누구 하나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 정신 뭐, 그걸 필요했어. 옛날에는 아예 주입이 그걸 먹으라고 먼저 줘서, 영입 시간이다. 영입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걸들도 있었지. 그게 무슨 전통재래,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덜 먹어 보라고 한 거지.” (고수희)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판다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몸의 병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네 그렇게 약어구리를 태대어 아렸는지 몰라.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은 거야. 그냥 팔장 날 때까지 써봤다니까. 아예 머리 안 뻘뻘하고 볼도크림을 바르니까, 날지 않을 거서 바르고 나가서 싸우기도 했을 정도니까. 무슨 천한이 있다고 그렇게 아파왔는지 도루저 모르겠어. 약 먹고 술 먹고 나면 별 것도 아닌 걸로 싸운 걸 우리도 알지. 그럼 서로 파스 사다 붙여 주고 파스 웃으면 그만이었어.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걸 아랑바당대며 산다는 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웠어.” (성은아)

성은아 씨는 ‘꼴알’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은 아니라 더욱 쉽게 정신을 잃게 되는 심리적 손상이 더 무서웠다고 했다. 그것은 성은아 씨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병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며 ‘덜’로 시작한 활동이 점점 직접적인 판매처를 상대로 펼쳐졌다. 개나리회 임원들은 여성에게 약을 판매한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지역 내 약국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그런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자 자세를 바꾸어 해당 약국에 “만일 약을 계속 판매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가히 도전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야 코팅기도 안 댔지. 우리가 이거 불법이라고, 계속 약 팔면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라고 하나씩, 나중에는 줄 집을 먹대라고, 막 한 군데에서 만 우리 몰래 약을 팔았어.” (성은아)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이미 약에 취한 상태로 영입을 나와 있는 회원들에게 물어 때릴지 않은 영달한 약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그리 효과가 높지 않았지만 그만큼 아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보려는 의지가 강했다.

개나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적었던 일부 입주들에게까지도 호응을 얻었던 이 활동은 다음의 방식까지도 동원되었다.

"주민들이 우리 취지를 인정했을 때, 그림 형식은 해야 되니까,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잖아. 주민이 갖고 있다가 주는 거야.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게 맺어서, 약이라도 조금만 먹으라고 열 개 먹을 거 일곱 개만 먹게 한다든가, 일곱 개 먹을 거 다섯 개만 먹게 한다든가." (정숙자)

표면상으로는 입주들이 여성들에게 생애에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강제주변 것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개나리회에서 약 줄이기를 제기한 뒤의 그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개중에는 약을 찾는 여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약을 팔아 주면 개나리회가 지워진다"며 달라는 입주가 있을 정도였다.

정숙자 씨는 이 운동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변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약 줄이기 운동은 그 지역 누구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 중 하나인 편자에 보다 복지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약에 떨어 가누지 못하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개나리회는 이 밖에 놀음, 화투 줄이기를 비롯해 고온달 쓰기, 서비스 개선 등 자신들이 생을 파는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몇 가지 활동도 펼쳤다. 이런 활동은 거의 대부분 생애대에 개입되어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입주나 일을 부리는 처지에서 보아도 그러 나할 것 없는,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할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고온달 쓰기는 비단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관계들 더욱 돈독하게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술과 약으로 얼룩지는 생활 속에서 쉽게 양소리를 내뿜는 것은 다반사였고, 갑기아는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성온아 씨와 정숙자 씨는 이러한 활동이 생애대 공간에서의 직접적인 행

204 **충남한 여성들, 복지를 타고 달리는**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평장과 생애대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다.

위들과 연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재산 갈라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개나리회가 기획하여 벌인 이 활동은 생애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 갖는 공통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개나리회라는 그룹의 특이성과 정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적인 근거물인 셈이다. 이 일련의 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에게서 치유해가려고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스스로와 이웃의 여생에게 새로운 삶의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외출

개나리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중에서도 유독 자원 봉사의 경험에 열면 호응을 보이며 이야기했다.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도 눈에 띄어나는 움직임이던 자원 봉사 활동은 여성들에게 큰 경험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향한 활동 내용 중의 하나인 놀음 화투 줄이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성온아 씨나 임원들 역시 사람들과 어울려 화투치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적이 많았는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해 또다시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려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했다. 하지만 화투는 생애대 집중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배움을 수 없는 중요한 취미 생활이기도 했으므로, 임원들이 "줄이자, 줄이자" 해도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놀음 화투가 줄어든 것은 개나리회가 정기적인 자원 봉사 활동을 벌이면서부터였다.

이들이 주로 자원 봉사를 했던 곳은 고아원이나 알코올, 나환자촌 등이었다. 개나리회 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문서인 「개나리회의 구상 목적 및 활동

이전 역사 205

사항」이라는 짧은 문서에는 자신들의 사회 봉사 활동 목록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불우 이웃 돕기

- 삶의 희곡을 읽고 자학에 빠진 회원들에게 생애 대한 희곡을 풀어놓아 주고 우리도 남을 돕고 살 수 있다는 자부심 내지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한 방법
- 고아원 및 알코올 방문(연말 연시 성탄절 또는 어버이날 등: 떡, 장갑, 복도리, 알뜰, 고기 및 기타 선물 준비)
- 안달 성 나자로 마을 방문(겨울 열간 안뜰기, 모복 실기, 환자 가세 절기, 오박 등으로 환자 위문)
- 경기도 팔주시의 산성회 집(거제장예자 공동체)(모내기, 밭 예기, 벼 예기, 김장, 말대배 주기)
- 사랑의 선교회 위문 전지(식사 제공)(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대상)
- 결핵 환자 돕기 알뜰 찾집
- 수재민 돕기 폐물 수집(아물, 현호, 라면 등 방충죽에 전달)
- 무료 급식소 식당 봉사(김치 담그기, 식사 준비)

처음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료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것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갔다. 예초에 연 2회로 계획되었던 자원 봉사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던 전형적인 노회 봉사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자원 봉사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 있는 태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도에 가까웠다. 그 두렵지 않은 경계선을 한 발짝 넘어 보는 경험은 그들에게 이전에 느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했다. 이런 경험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은 활동 영역을 더

속 넓혀 갔으며, 그런 긍정적인 경험은 주변 여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자원 봉사가 더욱 빈번해질수록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여성들 스스로 인력을 지원하고 때로는 자원 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 몇 날 며칠 어디로 자원 봉사할 것을 정하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곤 했다. 예를 들어 상판질 때 양모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면 공공으로 실을 구입해 회원 중 손재주 있는 여성들이 뽕틀이 스테타를 짜며 준비하곤 했다.

“가끔은 누가누가 더 많이 짜나 자기를끼리 내기가 붙곤 했어. 그런 아가씨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뜨개질을 할 정도였다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꽃단장한 여자들이 빨간 불빛 아래서 손 장식을 기울여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걸 보면 여덟길 주부만큼이나 양전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성은아)

영업 시간중에는 업주를 눈치가 보이나가 잠깐 시간을 줄여 가며 일을 할 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일상이 멀어진 최무련도 전에 비해 눈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장숙자 씨는 자신이 했던 자원 봉사 중에서도 어느 노숙자 급식소에서의 경험을 기억해 냈다.

“거기가 무슨 급식소였는데, 가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나눠 주고 그런 일을 했어. 김치도 만들고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나눠 줄 수도 있지만 백 원짜인가 얼마짜를 받았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한 거였지. 난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 나.”(장숙자)

장숙자 씨는 그때의 자원 봉사 경험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지금도 날마다 이런저런 자원 봉사 때문에 늘 바쁘다는 그를 보면 가나리희가 그에게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기도 남았다.

성은아 씨는 당시의 자원 봉사 경험이 자신을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스스로를 변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기때부터, 우리는 쓰레기다. 하지만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을 했어.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고아로 자란 아가씨는 고아원에서 옛날 자기 생각이 난다면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고, 양모원에 가서는 옛날에 나를 버린 업자가 이 중에 있음에도 모른다고 눈치를 찌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시라며 두 손을 꼭 잡는 회원들 모습이 어떻게 쓰레기일 수가 있어?”(성은아)

성은아 씨는 그렇게 자원 봉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날이면 버스 안이 온통 눈물 바다가 되곤 했다고 회상했다. 자신만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었다. 그런 여성들이 자기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 삶에 자각을 받았던 것이다.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자원 봉사를 나가서 사람들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은 ‘과대’ 높이기 위해 때때 웃어야 했던 그런 웃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때의 웃음은 ‘자음으로 풍기하던 남자의 호적을 되찾아서 혼인 신고할 때의 기쁨’과 같았고, 업주가 되어서 아가씨들을 무리케 뭉 때와의 기쁨과도 다른 것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또 생각보다 ‘과대’를 많이 받았을 때의 압박한 웃음과도 달랐다. 지금껏 느껴 보지 못한 중안감 혹은 삶의 자각 같은 것이었다.

뎀비로 사는 것

장숙자 씨는 ‘편안한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당시 현실은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별 수 없이 살아가던 것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상해대가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성태때로 인해 겪는 불이익뿐 아

니라 그 제자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얻은 느슨한 생활 습관과 분노 혹은 도가와 채념이 자신들 삶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업주와 경찰과 손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싸움의 대상 혹은 분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거창의 경찰이 거들쭌수록 가나리희는 세계에서 고립되어 갔다. 불이익과 착취에 대한 저항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들로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전면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고민이 깃들여 있다. 되풀이하자면, 비로소 실제하는 일상을 살아봄으로 매일같이 겪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안으려는 그들 내부의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의 변화 과정에는 가나리희를 이끄는 사람들의 몫이 크게 작용되었다. 성은아 씨를 비롯한 임원들은 자신의 일상을 통해 회원 전체가 겪는 삶의 문제를 수놓았으며 그러므로써 자신과 모두의 삶을 유기적으로 인식해 나갔다.

“내가 완장을 두르고 무슨 사고가 없나 돌아다니면, 감투 했으니까, 언니 돌아다니기 힘들지. 오늘 손님은 몇 명 받았나 여쭙구 하면, 내 말 한마디로 그 아이들이 따뜻하게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따뜻한 일이지. 예를 들어 경이 많아,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기계로 무조건 끌고 들어가. 그런 아주 사소한 정들.”(장숙자)

장숙자 씨 말에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깃들여 있었다. 나는 정자숙 씨뿐 아니라 성은아 씨, 고수희 씨에게서도 가나리희 활동이 그들 인생에서의 첫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들은 비록 어떤 부류에게는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동네 나갔다가 밭고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그만두겠다고 안 해. 진짜 자부심이 대단했어. 가나리희라는 자부심.”(성은아)

‘외견 차이 같은 건 없었어. 좋은 일 하는데, 나쁜 일을 해야 그런 일이 생기지. 모이면 좋은 일이나가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이해했었지. 나는 그냥 해주는 게 좋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았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다 따르게 마련이야. 애들이 우리 보면 뭐 하나라도 사주지 그냥 보내지 않아.”(고수희)

임원들 개개인에게서는 이 활동을 경찰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바깥집과 업주들이 볼 때는 짐짓 자기들을 치면에도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송환은 이들의 자존감을 온전히 다져 주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지만 실제 대상에는 그리 큰 구분을 두지 않았다. 임원이 하나이라도 누구든 회의에 나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회합에서는 사업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개개인의 고민이나 생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또 그 자리에서는 임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제안들은 대부분 상해대 공간에서 겪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자들이 자기네 집 업주가 반찬을 어떻게 해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일까지 와서 했을 정도였어.”(성은아)

회원들 편에 서는 경찰이 많을수록 그들에게로 할하는 주연의 신뢰는 높아졌다. 그것이 있었기에 임원들은 바로 그 편까지 고민했던 현실적인 어려움, 이를테면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해대 제제 안에서 고립감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은 임원들로 하여금 더욱더 협력할 수 있는 일, 나와 이 여자들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했다.

여기에는 최장 성은아 씨의 생각과 리더십이 큰 몫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활동 제안은 바로 그에게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임원들 역시 그 점을 인

정했으며, 최장의 리더십이 자신들의 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최장이 아주 잘했어. 통솔력도 있었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최장도 물론 부리면서 그런 사람인데 지가 먼저 술선수뎌를 하고 변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꼈던 거지." (장숙자)

"사람들이 말을 잘 따랐어. 그 말이라면 겁먹었으니깐. 옛날에는 굉장한, 뭐 경찰사에 가서 저기 할 정도로 명예 같았대. 그런데 완전 풀풀이 아니고 의리와 풀풀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어. 여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장당하게 좋은 일로 술분해서 풀풀 부리는 거니까 다 좋아했지." (손소영)

"어쨌든, 갯나가 그만둘까지 했던 거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 아픈 게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저녁 집 데려다 놓고 밥해 먹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들게 하고, 모이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엄청 노력했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먹었다니까, 전 내가 말파한 거야." (고수희)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성은아 씨는 갯나리회 회장으로서 스스로를 '책임 많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업무나 가정어중,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갯나리회 맡아서 할 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지. 구멍이나 파출소에서 볼러다 존재하고 그러면 속에서는 활지만 착착 돌아가지. 적어도 200명 넘는 회원들을 이끌려면 뭔가 답하도 달라야지. 생각하면 그걸 다 잡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활동을 중시사기려 해도 그게 우리 몇 명에서 정한 거였나? 회원들이 모여서 결정할 거고, 그게 결정하면 날 우리나 회원들이 모두 알아나 좋아했는데, 그 맛을 알아 먹어서, 경고 몇 마다에 그만 둘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성은아)

302 유성민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나 역시 성은아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갯나리회가 그 술한 난관을 이겨내며 곳곳이 활동해 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들

갯나리회의 활동이 안정되어 가고 여성들 스스로 '우리들의 회'라는 인식이 커져 참여도가 높아지자 일부 언론에서 이런 갯나리회의 활동을 취재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소개되는 일은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걸 버린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받고 혼돈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는 데 대한 자긍심이 함께 교차했다.

이들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며 갯나리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인, 작가, 종교인, 대학생 등이었는데, 이런 과정은 결코 유쾌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았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법 찾아왔어. 기념품 같은 거 몇 상자 갖고 와서 사진 찍고 그걸로 누가 그걸 좋아해? 그럴 내가, 만 개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나설 테니까, 대신 내가 억지로 웃어 가면서 사진 찍고, 매를한테는 다 좋은 말만 전하고 그랬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자기가 무슨 전도사라며 찾아온 남자가 우리 앞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여 막 울더라고, 우리가 무슨 죄안이라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정말 가슴쓰러웠지." (성은아)

성은아 씨는 당시 자신들은 '박지 못했다'고 했다. 신문기자나 작가 혹은 종교인이 찾아오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맞았다. 지금이야 성은아

이별 기억 303

문제가 자주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화제거리에 불과했다. 그 뒤의 세월을 거치며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달랐다. 그렇듯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또 그런 일로 소개되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특별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문기자나 작가에게는 그 여성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었으며, 기독교인에게는 선교의 대상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듯 사람들의 명문은 여성들에게 상반된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성은아 씨의 표현처럼 자신들을 죄안이라 부른 일부 기독교인에게 가슴쓰러움을 느꼈는가 하면, 단지 "합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 먼 길 떠다 달고 와 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 이런 파장들은 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교류하는 끈으로 작용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중 갯나리회는 인근 지역의 어느 청년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의 만남은 갯나리회가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계절들이는 대단한 인연이었지. 우리를 갯나리회였다면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을까? 하여튼 참 달았어." (장숙자)

그 청년회도 종교적인 모임이기는 했지만, 갯나리회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선교하려는 기록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다만 갯나리회 자연 봉사 활동에 구름이 참석하며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 갔을 뿐이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이 가졌다. 적마다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이들이 만나 서로의 정서와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간에 갖고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갯나리회 회원들은 잊비슷한 연대

304 유성민 여성들, 누대를 타고 달리는

이거나 동생같은 그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이 낯선 젊은이들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이들의 만남은 분명 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갯나리회로서는 치명적인 파국의 계기가 되었다.

1983년 3월 23일, 갯나리회와 청년회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장흥으로 야외회를 갔다. 갯나리회 회원은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랜 만에 놀러 가는 것이어서 다들 들떠 있었다. 회장 성은아 씨로서는 형제 자신들이 평소 애용 하던 기온을 위해 한 잔 두 잔 마신 술로 싸움이라도 벌여 치지 않음까 사소한 문제까지도 염려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사이에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지기 같은 처지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가져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행사가 다 끝나도록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사고는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돌아올 때 기차를 이용해 모두가 함께 움직였는데, 막상 기차에 오르고 보니 갯나리회 회원 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던 차에 용산에 도착해 보니 불길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도 놀러 간 적은 있지만 매년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하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뒤영해서 싸우다 돌아오곤 했어. 근데 이 날은 재일도 하고 아주 재밌었거든. 싸움도 없었고 용산역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없어서 다 평이다 싶었는데 막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성은아)

회원 두 명이 기차를 타러 가던 중 장난감아 작나기던 오로마이를 얻어 타게 되었다. 장숙자 씨는 그것을 "술 한 잔 들어가니 좌우에 기질이 발동했던 것"이라며 씩씩히 말했다. 그 오로마이로 오던 중 사고가 났는데 두 여성 중 한 명이 뇌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살다가 위독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으로 실려 간 사람은 봉사 활동 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일하던, 나이가 제일 어려 '박지'로 불리던 조영

이별 기억 305

숙이라는 여성이었다.

소식을 들은 성은아 씨는 지기 방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쟁겨 회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업주와 경찰, 그리고 동료 여성 내부에서 순탄치 않은 순간은 많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 성은아 씨는 마음속으로 제발 죽지란 말야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다고 했다. 임원들은 그 여성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수소문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얼마 뒤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 여성은 수술받은 지 사흘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개나리회에서 장례 절차를 맡아 처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장작 그 여성의 장례식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치를 수가 있었다.

"그때 장례 과정이 또 얼마나 애절했는지 알아? 좌우지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한 달인지 50일 가까이 일장나게 걸렸어." (정숙자)

성은아 씨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사고를 낸 측과 협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당장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측은 공동문시장에서 운반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문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돈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마련하러 다니며 영안실을 지켰다.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영안실은 죽은 조영숙 씨의 가족과 개나리회와 정년회 회원들로 매일같이 붐볐다.

"문상 정도가 아니라 출퇴근을 했어. 아예,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풀림에 가 있으니까 업주들한테 욕을 되게 먹었지. 영업이 문제였지. 우리가 불통들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았어. 말하 자연 의형질이랄까? 동료 의식……" (정숙자)

50대 중반의 여성들, 눈대를 피고 말리는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지불해야 할 돈과 장례 절차에 필요한 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동안 물건을 팔아 모은 개나리회와 공동묘지 모두 찾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그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회원들 중에 어떤 때는 영안실 청소를 해주고 다른 유족들이 사용하다 남은 초하고 함을 얻어다 우리가 쓰기도 했어.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그런 걸로 밥해 먹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기는 했어. 하여튼 우리는 그 당시에 장년회 회원들과고 회선을 다했어." (정숙자)

개나리회 회원들이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 영업에 자장이 생기자 업주들은 아예 병원 출입을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자 여성들은 자기 돈으로 긴 밥과 대를 업주에게 지불하여 또다시 병원으로 나와 밥을 지내기 일수였다. 머리는 빗을 내어 자신의 긴 밤 파대만큼의 액수를 업주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년회 회원들은 그들대로 화사를 아낀 뒤 병원으로 퇴근을 했고, 아침이면 밥을 꼬박 세운 뒤 병원에서 출근을 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자 병원측에서는 시체를 실험용으로 팔겠다고 옥박질했다. 그때의 상황을 회장 성은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었지. 짧은 인생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사당받고 싶지도 못한 아인데. 시체마저 남의 잔에 담기면 그걸 어떻게 봐. 나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풀잎 많이 먹어서 죽고, 연탄 가스 마셔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는 거 많이 봤어. 비참하잖아. 막내 영숙이만은 그렇게 가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성은아)

그 동안의 병원비에 대해 정년회 회원 한 명과 성은아 씨가 연대 보증을 서고 나서야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각자 모은 돈을 내놓았고, 정년회 회원들은 직금을 해약하거나 월급 봉투를 들고 오기도 했다. 그렇게 돈이 모이자 조영숙 씨가 죽은 지 거의 한 달이 만에 비로소 장

이런 기사 307

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죽음에 없을 거야. 피려한 죽음이 있지." (정숙자)

"다들 부러운 듯이 말했어. 평생 소래기 취급당하면서 살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도 누군가가 저렇게 해준다면 지금 당장 술이 끊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때 용산에서 지켜지던 미신 하나가 깨진 거지." (성은아)

성은아 씨가 말한 용산에서의 미신이란, 시체를 묻다가나 시체 가까이 가면 부장통 타 재수가 없다는, 그들 사이의 부정적 풍습이었다. 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상가에도 가지는 않아 왔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17일 동안 영안실을 지키고 있다가 장지까지 마다한 것이다. 성은아 씨는 그때를 '사람이 미신을 어기는 현장' 같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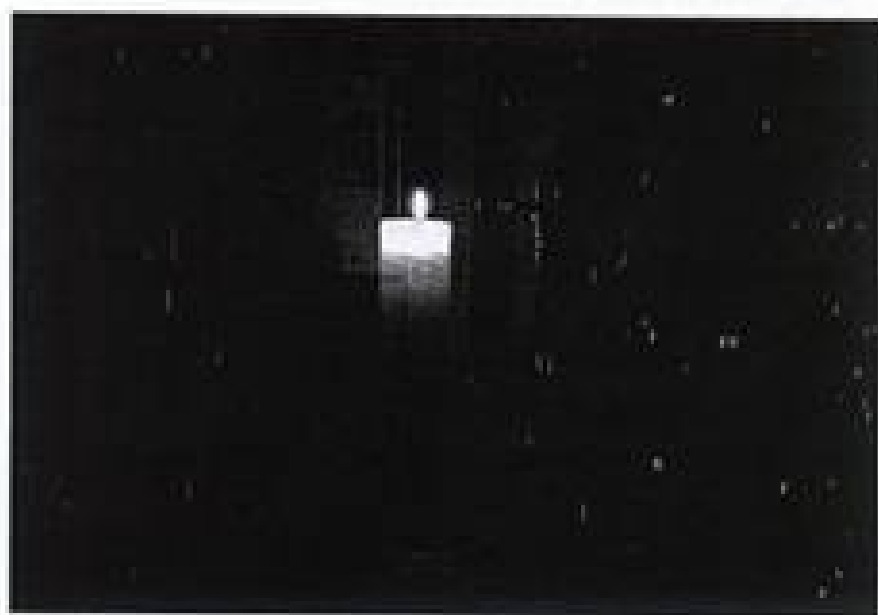
장례가 끝나 용산에 돌아온 성은아 씨는 동료로부터 업주 중 한 사람이 '회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빚을 다 지느냐?'며 돈을 모아 주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문난 악질 업주였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고 압기도 하고 그 일을 처리한 것도 스스로 대견했지만,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은아)

장례가 끝나고 여성들은 무고무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장례를 처리한 개나리회와 정년회의 피라에 대해, 그리고 몸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구름처럼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이 일은 개나리회가 활동을 전개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영숙 씨의 장례 과정은 개나리회 회원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 이상의 자

50대 중반의 여성들, 눈대를 피고 말리는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사 309

부실과 소속감,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독려와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낸 얼마 뒤부터 이들은 곧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입주들과의 문제였다. 개나리회를 도파른 입주와 있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입주들이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개나리회와 여성들의 관계를 멀어지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입주들이 거 보라고, 개나리회 따라다니다 그런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랬어.” (성은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개나리회에게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했다. 사연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있었지만, 그 일이 개나리회에게 결정적인 위축감을 주었던 것이 분명했다. 실상가상으로 그 동안 개나리회가 사용하던 사무실이 거의 없게 되었다. 본래 그 사무실은 초기 사회정화위원회가 사용하던 곳으로 이가씨 장사 로 본별이 다방업을 하던 한 장화위원의 소유였다. 그것을 개나리회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변 입주들의 압력으로 빌 수 없어 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개나리회 사무실이 없어지고 나서는 임원이나 회원들이 화장 성은아 씨의 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수의 씨는 거기가 자기들의 진짜 사무실이나 마판가지였다고 했다.

성은아 씨는 그 일이 있을 지 얼마 뒤 주변 사람 소개로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자신과 성애에 세제 사이에 14년 동안 존재했던 고리를 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로서는 오랫동안 이어 온 고연의 결론이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감당해야 했던 슬픈 난관보다도 더욱 높은 장벽 앞에 그는 과감히 직면한 셈이었다.

“우울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점점 사회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 같아. 우선 개나리회 때문에 이 일 지 일 하다 보니까 일단 손님받을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신변의 위험도 많이 느꼈어. 내가 냄비라는 약점이 있잖아. 마시고 보니 내가 그 약점을 때려 버리면 되는 거 아닌

가. 사실 내가 영입 계속하면서 다른 이가씨들한테 이러니저러니 한다는 것도 우습게 보일 것 같고, 나도 이제 좀 멋있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성은아)

성은아 씨는 자신이 전업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14년 동안 학대만 받아 온 자신의 몸과 대한 미안함도 한몫 차지한다고 했다. 술과 약으로 거칠어진 피부, 예민 병조각과 함께 찢어진 구획구획의 흔적들. 그러나 그는 미안함 한편으로 통치 로 불리면서도 성애에 공간에서 버티 내 온 자신의 작은 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말도 했다.

그의 전업은 그 지역의 대다수 여성들이 그런 성은아 씨를 보고 응원하고 자각을 주었을 만치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개나리회 자체로서는 결실을 수 없을 정도로 방향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개나리회의 활동은 그 뒤 서서히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었다. 임원이나 회원들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흔적 그렇듯 다른 성애에 지역을 찾아 옮겨가거나 결혼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개나리회는 종종 사람들의 화제 속에서만 존재하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절반의 동조

“어느 날 시로풍령시로풍령 다 떠나나만 할대야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딸들이 들어간 거지. 포주하던 내 친구가 나한테 잡아지를 한 마리 줬어. 그게 하필 매물이 찍어나온 장에었어. 개가 그걸 키우고 마음을 잡으려.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못생겼어. 그러다 보니 그게 개라도 애버졌어. 개나리회는 없어지고.” (고수희)

고수희 씨는 그 사기를 무척 안타깝게 회상했다. 그는 개나리회가 해체되고 난 뒤 잡아지를 키우며 위안을 삼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잡아지

키우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족 하나 없는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해 두 해 지나며 몇 여자들이 사라지고 또다시 옮겨오기를 거듭하는 동안 이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과 또한 그녀의 경험을 간직하고 사는 몇몇을 제외하고 이제 더 이상 개나리회를 화제로 삼는 여성은 별로 없다. 성을 팔은 병조를 하든 현재까지도 성애에서 완전히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나 모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여전히 성애에서 완전히 일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 은소영 씨와 고수희 씨는 개나리회 같은 조직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성애를 하지 않는 성은아 씨와 장숙자 씨는 아직도 남아 있는, 또한 이어질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개나리회 같은 조직이 더 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 스스로가 내린 개나리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우리는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성은아)

“이 개나리회는 나에게 영원한 추억이야. 아주 깊은 거지. 개나리회라고 하면, 나 개인에게는 ‘소속’이었어. 소속감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 가정관이 있어서 동창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명머라는 자부심이 아주 컸어.” (장숙자)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을 받고, 개나리회 회원들 중에 본별에서 나간 애도 많고 결혼한 애도 있고 집 사서 장사도 하고 근데 그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남자라는 게 과거 알면 그렇잖아. 지금은 잘 살아. 전 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리회를 조직한 건 잘한 거야. 나야 이라고 할지 안.” (고수희)

“남 지금도 안다끼워. 나야 입주 눈치 보느라고 6개월밖에 못했지만, 지금도 그런 모임 있으면 좋지. 음? 우리 처지도 만날 애촌. 뭐 이런 말만 들어

야 하나? 난 윤리도 그렇지만 애촌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 (은소영)

장숙자 씨는 그 활동 경험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 즐거웠으며 보람있는 일로 떠올랐다. 그에게는 성애 처음으로 가진 소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긍정적인 눈길을 베풀게 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개나리회가 해체된 몇 년 뒤 결혼을 했고, 오랜 동안 마음속에 담아 둔 결심처럼 성애에서 벗어났다. 그후에는 출판 관련 봉사 활동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활발히 활동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 지체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을 가장 높이 자평하는 성은아 씨는 그때를 계기로 전업에 성공했으며, 은소영 씨는 그 뒤로 몇몇 지역을 옮겨다니다가 현재는 서울의 한 성애 지역에서 마흔이 훌쩍 넘어 버린 나이로 여전히 ‘영입’을 하고 있다. 고수희 씨는 오래 전 이가씨 의 차지를 벗어나 지금은 지방의 한 소도시 성애 지역에서 50대 중후반의 젊은 언니들에게 손님술 팔아다 주며 스스로의 표현처럼 ‘평범한 뽕꾸(뽕꾸)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은소영 씨와 고수희 씨는 성애에 공간을 벗어난 몇 개나리회 동료들, 그 시절 친구나 동료에 대해 특별하게 회상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오래 전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만들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충분한 자부심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개나리회가 과연 개인의 추억과 위안으로 여무는 것 외에 더욱 뚜렷한 성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궁금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뒤흔들었던 자신들의 ‘백은 자립 (직업 전환)’을 위해서 얼마나 시도를 자극하였으며 또 실제로 그 계기를 만들었느냐고 질문했다.

“많이 고민했지. 그랬기 때문에 서로 많이들 자극을 주었지.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바, 회장도 일어나 노력을 했어. 후회를 해도 되잖아.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여기 용산에 오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네 용산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계가 멈추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 끝까지 있어야 할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정숙자)

정숙자 씨의 답에는 이제 자신은 용산이 아니어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제 삶에 대한 자평의 의미도 숨어 있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백혼 자립’ (직업 전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 잘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생애에서 벗어나거나 직업을 바꾸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다. 생애에 제제 안에서 할 일 자조와 제법,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문제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적 의미에서의 제법 혹은 전업의 의미로 국한 지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전유어져서도 안 된다. 자립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생애에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자립은 아니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흔히 요구했던 단순한 의미의 전업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는 내 질문은 우물이었다. 셈이다.

나는 자신들이 했던 활동의 제목을 예기해 줄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했던 그들의 표현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던 터였다. 처음 그 문건을 건네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살짝 웃음을 흘리기까지 했다. 사실 그 많은 생경스러운 수 있다. 기동서방 없애기, 펄프 손질 안 받기, 고문받 쓰기, 재산 갈래서 받기 운동, 1인 1종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 놀음 화 부 줄이기 운동 등.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일상 곳곳에서 자립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단편적인, 그러나 확실한 근거들이었다. 만나고 얘기 듣기를 꾸준히 되풀이하고 나아가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그 대단하지 않은 문구들에 왜 모박고파 운동이라는 표현을 달았는지를 알

이다. 하지만 당시 용산역에서 일하던 여성의 수가 250명, 그 중에서 일원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여성의 수는 고작해야 십여 명이었다. 개나리회를 모함과 자궁임으로 추악해 내는 이들에게 나는 그것이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담아 보았다.

“그래, 주체당계 무슨 고아원, 양모원일 몰려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사회 대관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무관함을 느끼는 그런 거, 되잖아. 돌아오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안정감 같은 거. 용산에 와서 전 불명에 딱 내리면 아, 우리 동네에 환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 하여튼 재밌었어. 우리도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25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절반만 동조를 한다 해도 의미 있는 거지.”(정숙자)

정숙자 씨는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용산이 개나리 회 활동을 거처며 어느덧 무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다. 대비되는 이 말은 언뜻 모순처럼 느껴졌다. 가는 게 사는 게 아닌 일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되던 시절, 그때는 용산이 끝이었다. 하지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일상 속에서는 무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고향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말이다 낯선 사람들에게 몸을 내 주어야 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통해 그토록 다른 의미로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유독 절반의 동조라는 말에 힘주던 정숙자 씨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절반에 그쳤다 해도, 자신들은 그 절반의 동조를 알아내지 않았느냐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생애제와 관련된 정책과 시행, 이를 둘러싼 꾸준히 많은 논쟁의 말, 그리고 몇몇 NGO로부터 시작된 여러 시도들에서 그런 동조를 얻

어떤 경험은 결국 없다. 이는 정책과 시행상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밝혀 왔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부류들조차 간파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는지 모른다. 일상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함께 풀을 거리는 것일이다.

그 3년에서 오늘을 보며

우리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한 경험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상 속의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여성들이 겪는 피해 현실과 맞먹는 의미로 여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러 연구들과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 온 이슈는 지금껏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어 왔다. 특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NGO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인권 유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주력해 왔으며, 몇몇 여성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생애제와 관련된 제제 안에 편입된 그 순간부터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억압적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그 동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느 면만을 들으며 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여성들과의 교류가 ‘말’이 아니라 ‘경험’로 다가올수록 그것은 내게 쉽게 밀쳐낼 수 없는 하나의 의문이 되어 갔다. 비참한 현실의 또 다른 실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웃기고, 재미있는 일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갈등을 갖게 만들곤 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힘과 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처럼 되어서 관음에도, 나는 그것의 근거가 바로 내 곁에 존재했다는 것

을 더져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생애제를 인정하는 몇몇 나라의 ‘성 노동자 노동조합’에 관한 경험과 흡사하지 않은가 하고 그 공통점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좀 단언하기 힘들다. 한국에 존재했던 자치회적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여성 노조가 지니고 있는 배경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함사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자치 조직에 대해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를 혹은 배제했을지도 모를 정치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처 지각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이 나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여성 자치 조직이 보여주는 공통점 하나는 그것 **이권생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어떤 경우보다도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여성들은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 숨가쁘게 많은 얘기를 토해 냈다.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대부분 자신이 겪은 억압 상황과 지닌 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여성들 당사자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주로 들어 주었다. 아쉽게도 어떤 여성은 자신의 당시 직책마저도 기억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에 대해 확신이 없어 했지만, 활동할 때 들었던 심정이라는가 개나리회가 개입된 일화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들의 집단 행동이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회고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숨과 눈물보다도 자부심과 즐거움으로 회상될 수 있는 기억을 지닌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나리회가 활동한 3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아주 잠시 동안의 공처럼 짧기 그지없다. 당시 활동했던 회원들의 배운 경력이나 용산 생애제 지역에 존재해 온 역사에 비한다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공적하리만치 짧다. 하

1. 들어가는 말*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큰 소리내어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듣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고, 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성매매이다. 매춘여성들은 '타락한 여성'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 이 글을 쓰는 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다. 먼저 편집 정합에 도움을 주신 '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매체연의 원어)에 사에 감사한다. 그는 부족한 필자를 안내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많은 시간을 내어 가까이 토론에 참여해주었다. 또한 조고를 꼼꼼하게 읽고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어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초연당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료를 읽고 알려주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조희의 전(前)총무님과 정현숙 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밖에 인터뷰에 참여하신 이옥경 한소리의 회장님, 윤영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 총무님, 김강자 충북 옥천경찰서장님, 유래희 한소리의 사무국장님, 조성애대 순익수 교수님 그리고 매체연의 이호희 씨와 매체연 씨께 감사드린다. 한소리의 매체연이 활동으로 4회에 걸쳐 진행한 성매매 문제 연속 세미나도 필자에게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되었다. 조고를 읽고 교정도 해주신 윤영미, 유래희 두 분과 매체연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글을

성매매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여성민우회는 정부 통계와 기타 단체의 통계를 비교 분석해보고, 현재의 성산업 종사자의 숫자를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합법업소를 313,991개 업소로, 성산업 종사자를 1,208,863명으로 추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경은숙, 1996: 12). 매춘여성들은 드러난 숫자보다 비가시화된 여성이 현재도 많고 또 앞으로 계속 유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대단히 증가할 것이다. 성매매 문제는 국가경제, 자본주의의 성산업, 가부장적 성규범과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착취고지 그리고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얽힌 실태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10대 여성들의 성매매가 소위 '영제'문화로 자리잡고,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진전됨에 따라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더욱 더 답답해지고 있는 실정이다.¹⁾

성매매는 최근까지 온갖 편견으로 해악 기술, 평가되어 왔고 성매매에 대해서 매춘여성제에만 책임이 전가되어 왔다. 또한 국가의 처벌주의적 정책과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무시되어 왔다. 성이 매매되고 있는 현상 자체의 사회적 문제보다는 흥미거리로 다루어지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여성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심 밖에 존재하면서 온갖 괴악의 상징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이미지를 지속시키면서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이 글은 늘 존재해왔고 이미 일상이 되었지만 가려져 있는 성매매에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가 어떤 수준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운동적 차원에서 문제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이 작업은 성매매에 관한 사회구조적이며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된다. 즉 성매매의 문제는 특정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성산업 구조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한 가부장적 가족과 성문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gender)체계 속에서 성매매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이 작업의 배경이다. 즉 이 글은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로 인해 성매매는 가능한 것이고, 성매매는 이러한 권력구조의 산물이며 매춘여성의 존재는 여성을 주변인으로사의 경제상을 유지시켜 남녀간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문제는 매춘여성들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여성' 전체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과 입장에서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대상과 전략 지점, 비판점이 매춘여성이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매매 구조 그리고 남성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성 사고 할기의 정치사를 정리할 것인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개념 규정에는 개념화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대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념과 자체가 바로 운동의 과정이 되는 것이며 개념의 변천은 운동사의 근간이 된다.

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倫落) 혹은 매춘(賣春)행위라고 했다. 물론 아직도 '공식적인' 법체계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가 떨어진 행위'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성을 사는 행위(買春)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이제 용어에 내포된 성의 이중 규범을 문제삼고 또 이러한 현상이 성을 사는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사는 쪽을 강조하여 '買春'으로 쓰기를 주장하기도 한다.²⁾ 또 이와 흡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고래, 자신의 몸을 착취하는

2) 아직 우리 사회에는 '買春'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賣春'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는 바로 우리 사회가 몸을 파는 남성보다 몸을 파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규범은 '구매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1996: 18

조하고 할기면서 제리와 제리를 아끼지 않았고 마지막 글 다들하는 일까지 해주신 이 책의 기획-편집자인 정희진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성매매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한국여성개발원(1996: 48) 참조

여성, 호박문, 토주 등 여성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성적 착취라는 말이 매춘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고 미리알, 1994: 30). 그러나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은 사나 착과 파는 쪽을 동시에 강조하는 '매매춘'(손덕수, 1987; 이마경, 1987; 한국여성단체연합, 1988; 강영수, 1989; 박선수, 1990; 조형·장원화, 1990; 한국여성개발원, 1998)과 '매매음'(김영일, 1990: 86, 이하)이다. 영에 1992: 1)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최근 들어 비판받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문제의 '매매춘'이라는 용어사유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사고 라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춘(春)'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장함으로써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추며 별 위험이 있다(권미혜, 1999: 178). 일반적으로 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춘'을 쓰고, 성을 산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최대'라고 한다. 어떻게 남성들의 성적인 행위를 '봄'이나 '꽃'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전작(前作) 매춘여성은 '빌어먹을 무슨 춘(春)이나' 자글 주위에 울혈(鬱血)이 고이는데'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최대' 역시 여성을 한낱 꽃으로 대상화하는 용어이고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데, 여성의 성을 사는 대가를 '꽃값'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행위를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손태수와의 전화 인터뷰중에서). 이 모든 용어들이 성을 사는 사람 또는 가부장제 성문화에서 남성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성을 파는 사람 혹은 여성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여성비하적이다.

또한 '대체음'이라는 용어의 '대'은 음탕하다는 뜻으로 도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용어이기에 문제가 있다(원희배, 1997: 16). 이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인 성의 상업화와 성산업을 강조하고 거대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원희배, 1999: 178). 이 개념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천착

라는 물체의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구조와 이성의 인접이 고려되지 않는 다층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제 현상의 복잡함과 역성, 역압성을 부각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상대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반대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들이야말로 성매매반대운동 혹은 성매매근절운동의 초점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모색해보겠다.

이 글의 연구 범위는 1970년부터 1998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성매매관련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와 여성운동기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의존하였다. 지역의 성매매반대운동의 자세한 현황과 현장 매춘여성들의 일상적이고 자조自助적인 투쟁의 흐름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는 이 글의 한계이며 이후 연구자들의 작업으로 남겨둔다. 우리나라의 성매매관련운동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기저층 여성들의 인권운동인데 이 부분은 따로 분석하고 이 논문에서는 기저층운동을 제외한 성매매관련운동에 집중하였다. 이 책의 제3장 참조.

19 또한 상을 사는 남성은 '남성 존남'으로 상을 파는 여성은 '대춘여성'으로 지칭한다(권미희, 1999: 179). 이 글에서는 원래 '대춘'이나 '대춘술'으로 쓰인 것을 모두 '성대' 혹은 음역에 맞게 다른 용어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대춘지'는 '사할기'로, '대춘사갈'은 '성간암'으로, '대춘 문제'는 '성대 문제'로 바꾸었다. 단, 인용된 부분에서는 그대로 썼다.

4) 해당 장국까지의 성씨계통문에 대해서는 문경현(1999), 박선숙(1999), 박종성(1999: 81-83) 참조

2. 기생편파 정책과 성매매반대운동의

해방 후 성대제의 공간은 미군의 전후와 한국전쟁 후 미군기지의 주둔,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3년간의 군복무 의무화 등으로 확고히 형성되었다. 4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양산한 소위 '알공주'들은 무려 23~30만에 이른다고(박종실, 1994: 92). 미군한테 '서비스를 해야' 우리나라를 잘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정복적으로 기지촌을 형성한 것이다(서울의 용산, 동두천, 파정부 들과 부산의 서면 일대, 하이라이 부대, 태운대 탄약 부대, 제1부대 군방의 수술부대, 보급창 주변의 밀집촌, 초창 주변). 또한 분단으로 인한 3년간의 군복무 등으로 용산, 청량리(88), 천호동, 영등포 등에 소위 '용학가'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는 동남아 동지와 마찬가지로 제2세계의 근대화 정
 격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1960년대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대외지향
 적 성장전략으로, 국내 자본에 바탕을 둔 자립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외자를 주축으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가 성립
 되었다. 이러한 근대화 정책은 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농
 한 농촌의 여성들은 공장으로 많이 유입되었지만, 여성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워낙 빈약하여 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성
 산업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대외 의존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되면서 2차 산업의 기초 없이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 서비스업들이 가파른속도로 늘어났다. 3차 산업의 발달은 알라

3) 이 글에서 사용된 약칭은 다음과 같다. 합지합문학평리문성지법, 고려간한국 교육여성연합회, 여성지전회(1997년까지는 한국여성지전회, 1998년 이후에는 한국여성지전회연합, 여간한국여성단체연합, 한소리화대회를 근절을 위한 한소리화, 대학협리회경기도여성학원 시간대협리회, 대학한대회를 본지 해절을 위한 연구회, 주나안성문합(주나안성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정보화(정보보조리원회), 성문화대학화(정보소화 대학리원회), 할 아들지리기(SMF시대 할아상업으로부터 할 아들 지리기)

③ 한국의 산업화와 살미매의 관계에 대하여 김영순(1999: 343-344) 참조.

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생태계의 확산을 가져왔다. 앞서 언급한 기지촌이나 '술각가'에서 행락지는 생태계는 '전통형' 생태계에 속하는 반면 3차 서비스 업종 혹은 행정적으로 서비스 집약업이라고 불리는 석유펙업소, 화생 집약업소, 한미사육소 등에서 본래의 서비스 이후에 이루어지는 생태계는 '산업형' 생태계에 속한다.

외국자본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변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했고 기술이나 자본의 투자 없이 쉽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는 관광산업을 장려했다. 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 방지법에 명시된 처벌규칙화는 모순되게 색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1961)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1962) 교통부에 관광국을 신설하고(1963)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광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사업에 관한 주요 종합정책을 심의결정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업무조정을 기하도록 하였다(1963)(장영수, 1989: 37 재인용). 이러한 관광정책은 1960년대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고도성장 정책이 70년대 초 세계불황의 여파로 수출부진, 외자관련기업 부실 등을 겪으면서 난항에 부딪히자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미 1962년부터 특정지역 내의 성매매나 특수 관광호텔에서의 외국인 상대 매춘여성은 원칙적으로 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했었다. 1973년부터는 관광기생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동행금지제 관계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에게 국가경제, 인보교육 그리고 자신들이 국가경제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독려했다. 교육내용은 앞세시대 정신대를 독려하였던 독리사와 너무 흡사하여 '신한 정신대 결단식' 같았다(고어면, 1983: 24).

이렇게 여성들은 이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상품, 더 나아가 '완전히
원'이나 '부존자원'처럼 쓰여지고 팔려간다(손학수, 1987: 54). 1970년

대 초반부터 시작된 기성관장은 1978년에는 이미 외국인 관광의 '1백만 명 팀'을 세울 정도였고 1980년대에는 국내인까지 대상으로 하면서 공중연히 이루어졌다(고여연, 1983: 3; 한국여성개발원, 1993: 4). 국가주도의 기성관장정책 속에서 많은 매춘여성들이 일본인들에게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병리적 행위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으며 죽는 경우도 있었다. 매춘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면 정부는 회화를 벌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이우경, 1983: 11-12). 또한 특정 지역을 섹스관광지로 선정 개발하여 소위 '기성관광'을 본격화하였다. 한국 여성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고, 한국은 '황녀의 소굴, 코리아'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정부의 미호 아래 1970년대 말부터 팽창한 3차 서비스 산업은 자본에 의해 더욱 더 확산되었고 80년대에 이르러 정부의 소위 '3S(섹스, 스모크, 스포츠)정책'과 올림픽 유치로 인해 번창일로에 있었다. 소위 요정, 디스코 카페, 풍살롱 등의 성산업이 확산되었던 것이다(한국여성의 전화, 1989). 또한 관광산업을 건전하게 대신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적인 문제외에 무역에서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섹스관광을 더욱 더 정교하게 부추겼다.

정부의 외화획득 전략은 매춘여성의 희생은 물론 에이즈의 확산까지도 담보한 것이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후원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의 초안에는 외국인 입국시 항체 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은 88올림픽 관광대유치 및 수출정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외무부, 체육부, 교통부가 공동 요구하여 삭제되었다. 또한 정부는 올림픽 외국 선수단에 제까지 에이즈 항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에는 매춘여성의 희생과 에이즈 문제에 대한 매춘여성들의 책임 전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적인 문란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란과 폭력은 80년대 중반부터 극성을

부리며 우리 사회를 공포의 모가니로 몰고 간 인신매매로 귀결되었다.⁷⁾ 인신매매가 성산업에서 부족한 여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던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8-19).

1970년대와 80년대 성매매 확산을 조장한 국가의 관광정책과 합법산업 정책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저항한 집단은 교회여성들이었다. 70년대 당시 여성운동단체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생존권 투쟁과 민주화운동에 집중하고 성매매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성매매반대운동

해방 후 본격적인 성매매반대운동은 기독교 여성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 여성운동은 70년대 당시 낙후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파동하여 여성노동자 투쟁, 기성관장반대운동, 에이즈퇴치운동, 정신대 문제 대책활동, 원폭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이슈를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하고 여성 문제로 구체화했다.⁸⁾ 이 중에서도 성매매를 추방하기 위한 활동은 무엇보다도 활동할 만한데, 이 운동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하 교회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교회 간려 반목을 극복하고 교회 일치의 정신이 고조되던 때, 한국교회여성들은 세계기도일운동과 작은문운동을 통해 미약하나마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익혀왔고 이를 통해 초교파연합운동을 시작했다.

7)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의 일간신문은 물론 지방지체 인신매매사건이 간간히 보도되었고 특히 1988년에서 1990년의 3년 간에는 거의 매일 보도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1).

8)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회여성운동은 여성운동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정희진, 1999). 이는 기존의 여성운동사가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되기보다 이념과 여성운동단체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교회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여성운동사 기술에 대한 모세에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이현숙, 1992: 28-30). 이러한 토대 위에 한국 교회 정신과 현대 사회 선교 그리고 여성 문제 해결과 세계평화의 과제 수행을 위해, 1967년 '예장, 감리교, 기장, 여성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 교회사에 여성초교파연합운동의 이정표가 될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창립되었다.'⁹⁾ 교여연은 8개 교단의 여성도량(여성교회, 여성도량)의 연합체로서 교회 여성지 일치의 여성들의 힘의 증진을 위해 힘썼다. 특히 교회의 여성지도자들은 여성들이 힘을 기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교여연의 창립 배경에는 아전 교회 여성지도자들의 여성화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교여연은 여성운동단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에 유신시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여성운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여연은 창립될 때부터 매춘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교여연은 1960년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온 젊은 여성들이 '식모'나 비스카장, 또는 공장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남성들의 성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소외된 여성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절대 빈곤 속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고 이 가난한 여성들의 문제가 성매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매매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윤영애와의 인터뷰 중에서도, 교여연의 성매매에 관한 관심은 일찍이 1960년대 말에 정신대교에서 매춘여성 현황에 대해 강의한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1969. 1. 20).

교여연은 성매매반대운동의 당위성을 성매매의 반(反)성서적인 성격에서 찾는다. 즉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기에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에서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고 또 성매매는 하느님의 선물인 성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없애져야 하는 것이다(교여연, 1983: 3).

9)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숙(1992: 31-34) 참조.

1988a: 1; 1988b: 73). 성매매와 관련하여 교여연이 벌인 운동은 '윤락여성 미연방지사업', 기성관장반대운동, 에이즈추방운동, 합작퇴폐문화추방운동, 살암운동 등이다.¹⁰⁾

2) 윤락여성 미연방지사업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수출지향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서 피폐화된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수는 증가하였고 농촌의 미혼여성들도 소위 '무라정' 상황하게 되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이들을 포주나 브로커들이 데리고 가서 성산업으로 유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교회 여성단체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기독교부녀구원장외소가 가장 먼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으며 교여연도 창립과 더불어 '윤락여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우선 '윤락여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재정어원을 위해 매춘여성 선도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무궁화초, 매지 2,000개를 만들어 판매하였다(1971. 3). 또한 기독교부녀구원장외소에 매춘여성 미연방지사업으로 간사를 상담원으로 파송하고 서울역에서 상경하는 소년들에게 포주들에게 속지 말 것의 길 곳이 없을 경우 찾아오라는 전단을 배포하였다. 이들이 상담한 여성들은 기독교 부녀구원장외소가 1963년에서 1969년 사이에 11,311명, 1970년에 1,927명 있었고 교여연과 간사가 상담한 전수는 1971년 7월에서 1972년 3월까지 1,317명이었다(이현숙, 1992: 43).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이들을 교육하여 갈 곳 없는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교회여성 특유의 헌신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일은 후에 상담센터 및 쉼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역시 종교적인

10) 교여연의 성매매관련 활동에 대해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성관장반대 및 매춘여성들을 위한 활동경과'와 이현숙(1992: 40-43, 82-94, 231-278, 384-385) 참조.

사람이 그 바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운동은 그 방법에서 개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요보호' 여성을 찾아가 이 여성들이 성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마면에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는데, 첫째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음각여성'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매춘여성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한계는 다음에 전개될 기성관망반대운동에서 부분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3) 기성관망반대운동

서울에서의 상황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춘여성의 수는 70년대 들어 급증했는데 이는 1963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과 위에서 서술한 외화획득을 위한 정부의 관광정책에서 기인한다. 이리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 사회에는 소위 '기성관망'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여연의 기성관망반대운동은 마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한일(韓日) 교회협의회에서(1973. 7. 2~3) 아우정 대표가 기성관망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성관망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아우정 대표의 건의는 즉각 받아들여졌고, 두 달 후 일본 NCC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인 기성관망에 대한 문제제기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인 관광객과 관광업체의 반성과 자제 그리고 한일간의 교류방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교회여성들은 연대활동을 강화하게 되었고 양국의 교회여성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섹스관광의 실태와 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여론화되었던 것이다(이현숙, 1992: 83-89).

기성관망반대운동은 1970년대 초반에 크게 일어났는데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80년에 들어 재개되었다. 제1차 기성관망반대운동은 1973년 가을부터 1974년 봄까지 한일 양국에서 자발하게 전개되었다. 교여연은 1973년 늦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기성관망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관광객과 음각여성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대응방안을 토론하고(1973. 11. 30) 교통부 장관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섹스관광의 시정과 건전한 관광사업체의 강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며(12. 3) '매춘관광의 실태와 여론'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회여성들의 운동은 대학생에게 열광을 미쳐 이화여대, 한신대, 서울대 학생들의 섹스관광 반대시위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에서도 22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일본인의 한국 내 섹스관광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한국 내 관광회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공항에서 시위도 하고 또 섹스관광 반대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빚발치는 참화에 한국관광협회는 기성관망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기성관망하는 관광코스에서 제외하고 건전한 관광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1974. 2).

교회여성들에 의해 섹스관광의 문제가 여론화되자 다른 여성단체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성관망반대 강연회(1974. 2. 26)에서 아우정은 정부의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당국의 검사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유선파업 수락을 가로막은 반정부 행위'로 간주되어 연방되기에 이르렀다. 아우정의 연방을 계기로 기성관망반대운동은 전과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되었다. 교여연의 활발한 운동으로 1973년 전체 관광객의 80%에 육박했던 일본인 관광객이 1974년부터 1977년까지는 60%대로 감소했다.

1970년대 들어 전개된 일련의 활동들은 섹스관광에 내로남불 강대국 남성에 의한 악소국 여성에 상유된 실태를 고발하고 군사정부의 여성인권유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문 삼십일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70년대 교회여성들의 활동이 성매매반대운동사에서 갖는 의미는 이 운동이 성매매에 대한 50, 60년대의 개인적 접근을 탈피하여 문제의 초점을 남성과 권력 그리고 자본에 두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이현숙, 1992: 94).

유선정권이 끝나자 그동안 잠잠했던 기성관망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교여연도 기성관망반대운동을 재개하였다. 1980년대에 교여연이 추진한 제2차 기성관망반대운동은 4개 지역 기성관망 실태조사와 88올림픽을 대비한 일련의 성매매반대 및 에이즈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성관망 실태조사는 제주, 서울, 부산, 경주를 중심으로 1980년 2월에서 5월까지 3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과는 1983년 저널집 <기성관망>으로 발간되었다(교여연, 1983). 이 조사는 기성관망의 현상은 물론 관광요정의 실태 및 관광기생의 일상적인 생활, 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 착취구조 등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드러낸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조사과정에서 기성관망은 '선(善)정신대'라는 인식에 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해외 기자들 사이에서 생겼다. 일제사대에 일본의 정치적·군사적인 힘에 의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된 것이 '정신대'라면 기성관망은 일본 자본의 힘 앞에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되는 '선정신대'라는 것이다(윤영애와의 인터뷰 중에서). 또한 이런 조사를 통해 관광사업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애초부터 기만이었음을 통감하며 당국에 기성관망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1983. 3. 13). 이 건의문에서 '음각여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정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과,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일매조직 및 성매매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의 정안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 그리고 탈매춘을 방해하는 각종 착취고리야 폭력, 감금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얽힌 이해관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대수술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타 섹스관광을 장려하는 정책을 바꾸고 제주도 관광관광개발계획이 새로운 '사탕가의 종합화'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

다(교여연, 1983: 38).¹¹⁾ 이 실태조사는 성매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회여성 및 여성회전화, NCC여성위원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1983년부터 88올림픽 한국 유치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성관망반대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계기는 일간지에 실린 허구잡지의 기사였다. 즉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거액의 돈을 들여 <더 스포팅 뉴스(The Sporting News)>지에 올림픽관련 한국 특집을 실었는데 여기에 한국 여성들이 외국 손님 앞에서 시종드는 모습과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실려 다시 한번 여성단체와 교여연을 분노하게 했다. 여성단체는 공개질의를 통해 여성을 이용해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정부를 비난하며 정부 당국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해명, 사과를 요구하고 올림픽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이현숙, 1996: 23). 교여연은 외화획득이라는 미명하에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여성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며 이 기사에 대한 진실 해명을 촉구했다(1983. 11)(교여연, 1988a: 36-37).

교여연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성관망과 기성관망자를 조장하려는 음은 회도를 간파하고 대외 마면에 나섰다. 교여연은 '매춘 문제와 여성운동'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1986. 10. 14) 기저는 여성들의 현상 증언, 제주도에서의 기성관망 실태와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현상, 동남아의 성매매와 여성인권 유린현상의 심각성을 공유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성매매반대운동 사상 처음으로 개념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손덕수와 이미정은 종래의 '매춘'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손덕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매춘은 몸을 파는 사람과 몸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성립하므로 賣娼婦와 買娼夫가 똑같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춘을 매매춘(買賣娼)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구했다(교여연, 1987: 39). 이미

11) 여성단체들도 제1회 한국여성대회(1983. 3. 6)에서 선려주에서 공식화된 섹스관광을 고발하며 관광기생 정책 철폐, 합법안정을 유발시키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정책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매물> 8: 11).

경 역시 같은 논리에서 사는 남자쪽을 강조하면서 '賣買' 혹은 '買賣'으로 쓰기를 주장했다. 성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성 개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을 파는 여자쪽만을 강조해온 용어상의 성차별에 폐기를 막은 일대 사건이었다.¹²⁾

서울에 있는 여성운동단체들(한국여성지진회,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올림픽을 앞두고 기생관광의 문제를 사회여론화하기 위해 연극 '꽃다운 아내 정춘'을 무대에 올렸다(1988. 4. 17~18). 연극을 통해 매춘여성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생산업과 국가정책과 연결시킴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구조적 시각을 심어주었다. 또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소외 여성의 고통과 국가정책의 부조리에 대한 일반대중의 공감을 유도했다.

80년대 말 기생관광반대운동은 제주지역 실태조사와 조사결과를 발표한 국제세미나로 모아졌다. 제주도는 정부에서 외화획득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한 지역으로서 올림픽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지역이다.¹³⁾ 이에 교회연은 당시 총무 윤영애를 중심으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1986년 12월에서 1988년 1월까지 제주도 기생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제주지역의 운동가인 오옥연, 문순애, 송정리는 직접 닭장굴부엌 달린 방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집에 세들어 생활하였다. 매춘여성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가라오케 정리, 다방 세기, 카페 주방장으로 일했다. 매춘여성들과 인간적으로 접촉하고 신뢰받아야만 그들의 처나리한 실태를 알 수 있고 그들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교여연, 1988b: 52-61). 실태조사의 결

12) 성매매 문제를 매춘여성에게서 비롯된다고 보는 보수적 관점은 성매매 행위에 관한 국제 협약 중 매춘여성'공약'으로 지칭함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교여연, 1990: 87).

13)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정책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여연(1987: 28-38, 1988a: 8-20) 참조.

과는 <여성과 관광문화>로 발간되었다. 이 조사는 제주도 기생관광의 현황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관광요령의 모습, 기생과파의 현장, 관광가생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관광기생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 등을 분석함으로써 객스관장의 심각성과 관광가생들의 삶, 착취구조 등을 밝히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88올림픽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1988년 4월에 제주도에 열린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이 세미나는 9개국의 대표여성과 한인 교회여성, 국내 유관단체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세미나는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는데, 성매매 부분만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과 성매매 문제가 국제적인 논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졌다는 것이다(이현숙, 1992: 269). 또한 최초로 전직 매춘여성과의 직접적인 공개 만남을 통해 그들과 중산층, 교회여성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교회가 매춘여성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결의가 생겼다는 점이다.

어떻게 강연을 수련한 한 전직 매춘여성은 일반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 또 매춘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득해 있게 증명하였다.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을 파는 것이 여성이 처한 현실임을 과감하게 말하며 소위 '일반여성'과 매춘여성과의 차이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여성들간의 일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제가 이런 말함을 여기서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 사람에게 적은 돈을 받고 매춘부가 몸을 팔았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여성들, 한 가정의 아내들 어머니들은 한 사람 상대해서 매춘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교여연, 1988b: 41). 또 이 전직 매춘여성은 매춘여성들이 처해 있는 각종 착취구조와 그들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청중석에 앉아 있던 중산층 주부들인 교회여성들은 매춘여성들이 산업화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또 자신들이 근거화됨으로써 그들이 사회구성원

으로서 살아가기 힘들게 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를 가해자라고 자책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¹⁴⁾ 이 세미나에서 중산층 교회여성들은 매춘여성들과 관한 자매애를 느꼈고 이러한 자매애 형성이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선교회 과제로 채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교여연, 1988b: 29-40).

또한 이 국제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은 제주도에 매춘여성을 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모교지 후원회를 결성하여 모금한 결과 1991년 3월 14일 제주도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또한 10개국의 130명이 함께 '매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여성 선언문'을 발표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다(교여연, 1988b). 이 선언문은 성매매 현상에 대한 교회여성들의 최초의 입장표명이라는 점 이외에 성매매를 전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문제, 전세계 여성의 문제로 보는 거시적 안목과 구조적 관점이 중심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매매를 도덕적 타락으로만 규정하고 이 문제를 도치시켰던 교회가 이를 반성하고 신학대학의 교과목에 여성신학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헌법 방지법 개정 요구,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간 착취구조에 대한 강력한 대처, 매춘여성들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 매춘여성들을 위한 공간 마련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는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교여연, 1988b: 71-73).

제주도의 기생관광 문제는 교회여성들뿐 아니라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어민회는 기생관광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성매매를 주제로 한 연극 '꽃다운 아내 정춘'을 공연하여 지역민들에게 정부의 관광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기생관광의 문제점을 공유(1988. 7)했다. 제주어민회 김효선 상담부장과

14) 그래서 본회기는 마치 성매매 나오는 마가다박양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듯 했다고 한다(윤영애와의 인터뷰 중에서).

제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악덕 관광요령 업무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아들을 피호하는 경찰과 경찰의 과실을 촉구하고 헌법 방지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민주여성> 7: 27-28).

우리나라 기생관광 문제는 아시아적 맥락에서 다뤄면되리라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일본 관광작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시작되는 아시아국제 성매매기록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변영주 감독)은 한국의 기생관광, 태국의 성매매 현장을 취재하고 성매매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터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는 무론영상이 제작하고 교여연이 코디네이터하여 시사회를 개최했다(1993. 6).

또한 여성단체와 교회여성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에이즈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여성의 전화(이하 여성의전화)는 올림픽개회 및 개회 전에 발행한 소식지에서 88올림픽 개회가 끝난 후 '매춘관광 산업정책'을 동반할 것을 예견하고 외국인 입국시 에이즈 검사필증을 휴대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여성의전화, 1988: 2-3). 이 밖에 여성단체와 교회여성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에이즈 비상 공동대책회를 결성하였고(1988. 7. 26), 에이즈 추방을 위한 법시민 대표모임을 개최했는가 하면(1988. 9. 3) 에이즈와 관련하여 보사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합의를 맺었으며(1988. 9. 14), '미국의 도덕매춘문화 및 에이즈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여(1988. 10. 12, 10. 22)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1988. 12. 16)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자세한 것은 이현숙, 1992: 271-273; 1996: 26-27). 시민사회단체도 할학문화의 확산을 우려하여 운동을 전개했는데 YMCA의 할학문화 추방과 건전시민문화 가꾸기 시민운동(1988)이 바로 그것이다.

4) 임신대면반대운동

여성의전화는 1983년 3월 당시 임신대에 조작이 대거 걸려져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의제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인신매매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공개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성폭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여성화전회는 인신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이 성적인 도구로 전락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신매매를 성폭력의 한 형태로 보았다(여성화전회, 1983: 2). 토론회는 인신매매의 유형 사례 발표에 이어 당시 교여연에서 성매매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이수경이 성매매의 비인간성에 대해, 김은희가 '매춘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 그리고 박인석이 '매춘여성 문제를 여성의 힘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리라'를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 여연도 1987년 창립 이후 1988년부터 인신매매를 규탄하고 정부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1989년에는 노동부, 보사부, 내무부, 차안본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차안본부와 검찰청의 담당자를 면담하고 대책위원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성운동가 출신 국회의원 박영숙과 인신매매 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여연, 1998: 176).

미국 기지와 피레타라업소가 몰려 있는 전북지역의 전북민주여성회도 특별회 형태의 소위를 구성하여 대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우선 지역의 여성단체(한국교회여성, 여대생,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등)를 결집하여 '인신매매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여성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결성하였다(1989. 4)(《민주여성》 7: 29-30). 공동위는 7월에 여연 이수경 회장과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였다.¹⁵⁾

교여연성들도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져 세계기도일 행사 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신매매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어메터를 두르고 가두행진을 하였다(1989. 3. 7). 교여연의 총무 윤영애는 서울 YWCA에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강연한 후 인신매매 신고전화 개설을 제의했고 이 제의에 따라 서울 YWCA에 인신매매 신고전화

15) 당시 공동위원장이었던 박영숙(당시 전북민주여성회장과 전라인민부 중에서

가 개설되었다.

3) 1970-80년대 성매매반대운동에 대한 평가

1970-80년대 성매매반대운동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처음 세 가지 문제는 교여연 활동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고 마지막 문제는 교여연과 여성운동단체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첫째,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 물리면서도 성을 파는 일에 종사하는 여성을 '윤락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사용은 성을 파는 여성들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교여연, 1983: 4, 22-23). 이것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매춘'으로 개념화하여 파는 행위(매매)에 책임을 전가했던 한계와 밀접상통한다. 이 관점은 1988년 국제세미나에서 전직 매춘여성의 증언으로 흔들리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¹⁶⁾

둘째, 기본적으로 여성이 성을 파는 문제를 '절조'의 문제로 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교여연이 1973년 12월에 발표한 성명서는 "우리 선조는 빈곤을 사는 슬기와 여성의 절개를 물려 주었다"로 시작하여 성의 상품화로 인한 여성의 인권유린을 절조의 유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반영하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정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교여연, 1988a: 33). 매춘 여성들의 문제가 성의 상품화와 자아와 육체의 분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낙화담을 수놓은 정철의 여인들, 전주 남강의 논개의 열을 이어받은 우리의 딸들이 이국인들에게 몸을 팔아야 하는 억울한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교여연, 1983: 4). 기성 관념이 여성 문제로 인식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다른 나라 여

16) 더욱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를 절조로 드러내고 논리화하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는 있었다고 한다(중앙여성의 연대부 중에서).

성들에게서 일찍이 찾아 볼 수 없는 정절사"가 있는데 "오직 문을 뚫 목적으로 외국 남성의 성폭력의 도구로 이 땅의 여성의 정절이 바쳐짐으로써 이제 여성으로 불리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교여연, 1983: 3, 1988b: 3).

셋째, 여성관에 있어서 이전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이 '여성'이 아닌 '발의 꽃'이라든가 '이 땅의 어머니들이 될 꽃다운 우리 어린 딸들' 혹은 '이 땅의 딸'로 그려지고 있어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통념과 가정적 존재로서의 여성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교여연, 1983: 4, 22-23; 1988a: 1).¹⁷⁾

넷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미흡하다. 교여연의 인식 즉 '기성관망의 문제는 인간과 사회적 소외, 인간관계의 문화, 성의 상품화, 여성의 자임감, 취업기회의 제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외화획득을 목표로 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제국주의의 수탈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사회구조적 문제'(교여연, 1988b: 43)라는 인식에는 인간 전반의 문제, 성제의 문제, 제국주의의 문제,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문제만이 있을 뿐 성별(sex)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직 문을 뚫 목적으로 외국 남성의 성폭력의 도구로 아랑의 여성의 정절이 바쳐질 때 민족적 수치심과 더불어 또 다른 제국주의적 침탈의 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교여연, 1988b: 3)이라고 하여 성매매 문제를 일차적으로 제국주의적 침탈로 인한 '민족' 문제로 인식하며 '여성' 문제는 '민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민족의 수치'이기 때문이고 '여성의 인권침해'는 그것이 민족의 수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관에 있어서 여성운동단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여성운동단체로서 인신매매 문제에 관해 최초의 토론회 '인신매매와

17) 이러한 교여연의 반여성적인 성윤리와 여성을 폭력의 개체로 보기보다 남성과 가족에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은 80년대에 여성성학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교여연, 여성화전회, 1996: 7, 18).

매춘여성'을 개최한 여성화전회는 개인의 윤리적 타락여부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면서 매춘여성 문제를 여성의 저임금, 고용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여성화전회, 1983: 2). 이 토론회에서 이미경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적 접근방법을 '매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춘을 통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론 및 접근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미경, 1987: 63). 여기서 이미경은 성매매에 대한 가장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산업구조의 파장과 지역사회 해체라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67쪽). 그는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전반의 경제성의 문제라기보다 '가난한 여성'의 성이 착취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성매매 운동의 방향도 당시 여성운동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계급문제 파악 쪽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에게 가부장제의 성의 이중적 규범은 성을 구매하도록 충동하는 요인에 불과하다. 성의 이중규범의 역할이 단지 남자로 하여금 성을 사게끔 하거나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춘여성의 성매매 시장으로서의 유입과 그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성매매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구조중심과 거시적 접근은 성매매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80년대 여성운동권의 전반적인 경향과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막 대동하여 여성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여연의 입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연은 '제국주의 성정태와 여성'이라는 특집을 통해 성매매의 원인을 개인적 타락, 개인적 기질과 풍성 문제로 물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지배집단의 논리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 간의 상품리적 차원의 문제로 '국면되지 않고'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여연은 성매매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계급문제이며 이차적으로 계급으로 인해 발생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는 계급 문제와 더불어 제국주의의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였다(〈민주여성〉 5: 13).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1980년대 여인의 활동은 '민족민주운동'과의 연대나 여성노동자 문제에 집중되었고 인신매매와 섹스관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전개된 성매매운동에 내포된 '인권'의 개념에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의 성이 문제로 거론되는 것을 여성인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나 이 때 사용한 '인권' 개념은 여성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성지계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지 못했다. 사학(私學)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성, 가족 등에서의 여성적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결국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매매에 대한 저항 운동에는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아온 '여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70~80년대의 성매매운동의 초점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구조 및 학업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고, 가부장제의 모순, 남녀간의 성별 권력관계, 성을 사는 남성과 매춘여성 두 주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성매매 문제와 여성 문제 전반의 연결 고리가 매우 허약했다. 이러한 한계는 1990년대 성매매운동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교회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우리나라 성매매반대운동사에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일단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개인적 접근이 극복되고, 사회구조적 접근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경제구조중심의 거시적 접근이 그 자체로는 성매매를 설명하고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불충분하지만 이런 접근은 앞으로 성매매관련 이론과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기존에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매춘'으로 부른 것에서 점차 사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매

매춘'으로 명명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¹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성매매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셋째, 여성간의 연대에 불교를 뜨게 된 것이다. 교회가 여성들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회여성과 매춘여성들 간의 지대에서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근절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이는 다음에 언급할 매춘여성인권운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네째, 군사독재 시대에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싸운 전통을 정통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이중정책에 저항하는 모델이 되었다.

3. 매춘여성인권운동

교회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70, 80년대의 지열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성매매 문제를 '윤리적으로 타락'한 매춘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지속되었다. 이는 운동의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전통과 관습, 사회구조, 절대 빈곤, 그리고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으로 생산업이 점차 확산되기 때문이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아 매춘여성들은 사회적 냉대에서 오는 좌절감과 소외감에 시달려야 했다. 매춘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착취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매춘여성들의 인권은 무뎠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런 중첩된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매춘여성들의 삶은 비참함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현장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성매매 반대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매춘여성인권운동이 전개되었다.

18) 교여연의 경우에도 1988년 국제세미나를 할 때까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매춘'으로 개념화했다.

1) 합터운동과 한소리회

합터운동의 시작은 1984년 가톨릭 수녀연합회 모임에서 계획한 성매매에 관한 현장교육에 미국인인 문예현 수녀가 참석하여 용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육정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매춘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믿고 있었던 문예현은 이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감화되어 이육정과 함께 매춘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합터인 '브라덴나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다(문예현, 1996: 4). 이후 매춘여성을 위한 합터는 증가하여 1988년에 사마리아의 집이 생겼고 현재는 이 두 합터 외에 쓰나의 집, 장다운 집, 두레방, 새날을 여는 청소년 합터 등이 있는데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합터에는 간접 청소년과 매춘여성이 있고 그 밖에 비혼모와 성폭력 피해자도 있다.

합터는 일차적으로 도망나온 매춘여성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육정은 "언제나 저자들이 필요하는 데는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원대받고 일시받고 가족들한테 되돌아가는 고통받고 외로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아닌가 합니다. ... 울 때 옆에서 프리네스 한 장 짊어 주고 눈물 닦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교여연, 1988b: 29, 33). 또한 합터는 기술한 여성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하다 생산업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밖에 합터에서는 합터 운영 이외에 요리, 집수, 법률, 자녀 교육 상담 등 생활상담, 치료상담, 직업상담,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여성고실 운영, 경조사 참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이육정, 1996: 22).

합터운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일상은 뚜렷한 변화도 없고 그러나 늘 화악고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다(문예현, 1996: 6). 더구나 자원과장에서 일어나는 경찰과의 마찰, 오랜 기간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온 매춘여성들이 보여주는 합리적이지 못

한 태도 등은 매춘여성들의 운동상을 굵아먹고 운동가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또 결과가 축적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심성'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희박한 가운데 합터운동단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인력의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터는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합터는 매춘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원하고, 상담과 공동체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인권을 수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법상 매춘여성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매춘여성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일부 경찰, 지역유지, 조직폭력배, 일부 관련 공무원 등이 성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춘여성들이 가릴 수 있는 곳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합터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합터는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춘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합터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매춘여성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소리회라는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한소리회는 1986년 필리핀 작한 목사 수녀회 소속의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매춘여성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숨은 일꾼들이 모이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한소리회〉 2: 3). 한소리회는 '매매를 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혹은 매춘여성들의 한(恨)의 목소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소리회는 1986년 각 지역의 합터와 개인의 비정기적 모임으로 시작되었고¹⁹⁾ 1998년 독립적인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명칭을 '매매를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9) 한소리회가 만들어지는 데 교여연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교여연은 합터들이 상담적인 관념할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을 맡아주면서 울타리 노릇을 했던 것이 다음절에서의 인제부 등에서.

(이하 한소리회)라고 변경하였다. 10여 년간 한소리회 모임이 지속되면서 '매춘 문제'에 대한 여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열린 전화' 개설을 계기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유태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한소리회는 강한 운동성을 바탕으로 성매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매춘여성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통해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지원하고 매춘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상담의 대부분은 빚 문제로 인해 탈매춘을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한소리회에서는 개별 상담과 연계하여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 포주의 빚 포기 작사를 받는 일, 빚을 청산하여 주는 일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상담활동을 통해 그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들을 통해 한소리회는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의 성매매에 관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한소리회〉 1: 6-7).

한편, 고여연은 그동안 성매매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가출소녀와 매춘여성에게 열린 전화'를 개소하였다(1977). '열린 전화'는 개별 상담가 해오던 상담과 지원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현장과의 연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²⁰⁾ 상담을 요청한 여성들의 문제는 복잡하다. 그들의 문제에는 가출과 성매매, 폭행이 공존했고 특히 가출소녀나 매춘여성들의 구직 문제도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고여연은 1998년 11월 '가출소녀와

20) 상담건수는 개소후에(1997. 11. 3) 1999년 9월 말까지 160건이다. 열린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열린전화 1주년 상담보고'에는 개소후에 1998년 9월까지 상담건수가 211건으로 나와 있으나(고여연, 1998: 11)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정현숙과의 전화인터뷰 중에서). 포주부의 야간상담은 한소리회에서 맡았다. 한소리회가 사무실 개소를 하면서 상담전화를 맡기 시작하고 1999년 들어 24시간 상담을 맡게 된 고여연은 주간상담만 하고 있다.

매춘여성에게 열린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린 전화 1주년 상담보고를 했고 '청소년의 매춘현황'과 '상담처리에 있어서의 법적 한계점'에 대해 토론했다(고여연, 1998).

한소리회는 현재 탁달래나의 집, 사바리이의 집, 쏘나의 집, 장다운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 센터, 새봄터, 무래방, 다비타의 집, 은성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햇살여성센터, 새 삶을 일구는 사람들 자립지원공동체, 다일공동체, 여성이웃기 공동체와 크리시이라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과 한소리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춘여성인권운동은 성매매 현상을 개인여성의 문제가 아닌 매개구조의 문제로 보고 따라서 '유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진행된 1970, 80년대 성매매반대운동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춘여성인권운동이 성매매반대운동과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매춘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했다는 데 있다. 매춘여성의 삶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의 허구성, 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부당함을 폭로했다. 또한 매춘여성을 통제하는 매커니즘을 드러내어 탈매춘이 왜 불가능한가를 밝힘으로써 성매매반대운동의 대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성매매운동은 이제 한소리회를 통해 보다 조직적인 매춘여성인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매매운동이 '절박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매춘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한소리회는 상담과 성매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를 사회이슈화시킴으로써 성매매 전반의 문제와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매매가 주로 매춘여성 개인의 탈

21) 크리시는 성동출판 편집도 과업인으로서 현재 광주 사랑가에서 모여 사랑가 방한 및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유태희와의 인터뷰 중에서).

매춘을 도피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 탈매춘 가능성을 보여주어 탈매춘을 유도하고 있다면, 한소리회는 개별적인 탈매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대하고 복잡하게 짜여 있는 성매매 구조를 변화시켜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매매운동과 한소리회의 매춘여성인권운동이 아직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여성운동'이라고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성매매의 문제를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맥락과 더불어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기 때문이다. 개별 상담의 차원에서는 후자의 관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한소리회의 차원에서는 전자의 관점이 좀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매춘여성인권운동 전체로 볼 때 성매매 관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실무자들도 자신들을 '여성운동가'로 정체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한소리회의 활동을 통해 점차 극복되고 있다. 한소리회가 '매매춘 철폐' 주장에 맞서 매매춘 근절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여성운동간담회 내에 통일된 목소리를 대사회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활동할 것을 표명'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한소리회〉 1: 6). 한소리회는 현재 회원단체들의 종교적인 접근과 어떻게 여성운동이 접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2)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과 매춘여성인권의 여론화

매춘여성의 인권문제를 여론화하는데 계기가 된 사건은 매춘여성과 가출소녀들의 재할가관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이다(1993. 8. 21). 국가가 운영하는 여성수용시설에서 불이 난 것은 이례가 처음이 아니다. 이 사건 이전인 1994년 1월에도 원성들이 교육기간 만료, 구타 근절, 빚 용인 허용을 요구하며 기숙사에 불을 질러 방 2개가 탄 적이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원성 4명이 탈출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22) 이 사건에 대한 일지 및 기타 자료가 고여연(1996a)에 있다.

이 나가 이틀 전에도 2명의 원성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1994년에도 서울시립여자기술학원에서 화재가 났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는 너무나 참혹하였다. 원성 4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것이다(김길준, 1996: 103).²³⁾ 고여연과 한소리회는 사건 다음 날인 8월 22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를 결성하고 8월 23일 서울역에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대책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²⁴⁾ 대책협의회는 수차례 걸쳐 경기도청 관계자를 면담했고, 유가족을 지지 방문하였으며 항의시위와 재관 및 피해 당사 합동위령제에 참가하였다(대책협의회, 1996a). 현주진조를 방화혐의로 기소된 원성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성 전원은 소년부 송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춘여성들을 수용하는 직업보호 시설에 위험 비리와 과잉적 운영이 폭로되었고 관계부처의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성, 이를 방지해줄 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대책협의회, 1996c; 1996d).

이 방화사건으로 직업보호시설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유린이 저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신문들은 일제히 이 시설을 '교도소', '감옥', '성지옥' 등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을 인권 차원에서 크게 다루었다(고여연, 1996a)에 있는 신문자료 모음 참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1996. 1. 29) 종전으로 나온 원성들은 "밥을 먹다 남기면 청소를 해야 하고 여들다 걸리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 6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를 애기에 하나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청소 검사를 하는데 머리카락 한 개마저도 찍었습니다. 3시간 동

23) 사건 당시에는 3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으나 현재 사망자가 늘어났다(경기도 가정복지처, 1993: 113).

24)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대책협의회에 참가한 단체는 다비타의 집, 무래방, 다일공동체, 탁달래나의 집, 사바리이의 집, 쏘나의 집, 자립공동체, 봉사당인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며 대부분이 한소리회 회원단체들이다.

안 청소를 해도, 아니 3시간 동안 청소를 해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등
을면서 계속 같은 기술원 생활을 보냈다(수원지방법원, 1996). 원청의
의 탈출을 막기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면 현관을 잠그는 등 시설의 구조
와 운영 또한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사건은 이같은 수용상황의
결과였다. 밖에서 문을 잠그지만 않았어도 혹은 수위실에서 버편을 놓아
현관문을 열 수 있게한 되었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거나 다치지 않
았을 것이다(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1993: 126; 김철준, 1996:
107).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듣고 한 기지촌 여성은 '차라리 감옥이 낫
다'며 울었다.²⁵⁾

이 사건은 성매매와 매춘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
와 국민의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정부는 모든 투쟁의 방지법
과 대규모 강제수용시설만으로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내세우
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여성운동단체조차 침묵에
가까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작업보호시설을 철저히 감시하여 버
편을 함쳐낼 것과 선도대학에 관해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대법원회의, 1996b, 1996c). 특히 현재의 기술원 제도로
는 매춘여성을 상담하고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성매매 지역
에 민간단체들이 소규모로 센터를 운영하여 활동하고, 정부는 민간단체
들이 할 수 없는 의료지원, 심리치료, 정신질환치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 기술원과 같은 격리수용은 알
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대법원회의, 1996c).

또한 기술원의 법적 근거가 되어 온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이 제기
되었다(대법원회의, 1996b, 1996c). 대법원에서는 보사부가 마련한 개정
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법원회의가 문제삼은 부분은

25) 기술원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하여 김현진(1996) 참조.

법의 관할 지체가 성자별 매춘소속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과 개정
안이 기술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점이다.
특히 기술원의 인권보장 조항도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구체
적인 내용과 이를 어길 때의 처벌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선언에 그칠 뿐
임을 지적하였다. 대책위는 개정안에 봉제나 미싱, 수예 등의 자일금 기
술교육의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직원자의 규정에서도 비전문가
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술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대책위의회, 1996c).

방화사건 이후 국가의 매춘여성 정책은 혼란에 빠지고 소강상태에 돌
어갔다. 기존 제도의 문제가 드러났으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방화사건 이후 기술원은 경기도여성발전센터로 바뀌었다). 한편,
이런 국면은 매춘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논
의로 이어졌다.

방화사건 이후 성매매와 '요보호 여성'의 문제에 처음으로 눈을 돌린
여성운동단체는 인천여성회였다. 인천여성회에서는 매춘여성 문제
가 여성운동의 이슈가 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들을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자매들의 울타리에 들어
오게 하자는 취지로 '매매촌 모론회'를 개회하였다(인천여성회, 1993).
성매매 문제가 언제나 매춘여성을 대상시키는 지식인들에 의해
서 다루어진 점을 극복하고자 매춘여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역설해 줄 논자를 구하여 모론회를 개회하였다. 모론회는
이후 몇몇 매춘여성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직 매춘여성과 현장운동
가가 참여하여 매춘여성들의 삶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다.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개정법에 대한
여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²⁶⁾

4. 법 개정운동과 합법화논쟁

1961년에 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통
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회악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윤락행위방지
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는 이듬해인 1962년 4월에 '인신매매금
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했다.
(김철준, 1996: 90). 이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정부의 정책
은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이라서 성매매를 근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조
장,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운동

방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애매한 법조항으로 인
해 여성들이 강제로 인신구금을 당하는 현실이다. 하에 언급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같은 매춘여성 수용시설에 매춘여성 '요보호여성'들을 강
제 입소시킨 것과 관련해 위헌시비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
권유린 문제가 제기되었다. '상습적인 윤락행위자나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는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보호지도소 등에 임시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매춘
여성은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들도 강제로 수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강제수용된 여성들이
'영장 없는 사실상의 구금'이라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춘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동아일보》 1994. 4. 6).

26) 광주여성회전환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도 개소 2주년을 맞아 기념강연회 '성
소녀 성 문제의 이해: 10대 매매촌 및 성폭력 가해자 심리를 중심으로'를 개최
하였다. 이 강연회에서 현장활동가 변리나가 매춘여성 일련의 생활에 대해 강
연하여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었다(광주여성회전환부설 광주성
폭력상담소, 1997).

또한 방지법은 처벌규정이 타 법령에 비해 약할 뿐 아니라 성매매에 참
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차별적이다. 중간 착취자에 대
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며 매춘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규정이 미흡한 것
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처벌 규정의 미흡함과 성차별성으로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법
은 있으나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방지법은
매춘여성의 인권유린을 조장하고 성매매를 더욱 음습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오랫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여연은 기관지인 <민주여성>에 '민족자주화와 여성운동'이라
는 특집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매춘여성안을 범죄자 위
급하는 방지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따라
야 성매매는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령의 명칭 역시 '매
매촌 방지를 위한 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민주여성》 3: 17).

교여연은 매춘여성들의 호소와 증언을 근거로 1988년 기독교여성선
언문에서 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였고 '윤락행위방지법개정연구모임'
을 여성운동단체, 국회의원, 현장 실무자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적으로 구성하여 1988. 10. 16) 개정의 필요성, 내용, 시기 등을 논의
했다. 1992년 한소리의 실무자 간담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매춘여성들에 대한 관리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태
데건이 모아졌다(교여연 <20차 총회 보고서> 1991~93). 교여연은 현
행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한소리의 회원을 대상으로 방지법 개정
을 위해 작업여성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1993. 2~1994.
3)(김기원, 1996). 인천여성회전환부도 상담을 통해 성매매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1994년에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 인
신매매 및 합법문화가 실행하자 이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는 국
민 여론이 거세졌고 보사부는 법률 개정하여 방지대책을 강화할 목적으

로 독자적인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다소 보완한 면도 있으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중적인 성운라 기존의 적용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김영일, 1989, 1990). 한편 보사부로부터 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여성개발원은 보사부가 단독으로 개정초안을 마련하자 나름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매매를 방지법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하여 보사부에 송부하였다(1989, 7).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적고 보수성이 강한 권력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김영일, 1990: 92).

몇 년 후 보사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1994). 보사부는 매춘여성을 강제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호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1994, 7, 6). 이 날 공청회에서 보사부 관계자는 '윤락행위자에 대한 선도보호를 추가해 사회복귀법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여성신문> 1994, 7, 22). 이 공청회에서 남성 토론자들은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이들은 금지 정책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를 윤성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차라리 금지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하여 이를 철저적 관리 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성 토론자들은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개정안에 깔려 있는 성차별적인 사고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을 파는 자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선도도 필요하므로 남성 손님도 선도시설에 입소시켜 사회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1994, 7, 8). 이러한 공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단독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1993년 1월 3일 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어 1993년 11월 30일에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1996년 1월 3일

에는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새로 개정된 법의 특징은, 성매매 규정과 처벌의 강화,²⁷⁾ 성매매 행위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²⁸⁾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의 강화를 들 수 있다.²⁹⁾ 또한 개정법에서 성매매 행위자의 선도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이 강조되었다. 즉 매춘여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시설에 입소시켰으나 개정법에서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몇 가지 발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방지법은 성매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법 개정 이후 여성계는 이 개정이 성상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법이 소규모 합법업소에만 타격을 줄 뿐 오히려 윤성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의 시각을 표명했다. 법 시행 이후 인천여성회전회, 한소리리, 대매연은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법실행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1996, 2, 16), 무태방도 개정된 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무태방, 1996: 77-86참조).

문제로 지적된 개정법의 한계는 첫째, 법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윤락 행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둘째, 법의 목적이나 금지 행위, 선도 보호자 등에서 이중적인 성운라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를 '성을 파는 행위'에 국한하고 남성 손님을 '상대자'로 규정하여 성매매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개정된 방지법에서도 매춘여성만이 '윤락 행위자'이고 '요보호자'이며 처벌 대상자라는 것이다. 셋째, 여전히 법의 유형과 처벌 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성매매

27) 성매매 행위 당사자들에게는 개정 전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과로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28) 조주,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29)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와 관련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넷째, 매춘여성을 선도하는 데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 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매춘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그 밖에 미성년자에 대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가중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계는 또한 법 개정시 매춘여성들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된 것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법을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인식과(신혜수, 1993: 34), 법적인 장치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일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안일함과 부패가 너무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윤영애, 1996a: 14).

여성계는 법이 성매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윤락 행위'로 보는 개념 규정을 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가 '윤락 행위'로 개념화되면, 탈매춘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예숙, 1996a: 43). 여성계는 또한 매춘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 그리고 성매매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로우, 펌프, 업주, 인신매매업, '기동서방'도 당연히 '요보호자'로 규정되어 선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이 매춘여성에 대한 중간착취구조의 단속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매춘여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과 세이프 및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그리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피폐화산업체제를 근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 운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법에는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방안으로 상담, 재교육 등 여러 관련 조항이 들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비하고 오히려 '처벌'조항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여 처벌보다 매춘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재활, 사회복귀 대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원미

혜, 1996a). 이 때 여성운동단체들이 이제까지 해온 매춘여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국가가 높이 평가하고 활용해야 한다(정희진, 1999).

법 개정 직후 서울 시내만 해도 80여 곳이 문닫을 정도로 손님이 줄었고 장을 써는 여성도 수두룩할 정도여서 개정법이 실효를 거두는 듯했다(중앙일보> 1996, 1, 7). <한겨레신문> 1996, 3, 11). 그러나 이는 처벌을 강화한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뉴스에이저> 1996, 32-34). 몇 달이 지나 단속도 형식적인 것만에 그치고 남성 손님도 거대한 밀금형의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정법은 다시 사문화되기 시작했다. 개정법으로 일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 행위를 '범죄'라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없다면 법도 의미가 없다. 강화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개정법을 실효성 없는 법률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제재처벌과 규제주학적 요소의 혼합을 유지하고 있다.³⁰⁾

2) 성매매 정책 논의

개정법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여성운동단체 및 성매매관련단체는 매춘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여론화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인천여성회전회, 한소리리, 대매연은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매춘여성의 현실 및 민간단체들의 지원상황,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정안의 운영방향,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1996, 4). 이 토론회는 매춘여성의 인권을 처음 공론화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북쪽자신문> 1996, 5, 4).

30) 한국여성민우회는 개정 방지법시행 이후 개정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1996). 조사결과를 11월에 열린 윤락행위등방지법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하였다(한국여성민우회, 1996a).

토론회에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전문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매춘여성들에게 삶의 대안을 확보해주지 않고 '일반'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한겨레신문> 1996. 4. 27). 한국여성민우회는 '매매촌 일선, 그 실태와 진단'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1996. 8) '매매촌 실태와 그 동기', '매매촌 원인분석과 대책', '매매촌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매매촌 제계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의 법적·제도적 실태와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국여성민우회, 1996a). 교여연도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지 문제를 위한 대책, 매춘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청소년 가출예방과 사회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1996. 12)(교여연, 1996b).

일련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정부 정책의 성차별적 이중성이다. 또 내용적으로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³¹⁾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이 법을 만들고도 시행령은 8년이 지나서야 만들었고 시행규칙은 이 법이 개정된 1993년까지도 만들지 않았다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처벌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금지와 허용(특정 지역에 대한 법집행 보류, 보전을 제도, 관습, 정책 및 선도, 보호정책 등 불법적인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중 정책은 매춘여성에게 대한 처벌과 성매매에 대한 묵인으로 귀결되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매춘여성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사부가 실시하는 상담과 상담권한 등 치료서비스를 받은 이른바 '등록'된 매춘여성들이 어느 날 단속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박정순, 1994: 64-72).

이같은 현실에서 토론회들이 내놓은 대안은 첫째, 매춘여성들과 가출

31) 성매매 문제가 정책적으로 양치되어 있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조영·장영희, 1996: 87).

소녀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춘여성들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화하며 인권침해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한 상담시설을 확충하고 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을 사는 남성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 고액영단을 직장에 통보하거나(신해수, 1993: 34), 남성 수요자들에게도 수용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윤영애, 1996b: 34)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매춘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착취구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춘여성이 그 구조에서 나왔을 때 입구에 대한 처벌과 이후의 단속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입구와 경찰의 밀착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목단회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실행할 의지, 즉 복지서비스의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합계하는 교화여성> 27: 6). 또한 여성인권에 민감한 검찰과 경찰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3) 합법화 논쟁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안으로 성매매의 합법화가 논의되었다. 성매매 합법화란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국가가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지법 자치에 대한 완전부정이다. 이 대안은 여성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³²⁾

합법이 1985년 여성리전회에서 '인신매매를 고발한다'라는 공개토론회를 열었을 때도 합법화 논쟁이 있었다. 공장을 인정해 자라리 생활보장이라도 해주는 편이 낫다는 의견에 대해 공장제도를 만들자는 것은 성매매를 장려하는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공격을 약하게 만들고

32)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에서의 성매매 합법화 논쟁에 대해서는 정미혜(1993, 1997)참조.

성매매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이동철, 1985; 지은희, 1985). 공장 논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된 것은 정부측의 개정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였다(1994. 7. 6). 공장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993년 인권여성리전회의 '매매촌 토론회'에서였다. 토론회로 참석한 정치학자 박종성(은 정부의 이중적 정책과 여성계의 '강화된 금지주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며 현실적 대안으로 '시장의 공장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매매촌 없는 사회는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원초적 본능을 생화학적으로 통제하거나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한 매매촌 없는 사회를 구상하기란 쉽지 않고, 또 과거의 무리무리한 단속이 주는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무책임하게 회피할 수단은 없다'는 이유에서 '대안적 공장'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안에는 성매매를 공식적인 '직업의 일종'으로 인식할 것과 직업으로 인정받은 매춘자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권과 경찰력이 인정·보호·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이 포함된다(박종성, 1993).³³⁾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신해수는 합법화될 경우 불명치 생기게 될 무허가를 둘러싼 경찰의 착취구조와 합법화의 반(反)인권해당성을 들어 공장제도를 반대하였다(신해수, 1993). 이 토론회는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개정 이후 성매매가 더욱 확산되자 공장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시작되었다. 성매매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꼭 그제 한쪽 귀퉁이에 보이지 않게 자리잡아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여기저기서 나왔다(<뉴스이커> 176: 34). 공장 논쟁은 교여연이 1996년에 개최한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재연되었다. 매춘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제한 다비다공

동태대표 권무심은 인간의 본성이 악한 이상, 자본주의적 물질만능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선은 성매매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실성 없는 정책을 과감하게 없애고 발전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심스럽게 '매매촌 실험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애는 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고민하는 현장활동가로서 합법화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선택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합법화가 성매매 시장의 감소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윤영애, 1996b).

'합법화' 주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연구하는 여성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손학수는 성매매의 전면 통제는 최 종목표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성매매의 부분적 허용, 즉 '일정한 국가관리'라는 조건에서 '공장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길만이 과도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손학수, 1996). 한국여성개발원도 전통형뿐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에서도 여성의 몸을 매개로 이와 관련된 제반 기관과의 착취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합법산업에서 착취당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합법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46).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소리회는 이러한 합법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매춘여성을 둘러싼 착취구조와 인신매매 등을 불식시키기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착취구조를 발달시킬 것이 분명하며 또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매설'구조를 정당화하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도덕적인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한소리회> 1: 6).

그렇다면 매춘여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매춘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이 탈매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들이 성매매를 하면서도 착취당하지 않고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으며 탈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

33) 박종성은 이런 논의를 '매춘사회 한국의 비장구 안을'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1994: 293-313). 개정 양지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의 '합법화 대안'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1996: 317-373).

해서는 성매매 행위가 비범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성운동가, 여성연구가,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신혜수, 1993: 33; 원미혜, 1997: 100-107; 정연순, 1998: 32).

3. 성매매를 여성 문제로 바라보기

1) 성매매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

여성학에서 성매매에 관한 논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다. 1983년 이화여대에 여성학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성당론이 활성화되었는데도 성매매에 대한 논문은 문학작품 분석을 통한 연구(김미경, 1987)와 한국 근대 공창제도에 관한 연구(아사다 영에, 1992)가 있을 뿐 현장연구를 통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이루어졌다.³⁴⁾

성매매에 대한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은 여성학에서 진행되어 온 성당론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여성학회가 '한국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1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989년 제3회 학술대회에서 이영자의 '성일탈과 여성'이 발표되어 처음으로 성매매의 문제가 가부장제의 이종적 성윤리의 문제로 접근되었다(이영자, 1989). 또한 성매매의 문제를 한국의 성문화 특히 남성의 성문화를 통해 조명 한 연구논문이 장필화, 조형에 의해 발표되어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공고히 했다(장필화·조형, 1991). 조형은 자본주의에서의 남성지배문화 위기의 문제로 성산업과 합작산업의 변성을 설명했다(조형, 1993: 42). 이러한 일련의 여성학자들에 의한 담론 형성과 더불어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1, 2차에 걸쳐 진행한 아시아여성학회

34) 성매매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와 성매매 정책에 관한 사회사업적 측면의 연구는 있었다(장영수, 1989; 박연숙, 1990).

교수는 성매매운동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³⁵⁾

여성학계에서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원미혜의 석사논문(1997)을 통해서이다. 원미혜는 성매매운동론에 반대하는 현실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춘여성의 탈매매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춘여성의 현실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착취구조를 분석하였다. 이효화(1998)는 유류업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10대 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의 성매매가 왜 심각하게 반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들이 유류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지속적으로 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유입 혹은 재유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논문은 성매매의 문제가 매춘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여성 일반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두 논문은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춘여성을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상황과 10대 여성이 성적인 존재로 남성들간의 협상과 매매의 대상으로 상품화되고 비하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성매매 문제가 여성 일반의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매매연과 여성 문제로 성매매 보기³⁶⁾

이런 여성주의 맥락에서 성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화여대 여성

35) 제1차 워크숍은 '여성-성-간접'이라는 주제하에 이효화와 성매매에 관한 국내 학자들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996. 8. 31). 이 워크숍에서 원미혜(1996a)와 원미혜(1996b)가 성매매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제2차 워크숍에서는 앨리슨 페거(Allison M. Jagger)와 앤 페거(Ann Ferguson)의 '매매권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 시각'과 '도덕적 위험부담, 매매권'이라는 강연을 했다(1996. 11. 2). 36) 이 부분은 원미혜, 이효화의 인터뷰, 매매연 소식지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보도된 신문기사에 의존하였다.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현장활동가를 만나고 성매매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그동안 '특정 일에서의 여성학'이 얼마나 관념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매춘여성들의 문제가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 가족 등의 문제가 얹힌 여성 문제의 결정판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매매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혹은 '매매권 여성들이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한' 다른 그 어떤 여성 문제의 해결도 잠정적이거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 '매매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이하 매매연)가 결성되었다.³⁷⁾

이들은 1대 1로 여성들을 구제하는 방식은 매춘여성 하나를 탈매매하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성매매 제재와 조치가 전제하는 이상, 아니 여성억압이 존재하는 이상 성매매 문제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제도'에 대한 도전'을 운동방안으로 채택하였다(〈매매연소식〉 1: 4). 매매연의 중요한 화두는 매춘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성매매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매매연이 정한 목표는 크게 성매매 문제 공론화 및 올바른 관점 정립, 매춘여성의 존재 부각 및 이들의 삶 재조명, 성매매 문제를 통한 여성인권 재조명이다.

매매연의 활동은 실천과 학습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 면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시 막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방지법이 다시 사문화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 회를 개최한 일이다.

매매연의 실천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언론활동이다. 매매연은 인식의 변화를 문제삼지 않는 현재의 성매매 논의를 비판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대폭모세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

은 이 사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여성의 언어로 담아내는 일에 착수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저항의 시발로서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담론을 비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매매연소식〉 1: 9-14).³⁸⁾ 또한 TV와 신문의 10대 성매매와 성산업에 관한 보도를 모니터하고 각 신문에 문제점을 투고하였다. 언론보도가 문제의 초점을 성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돌리고, 성매매를 청소년탈선 문제로 규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가족의 문제라는 사회 영역으로 귀결시켜 버림으로써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가부장제의 지배체제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사회에 알리려고 하였다(〈매매연소식〉 1호: 4호). 이 밖에 매매연은 각 대학의 여성학 강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매매권에 대해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한소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1999. 2. 26)(한소리회·매매연, 1999).

실천 결 이론과 작업의 일환으로 이들은 현장을 답사, 현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성매매가 사건화되어 사회문제화될 때마다 현장미아리, 가리봉, 원효동 등)을 방문하여 업주, 종업원, 관제 공무원과 경찰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합리하거나 격려 지지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는 보도가 나면(동두천, 대구의 자갈치당, 이태원) 그 지역의 상황과 여론을 조사해보기 위해 직접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공무원, 경찰, 상가연맹회, 지역 신문기자, 동두천 시민회, 일반시민 등을 인터뷰하면서 폭구로 지정되지 된 매경, 지역의 여론 등을 수집하고 합의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매매회·정글나, 1997).

38) 이 외에도 〈한겨레〉(2007. 3)의 동두천 외국인 살해 매춘여성에 대한 기사와 신정경 보도와 〈매일경제신문〉(2007. 4)의 '매춘가려와 신당골에 대한 비교론'에 문제를 제기하여 독자투고를 보내는 등 합리했다. 원효동 단속에 대해 그 실효성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신문의 보도에 앞서 인터뷰(〈문화일보〉·MBC 아침뉴스)를 통해 지지 발언을 했다. 또한 10대 여성이 성매매를 보도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에 여론화하였다(〈한겨레신문〉 1998. 7. 22).

37) 이 모임은 1996년 1월 10일 '매매권을 재정의하는 모임'으로 시작하여 다섯 번의 모임을 거쳐 여섯 번째 모임인 3월 7일에 '매매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로 공식적인 명칭을 정하면서 출발하였다. 매매연의 결성배경에 대해서 〈매매연소식〉 1호를 참고하였다.

연구책임으로는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의 학술제에서 성산업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1998. 10) 성매매에 대해 급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의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New York Univ. Press, 1993)를 번역(미간행)하였다. 그 밖에 성매매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세계기독교학생회총연맹(WSCF),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소속 일본, 대만, 홍콩 등 여대생들에게 한국의 성매매 현실과 대우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 회원들과 자국의 현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들과 함께 성악리 사정가를 방문하였다(1998. 11. 10).

처음에는 현장학습 및 인문캠프 등을 계획하고 실제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재는 대학원생이 주 멤버인 모임의 한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맞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제3세계 실태에의 인식제도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기존의 운동단체에 비해서는 소규모적이지만 실재에
근거를 성별 관점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 성태에 대한 습관적
언어, 사고에 대해 도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의 '필요와
신회'와 '자발적 선택 신회'에 대한 이들의 투쟁은 기존의 여성권, 기존
의 성과 남녀관계에 관한 규범을 뒤흔드는 것이다. 또 이 모임은 성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성장연의 확대의 선례 제공가능성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다양해지고 광범위화되고 있다. 이랜드 회사나 결혼상담소를 가장한 성매매, 타택다발, 전화방 성매매, 고속도로 성매매, 보도양을 통한 성매매 등 끝없이 전개되는 성매매는 밤을 피우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여성들과 10대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90년대 후반에 성매매규제다론했나 여객운수다론했기 병

인 성매매 반대활동을 살펴보면 1996년에 한소리회, 교여연,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가 피폐와 할라몽초의 은상 지키달 국제전화에 대한 반대 집회 등의 활동을 벌였고 교여연이 을살통식 단란주점 '프라자'의 유해 전단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몇 년 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10대 여성 성매매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어성민우회는 1998년 12월 초에 '10대 매춘 근절을 위한 거리 퍼포먼스'를 지하철역에서 3회에 걸쳐 진행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10대 성매매의 심각성과 근절의 시급함을 알렸다. 한국어성희생전화연합도 할라몽초에서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1998년 성폭력주방주간에 전국 14개 지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¹⁰⁾ 한국어성희생전화연합회는 '가을청소년 불법고용업소'와 불법고용업체 고발문화 확대 캠페인'을 교회들 대상으로 전개했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도 1999 IMF시대, 할라몽초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연속모임회 '10대 매춘 상대자 신상공개'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1999. 3. 30). 이 모임회에서 '10대 매춘 상대자' 신상공개와 필요성과 아들에 대한 위국의 서명 사에,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 10대 성매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매매반대운동은, 성매매관련운동단체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활동의 대부분이 국가주도 청소년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계획되거나 후원되었다. 따라서 1990년 후반의 성매매반대운동에 대한 평가는 국가주도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학교 주변의 폭력과 음독환경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주도 "자녀안심학교안전환경조

1991 열매의정당, 강릉, 대구, 부산, 서울(경서, 경원), 전주, 인천, 익산, 거제, 벽포, 연수(영광), 진행(진안)을 시한대로(총계 10명) 거제현시 및 문화방송(합계 10명)가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물'(1997년 9월에 출판, 이하 자녀안심운동)과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정보위)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자녀안심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주위의 위험 유해업소를 점검하다 10대 여성들이 합락업소의 대저 물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사랑가 배역』가 선언되는 등(1997. 9. 29) 국가에 의해 10대 성매매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다.⁴¹⁾ 정보위도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이하 성문화대책위)를 발족하여 정부의 ‘10대 매춘과의 전쟁선포’ 연장선상에서 10대 여성들의 합락산업 유입에 관심을 갖고 10대 여성 성매매 근절운동을 전개했다(1998. 9). 성문화대책위는 한 달에 한 번의 ‘IMF시대, 합락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이하 딸아들지키기운동) 연례 포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딸 아들 사고라는 합락문화 추방 선포식”을 열고 ‘아버지 감시단’을 결성하였다. 구체적 성문화 추방에 앞장설 것을 선포하고 유종업소의 10대 청소년 고용행위를 적발해 당국에 신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8년 9월 ‘가출, 음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 설치법 과국회법’이 통과되었다.⁴²⁾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전면적인 상태에 근접한동으로 보기에 한계
가 있다. 먼저 국가에 의한 '사랑가 패쇄' 조치는 주대상인 주체가 밀집
지역이라는 점, 물기가 가을철소년 찾기에 있다는 점, 순찰활동방지법
보다 '식물위생법'이 적용되었던 점, 또한 성가래가 이루어지는 일수에

4) 10대 청소년들의 성취에 한계에 대해서 이재준(1998a, 1998b), 이희경(1998) 등도

43) 1997년 10월 서울 신집동 일대 사망자를 일제 탄축, 관인 업소를 폐쇄시켰다. 경찰의 이런 조치 외에도 몇몇 경찰서와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안에 있는 사망자 폐쇄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사망자 폐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의 소위 "다섯다방" 탄축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육천정에서는 18대 청소년들이 빗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섯 다방 길가에 나뭇대감자와 서양귀비 심었다.

42) 이 단체의 목표는 가톨릭 정신에 따라 가톨릭소녀를 보호하고 중장기 원도보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 학교 등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소년원은 18대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톨릭소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성산원에 유입된 여성을 '문화 청소년'로 개념화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호표, 1998b).

대한 단속만 할 뿐 단속 후 10대 여성에 대한 사후 조치는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매체연소식》 3: 4). 또한 팔아들지키기운동도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10대를 팔과 아들로 명명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 부모와 가족의 피보호자로서의 10대 양육과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10대를 설정함으로써 '여성 문제'가 아닌 '청소년 문제' 혹은 '가족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이효희, 1998b).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 광범한 가족 이기주의에 호소하며 오로지 가족의 보존과 아들, 딸의 인양에만 관심이 있고 매춘여성 일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국가주도의 자녀양육운동과 팔아들지키기운동은 공통적으로 삼킨 상태와 10대 상태와를 분리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이 운동들이 가진 상태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운동단체의 활동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기존 여성운동단체들이 진행한 행사들은 국가 주도 10대 살때에 근절운동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살때에 문제에 대한 전지한 고민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프로젝트를 받아 한시적으로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단체들의 '중산층적' 경향은 10대 매춘여성 문제를 살때에 문제보다는 자녀 문제로 이해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받아들여지기운동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한 10대 성매매 근절운동 과정에서 다시 고개를 쳐서 시작한 문장 논의와 가족 이해운동으로 인해 이 운동들이 전개되는 동안 매우 여성의 인권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이 기간에 성매매에 관한 어떤 아젠다도 없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가 주도 운동은 그동안 어렵게 성장해온 성매매반대운동을 어떤 면에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 10대 선행에 큰일을들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자녀안심운동의 사활가계로 조차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 단속에 감률이 나선 것은 어떤 이 처음이고 이 운동에서 일한 검사들이 매춘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 경찰서장의 단호한 의지가 '그 화려했던 도사(전호장)를 압축으로' 바꾸어 버린 것. 자나가던 남자에게 신분증 감사를 한 것 등은 국가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실증이 되고 있다. <매매연소식> 3: 1-43. 둘째, 이런 단속이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매매연소식> 3: 73. 셋째, 이 운동으로 특정한 10대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고 10대 남성들도 10대 여성 못지 않게 성산업에 (주로 '메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문화대혁명위원회가 찾아들지키기운동은 이미 자녀안심운동으로 사회화된 10대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를 한층 더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비록 10대 청소년에게 한정되긴 했지만 성을 사는 성인 남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었다는 것도 큰 변화이다. 전에는 남성 손남에 대한 비난이 없었는데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영재같은 남자들에 대한 비난이 공공연해진 것이다. 합법산업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이 운동으로 여성단체가 10대 매춘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의 활동으로 10대 성매매에 대한 여론화가 활발해졌다. 따라서 비록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성매매에 연루된 집단의 다양성과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0대 성매매 문제의 여론화는 다른 집단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성산업

43) 어느 주부 대장 상담원교수장에서 성매매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성매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주부의 반응이 활기를 띠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화된 10대 성매매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이회희와의 인터뷰 중에서).

의 확산과 국가 주도의 10대 성매매 근절운동은 성매매반대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발전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6. 성매매관련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금까지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성매매관련운동의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이 시기 성매매 운동의 흐름은 크게 세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성관방반대운동과 인성매매반대운동이고 두번째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컨소리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매춘여성인권운동이며 세번째는 성매매를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매해연의 성매매반대운동과 여성학에서의 논의이다. 첫번째 물결은 70~80년대 활발히 진행되다가 90년대 들어 두번째 물결과 합류하여 현재는 두번째 물결이 성매매반대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30년 동안의 성매매반대운동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현상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또 가부장제의 성문화의 문제로 이해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법적인 통제와 사회적 낙인으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사회적 단절 속에 살고 있는 매춘여성들의 입장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또한 운동의 전략 지점이 정부, 성매매 구조, 남성 손남, 매춘여성 등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제나 대중의 인식은 아직도 매춘여성을 '문화적상'으로 부르면서 성매매 문제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아직도 성매매와 매춘여성들의 이슈는, 10대 매춘여성을 제외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점은 성매매가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문제

44) 김혜숙(1996)은 남성들이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강요과징에 서의 남성이 살인 내지 과징을 묻지하여 이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시도했다.

삼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여성 문제로서의 성매매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가 은폐된 가운데 매춘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질지 없다.⁴⁵⁾

성매매 근절과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과제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인 논제도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성매매반대운동은 성매매의 심각성에 비추어, 또 여성운동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부진한 편이다. 1970~80년대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중심으로 당시의 반정부투쟁 분위기 속에서 크게 일어났는데 90년대 되서는 여론화작업이나 대정부활동 측면에서 활발하지 못하다.

성매매가 점점 더 광역화, 일상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운동이 재조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기존의 활동을 재검토하고 성매매에 대한 정책과 운동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운동이 재조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매매 이슈가 워낙 복잡하고 해결을 위해 사회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해결은 마치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정현숙, 1998: 19). 이와 더불어 성산업의 확산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져 여성들의 운동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이다. 더구나 남성 성문화에 대한 도전은 불가피하게 남성과의 투쟁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성매매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주체에 계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들은 모두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운동의 지속을 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45) 이 보고를 막 하루의 지을 즈음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15명의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폐쇄적인 운영과 가혹행위 및 비인간적인 대우에 불만을 품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들을 주축로 집단 항동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1999: 5).

재정적 자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90년대 들어 사업의 중심을 평화통일운동으로 옮기면서 성매매 문제는 주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관련운동단체들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대사회적 교섭력에서 다른 여성운동단체에 비해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인 매춘여성 자신들이 사회적 낙인·정신적·육체의 상처로 인해 운동의 주제로 나서기가 어려운 뿐 아니라 너무 소외되고 주변적이며, 존재 자체가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드러나기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성매매반대운동은 다른 운동과 방법과 있어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운동가와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피해자가 너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여성운동과는 달리 운동단체들이 운동의 대상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성매매운동이 활성화되기 힘든 요인이 되고 있다.

성매매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기존의 여성운동단체가 성매매 문제나 매춘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에 대한 운동도 토론의 수준에서 머물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이연, 1998: 178). 여성운동단체의 운동영역이 80년대의 노동, 민족, 민주회에서 90년대 성, 가족 문제로 확장되긴 했지만 아직도 주변적인 여성그룹(매춘여성, 동성애여성, 장애인여성 등)의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만 갖기 가지고 있을 뿐 실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심'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몸을 사고 파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당위적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혜수는 '여성운동의 그동안의 성과에 비하여 매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 때문에 이에 뛰어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일성적인 일부 활동가들의 운동에 의존해왔다'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신혜수, 1996: 15).

이 분야의 운동이 재조한 것에 대해 여성운동권 내부의 반성이 요구

된다. 즉 일단 보고 알려진 여성운동단체들의 성과 위주의 활동, 80년대 노동운동의 활동, 대중성 확보라는 부담 속에서 '대중적이지 못한 이슈'를 피하려는 경향, 중산층 회원의 눈치 보기, 여성운동가 스스로 매춘여성들 '여성' 범주에서 소외시키려는 경향 등이 특히 작용하지는 않았나 만성이 될 시간이 된 듯하다. 이런 끝에 불 번지듯 확산되어 가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여성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인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며 그동안 힘들게 이룩해온 여성운동의 성과가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매매는 점점 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침범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30년 운동의 전통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이슈를 개발하고 대상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성매매관련운동단체의 활성화와 기존 여성운동단체의 성매매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이 두 단체들의 협력과 그리고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성매매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촉구하는 다음 글을 인용하면서 성매매 근절의 희망을 나누고자 한다.

'매매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전지구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끝없는 노력들은 매매춘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매매춘소식> 4: 40).

참고문헌

- 김영수 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부산의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도 가정복지과 1993,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현황과 회계장부 및 조직사항',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1993.

-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대책위원회 1994, '사건일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 1996a, '경기도여자기술학원회계사건 현장방문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 1996b, '보건사회부 합계장부 및 국장현장 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 1996c, '결과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경기도의회 보건환경위원회 1993,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회계장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1993.
고미리알 1994, '매매춘과 여성인식대배',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한소리회, <한소리회 매춘여성과 함께한 10년>에 재수록.
광주여성성취전파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1997,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 10대 매매춘 및 성폭력 가해자 실태를 중심으로'.
김기원 1994, '매춘여성 사회재활을 위한 정책적 제언 윤락행위방지사업 개정을 위한 매춘여성 실태조사 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김기경 1987, '매춘을 통해서 본 성문제구조 일고찰 윤락자를 분석을 통하여', 이화여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필현 1989, '윤락행위방지사업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여성> 8호.
—— 1990, '윤락행위방지사업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4권 1호(통권 26호).
김재숙 1994, 11/12, '부채중인 성문지기 박달달한 인간', 한국여성성취전파, <여성들의 눈으로> 7호.
—— 1996a, '매매춘을 위하여 매춘여성 입장에서 바라본 방지법', 단국여성민주회, 정책토론회 2 <전안 윤락행위방지법>.
김정순 1994, '최후변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김현진 1996, '경기여자기술학원 회계사건을 통해 본 매춘여성 문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무재영 1996, '윤락행위방지사업의 문제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사업.
문경현 1989, '이근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참고문헌

- 문경현 1994,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 한소리회, '한소리회 매춘여성들과 함께한 10년'.
민가영 1998, 10, '동우회의 '동우원'을 본다', <매매춘소식> 4호.
박관숙 1990, '여성의 성성(sexuality)을 중심으로 본 매매춘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미간행).
박정은 1994,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42, 통.
박종실 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 1995, '한국의 정치권력과 매매춘시장: 비상구는 보이는가', 인천여성성취전파, 매매춘토론회 자료집.
—— 1996, '연화와 매춘', 인간사랑.
백재희-정금나 1997, 4, '관공학구 지점을 통해서 본 국가정책의 여성억압적 성격: 경기도 동우원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매매춘소식> 2호.
변라나 1994, 8, 31,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원의 아시아여성학리크숍 자료집.
손덕수 1987, '성산업: 제국주의의 희생자들, 동남아 매매춘판정의 실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3집 '매춘 문제와 여성운동'.
—— 1998, '산업사회에서의 합법산업과 매매춘, 대구포성가톨릭 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여성문제연구> 제23집.
수원지방법원 1990,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현주전조물방화 사건 95-787호,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110호형사대법정, 1996, 1, 29.
신재수 1993,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매매춘 문제', 인천여성성취전파 매매춘토론회 자료집.
—— 1996,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책',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춘여성들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야마사다 정미 1993,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원미희 1993, '한국매매춘의 합법화논의에 관한 소고 매매춘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인천여성성취전파 매매춘토론회 자료집.
—— 1996a, 인터뷰 <한겨레신문> 1996, 3, 11.
—— 1996b, 8, 31, '한국 사회의 매매춘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원의 아시아여성학리크숍 자료집.

- 1997, '한국 사회의 매매춘에 대한 통계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999,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현용), '매춘일지하강의', 통년.
윤성애 1994, '한소리회와 매매춘', 한소리회, '한소리회 매춘여성들과 함께한 10년'.
—— 1996a, '매춘여성을 위한 정부 인간단체의 현실과 전망',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춘여성들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동철 1983, '사태발표: 인간매매의 유형', 여성성취전파 공개토론회 보고서, '인간매매와 매춘여성'.
이미경 1987, '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3집, '매춘 문제와 여성운동'.
—— 1998, '청소년의 매매춘 현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가출소녀와 매춘여성에게 열린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
이영자 1989, '성산업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3집.
이옥경 1996, 12, 3, '매매춘현실과 교회여성의 책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성취전파 공동주최 강연회 '교회여성의 사회적 책임'.
이우경 1983, '다름이 평화롭게 사는 사회', 한국여성성취전파, 공개토론회 보고서, '인간매매와 매춘여성'.
이재순 1998a, '합법산업의 청소년 고용실태와 합선 매개고의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제1차 IMF시대 합법산업으로부터 말 아물지 않기 연속토론회(1998, 9, 23, '청소년을 사고 파는 합법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 1998b, '가출소녀 매매춘 현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소식, <함께 가는 교회여성> 가을.
이현숙 199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1996, 9/10, '성을 유린하는 국가정책에 대항하여 관공정책과 여성', 한국여성성취전파, <여성들의 눈으로> 4호.
이희희 1998a, '10대 여성의 성폭력서비스 경찰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유류업소 경찰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998b, 10,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10대 여성: 어떻게 도울 수 있는나', <매매춘소식> 4.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원 1996, 8, 31, '여성-성-전망, 아시아여성학리크숍 자료집.

- 인간여성지전환. 1993. 매체론 토론회.
- 장필화·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 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8집.
- 재거, 엘리슨-앤 피거슨. 1996. '매체론에 대한 여성학의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 정연순. 1998. 11. 3. '매체 여성의 탈매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 문제점과 어려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가톨릭소녀와 매체여성에게 열린전환 1주년 기념토론회.
- 정준숙. 1996. '윤락행위방지법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민주회, 정책토론회 2. '집단 윤락행위방지법'.
- 정현숙. 1998. 11. 3. '열린전환 1주년 실태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가톨릭소녀와 매체여성을 위한 열린전환 1주년 기념토론회.
- 조형. 1993. '남성지배문화: 오늘의 위기', <또 하나의 문화> 4호.
- 조형·장필화. 1990.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A. 매체론에 대하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8집.
- 지은희. 1993. '매체의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여성지전환 문제토론회 보고서, '인간매체와 매체여성'.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3. 여성편람 전국 4개 지역실태조사 보고서.
- _____. 1997. '매체 문제와 여성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8집.
- _____. 1988a. '여성과 관공문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_____. 1988b.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공문화'.
- _____. 1996a. 매체론과 윤락행위방지법.
- _____. 1996b. '매체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구를 위한 토론회'.
- _____. 1998. 11. 3. '가톨릭소녀와 매체여성에게 열린전환, 1주년 기념토론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지전환. 1996. <교회여성의 사회적 책임>.
- 한국여성개발원. 1998. '산업형 매체론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단체연합. 1988. '제국주의 성질화와 여성', <민주여성> 3호.
- _____. 1998. '열린전환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민주회. 1996a. '정책토론회1: 매체론 실천, 그 실태와 진단'.
- _____. 1996b. '정책토론회 2. 집단 윤락행위방지법'.
- 한국여성지전환. 1993. '인간매체와 매체여성', 문제토론회 보고서.
- _____. 1998. 4. '윤락죄를 없애고 다시 생각하는 에이즈와 매체여성의 문제'.

- <매물> 26호.
- _____. 1989. 1. '인간매체 무엇이 문제인가 38 우편회 정리와 매체여성 조양한 달력에 찍임 있다', <매물> 3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간매체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한소희희. 1996. '한소희희 매체여성과 함께한 10년'.
- 한소희희. 매체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1999. '여성학 강사와 함께 하는 매체론 워크숍 자료집'.
- 가과 자료, 신문, 소식지, 총회보고서, 잡지.
- <뉴스메이커> 176호.
- <동아일보> 1994. 4. 6.
- <매체인소식> 매체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1~4호.
- <목회자신문> 1996. 3. 4.
- <민주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3호, 7호.
- <매물> 한국여성지전환, 8호, 26호, 34호.
- <여성신문> 1994. 7. 8, 7. 22.
- <중앙일보> 1996. 1. 7.
- <한겨레 21> 1994. 4. 7, 1998. 7. 22.
- <한겨레신문> 1996. 3. 11, 4. 23.
- <한소희희> 매체론근절을 위한 한소희희 1~2호.
- <합계가는교회여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7호.
- <26자 총회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